

국립국어원 2011-03-08

바른 국어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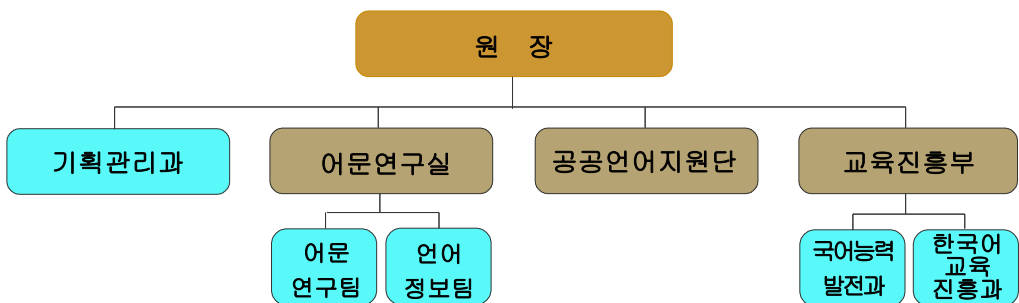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교재

국립국어원 소개

설립 목적

-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국어·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조직



원 장	기획 관리과	서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분석, 국회 관련 업무, 감사 및 사정 업무 등
	어문 연구실	<p>◆ 어문연구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 어문 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 세계 언어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p>◆ 언어정보화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 조사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 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언어와 문자의 전산 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 지역어 발굴 및 연구·조사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언어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 전문 용어 정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교육 진흥부	<p>◆ 국어능력발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 국어 관련 교육 연수 발전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 교육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p>◆ 한국어교육진흥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 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한국어 보급 기관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한국어 교원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2) 가나다 전화(1599-9979, 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정기 수신 요청은 news@korean.go.kr로.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국어문화학교 소개

개 관

국어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인하여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의 신청으로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운 영 목 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운 영 현 황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1년에는 약 1,300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약 3,100명에 이르러 10년간 약 2만여 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2.	국어반과 번역반을 3일간씩 출판인반, 일반인반, 청소년반, 공무원반으로 운영
1999. 8.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5점 가산)을 승인
1999. 10.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국어반 (5일간, 35시간), 번역반(3일간, 21시간) 운영
2000.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2005. 10.	서울방송 신입사원 국어 교육(신입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20여 명)
2005. 12.	법제처 국어 전문 과정 교육(법제처 공무원 22명)
2006. 2.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원 대상 찾아가는 국어 강좌 공동 연수 개최(전국 10개 국어상담소, 상담원 26명)
2007. 5.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국어진흥교육팀 신설.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채용
2009. 5.	직제 개편으로 국어능력발전과에서 국어문화학교 관련 업무 수행
2009. 10.	언론·출판인 대상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1.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2.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운영 시작
2010. 6.	새터민 대상 특별 교육 과정(표준어 교육) 운영 시작

국어문화학교 국어전문교육과정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연 도	과 정	원내 국어문화학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19	1,292	123	15,412
2002년		19	1,452	185	16,970
2003년		16	1,486	157	17,890
2004년		17	1,458	176	16,332
2005년		17	1,765	195	15,655
2006년		18	1,921	190	12,926
2007년		22	2,354	253	19,305
2008년		22	2,443	148	10,275
2009년		27	2,733	297	19,062
2010년		31	3,164	316	27,804
합 계		208	20,068	2,040	171,631

교육 과정 안내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 · 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연습, 띄어쓰기, 띄어쓰기 연습,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공문서 바로 쓰기, 글쓰기 지도, 협력적 의사소통, 우리말 다듬기,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수성, 시청각 학습 등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생활문 쓰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청소년과의 대화법 등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수강하고 싶은 달의 전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문화 등
 - * 강의료는 국립국어원에서 부담하고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함.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을 통하여 현재 ‘한글 맞춤법’, ‘공문서 바로 쓰기’, ‘외국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새터민 발음 교육’ 등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차례

제 1 부 : 어문 규정의 이해

1. 한글 맞춤법	3
2. 한글 맞춤법 연습	35
3. 띄어쓰기	53
4. 띄어쓰기 연습	77
5. 표준어 규정	99
6. 표준 발음법	121
7. 외래어 표기법	137
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55

제 2 부 : 윤택한 국어 생활

1. 우리말 다듬기	173
2. 공문서 바로 쓰기	215
3. 생활 글쓰기	231
4.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	247
5. 협력적 의사소통	273
6. 국어 정보 활용 방법	289





제 1 부

어문 규정의 이해

1. 한글 맞춤법 | 3
2. 한글 맞춤법 연습 | 35
3. 띄어쓰기 | 53
4. 띄어쓰기 연습 | 77
5. 표준어 규정 | 99
6. 표준 발음법 | 121
7. 외래어 표기법 | 137
8.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155





한글 맞춤법

1.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면 아주 어렵고 맞춤법에 맞게 적는 것은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글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1) ㄱ. 바블 마니 머거썌요.

ㄴ. 바블 만이 먹어썌요.

ㄷ. 밥을 많이 먹었어요.

(2) ㄱ. 오시 갑시 비싸요.

ㄴ. 오시 갑썌 비싸요.

ㄷ. 옷이 값시 비싸요.

ㄹ. 옷이 값이 비싸요.

그러나 위에서 보는 것처럼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사람마다 표기가 달라져,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 이처럼 말을 글로 적을 때에는 일정한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 이 약속을 ‘한글 맞춤법’이라고 한다.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다. ‘한글 맞춤법’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2. 한글 맞춤법의 제정 경위

‘한글 맞춤법’의 역사는 19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3년 조선어 학회에서는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을 정리하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고 세상에 공포하였다. 이 통일안은 1937년, 1940년, 1946년 등 여러 번 개정되었으나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광복 이후에도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말도 변하게 되고 제정 당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문자 생활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문교부는 1970년 국어 심의회의 건의에 따라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한글 맞춤법 재심 위원회’를 두어 통일안을 수정하게 하였다. 이를 기초로 1970년 12월에 ‘한글 맞춤법안’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 ‘한글 맞춤법안’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문교부는 이 안을 학술원에 이관하여 다시 검토하게 하였다. 학술원은 이 안을 수정하여 1984년 12월에 ‘한글 맞춤법 개정안’을 문교부에 제출하였다.

문교부는 맞춤법의 개정 문제가 국가적인 사업일 뿐 아니라 국민의 문자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의 여론을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85년 국어 연구소에 ‘한글 맞춤법 개정안’의 검토를 위촉하였다.

국어 연구소에서는 맞춤법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비롯하여 여러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전국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였다. 1987년 4월 ‘한글 맞춤법 개정안’을 완성하여 발표한 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1987년 9월 국어 연구소의 ‘한글 맞춤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문교부에 제출되었으며, 이 안은 다시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확정된 지금의 ‘한글 맞춤법’은 1989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1호’로 공포되었으며, 그 부칙에 따라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한글 맞춤법의 원리

‘한글 맞춤법’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맞춤법을 모른다’는 말의 의미다. ‘맞춤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는 (3ㄱ)이 ‘맞춤법을 아는’ 사람이 쓴 글이고 (3ㄴ)은 ‘맞춤법을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한다.

- (3) ㄱ.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요.
 ㄴ. 누니 마니 내리고 이썬요.

그런데 말로 할 때는 (3ㄱ)이나 (3ㄴ)의 차이가 없다. (3ㄱ)을 읽어 본 후에 (3ㄴ)을 한번 읽어 보자. 둘 다 [누니 마니 내리고 이썬요]¹⁾로 소리 난다. 이처럼 ‘맞춤법’은 글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말로 할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글로 적을 때는 맞춤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한글 맞춤법”을 펼쳐 총칙의 제1항을 보자.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따르면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다. 하나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표준어²⁾를 소리대로 적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원칙에 따라 [돌], [눈물], [꿈]으로 소리 나는 말을 ‘돌’, ‘눈물’, ‘꿈’으로 적는다.

그렇다면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꽃이, 꽃도, 꽃만’을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자.

- (4) ㄱ. 꽃이, 꽃도, 꽃만
 ㄴ. 꼬치, 꼴또, 꼴만

1) 발음을 제시할 때는 ‘[]’을 사용한다.

2)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다.



(4ㄱ)과 (4ㄴ)은 둘 다 소리가 같다. 받아쓰기를 할 때 ‘꽃만’을 ‘꼰만’으로 잘못 적는 일이 있는 것도 소리가 같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에서는 ‘꼬치, 꼰또, 꼰만’이라고 적지 않고 ‘꽃이, 꽃도, 꽃만’이라고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까닭은 (4ㄱ)과 같이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 것이 글을 읽을 때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이다. (4ㄱ)과 (4ㄴ)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4ㄱ)처럼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 뒤에 붙는 ‘이, 도, 만’의 형태 또한 고정되어 어떤 말인지 금세 알아볼 수 있다.

이처럼 같은 말을 동일한 표기로 적는 것이 눈에 훨씬 잘 들어오고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까닭에 맞춤법에서는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을 언제나 동일하게 적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꽃이’라고 할 때의 [꼬치], ‘꽃을’이라고 할 때의 [꼬출], ‘꽃만’이라고 할 때의 [꼰만] 모두를 ‘꽃’이라는 하나의 표기로 적게 된다.

또한 소리대로만 적기로 한다면 [반드시]로 소리 나는 ‘반듯이[直]’와 ‘반드시[必]’의 구별이 표기상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반듯하다’와의 관련성을 따져 ‘반듯이’와 ‘반드시’로 나누어 적으면 표기에 따라 의미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단어의 원형을 고려하는 표기의 원리가 어법(語法)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원리가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 [꼬치], [꼬출], [꼰만]의 경우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꽃이’, ‘꽃을’, ‘꽃만’으로 적는다고 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까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ㄱ. 아름답고, 아름다운, 아름다워

ㄴ. 아름답고, *아름답은, *아름답어³⁾

사전을 찾아보면 ‘아름답다’가 기본형으로 되어 있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연결될 경우에는 ‘*아름답은’, ‘*아름답어’로 적지 않고 ‘아름다운’, ‘아름다워’와 같이 적는다. ‘꽃이’와 ‘꽃만’은 [꼬치], [꼰만]으로 서로 다른 소리가 나도 ‘꽃’으로 형태를 고정하여 적으면서 ‘아름답-’의 경우에는 같은 말을

3) ‘*’ 표시는 단어나 표현이 잘못임을 나타낸다.



하나의 표기로 적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꼬치]와 [꼰만]은 ‘꽃이’와 ‘꽃만’으로 적어도 [꼬치]와 [꼰만]으로 소리가 나므로 어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아름답은’, ‘*아름답어’는 [아름다븐]과 [아름다버]로 아예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춘다’는 말의 의미는 같은 소리가 나는 여러 표기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서로 다른 소리가 되는 ‘*아름답은’, ‘*아름답어’로는 적을 수 없다. ‘아름답고’와 ‘아름다워’, ‘아름다운’의 표기가 다른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

4. 한글 맞춤법의 실제

4.1. 한글 자모(한글 맞춤법 제2장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모두 24자이다.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모음자는 소리 자체가 글자의 이름이 된다. 자음자의 첫소리는 해당 자음자에 모음 ‘ㅣ’를 붙이고 두 번째 소리는 모음 ‘으’ 아래 해당 자음자를 받침으로 쓴다. 그래서 자음자의 이름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등으로 규칙성을 띤다. 그러나 ‘ㄱ’, ‘ㄷ’, ‘ㅅ’은 ‘기역, 디귤, 시옷’으로 쓰지 않고 ‘기역, 디귤, 시옷’이라고 쓰니 주의해야 한다.⁴⁾

그리고 24자로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는다.

4) 자모의 이름은 “훈몽자회 범례”(1527년)에서 비롯된 것이다. “훈몽자회 범례”에서는 자모의 음가를 한자로 제시하였는데, ‘ㄴ, ㄹ, ㅁ’ 등은 ‘ㄴ 尼隱, ㄹ 李乙, ㅁ 眉音’ 등으로 표시되었다. 그러나 ‘ㄱ’은 ‘ㄱ 其役’으로 표시되어 있고, ‘ㄷ’과 ‘ㅅ’은 ‘ㄷ 池(末), ㅅ 時(衣)’으로 표시된 후 ‘(末)’과 ‘(衣)’는 그 훈을 따른다고 설명되어 있다. ‘ㄱ’을 ‘其役’으로 표시한 것은 ‘역’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기 때문이며, ‘(末)’과 ‘(衣)’ 역시 훈을 따른다고 한 것도 ‘을’과 ‘옷’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ㄱ(깁기역) ㄲ(깁디근) ㅅ(깁비읍) ㅆ(깁시옷) ㅈ(깁지읒)
 ㅊ(애) ㅌ(얘) ㅋ(예) ㆁ(예) ㄷ(와) ㄴ(왜) ㄹ(외) ㅍ(워) ㅎ(웨)
 ㅊ(위) ㄱ(의)

[참고] 사전에 올릴 적의 순서

자음: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ㅍ ㅂ ㅅ ㅈ ㅊ ㅍ ㅃ ㅆ ㅅ ㅉ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ㅡ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ㅼ ㅽ ㅾ ㅿ ㆁ ㆂ ㆃ ㆄ ㆅ ㆆ ㆇ ㆈ ㆉ ㆊ ㆋ ㆌ ㆍ ㆎ ㆏ ㆐ ㆑ ㆒ ㆓ ㆔ ㆕ ㆖ ㆗ ㆘ ㆙ ㆚ ㆛ ㆜ ㆝ ㆞ ㆟ ㆠ ㆡ ㆢ ㆣ ㆤ ㆥ ㆦ ㆧ ㆨ ㆩ ㆪ ㆫ ㆬ ㆭ ㆮ ㆯ ㆰ ㆱ ㆲ ㆳ ㆴ ㆵ ㆶ ㆷ ㆸ ㆹ ㆺ ㆻ ㆼ ㆽ ㆾ ㆿ ㆿ

4.2. 된소리(한글 맞춤법 제3장 제1절 제5항, 제6절 제13항)

1) 싹둑/*싹뚝, 몹시/*몹씨

국어에서는 받침 ‘ㄱ’과 ‘ㄷ’ 뒤에 오는 자음은 예외 없이 된소리로 소리가 나므로 ‘ㄱ’, ‘ㄷ’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국쑤]로 소리 나는 단어를 *국쑤로 적지 ‘국수’로 적는 것, [갑짜기]로 소리 나는 단어를 *갑짜기로 적지 않고 ‘갑자기’로 적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썩둑’과 ‘몹시’도 [썩둑]과 [몹씨]로 소리 나지만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6) 가. 받침 ‘ㄱ’ 뒤: 국수, 깎두기, 낙지, 늑대, 딱지, 떡갈나무, 색시,
 쌈뽕
 나. 받침 ‘ㄴ’ 뒤: 갑자기, 납작하다, 넉죽, 몹시, 법석, 접시

다만 ‘딱따구리’의 ‘딱딱’처럼 ‘딱’이라는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딱딱’으로 적어 같은 형태가 반복됨을 보여 준다.

- (7) 딱따구리, 씹쓸하다, 짹짹하다, 똑똑하다

2) 잔뜩/*잔득, 훔씬/*훔신

모음이나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 오는 자음은 된소리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모음이나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 오는 자음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즉 된소리로 소리가 나면 된소리



로 적고 된소리로 소리가 나지 않으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8)은 모음이 나 받침 ‘ㄴ, ㄹ, ㅁ, ㅇ’ 다음에서 뒤에 오는 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된소리로 표기한 예이다.

- (8) ㄱ. **모음 뒤**: 거꾸로, 가끔, 기쁘다, 부쩍, 어깨
 ㄴ. **받침 ‘ㄴ’ 뒤**: 잔뜩, 선뜻, 안쓰럽다
 ㄹ. **받침 ‘ㄹ’ 뒤**: 살짝, 훨씬
 ㅁ. **받침 ‘ㅁ’ 뒤**: 섬뜩, 움쩍, 흠씬
 ㅇ. **받침 ‘ㅇ’ 뒤**: 몽땅, 엉뚱하다

‘문득’과 ‘문뜩’ 어느 것이 맞을까? 대부분의 화자들은 ‘문득’을 [문뜩]이라고 소리 내어 읽지만 ‘문득’과 ‘문뜩’은 의미 차이가 있는 말이다. 그러므로 ‘문득’은 [문득], ‘문뜩’은 [문뜩]으로 소리를 내야 한다.

- (9) ㄱ. 어느 날 문득 고향 생각이 났다.
 ㄴ. 나는 문뜩 고개를 들어 창 너머 하늘을 보곤 했다.

발음에 따라 구별해서 적어야 할 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더 있다.

- ♣ 감박/감빡, 꿈작/꿈작, 끈덕끈덕/끈떡끈떡, 문득/문뜩, 방긋/방끗,
 번득/번뜩, 번듯/번뜻, 번적/번쩍, 생긋/생끗, 싱긋/싱끗, 흘긋/흘끗,
 흘깃/흘끗

4.3. ‘ㄷ’ 소리 받침: 숟가락/젓가락(한글 맞춤법 제3장 제3절 제7항, 제4절 제29항)

떠먹는 것은 ‘숟가락’, 집어 먹는 것은 ‘젓가락’으로 적는다. ‘숟가락’의 ‘숟’은 ‘술’(밥 한 술)이 변한 것이고 ‘젓가락’은 ‘저(箸)’와 ‘가락’이 결합한 것으로 사이시옷이 쓰인 것이다.

- (10) ㄱ. 숟가락(←술+가락)
 ㄴ. 젓가락: 저(箸)+ㅅ+가락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는다. 그러나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는 것은 ‘ㄷ’을 밝혀 적는다. 예를 들어 ‘사흘’과 관련된 ‘사흘날’, ‘이틀’과 관련된 ‘이튿날’, ‘설다’와 관련된 ‘설부르다’와 같이 ‘ㄷ’이 ‘ㄷ’으로 바뀐 경우 ‘ㄷ’을 밝혀 적는다. 그리고 ‘거두다’와 관련이 있는 ‘건잡다’, ‘곧게’와 관련이 있는 ‘곧장’ 역시 ‘ㄷ’을 밝혀 적는다.

(11) ㄱ. 반질고리, 사흘날, 이튿날, 설부르다

ㄴ. 건잡다(거두어 붙잡다), 곧장(똑바로 곧게), 낱가리(낱알이 붙은 곡식을 쌓은 더미), 돌보다(←도두 보다)

이 외에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들은 ‘ㅅ’으로 적는다.

(12) 덧저고리, 옷어른, 무릇, 얼핏, 못, 옛, 자칫하면, 첫(첫사랑, 첫인상 등)

4.4. 두음 법칙(한글 맞춤법 제3장 제5절 10항, 11항, 12항)

1) 여성/*녀성, 남녀/*남여, 신여성/*신녀성

두음 법칙이란 한자어의 첫머리에서 ‘ㄴ, ㄷ’ 소리를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녀(女)’라는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녀자, *녀성, *녀신’으로 적지 않고 ‘여자, 여성, 여신’으로 적는데, 단어의 첫머리에서 [녀] 소리를 꺼리기 때문이다.

두음 법칙은 단어의 첫머리(여성/남녀, 녹색/청록, 낙원/극락)와 두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의 구조(해외-여행, 육체-노동)에 적용된다. 그리고 ‘신-여성’, ‘연-녹색’, ‘실-낙원’과 같이 일 음절 한자어 다음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몇몇 일 음절 한자어가 국어에서 단어처럼 인식되는 현상[예: 新舊(신구), 得失(득실)]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녀, 뇨, 뉴, 니	랴, 려, 레, 료, 류, 리	라, 래, 로, 뢰, 루, 르
어두/비어두	여자/남녀	양심/개량	낙원/극락
합성어	신-여성/남존-여비	역-이용/해외-여행	중-노동/사상-누각
고유명사	한국여자대학	신흥이발관	한국노인대학



두음 법칙은 원칙적으로 한자어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리을’, ‘녀석’ 같은 고유어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회계 연도/*회계 년도, 연도별/*년도별

두음 법칙은 의존 명사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자가 같더라도 그 단어가 자립 명사로 쓰일 때와 의존 명사로 쓰일 때 표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年度’는 자립적으로 쓰일 때는 ‘연도’가 되지만 의존적으로 쓰일 때는 ‘년도’가 된다. 다만 ‘신년도, 구년도’는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구조이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13) ㄱ. 연도별 생산 실적, 회계 연도/회계연도
 ㄴ. 2000 년도/2000년도, 2000 년대/2000년대
 ㄷ. 신년-도, 구년-도

의존 명사로 쓰이는 한자어로는 ‘년, 냥, 리’ 등이 있다.

- (14) ㄱ.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ㄴ. 몇 년 몇 월 며칠이지?
 ㄷ. 그럴 리가 없다.
 ㄹ. 몇 리냐?

3) 칼슘양/*칼슘량, 작업량/*작업양, 일양/*일량

‘量’은 단독으로 쓰이면 ‘양’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다른 단어 뒤에 쓰이면 ‘양’으로 쓰기도 하고 ‘량’으로 쓰기도 한다. ‘양/량’의 표기는 앞에 오는 단어가 한자어이냐 아니냐로 구분된다. ‘량/양(量)’은 한자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슘’이나 ‘일’ 뒤에는 ‘양’이 오고, ‘작업’ 뒤에는 ‘량’이 온다.

한자어 뒤	노동량, 작업량, 생산량, 수출량, 증가량, 감소량
고유어 뒤	구름양, 기름양
외래어 뒤	칼슘양(calcium量), 알칼리양(alkali量), 이온양(ion量)



‘란/난’도 마찬가지로 한자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

한자어 뒤	투고란, 독자란, 학습란, 답란
고유어 뒤	어린이난, 어머니난
외래어 뒤	가십난(gossip欄), 펜팔난(pen pal欄)

4) 백분율/*백분률

‘율/률(率, 律, 慄)’의 표기는 앞에 오는 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율’을 쓰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을 쓴다.

모음 뒤	비율(比率), 실패율(失敗率), 감소율(減少率), 증가율(增加率)
ㄴ 받침 뒤	선율(旋律), 전율(戰慄), 백분율(百分率), 배분율(配分率), 흡연율(吸煙率)
그 외	법률(法律), 능률(能率), 출석률(出席率), 합격률(合格率), 성공률(成功率)

‘ㄴ’ 받침 뒤에서 ‘율’로 쓰는 이유는 발음 때문이다. ‘연락, 진리, 전라도’처럼 ‘ㄴ’과 ‘ㄹ’이 만나면 ‘ㄴ’이 [ㄹ]로 소리가 바뀌어 [열락, 질리, 절라도]로 소리가 난다. ‘旋律’은 [설률]이 아니라 [선률]로 소리가 나므로 ‘선율’로 쓰는 것이다.

‘열/렬(列/洌/劣/烈/裂)’도 마찬가지이다.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서는 ‘열’을 쓰고,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률’을 쓴다.

모음 뒤	치열(熾烈), 우열(優劣), 계열(系列), 대열(隊列)
ㄴ 받침 뒤	선열(先烈), 균열(龜裂), 분열(分裂), 반열(班列)
그 외	격렬(激烈), 극렬(極烈), 열렬(熱烈), 결렬(決裂), 멸렬(滅裂), 졸렬(拙劣), 용렬(庸劣), 행렬(行列), 정렬(整列), 병렬(並列)

4.5. 어간과 어미(한글 맞춤법 제4장 제2절)

1) 아니오/아니요

‘아니오’는 형용사 ‘아니다’에 하오체⁵⁾의 어미 ‘-오’가 결합한 것으로 문장

5)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형. (예) 빨리 인도로 나오시오./왜 꾸물거리시오?



의 서술어로만 쓰일 수 있다. 반면에 ‘예’의 짝으로 쓰는 ‘아니요’는 부정의 ‘아니’에 해요체⁶⁾의 보조사 ‘요’가 붙은 것이다. ‘아니요’는 줄어서 ‘아뇨’가 되기도 한다.

(15) ㄱ. 이것은 책이 아니오.

ㄴ. 아니요(아뇨), 전 안 가겠습니다.

‘요/오’는 문장 끝에 붙는데 ‘요’는 보조사이고 ‘-오’는 어미이다. 이 ‘요/오’를 빼고 문장이 성립하면 ‘요’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오’를 써야 한다. 문장에서 보조사는 생략될 수 있지만 어미는 생략될 수 없기 때문이다.

(16) ㄱ. 어떻게 살지요?/어떻게 살지?

당신이 참아요./당신이 참아.

뭘 봐요?/뭘 봐?

ㄴ. 이리 오시오.

그것이 인생이오.

단, ‘안녕하세요/안녕하셔요’의 ‘-(으)세요/-(으)셔요’는 복수 표준어로서 굳어진 어미로 다룬다.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은 연결형의 ‘이요’이다. (17ㄱ)처럼 연결형으로 쓰일 때는 ‘이요’를 사용하고 (17ㄴ)처럼 연결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오’를 쓴다.

(17) ㄱ.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연필이다.

ㄴ. 이것은 내 책이오.

2) 나는/*날으는

‘알다, 놀다’처럼 ‘ㄹ’ 받침을 가진 용언에 관형형 어미 ‘-는’이나 ‘-ㄴ’이 연결되면 ‘ㄹ’이 탈락한다(예. 아는 사람, 노는 시간). ‘날다, 거칠다, 녹슬다’에

6)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형. 격식체인 ‘하오체’와 ‘합쇼체’를 쓸 자리에 두루 쓰는 비격식체이다. (예) 다음에 또 들르겠어요.



어미 ‘-는’이나 ‘-ㄴ’이 결합한 말은 ‘*날으는, *거칠은, *녹슬은’이 아니라 ‘나는, 거친, 녹슨’으로 적어야 한다. ‘*날으는, *거칠은’ 등이 가능하려면 ‘*서로 알으는 사이’, ‘*놀이터에서 놀으는 아이’, ‘*칼을 갈으는 도구’ 등도 가능해야 한다. 이들은 ‘서로 아는 사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 ‘칼을 가는 도구’로 쓰는 것처럼 ‘거친, 나는, 녹슨’으로 쓰는 것이 맞다.

- (18) ㄱ. 하늘을 나는 비행기
 ㄴ. 이것은 거친 피부에 좋습니다.
 ㄷ. 녹슨 철문을 교체했다.

그렇다고 ‘끓은 달걀’을 ‘*곤 달걀’로 줄여 쓰는 것은 옳지 않다. ‘끓은’의 기본형은 ‘끓다’이고 이 말의 ‘ㄹ’ 받침은 관형형 어미 앞에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3) 삶/*살음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형태로 바뀌 주는 어미로, 명사형 어미 ‘-(으)ㄴ’이 있다. 명사형 어미는 ‘떡다’의 ‘떡-’처럼 받침이 있는 어간과 결합할 때는 ‘-음’이, ‘가다’의 ‘가-’처럼 받침 없는 어간과 결합할 때는 ‘-ㄴ’이 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날다’처럼 ‘ㄹ’ 받침을 가진 어간에는 명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ㄹ’ 형태로 쓰인다.

- (19) ㄱ. 연은 바람이 불 때 잘 날.
 ㄴ. 서울에서 살.
 ㄷ. 이 책상은 나무로 만들.
 ㄹ. 버스에서 잠깐 줄.

4) 마/*말아

‘알다’의 ‘알-’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하면 ‘알아라/알아’가 된다. 그러나 ‘말다’의 ‘말-’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한 ‘말-아라/말-아’는 ‘마라/마’로 줄어든 형태가 표준어이다.

그러나 ‘말다’의 ‘말-’에 간접 명령형 어미 ‘-(으)라고’가 결합할 경우에는



‘말라고’가 된다.

(20) ㄱ. 못된 짓은 하지 {마라/마}.

ㄴ. 어머니께서 불량 식품은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해야겠어?

5) 붙은/*부은/*분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거나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는 것은 ‘붙다’이다. ‘듣다, 신다’가 ‘어제 들은 음악’, ‘짐을 실은 마차’로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붙다’의 어간에 관형형 어미가 연결되면 ‘붙은’으로 모양이 바뀐다. 참고로 몸의 일정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것은 ‘붓다’이다.

(21) ㄱ. 붙다: 통통 붙은 라면/국수가 통통 붙었다./물이 붙어서 건널 수가 없다.

ㄴ. 붓다: 통통 부은 얼굴/울었더니 눈이 통통 부었다.

♣ 실은(신다), 들은(듣다), 물은(묻다), 걸은(걷다)

부은(붓다), 지은(짓다), 이은(잇다), 나은(нат), 그은(긋다)

6) 잠가/*잠귀

‘잠그다’와 ‘담그다’의 어간에 어미 ‘-아’가 연결되면 ‘잠가(잠그--아)’, ‘담가(담그--아)’로 모양이 바뀐다. ‘*잠궤다’와 ‘*담궤다’는 ‘잠궤다’와 ‘담궤다’를 잘못 쓴 것이다.

(22) ㄱ. 외출할 때는 문을 꼭 잠가라./문을 잘 잠궤다.

ㄴ. 김치를 담가 먹는다./며칠 전에 김치를 담궤다.

7) 아릅다워/*아릅다와

‘아름답다, 가깝다, 아니꼽다’ 등 ‘ㅅ’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어간 말음의 ‘ㅅ’이 ‘ㅌ’로 바뀐다. ‘아름답다, 가깝다, 아니꼽다’



등은 ‘*아름다와’, ‘*가까와’, ‘*아니꼬와’가 아니라 ‘아름다워’, ‘가까워’, ‘아니꼬워’ 등으로 적는다.

다만 ‘곰-[麗]’, ‘돕-[助]’과 같은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가 연결되어 ‘와’로 소리 나는 것은 ‘-와’로 적는다. 그러므로 ‘곰-’과 ‘돕-’은 ‘고와, 고왔다’와 ‘도와, 도왔다’처럼 적는다.

♣ 괴로워(괴롭다), 반가워(반갑다), 슬기로워(슬기롭다)

4.6. 접미사(한글 맞춤법 제4장 제3절)

1) 반드시/반듯이

‘반듯하다’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반듯’을 밝혀 ‘반듯이’로 적고, 관련이 없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반드시[必]’로 적는다.

(23) ㄱ. 모든 일을 내일까지 반드시 끝내라.

ㄴ. 건강을 위해서는 반듯이 앓는 것이 좋다.

‘더욱이’, ‘일찍이’는 ‘더욱’, ‘일찍’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원형을 밝힐 수 있으므로 ‘*더우기’, ‘*일찌기’로 적지 않는다.

(24) ㄱ. 일찍이 문명을 꽃 피운 나라/오늘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ㄴ.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고, 더욱이 몸도 너무 약하다.

♣ 지긋이(지긋하게), 곰곰이, 생긋이, 해죽이

지그시, 갑자기, 슬며시

2) 꼴꼴이/개구리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혀 적도록 하고 있다. ‘썹썹기/썹썹이’의 경우, ‘썹썹’이라는 소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물을 가리킬 때에는 ‘썹썹이(제트기)’로 ‘썹썹’과 관련짓기



힘든 곤충명을 가리킬 때는 ‘씩씩기’로 적는다. 이때의 기준은 ‘씩씩거리다’나 ‘씩씩하다’가 가능한가의 여부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씩씩이’이고 그렇지 않으면 ‘씩씩기’가 된다.

‘꿀꿀이’는 ‘꿀꿀거리다, 꿀꿀하다’가 있으므로 ‘꿀꿀’을 밝혀 ‘꿀꿀이’로 적는 것이고, ‘개구리’는 ‘*개굴거리다, *개굴하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개구리’로 적는 것이다.

- (25) ㄱ. 꿀꿀이(꿀꿀거리다), 뺨죽이(뺨죽거리다), 푸석이(푸석거리다),
 훌죽이(훌죽하다)
 ㄴ. 개구리(*개굴거리다), 뺨꾸기(*뺨꾸거리다), 맴미(*맴거리다),
 부스러기(*부스러거리다)

3) 넙죽/*넙죽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넙적하다’는 ‘넙다’의 어간을 밝혀 적는다. 그러나 ‘넙죽’은 본뜻에서 떨어져 ‘*넙죽’으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넙죽’으로 적는다.

- (26) ㄱ. 하인이 넙죽 절을 한다.
 ㄴ. 무를 넙적하게 썰어서 깍두기를 담갔다.
 ㄷ. 넙적하다, 넙적다리, 넙치[廣魚]

♣ 낚시, 덮개, 굶다랴다, 굶직하다, 깊숙하다, 높다랴다, 늪수그레하다
 올무, 납작하다

4) 덮이다/*덮히다

‘덮다’처럼 어간의 받침이 ‘ㄷ’인 경우 피동이나 사동의 접미사는 ‘-이-’가 결합한다. 따라서 동사 ‘덮다, 짚다’의 피동형은 ‘덮이다, 짚이다’이고, 형용사 ‘높다’의 사동형은 ‘높이다’가 된다.



- (27) ㄱ. 눈으로 덮인 세상
 ㄴ. 짚이는 데가 있다.
 ㄷ. 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이와는 달리 ‘ㄱ’, ‘ㄴ’, ‘ㄷ’, ‘ㄹ’ 받침을 가진 말에는 ‘-히-’가 결합한다.

- (28) ㄱ. 먹히다, 막히다
 ㄴ. 굶히다, 읽히다
 ㄷ. 넓히다, 밟히다
 ㄹ. 굽히다, 입히다, 잡히다

4.7. 합성어 및 접두사(한글 맞춤법 제4장 제4절)

1) 며칠/*몇일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지?”라고 할 때 ‘*몇 일’은 ‘며칠’로 적어야 한다. 이 ‘며칠’은 원형을 밝힐 수 없는 말이어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이다. 만일 ‘며칠’의 원형이 ‘몇 + 일(日)’과 같은 구성이라면 [며칠]로 소리 나지 않고 [며덜]로 소리가 나야 한다.(‘몇 월’, ‘몇 억’이 [며칠]이나 [며척]이 아니라 [며덜], [며덕]으로 소리 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단어가 [*며덜]이 아니고 [며칠]로 소리가 난다는 점은 ‘며칠’이 ‘몇 + 일(日)’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즉 ‘며칠’은 그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며칠]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며칠’은 또다시 ‘날’과 결합하여 ‘며칠날’이라는 합성어를 만들기도 한다(예. 아버님 제사가 5월 며칠날이지?).

- (29) ㄱ.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ㄴ. 며칠 동안 여행 다녀올게요.
 ㄷ.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2) 사이시옷

가) 시냇가/*시내가, 시냇물/*시내물

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그 사이에 ‘시옷(ㅅ)’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사이시옷’이라고 한다. 두 명사 사이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려면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① 결합하는 두 명사 가운데 하나 이상이 고유어여야 한다.

- 결합하는 두 명사가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이어야 한다. 즉 ‘한자어+한자어’ 구성에서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②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

- 앞 단어에 받침이 있으면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내’와 ‘가’가 결합할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간 ‘시냇가’로 쓰지만, ‘길’과 ‘가’가 결합할 때는 ‘길’에 받침이 있어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길ㅅ가’, ‘길가’로 적지 않고 ‘길가’로 적는다.

이러한 조건이 만족하는 상황에서 다음의 음운 현상이 나타나면 ‘ㅅ’을 받쳐 적는다.

① 뒷말의 첫소리 [ㄱ, ㄷ, ㄹ, ㅅ, ㅈ]가 [ㄲ, ㄸ, ㅃ, ㅆ, ㅉ]로 변할 때 (즉,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할 때)

- ㄱ. 콧 + 구멍, 기름, 김, 대, 등, 바람, 방울, 병, 부리, 소리, 속, 수염
- ㄴ. 콧병, 기댓값, 대푯값, 등푯길, 고깃국, 만둣국, 맥줏집, 머릿돌, 바닷가, 보랏빛, 빨랫줄, 성못길, 시냇가, 장밋빛, 전깃불, 조갯살, 찻잔, 고깃집, 횃집

②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 ㄱ. 콧 + 날, 노래, 물, 마루
- ㄴ. 겹날, 제삿날, 훗날, 아랫니, 냇물, 빗물, 뱃머리, 수돗물, 텃마루



③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즉, 모음 사이에서) [ㄴ] 소리가 덧날 때

갯잎, 나뭇잎, 베갯잇, 옷잇, 예삿일, 사삿일

나) 머리말/*머릿말

‘머리말’, ‘인사말’은 ‘*머릿말’, ‘*인삿말’로 적지 않는다. 왜냐하면 ‘머리’와 ‘말’, ‘인사’와 ‘말’ 사이에 [ㄴ] 소리가 덧나지 않는 [머리말], [인사말]이 표준 발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두 단어가 결합했을 때 소리의 변화가 없으면 ‘ㅅ’을 표기하지 않는다.

뒤에 오는 단어가 된소리(ㄱ, ㄷ, ㅁ, ㅅ, ㅈ)나 거센소리(ㅋ, ㅌ, ㅍ, ㅊ)로 시작하는 경우에도 소리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30) ㄱ. 머리말, 인사말, 머리글, 나무다리, 개구멍, 새집, 코감기

ㄴ. 코뼈, 코딱지, 뒤뜰, 위쪽, 아래쪽, 쥐뿔

ㄷ. 코피, 위층, 아래층, 낚시터, 뒤풀이

다) 초점/*촛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사이시옷은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초점(焦點)’, ‘화병(火病)’, ‘개수(個數)’는 [초점], [화병], [초점]으로 소리 나지만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다만 ‘한자어+한자어’ 구성이더라도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31) ㄱ. 초점(焦點), 대가(代價), 체증(滯症), 기차간(汽車間), 전세방(傳貰房),

공부방(工夫房)

ㄴ. 예외: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

외래어가 포함된 구성일 때도 사이시옷이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핑크빛’, ‘*피자집’으로 쓰지 않고 ‘핑크빛, 피자집’으로 쓴다.



[참 고]

예외적으로 길 이름에는 사이시옷이 들어갈 환경이라도 적지 않는다. ‘고갯길, 등
곳길’과 같은 일반 명사일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길 이름은 ‘배호길
/*배훔길’처럼 고유 명사적인 성격이 강하고 ‘배호 1길, 배호 2길’처럼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3) 해쑈/*햇쑈

‘그해에 난’을 뜻하는 접두사는 ‘해-/햇-’이다. ‘해-’는 뒤에 오는 단어의 첫
소리가 된소리나 거센소리일 때, ‘햇-’은 뒤에 오는 단어의 첫소리가 예사소
리일 때 붙는다. 따라서 ‘쑈’ 앞에는 접두사 ‘해-’가 붙어 ‘해쑈’으로 적는다.

다만 ‘짜리(荊), 쌀(米), 씨(種), 때(時)’ 등은 단어 첫머리에 ‘ㅂ’을 가지고 있
었던 단어이다. 이 단어들이 다른 단어 또는 접두사와 결합하는 경우, 두 형태
소 사이에서 ‘ㅂ’이 발음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해에 난 쌀은 ‘햐쌀’로 적는다.

- (32) ㄱ. 해쑈, 햐쑈, 햐쌀
 ㄴ. 햐감자, 햐과일, 햐병아리
 ㄷ. 햐쌀

4) 새/시/셋/씻-

색채어 앞에 붙는 ‘새-/시-/셋-/씻-’은 색채어 첫소리의 자음이 된소리/거
센소리이나(새/시) 울림소리이나(셋/씻), 그리고 첫소리의 모음이 양성 모음
이나(새/셋) 음성 모음이나(시/씻)에 따라 구분된다.

	양성 모음	음성 모음
된소리나 거센소리	새빨갳다, 새파랳다	시뻘겋다, 시퍼렇다
울림소리(ㄴ, ㄹ)	셋노랳다, 셋말갳다	씻누렇다, 씻덜갳다



4.8. 준말(한글 맞춤법 제4장 제5절)

1) 안 하다/*않 하다

“다시는 거짓말을 {안/않} 하겠습니다.”에서는 ‘안’이 옳다. ‘안’은 ‘아니’가 줄어든 말이고, ‘않-’은 ‘아니하-’가 줄어든 말이다. ‘않-’은 문장의 서술어로 “내가 하지 않았다.”처럼 ‘-지 않-’의 구성으로 주로 쓰인다.

- (33) ㄱ. 다시는 안 만날 거야./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ㄴ. 안 보이니?/보이지 않니?

2) 어떻게 풀지?/*어떡해 풀지?

‘어떻게’는 ‘어떻-’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것이고,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다. ‘어떻게’는 “어떻게 풀지?”처럼 다음에 서술어가 와야 하지만, ‘어떡해’는 “나 어떡해.”처럼 서술어가 오지 않는다.

- (34) ㄱ.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어떻게 쓰지?/어떻게 말할까요?
 ㄴ. 정말 가 버렸으면 어떡해./어떡해, 네가 책임져.

3) 금세/*금새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이므로 ‘금세’로 적어야 한다. ‘어느새, 요새’를 생각하여 ‘*금새’라고 적지만 이는 잘못이다. ‘어느새, 요새, 밤새’의 ‘새’는 ‘사이’가 줄어든 것이다.

- (35) ㄱ. 효과가 금세 나타났다.
 ㄴ. 그 조그맣던 꼬마가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밤새 비가 내렸나 봐.

4) 웬지/*웬지

“오늘은 웬지 기분이 좋다.”에서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서 된 말이므로 ‘웬지’로 적는다. 하지만 “웬 떡이냐?”라고 할 때는 ‘웬’으로 적는다. ‘웬’은



‘어찌 된, 어떠한’을 뜻하는 관형사이다.

(36) ㄱ. 오늘은 웬지 멋있어 보인다.

ㄴ. 이게 웬 날벼락이냐?

ㅁ. 봄인데 웬 눈이 이렇게 많이 오지?

웬 사람이 널 찾아왔어.

ㄷ. 웬걸 이렇게 많이 가져 오셨어요?

저렇게 부탁하는데 웬만하면 들어 줘라.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1등 할 수 없어요.

웬일이세요?

5) 가져/*갖어

‘가지다’와 그 준말인 ‘갖다’는 복수 표준어이나 준말인 ‘갖다’에 어미가 연결될 때 제약이 있다. ‘갖고, 갖지, 갖게’처럼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될 수 있지만 ‘*갖아/*갖어’, ‘*갖았다/*갖었다’, ‘*갖아서/*갖어서’, ‘*갖으며’, ‘*갖은’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연결될 수 없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가지다’와만 결합하여 ‘가지어(가져), 가지었다(가졌다), 가지며, 가진’으로 활용한다.

(37) ㄱ. 우산 {가지고/갖고} 가세요.

부담 {가지지/갖지} 마음껏 쓰세요.

ㄴ. 이거 너 {가져/*갖아/*갖어}.

꿈을 {가진/*갖은} 사람

‘디디다/덜다’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본형 \ 어미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가지다	가지고	가지지	가지니?	가지어(가져)	가지니	가지며	가진
갖다	갖고	갖지	갖니?	*갖어/*갖아	*갖으니	*갖으며	*갖은
디디다	디디고	디디지	디디니?	디디어(디터)	디디니	디디며	디딘
덜다	덜고	덜지	덜니?	*덜어	*덜으니	*덜으며	*덜은



‘머무르다/머물다’, ‘서투르다/서툴다’, ‘서두르다/서둘다’ 등도 모두 표준어이다. 다만 준말인 ‘머물다, 서툴다, 서둘다’의 어간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중에서 ‘-어’가 연결되지 못한다.

기본형 어미	-고	-지	-니?(의문)	-어/아	-(으)니	-(으)며	-(으)ㄴ
머무르다	머무르고	머무르지	머무르니?	머물러	머무르니	머무르며	머무른
머물다	머물고	머물지	머무니?	*머물어	머무니	머물며	머문
서투르다	서투르고	서투르지	서투르니?	서툴러	서투르니	서투르며	서투른
서툴다	서툴고	서툴지	서투니?	*서툴어	서투니	서툴며	서툰

6) 사귀어/*사겨

‘사귀다’의 어간에 ‘-어’가 결합한 ‘사귀어’는 ‘*사겨/*사꺾’로 줄어들 수 없다. 마찬가지로 ‘바뀌어’ 역시 ‘*바껴, *바꺾’ 등으로 줄어들 수 없다. 흔히 ‘언제부터 *사꺾니?’, ‘짜이 또 *바꺾어?’ 등으로 쓰지만 잘못이다. ‘사귀었니, 바뀌었어’로 써야 한다.

- (38) ㄱ. 둘이 사귀어?
 ㄴ. 언제 바뀌었어요?
 ㄷ. 반이 두 반으로 나뉘었다.
 ㄹ. 아프다더니 많이 야위었구나.

7) 돼라/되라

‘되다’의 어간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어 줄어들면 ‘돼’가 된다. ‘되+-었다’는 ‘됐다’, ‘되+-어서’는 ‘돼서’로 줄 수 있다. ‘되다’의 어간에 명령형 어미 ‘-어라’가 결합한 ‘되어라’ 역시 ‘돼라’로 줄 수 있다. 그러나 간접 인용문의 명령형 어미는 ‘-어라고’가 아니라 ‘-(으)라고’이다. ‘되다’의 어간에 ‘-(으)라고’가 결합하면 ‘되라고’가 된다.

- (39) ㄱ. 시간이 {되어서/돼서} 모두 떠났다.
 이제 삼학년이 {되었다/됐다}.



어떻게 해야 {되어(요)/돼(요)}?

제발 사람 좀 {되어라/돼라}.

ㄴ. 그게 말이 {되느냐/*되어느냐}?

일이 {성사되고/*성사되어고} 나서 연락해라.

ㄷ. 착한 사람이 {되어라/돼라}.

어머니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되+--(으)라고] 말씀하셨다.

♣ 피다, 꺾다, 뇌다, 되다, 뵈다, 쇠다, 썬다, 죄다, 켜다

8) -잖-/ -잖-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러므로 ‘시원하지 않다’는 ‘시원치 않다 → *시원잖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원잖다’와 같이 적는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잖’이나 ‘*잖’과 같이 적는 일은 없고 모두 ‘잖’이나 ‘잖’으로 적는다.

-지 않-	-하지 않-
적지 않다 → 적잖다	만만하지 않다 → 만만잖다
그렇지 않다 → 그렇잖다	변변하지 않다 → 변변잖다
두렵지 않다 → 두렵잖다	성실하지 않다 → 성실잖다

9) 생각건대/*생각건대

생각하건대’가 줄면 ‘생각건대’가 된다. ‘하다’가 결합하는 앞말의 받침이 [ㄱ, ㄷ, ㅂ]으로 소리가 나면 ‘하’가 통째로 줄고 그 외의 것이면 ‘ㅏ’만 줄고 ‘ㅎ’이 남아 뒷말이 거센소리가 된다.

받침 [ㄱ], [ㄷ], [ㅂ] 뒤	그 외
거북하지→거북지, 넉넉하지→넉넉지	청하건대→청컨대
깨끗하지→깨끗지	무심하지→무심치
섬섬하지→섬섬지	연구하도록→연구토록

(40) ㄱ. 생각건대 누군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살림이 넉넉지 않다.

ㄴ. 이번 달에 제출토록 할 것.

문제가 간단치 않다.



10) 아무튼/*아뿔튼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연결된 말 가운데 하나의 형태만이 굳어져서 부사로 쓰이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아무튼’은 ‘아뿔-’에 어미 ‘-튼’이 연결된 것인데, ‘아뿔-’ 뒤에는 ‘-튼’ 이외에 어떤 어미도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튼’은 부사로만 쓰이므로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는다. 하지만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어떻다’의 어간에 어미 ‘-튼’이 연결된 ‘이렇튼, 그렇튼, 저렇튼, 아무렇튼, 어떻튼’ 등은 이러한 제약이 없으므로 ‘튼’으로 적지 않는다.

(41) ㄱ. 아무튼 불행 중 다행이다.

ㄴ. 결과야 어떻든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결론이 났다.

한편, ‘아무튼’은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의 뜻으로 ‘어떻든, 어쨌든, 여하튼, 하여튼’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42) ㄱ.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요컨대, 정녕코, 필연코, 하마터면, 하여튼, 한사코

ㄴ. 이렇든, 그렇든, 저렇든, 아무렇든, 어떻든

4.9. 그 밖의 것(한글 맞춤법 제6장)

1) -이/히: 깨끗이/*깨끗히(제51항)

‘-이’나 ‘-히’가 붙어 부사가 만들어질 때, ‘이’나 ‘히’의 표기는 소리에 따라 결정된다. 즉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고, [히]로 나거나 [이]나 [히]로 소리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그러나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으므로 사전을 찾아 확인해야 한다.

가. ‘-이’로 적는 경우

① ‘ㅅ’ 받침 뒤: 깎듯이, 깨끗이, 느긋이, 동긋이, 따뜻이, 반듯이, 버



젓이, 산뜻이, 의젓이

- ② ‘ㄷ’ 불규칙 형용사 뒤: 가까이, 가벼이, 고이, 괴로이, 날카로이, 쉬이, 새삼스레
- ③ ‘하다’가 붙지 않은 형용사 뒤: 같이, 굳이, 많이, 적이, 헛되이
- ④ 첩어 명사 뒤: 간간이, 겹겹이, 번번이, 일일이, 집집이, 틈틈이

나 ‘-히’로 적는 경우

- ① ‘히’로만 소리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익히, 작히, 족히, 특히, 엄격히, 간곡히, 까마득히, 머쓱히, 막막히, 뚝뚝히
- ② ‘이, 히’로 소리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간편히, 나른히, 무단히, 각별히, 소홀히, 쓸쓸히, 정결히, 과감히, 꼼꼼히, 심히, 열심히, 급급히, 답답히, 섭섭히, 공평히, 능히, 당당히, 분명히, 상당히, 조용히, 간소히, 고요히, 도저히

2) 갈게/*갈께(제53항)

“*내가 갈게.”는 틀린 표기이고 “내가 갈께.”가 옳은 표기이다. “집에 갈까?”, “힘에 굴복할쏘냐?”, “어찌 할꼬?”의 ‘-(으)ㄴ까’, ‘-(으)ㄴ쏘냐’, ‘-(으)ㄴ꼬’ 등의 의문형 어미를 제외하고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이미 도착했을걸.”, “*제주도로 갈꺼나.” 등도 ‘-(으)ㄴ걸’, ‘-(으)ㄴ거나’로 써야 한다.

(43) ㄱ. 내일 빌게요.

이미 도착했을걸.

제주도에 갈꺼나.

ㄴ. 집에 갈까?

힘에 굴복할쏘냐?

어찌 할꼬?

♣ -ㄴ세, -ㄴ수룩, -ㄴ시, -ㄴ지라도, -ㄴ지언정, -ㄴ진저, -올시다
-리까?, -ㄴ쏘냐?, -ㄴ꼬?, -ㄴ니까?



3) -꾼/*-꾼(제54항)

‘나무꾼’이 옳은 표기다. ‘-꾼’은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므로 ‘*나뭇꾼, *나뭇꾼’으로 적지 않는다. ‘늑시꾼’, ‘사기꾼’ 등도 마찬가지다. ‘때깎’도 ‘*땃깎’/*땃깎’로 적지 않는다. 단 ‘젓갈’은 ‘*젓갈’이 아니라 ‘젓갈’이 옳다.

- (44) ㄱ. 심부름꾼, 익살꾼, 일꾼, 장꾼, 장난꾼, 지계꾼
 ㄴ. 때깎, 빗깎, 성깎
 ㄷ. 귀때기, 볼때기, 판자때기
 ㄹ. 뒤킷치, 팔킷치
 ㅁ. 객쩍다, 검연쩍다

4) -박이/배기/뺨기(제54항)

‘박이’와 ‘배기’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이다. ‘박다’의 의미가 살아 있는 경우 ‘-박이’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기’를 쓴다. ‘-배기’는 ① 그 나이를 먹은 아이를 나타내는 접미사(한 살배기, 다섯 살배기), ② 어떤 것이 들어 있거나 꽉 차 있음을 뜻하는 접미사(알배기), ③ 어떤 명사 뒤에 붙어 그런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공짜배기, 진짜배기) 등으로 쓰인다.

- (45) ㄱ. 점박이, 덧니박이, 외눈박이, 차돌박이, 오이소박이, 불박이, 장승박이
 ㄴ. 한 살배기, 다섯 살배기
 알배기
 공짜배기, 진짜배기

이와 달리 명사 뒤에 붙어 [뺨기]로 소리 나는 것은 ‘-뺨기’로 적는다.

- (46) 이마뺨기, 고들뺨기, 곱뺨기, 억척뺨기, 코뺨기

다만 [뚝뺨기]로 소리 나는 말은 ‘뚝배기’로 적는데, ‘뚝배기’는 ‘뚝’과 ‘배기’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쭈]로 소리 나는 말을 ‘국수’로, [낙찌]로 소리 나는 말을 ‘낙지’로 적는 것과 같다.



5) -던/-든(제56항)

‘-든’은 선택을, ‘-던’은 과거를 나타낸다.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마.”는 선택의 상황을 나타내고, “사람이 많이 왔던가?”는 과거의 상황을 나타낸다. ‘-더-’가 들어 있는 ‘-던’, ‘-던가’, ‘-던걸’, ‘-던고’, ‘-던데’, ‘-던들’ 등도 모두 과거를 나타낸다.

(47) ㄱ.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렴.

있든가 가든가 뜻대로 해.

ㄴ. 어릴 적 살던 곳

영이가 뒀던?

철수가 집에 있던가 없던가?

6) 로서/로써, -프로/-음으로써(제57항)

조사 ‘로서’는 자격, ‘로써’는 도구나 수단의 의미로 쓰인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에는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서’가, “술로써 인생을 탕진했다.”에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는 ‘로써’가 쓰인다.

(48) ㄱ.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자.

친구로서 나를 욕하다니!

ㄴ. 눈물로써 호소했다.

칼로써 연필을 깎는다.

‘-(으)로(써)’와 ‘-프로’도 구분해서 써야 한다. ‘-(으)로(써)’는 ‘-(으)로’에 ‘(으)로(써)’가 붙은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가지고’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프로’는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어미이다. ‘-(으)로(써)’에는 ‘(으)로(써)’가 붙을 수 있지만 ‘-프로’에는 ‘(으)로(써)’가 붙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49) ㄱ. 그는 부지런하므로 잘 산다.(부지런하기 때문에)

ㄴ. 그는 일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낀다.(일하는 것을 가지고)



7) 맞히다/맞추다/마치다(제57항)

‘맞추다’는 ‘기준이나 다른 것에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 ‘적중하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답을 맞히다’와 ‘답을 맞추다’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말이 된다. ‘적중하다’의 의미가 있으면 ‘답을 맞히다’를 쓰고, ‘답을 비교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면 ‘답을 맞추다’를 쓴다. 따라서 “정답을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가 맞고, “친구와 답을 맞춰 보았는데 많이 틀렸더라.”가 맞다. ‘마치다’는 “일을 마쳤다.”와 같이 ‘어떤 일을 마지막으로 끝내다’의 의미로 쓰인다.

(50) ㄱ. 내가 열 문제 모두를 맞혔어.

상자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ㄴ. 내가 쓴 답과 모범 답안을 맞춰 보았다.

ㄷ. 다행히 일을 제시간에 마쳤다.

8) 벌이다/벌리다(제57항)

‘벌이다’는 ‘싸움을 벌이다’, ‘일을 벌이다’, ‘좌판을 벌이다’처럼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펼쳐 놓을 때에 쓰고 ‘벌리다’는 ‘입을 벌리다’, ‘자루를 벌리다’와 같이 둘 사이를 넓힐 때 쓴다.

(51) ㄱ. 마을 회관에서 잔치를 벌였다.

퇴직하고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ㄴ. 다리를 벌리고 앉지 마세요.

입을 크게 벌리세요.

9) 부딪히다/부딪치다(제57항)

‘부딪치다’는 ‘힘차게 부딪다’의 뜻이고 ‘부딪히다’는 ‘부딪음을 당하다’의 뜻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와 버스가 상호작용으로 충돌한 경우에는 ‘부딪치다’를 쓰고, 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부딪게 되는 경우에는 ‘부딪히다’를 쓴다. ‘부딪치다’는 ‘마주’나 ‘서로’라는 부사가 와도 자연스러우나, ‘부딪히다’는 그렇지 않다.



(52) ㄱ. 자동차와 버스가 마주 부딪쳐 사상자가 많다.

ㄴ. 자동차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그들의 결혼은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

졸업과 동시에 냉혹한 현실에 부딪혔다.

10) 붙이다/부치다(제57항)

‘붙이다’와 ‘부치다’는 구별되는 말이다. 대체로 ‘붙다’의 뜻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붙이다’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치다’로 적는다.

(53) ㄱ. 반창고를 붙이다./책상을 벽에 붙이다./불을 붙이다./홍정을 붙이다./감시원을 붙이다./주석을 붙이다./조건을 붙이다./별명을 붙이다./번호를 붙이다.

따귀를 올려붙이다./소매를 건어붙이다./친구를 범인으로 몰아붙이다.

ㄴ. 편지를 부치다./안건을 회의에 부치다./극비에 부치다./인쇄에 부치다./삼촌 집에 숙식을 부치다./한글날에 부쳐/식목일에 부치는 글/기운이 부치다./논밭을 부치다./부침개를 부치다./부채를 부치다.

11) 조리다/줄이다(제57항)

‘조리다’와 ‘줄이다’는 모두 ‘줄다’와 어원적으로 관련 있는 말이지만 ‘조리다’는 ‘줄다’와 그 의미가 멀어졌다고 보아 어원을 밝혀 적지 않는다. ‘조리다’는 ‘생선을 조리다’, ‘장조림’과 같이 양념을 하여 국물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끓일 때 쓰이고, ‘줄이다’는 ‘마음을 줄이다’와 같이 초조해할 때 쓰인다. 그리고 생선조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물이 줄어들게 만든다는 의미일 때에도 ‘줄이다’(‘줄이다’의 작은말)를 쓴다.

(54) ㄱ. 생선을 간장에 조려 먹었다.

생선조림, 장조림, 깻잎조림

ㄴ. 마음을 줄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깜빡 잊고 찌개를 한 시간이나 줄였다.



[연습 문제]

※ 다음 중에서 바른 것을 고르세요.

- 1) {깍두기/깍뚜기} 한 접시 더 주세요.
- 2) {덤석/덤씩} 손을 잡았다.
- 3) 다친 사람을 {안스럽게/안쓰럽게} 쳐다본다.
- 4) {곤장/긔장} 집으로 와라.
- 5) 보수가 많긴 하지만 {중노동/중로동}이다.
- 6) {입사년도/입사 연도}가 언제지?
- 7) {신년도/신연도} 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 8) 식품 속에 {나트륨양/나트륨량}이 많습니다.
- 9) 소금 {함유양/함유량}이 얼마나 되나요?
- 10) 채택된 기사는 {어린이난/어린이란}에 실립니다.
- 11) {답란/답난}을 채우세요.
- 12) {출석률/출석율}이 낮으면 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 13) {흡연률/흡연율}이 해마다 줄고 있다.
- 14) ‘예’, ‘{아니오/아니요}’로 답하세요.
- 15) 어서 {오십시오/오십시요}.
- 16) 하늘을 {나는/날으는} 자동차
- 17) 떡을 찰로 {만듬/만듬}.
- 18) 바쁘니 오지 {마라고/말라고} 하십니다.
- 19) {부은/불은} 라면을 먹고 잤더니 통통 {부었다/불었다}.
- 20) 명절에 먹으려고 김치를 {담쌌다/담꿨다}.
- 21) 공원이 {가까와서/가까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다.
- 22) {반드시/반듯이} 내일까지 끝내겠습니다.
- 23) 우리 조상들은 {일찌기/일찍이} 농사를 짓고 살았다.
- 24) 똥똥이와 {홀쭉기/홀쭉이}
- 25) 주는 대로 {넉죽/넉죽} 받아 먹는다.
- 26) {짚이는/짚히는} 사람이 있다.
- 27) {몇 일/며칠} 동안 고향에 다녀올 생각이다.
- 28) {등교길/등긔길}에 친구를 만났다.
- 29) {수도물/수돗물}의 정수 과정
- 30)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다니 {예사일/예삿일}이 아니다.
- 31) {인사말/인삿말}은 간단한 것이 좋다.
- 32) {아래층/아랫층}으로 내려갔다.



- 33) {대가/댓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
- 34) {해콩/햇콩}을 장에 내다 팔았다.
- 35) {새노란/셋노란} 병아리
- 36) 다시는 {안/얌} 늦을 거야.
- 37) 만나지 {안을/얌을} 거예요.
- 38) {어떻게/어떡해} 하지? 지갑을 잃어버렸어.
- 39) 약을 먹었으니 {금세/금새} 괜찮아질 거예요.
- 40) 이렇게 늦게 {웬일/웬일}이세요?
- 41) 난 있으니 당신 {가져요/갖어요}.
- 42) 괜찮으면 {사귀어/사겨} 봐.
- 43) 아버지는 항상 의사가 {되라고/돼라고} 하셨다.
- 44) {적잖이/적잖이} 놀랐다.
- 45) 준비한 것이 {변변찮지만/변변찮지만} 많이 드세요.
- 46) {쉽쉽지/쉽쉽치} 않게 손님을 대접했다.
- 47) {아뭉튼/아무튼} 내일은 꼭 같이 가는 거다.
- 48) 방을 {깨끗이/깨끗히} 치워라.
- 49) {번번이/번번히} 늦어서 죄송합니다.
- 50) {도저이/도저히} 10시까지 는 못 가겠어요.
- 51) 내일 {벌게요/벌게요}.
- 52) {때깔/땃깔/땃깔}이 좋은 게 맛있게 생겼다.
- 53) {오이소박이/오이소배기}를 담갔다.
- 54) {한 살박이/한 살배기}가 무엇을 알겠어요.
- 55) 찌개는 {뚝배기/뚝배기}에 끓여야 맛있다.
- 56) {곰배기/곰배기}는 혼자 먹기에는 많다.
- 57) 그 사람은 뭐하고 {살든가/살던가}?
- 58) 어디에 {살든/살던} 고향은 잊지 마라.
- 59) 학교 {대표로서/대표로써}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 60) 사업을 {시행하므로서/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 61) 문제를 낼 테니 {알아맞혀/알아맞춰} 보세요.
- 62) 내일 학교에서 잔치를 {벌일/벌릴} 예정입니다.
- 63) 자동차와 트럭이 마주 {부딪쳐/부딪혀} 자가용 운전자가 많이 다쳤다.
- 64) 홍정은 {부치고/붙이고} 싸움을 말리라고 했다.
- 65) 간장을 넣고 한 시간 정도 {조리면/줄이면} 됩니다.



[연습 문제 답]

- | | | | | |
|----------|---------|-----------|------------|------------|
| 1) 깎두기 | 2) 덩석 | 3) 안쓰럽게 | 4) 곧장 | 5) 중노동 |
| 6) 입사 연도 | 7) 신년도 | 8) 나트륨양 | 9) 함유량 | 10) 어린이난 |
| 11) 답란 | 12) 출석률 | 13) 흡연율 | 14) 아니요 | 15) 오십시오 |
| 16) 나는 | 17) 만듦 | 18) 말라고 | 19) 불은/부었다 | 20) 담갔다 |
| 21) 가까워서 | 22) 반드시 | 23) 일찍이 | 24) 흘쭉이 | 25) 넘죽 |
| 26) 짚이는 | 27) 며칠 | 28) 등곶길 | 29) 수돗물 | 30) 예삿일 |
| 31) 인사말 | 32) 아래층 | 33) 대가 | 34) 해콩 | 35) 샛노란 |
| 36) 안 | 37) 앓을 | 38) 어떻게 | 39) 금세 | 40) 웬일 |
| 41) 가져요 | 42) 사귀어 | 43) 되라고 | 44) 적잖이 | 45) 변변찮지만 |
| 46) 섭섭지 | 47) 아무튼 | 48) 깨끗이 | 49) 번번이 | 50) 도저히 |
| 51) 별게요 | 52) 때깔 | 53) 오이소박이 | 54) 한 살배기 | 55) 똑배기 |
| 56) 곱빼기 | 57) 살던가 | 58) 살든 | 59) 대표로서 | 60) 시행함으로써 |
| 61) 알아맞혀 | 62) 벌일 | 63) 부딪쳐 | 64) 붙이고 | 65) 조리면 |



한글 맞춤법 연습

1. 두음 법칙

1.1. 난/란, 량/양

① 답난	답란	답 答欄
② 가십난	가십란	잡 gossip欄
③ 어린이난	어린이란	잡 어린이欄
④ 생산량	생산양	잡 生産量
⑤ 알칼리량	알칼리양	잡 alkali量
⑥ 기름량	기름양	잡 기름量

☞ ‘난/란’, ‘량/양’의 표기는 앞에 오는 말이 한자어인지 고유어·외래어인지로 구분된다. 앞에 오는 말이 한자어일 때는 그대로 적고 고유어나 외래어일 때는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한자어	고유어나 외래어
난/란	독자란, 답란, 의견란	어머니난, 어린이난, 가십난
량/양	수입량, 수출량, 생산량	구름양, 벡터양, 스칼라양

1.2. 률/율

① 합격률	합격율
② 기준률	기준율
③ 감소률	감소율
④ 성장률	성장율



☞ ‘룰/을’의 표기는 앞에 오는 말의 받침에 따라 구분된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받침이 ‘ㄴ’이면 ‘을’로 적고, ‘ㄴ’ 이외의 받침으로 끝나면 ‘룰’로 적는다.

1.3. 기타

① 반립자	반입자	㉞ 反粒子
② 소립자	소입자	㉞ 素粒子
③ 몰럼치	몰염치	㉞ 沒廉恥
④ 파럼치	파염치	㉞ 破廉恥
⑤ 삼십륙	삼십육	㉞ 三十六
⑥ 오뉴월	오유월	㉞ 五六月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예 반입자, 몰염치, 역이용)이나 합성어와 명사구의 뒷말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된다.(예 연이율, 열역학, 해외여행 / 회계 연도, 생산 연도 등) 그러나 사람들의 발음 습관이 그대로 표기에 굳어진 것도 있다.

☞ 숫자를 십진법에 따라 적을 때에는 단어의 첫소리가 아니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예 육천육백육십) 그러나 십진법에 따라 적지 않으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예 오륙도) 사람들의 발음 습관에 따라 적는 경우도 있다.

[생각할 문제]

- 성씨나 이름을 쓸 때도 두음 법칙에 따라야 할까?



2. 사이시옷

2.1. ~국

① [김치썩/김친썩]	김치국	김칫국
② [고기썩/고긴썩]	고기국	고깃국
③ [선지썩/선진썩]	선지국	선깃국
④ [부거썩/부견썩]	북어국	북엇국
⑤ [만두썩/만둔썩]	만두국	만둣국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는 사이시옷을 넣는다.

2.2. ~말

① [혼잔말]	혼자말	혼жат말
② [뒤말]	뒤말	뒫말
③ [시첸말]	시체말	시첻말
④ [머리말]	머리말	머릿말
⑤ [인사말]	인사말	인삿말
⑥ [나라말]	나라말	나라랏말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ㄹ’일 때 [ㄴ] 소리가 덧나면 사이시옷을 넣는다. 그러나 [ㄴ] 소리가 덧나지 않으면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예) 뒷머리[뒤편머리] / 돼지머리[돼지머리]

2.3. ~방

① [빨래방]	빨래방	빨랫방
---------	-----	-----



② [노래방]	노래방	노랫방
③ [가게빵/가겔빵]	가게방	가겋방
④ [구두빵/구둑빵]	구두방	구둑방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지 않으면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2.4. 한자어

① 代價	대가	댓가
② 焦點	초점	춇점
③ 回數	회수	횃수
④ 貰房	세방	셋방
⑤ 傳貰房	전세방	전셋방

☞ ‘한자어+한자어’ 구성의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예) 백지장(白紙張), 기차간(汽車間)

☞ ‘한자어+한자어’ 구성이지만 사이시옷이 붙는 것이 있다.(6개)

예) 곳간, 찻간, 텃간, 셋방, 숫자, 횃수

2.5. 외래어

① 장미빛	장밋빛
② 핑크빛	핑크빛
③ 고기집	고깃집
④ 피자집	피자집

☞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2.6. 수학 용어

① 꼭지점	꼭짓점	
② 소수점	소숫점	㉠ 小數點
③ 대표값	대표값	㉡ 대표치
④ 절대값	절댓값	㉢ 절대치
⑤ 최소값	최솟값	㉣ 최소치
⑥ 최대값	최댓값	㉤ 최대치
⑦ 근사값	근삿값	㉥ 근사치

☞ ‘고유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구성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날 때는 사이시옷을 넣는다.

☞ ‘한자어+한자어’ 구성의 합성어에서는 사이시옷이 붙지 않는다.

[생각할 문제]

- ‘햇님’과 ‘해님’ 중 어느 것이 맞을까?
- 도로명 ‘개나리길’은 ‘개나릿길’로 써야 하지 않을까?

3. 활용

3.1. ‘날다’와 ‘거칠다’의 활용

- ① 나는 하늘을 {나는/날으는} 슈퍼맨이다.
- ② {거친/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 ③ {낮선/낮설은} 곳에서 길을 잃었다.
- ④ 연은 보통 바람이 불 때 잘 {날/날음}.
- ⑤ 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몹시 {낮췄/낮설음}.



☞ ‘ㄹ’ 받침을 가진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ㄴ’이나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예: -는, -느냐, -니, -니까, -네, -시다, -시니, -시고, -십시오, -시구려, -소, -소서, -세 등)가 결합하면 어간의 ‘ㄹ’이 떨어진다.

날- + -는 ⇒ 나는

알- + -는 ⇒ 아는

거칠- + -(으)ㄴ ⇒ 거친

낮설- + -(으)ㄴ ⇒ 낮선

☞ 명사형 어미 ‘-ㅁ/음’은 결합하는 어간의 받침 유무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받침이 없는 용언의 어간이나 ‘ㄹ’ 받침인 용언의 어간에는 ‘-ㅁ’이 붙고 받침이 있는 어간에는 ‘-음’이 붙는다.

가- + -ㅁ ⇒ 감

예쁘- + -ㅁ ⇒ 예쁨

날- + -ㅁ ⇒ 낡

낮설- + -ㅁ ⇒ 낮설

먹- + -음 ⇒ 먹음

좋- + -음 ⇒ 좋음

3.2. ‘맞다’와 ‘알맞다’의 활용

① 내 육감은 잘 {맞는/맞은} 편이다.

② 그 사람은 나와 잘 맞지 {않는/않은} 것 같다.

③ 이 집 요리사가 만든 음식은 내 입맛에 맞지 {않는/않은} 적이 없다.

④ 빈칸에 {알맞는/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⑤ 학생 신분에 알맞지 {않는/않은} 옷차림

⑥ 분위기에 {걸맞는/걸맞은} 옷차림

☞ ‘맞다’와 ‘알맞다, 걸맞다’는 품사가 달라서 활용하는 모습도 다르다. ‘맞다’는 동사이고 ‘알맞다, 걸맞다’는 형용사이다. 그래서 현재 시제 관형형 어미가 결합하면 ‘맞다’는 ‘맞는’이 되고 ‘알맞다, 걸맞다’는 ‘알맞은, 걸맞은’이 된다.

맞- + -는 ⇒ 맞는

㉠ 가는 사람, 먹는 곳

알맞- + -은 ⇒ 알맞은

㉡ 예쁜 사람, 좋은 곳



☞ ‘-지 않다’에서 보조 용언 ‘않다’의 품사는 앞에 오는 말의 품사에 따라 달라진다.

맞지 않는 옷

㉠ 가지 않는 사람

알맞지 않은 옷

㉠ 예쁘지 않은 사람

3.3. ‘되다’의 활용

① {됐으니까/됐으니까} 그만 가자.

㉠ 했으니까

② 어서 의사가 {되라/돼라}.

㉠ 해라

③ 어머니는 아들이 의사가 {되라고/돼라고} 기도했다.

㉠ 하라고

④ 의사가 {되니까/돼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본다.

㉠ 하니까

☞ ‘되다’의 어간에 ‘-어’가 붙으면 ‘되어’가 되고 ‘되어’가 줄면 ‘돼’가 된다.

되- + -어서 ⇒ 되어서/돼서

되- + -었- + -다 ⇒ 되었다/됐다

☞ 간접 인용문의 명령형 어미는 ‘-(으)라고’이므로 ‘되어/돼’가 될 수 없다.

되- + -(으)라고 ⇒ 되라고

㉠ 되- + -어라 ⇒ 되어라/돼라

☞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아니한 청자나 독자에게 책 따위의 매체를 통하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문어체)로 ‘-(으)라’를 쓸 수도 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써라.(쓰- + -어라)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쓰라.(쓰- + -(으)라)

3.4. 명령형 어미

① 어서 집에 {가라/가거라}.

② 여기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가져가거라}.

③ 여기 좀 앉아 {있어라/있거라}.

④ 피곤할 텐데 어서 {자라/자거라}.

⑤ 떠들지 {말아라/마라}.



☞ 해라할 자리에 쓰이는 명령형 어미는 ‘-아라/어라’이다. 다만 어미 ‘-거라’는 ‘가다’나 ‘가다’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 어미 ‘-너라’는 ‘오다’나 ‘오다’로 끝나는 동사의 어간에 붙을 수 있다. 따라서 ‘있거라’, ‘자거라’는 잘못이다.

☞ ‘말다’의 어간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하면 ‘말아, 말아라’가 아닌 ‘마, 마라’가 된다.

제발 떠나지 마.(말- + -아) 제발 떠나지 마라.(말- + -아라)

☞ 다만 문어체 명령형 어미 ‘-(으)라’나 간접 인용문의 명령형 어미 ‘-(으)라고’가 결합하면 ‘말라’가 된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말- + -(으)라)

밤새우지 말란 말이야.(말- + -(으)라고 하는)

3.5. 어미 ‘-아/어’

① 보라색 옷과 함께 빨았더니 흰옷이 {파래졌다/퍼레졌다}.

②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파래졌다/퍼레졌다}.

③ 아이가 친구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진다/빨게진다}.

④ 화가 났는지 얼굴이 {빨개져서/빨게져서} 들어왔다.

⑤ 누가 {그래/그레}?

☞ 어간의 모음이 ‘ㅏ’나 ‘ㅑ’면 ‘-아’ 계열의 어미가 붙고 어간의 모음이 ‘ㅓ’나 ‘ㅕ’가 아니면 ‘-어’ 계열의 어미가 붙는다. ‘파랳다’의 어간에 ‘-아’가 붙으면 ‘파래’가 되고, ‘퍼렁다’의 어간에 ‘-어’가 붙으면 ‘퍼레’가 된다.

파랳- + -아 ⇒ 파래 퍼렁- + -어 ⇒ 퍼레

빨강- + -아 ⇒ 빨개 벌렁- + -어 ⇒ 벌게

☞ 다만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의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이래, 그래, 저래’가 된다.



[잠깐] 색채어에 붙는 접두사 ‘시-/잇-/새-/셋-’도 뒤에 오는 말의 모음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어두음 \ 모음	양성모음	음성 모음
된소리, 거센소리, ‘ㅎ’	새빨갳다, 새파랗다, 새하얗다	시뻘겋다, 시퍼렇다, 시허얇다
울림소리	셋노랗다, 셋말갳다	잇누렇다, 잇멀겋다

4. 된소리 표기

4.1. 단어 내부

- | | |
|---------|-------|
| ① 안스럽다 | 안쓰럽다 |
| ② 살짝 | 살짝 |
| ③ 깎두기 | 깎뚜기 |
| ④ 엽신여기다 | 엽싌여기다 |
| ⑤ 눈곱 | 눈썹 |
| ⑥ 눈살 | 눈썹 |

☞ 한 단어 내에서 된소리로 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다만 ‘ㄱ’이나 ‘ㅂ’ 받침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항상 된소리로 나므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소쩍새, 오빠, 아끼다, 기쁘다, 해쓱하다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훨씬, 움짤, 몽땅, 번쩍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국수, 짹둑, 딱지, 낙지, 납작하다

☞ ‘눈곱’과 ‘눈살’은 [눈썹, 눈썹]로 소리 나므로 ‘눈썹, 눈썹’로 적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곱’과 ‘살’이 자립적으로 쓰이므로 ‘눈곱, 눈살’로 적는다.

곱: 여드름에 앓은 딱지가 떨어져 곱이 흐른다.

살: 주름살, 이맛살



4.2. 어미

- ① 나 집에 {갈게/갈께}.
- ② 아까 집에 같이 {갈걸/갈꼐}.
- ③ 시간이 {갈수록/갈쭙록} 일이 더 힘들다.
- ④ 우리, 집에 {갈가/갈까}?
- ⑤ 이 일을 {어찌할고/어찌할꼬}?

☞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는 된소리로 표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의문을 나타내는 경우	-르까?, -르꼬?, -르쑈냐?
그렇지 않은 경우	-르게, -르걸, -르시, -르지, -르지언정, -르지라도

4.3. 겹쳐 나는 소리

- | | |
|--------|------|
| ① 꽃꽃하다 | 꽃꽃하다 |
| ② 쓱쓱쓱 | 쓱쓱쓱 |
| ③ 쓱쓱하다 | 쓱쓱하다 |
| ④ 유유상종 | 유류상종 |

☞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5. 박이/배기/빼기

5.1. 박이/배기

- ① 두 살박이 두 살배기
 ② 차돌박이 차돌배기
 ③ 장승박이 장승배기 ㉠ 장승감으로 박아서 세워 두는 물건.
 또는 그것이 세워져 있는 곳.
 ④ 알박이 알배기 ㉠ 알이 들어 배가 부른 생선.

☞ ‘박이’와 ‘배기’의 구분은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박다’의 의미가 남아 있는 것은 ‘-박이’를 쓰고 ‘박다’의 의미에서 떨어진 것은 ‘-배기’를 쓴다.

-박이	접박이, 금니박이, 덧니박이, 불박이, 장승박이 (‘무엇이 박혀 있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건’이란 뜻.)
-배기	다섯 살배기(‘그 나이를 먹은 아이’란 뜻), 나이배기(‘그것이 들어 있거나 차 있음’의 뜻), 공짜배기, 대짜배기, 진짜배기(‘그런 물건’의 뜻)

5.2. 배기/빼기

- ① 진짜배기 진짜빼기
 ② 이마배기 이마빼기
 ③ 육자배기 육자빼기
 ④ 악착배기 악착빼기
 ⑤ 뚝배기 뚝빼기
 ⑥ 곱배기 곱빼기 ㉠ 곱: 네 곱, 다섯 곱의 고통

☞ ‘배기’와 ‘빼기’의 구분은 소리와 관련되어 있다. [배기]로 소리 나는 것은 ‘배기’로 적고 [빼기]로 소리 나는 것은 ‘빼기’로 적는다. 다만 ‘뚝배기’처럼 한 형태소(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내부에서 ‘ㄱ, ㅂ’ 받침 뒤에 쓰인 ‘ㅂ’이 된소리로 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빼기’로 적지 않고 ‘배기’로 적는다.



~배기	[배기]로 소리 나는 경우	주정배기, 혀짤배기
	한 형태소 내부, ‘ㄱ, ㄴ’ 받침 뒤에서 [빼기]로 소리 나는 경우	뚝배기, 학배기(잠자리의 애벌레)
~빼기	다른 형태소 뒤에서 [빼기]로 소리 나는 경우 (1. ‘그런 특성이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2. 비하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곰빼기, 밥빼기, 억척빼기, 코빼기

[생각할 문제]

- 서울 상도동에 있는 지명 ‘장승배기’는 ‘장승박이’와 다른 것일까?

6. -이/히

- | | | |
|---------|-----|-----|
| ① [깨끄시] | 깨끗이 | 깨끗히 |
| ② [깊쑤기] | 깊숙이 | 깊숙히 |
| ③ [솔찌키] | 솔직히 | 솔직히 |

☞ ‘-이’와 ‘-히’로 끝나는 부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발음이다. [이]로 소리 나는 것은 ‘이’로 적고, [이]나 [히]로 소리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 형태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기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니 사전을 확인해 봐야 한다.

- 1) ‘ㅅ’ 받침 뒤
뜨뜻이, 버젓이, 번듯이, 빠듯이, 지긋이
- 2)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이나 ‘ㄴ’ 불규칙 용언 뒤
같이, 굳이, 깊이, 많이, 실없이, 가벼이, 기꺼이, 너그러이, 즐거이, 새로이
- 3) 첩어 또는 준첩어 명사 뒤
간간이, 나날이, 곰곰이, 번번이, 곳곳이, 째째이, 첩첩이
- 4) 부사 뒤
더욱이, 오히려, 우뚝이, 일찍이, 허죽이, 곰곰이 [ㅁ] 꼼꼼히, 시시콜콜히



7. 이에요/이에요

- | | |
|-------------|-----------|
| ① 학생이에요 | 학생이에요 |
| ② 친구예요 | 친구여요 |
| ③ 김진석이에요 | 김진석이에요 |
| ④ 김진수예요 | 김진수여요 |
| ⑤ 영숙이에요 | 영숙이여요 |
| ⑥ 아니예요(아녜요) | 아니어요(아녀요) |

☞ ‘이에요’와 ‘이여요’는 복수 표준어로 ‘이다’에 ‘-예요’, ‘-여요’가 붙은 말이다. 받침 있는 명사 다음에 붙을 때는 ‘이에요, 이여요’가 되고, 받침 없는 명사 다음에 붙을 때는 ‘예요, 여요’로 줄어든다. 그러므로 ‘*학생이에요’ 처럼 쓸 수 없다.

☞ 사람일 때도 마찬가지이다. 받침이 있으면 ‘이에요, 이여요’가 붙고, 받침이 없으면 ‘예요, 여요’가 붙는다. ⑤의 ‘영숙이에요, 영숙이여요’는 ‘영숙이’에 ‘예요, 여요’가 붙은 것이다.

☞ ‘아니다’의 어간에 ‘-예요, -여요’가 붙으면 ‘아니예요, 아니여요’가 되며 이들은 ‘아녜요, 아녀요’로 줄 수 있다.

8.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예

8.1. -던/든

- ① 예전에 {먹던/먹든} 음식
- ② 내일 {가던지/가든지} 해라.
- ③ 철수가 {뭐라던가/뭐라든가}?



- ☞ ‘-던’과 ‘-든’은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나 의미가 다른 말이다. ‘-던’은 과거 회상의 의미를 나타내고 ‘-든’은 선택의 의미를 나타낸다. ‘-던’이 들어 있는 ‘-던가, -던걸, -던고, -던데’ 등도 모두 과거 회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8.2. 그리고 나서

- ①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그리고 나서} 차를 마셨다.
 - ② 밥을 먹었다. {그리고는/그리고는} 차를 마셨다.
- ☞ ‘-고 나서’는 ‘가고 나서, 먹고 나서’처럼 동사의 어간 뒤에 붙는다. 동사 ‘그러다’의 어간에 ‘-고 나서’가 붙은 말이므로 ‘그리고 나서’로 쓰는 것이 맞다.
- ☞ ‘-고는’도 ‘먹고는, 쉬고는, 말하고는’처럼 ‘-고’ 앞에 동사의 어간이 온다. 그러므로 ‘그리고는’이 맞다.

8.3. 하므로/함으로

- ① 그는 열심히 {공부하므로/공부함으로} 성공할 것이다.
 - ② 이 법률을 {시행하므로/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 ☞ ‘하므로’는 ‘하다’의 어간에 이유·원인의 연결 어미 ‘-(으)므로’가 붙은 말이고, ‘함으로’는 ‘하다’의 명사형 ‘함’에 수단·방편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으로’가 붙은 말이다.

8.4. 떼다/떠다/띄다

- ① 선거가 끝나면 벽보를 {떼기로/띄기로} 했다.
- ② 미소를 {띤/띤} 얼굴



③ 멀리서도 눈에 {띈다/띰다}.

☞ ‘떼다, 띠다, 띄다’도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나 뜻이 다르다.

떼다	벽보를 떼다, 한글을 떼다, 젓을 떼다, 눈을 떼다, 입을 떼다
띠다	허리띠를 띠다, 임무를 띠다, 미소를 띠다, 홍조를 띠다
띄다	① 눈에 띄다(뜨이다) ② 두 줄을 띄다(띄우다)



♠ 정 답 ♠

1. 두음 법칙

- 1.1. ①답란 ②가십난 ③어린이난 ④생산량 ⑤알칼리양 ⑥기름양
- 1.2. ①합격률 ②기준율 ③감소율 ④성장률
- 1.3. ①반입자 ②소립자 ③몰염치 ④파렴치 ⑤삼십육 ⑥오뉴월

2. 사이시옷

- 2.1. ①김칫국 ②고깃국 ③선짓국 ④북엇국 ⑤만둣국
- 2.2. ①혼잣말 ②뒷말 ③시쳇말 ④머리말 ⑤인사말 ⑥나라말
- 2.3. ①빨래방 ②노래방 ③가겇방 ④구둣방
- 2.4. ①대가 ②초점 ③횃수 ④셋방 ⑤전세방
- 2.5. ①장밋빛 ②핑크빛 ③고깃집 ④피자집
- 2.6. ①꼭짓점 ②소수점 ③대푯값 ④절댓값 ⑤최솟값 ⑥최댓값 ⑦근삿값

3. 활용

- 3.1. ①나는 ②거친 ③낮선 ④낯 ⑤낯쉽
- 3.2. ①맞는 ②얕는 ③얕은 ④알맞은 ⑤얕은 ⑥걸맞은
- 3.3. ①됐으니까 ②돼라 ③되라고 ④되니까
- 3.4. ①가라/가거라 ②가져가라/가져가거라 ③있어라 ④자라 ⑤마라
- 3.5. ①파래졌다 ②퍼레졌다 ③빨개진다 ④빨게져서 ⑤그래

4. 된소리 표기

- 4.1. ①안쓰럽다 ②살짝 ③깍두기 ④엽신여기다 ⑤눈곱 ⑥눈살
- 4.2. ①갈게 ②갈걸 ③갈수록 ④갈까 ⑤어찌할꼬
- 4.3. ①끗끗하다 ②쓱쓱쓱 ③쓱쓸하다 ④유유상종

5. 박이/배기/빼기

- 5.1. ①두 살배기 ②차돌박이 ③장승박이 ④알배기
- 5.2. ①진짜배기 ②이마빼기 ③육자배기 ④악착빼기 ⑤뚝배기 ⑥곰빼기



6. -이/히

- ①깨끗이 ②깊숙이 ③솔직히

7. 이에요/이어요

- ①학생이에요/학생이어요 ②친구예요/친구여요 ③김진석이에요/김진석이어요
④김진수예요/김진수여요 ⑤영숙이에요/영숙이여요 ⑥아니예요/아니어요

8.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예

- 8.1. ①먹던 ②가든지 ③뭐라던가
8.2. ①그리고 나서 ②그러고는
8.3. ①공부하므로 ②시행함으로(써)
8.4. ①떼기로 ②뎌 ③뒀다



띄어쓰기

1. 띄어쓰기의 필요성

‘띄어쓰기’는 왜 하는 것일까?

- (1) ㄱ. 한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ㄴ.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1ㄱ)과 띄어쓰기를 한 (1ㄴ)을 비교해 보자. 띄어쓰기를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에 비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이처럼 띄어쓰기는 의미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간혹 띄어쓰기를 정확히 하지 않아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띄어쓰기가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거나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 (2) ㄱ. 어제 산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 ㄴ. 어제 산 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2ㄱ)과 (2ㄴ)은 비슷해 보이지만 띄어쓰기에 따라 시장에 내다 판 토끼의 종류가 달라진다. (2ㄱ)은 산에 사는 토끼를 내다 팔았다는 것이고, (2ㄴ)은 다른 사람에게 구입한 토끼나 살아 있는 토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 (3) ㄱ. 큰집으로 이사를 갔다.
- ㄴ.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

(3)의 예 역시 비슷하다. 띄어쓰기를 안 한 ‘큰집’은 큰아버지 댁을 의미하지만, 띄어쓰기를 한 ‘큰 집’은 크기가 큰 집을 의미한다. 가령 “큰 집으로 이



사를 갔다. 큰어머니께서 우리를 반겨 주셨다.”와 같은 문장을 읽을 때 ‘(크기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큰어머니가 왜 반겨 주실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오해는 ‘큰집’을 ‘큰 집’으로 쓴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띄어쓰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띄어쓰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띄어쓰기의 원리

2.1. 자립성과 의존성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 있고 항상 다른 말의 앞이나 뒤에 붙어 쓰이는 말이 있다. 아래의 말들을 두 개의 동아리로 나누어 보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4) 하늘, 자동차, 를, -는구나, 바다, 구름, -겠-, -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과 ‘를, -는구나, -겠-, -습니다’로 나누는 데 동의할 것이다.

(5) ㄱ. 하늘, 자동차, 바다, 구름
 ㄴ. 를, -는구나, -겠-, -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동아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앞의 것은 명사이고 뒤의 것은 명사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뜻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의 차이가 아니냐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늘’과 ‘를’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6) ㄱ. 무얼 보니?
 - 하늘.



ㄴ. 어딜 가니?

- 바다.

(6)에서처럼 ‘하늘, 바다’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를, -는구나, -겠-’ 등은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일이 없다. [를], [는구나]라고 일부러 읽지 않는 한 이들을 단독으로 소리 내서 쓰지는 않는다.

단독으로 소리를 내서 쓰는 말들을 ‘자립적’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말들은 ‘의존적(비자립적)’이라고 한다. 의존적인 말들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언제나 앞이나 뒤에 나타나는 다른 요소에 붙어 쓰인다는 특징이 있다.

(7) ㄱ. 학교를

ㄴ. 먹-습니다

ㄷ. 가-겠-다

(7ㄱ)의 ‘학교를’에서 ‘를’은 ‘학교’에 붙어 쓰이고 (7ㄴ)의 ‘-습니다’는 ‘먹-’에, (7ㄷ)의 ‘-겠-’은 ‘가-’와 ‘-다’에 각각 붙어 쓰인다.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이는 의존적인 말들은 다음과 같다.

(8) ㄱ. 조사: 이/가(친구가), 을/를(친구를), 에게(친구에게), 도(친구도) 등

ㄴ. 접사: 덧-(덧버선), 최-(최첨단), -질(도둑질), -님(선생님) 등

ㄷ. 어간: 먹-(먹다), 하-(하다), 예쁘-(예쁘다), 좋-(좋다) 등

ㄹ. 어미: -는다(먹는다), -습니다(먹습니다), -겠-(먹겠다), -었-(먹었다) 등

2.2. 단어의 판별 기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에 명시되어 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한글 맞춤법” 제1장 제2항)

이 원칙은 대단히 명료해서 ‘단어’가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띄어쓰기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띄어쓰기 문제는 명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단어란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을 가리키지만 ‘밤낮, 국밥, 돌아가다’ 등과 같이 두 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 그것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새로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의미이다. 즉 새로운 의미가 생겼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루의 신체기관’을 의미하는 ‘노루 귀’는 띄어 쓰지만 ‘미나리아재빗과의 풀’을 의미하는 ‘노루귀’는 붙여 쓴다. ‘노루귀’에는 ‘노루’나 ‘귀’로는 예측할 수 없는 의미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9) ㄱ. 노루V귀 - 노루의 귀

ㄴ. 노루귀 - 미나리아재빗과의 풀

두 번째 기준은 단어의 긴밀성이다. 즉 두 말 사이의 관계가 긴밀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단어인 ‘가져가다’는 ‘가져’와 ‘가다’의 관계가 긴밀하여 다른 요소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지만 한 단어가 아닌 ‘받아 가다’는 다른 요소가 끼어들 수 있다.

(10) ㄱ.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갔다/*가져서 갔다}.

ㄴ. 모두들 선물을 {받아 갔다/받아서 갔다}.

이러한 사실은 ‘가져가다’와 ‘받아 가다’의 띄어쓰기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3. 띄어쓰기의 실제

3.1. 조사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자립적인 명사와 달리 조사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것이 결합하는 단어의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다, 부터, 까지, 는커녕, 조차, 보다’ 등을 앞말과 띄어 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조사이므로 띄어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11) ㄱ. 이곳은 {국립국어원입니다/*국립국어원∨입니다}.
- ㄴ. {5시부터/*5시∨부터} {7시까지/*7시∨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 ㄷ. {노래는커녕/*노래는 커녕/*노래 는커녕} {말하기조차/*말하기 ∨조차} 어렵다.
- ㄹ. 다른 {회사보다/*회사∨보다} 늦게 끝나는 편입니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는 둘 이상 겹치거나 어미 뒤에 붙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 (12) ㄱ. {학교에서처럼만/*학교에서∨처럼만/*학교에서처럼∨만} 행동하면 된다.
- ㄴ. {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만∨이라도} 편하게 쉬고 싶었다.
- ㄷ. {언제인지부터는/*언제인지∨부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화가 되지 않는다.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는 예들이다. ‘같이, 밖에, 하고’ 등은 형태는 동일한



데 의미와 기능에 따라 조사로 다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문장에서의 쓰임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1) 같이

‘당신같이’의 ‘같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이때의 ‘같이’는 ‘처럼’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단 ‘친구와 같이’처럼 조사가 앞에 오는 경우 ‘같이’는 ‘함께’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참고로 ‘당신 같은’의 ‘같은’ 또한 조사가 아니다.

- (13) ㄱ. 당신같이 친절한 사람은 없을 거야.
 ㄴ. 친구와 같이 오세요.
 ㄷ. 당신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2) 밖에

‘밖에’는 ‘밖’이라는 명사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다. 이때의 ‘밖에’는 ‘안’에 대응되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 (14) ㄱ. 학교 밖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다.
 ㄴ. 이 밖에 다른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밖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이때의 ‘밖에’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로 다룬다. 따라서 앞말에 붙여 쓴다.

- (15) ㄱ. 가진 것이 천 원밖에 없어.
 ㄴ. 이런 일은 철수밖에 못할걸.
 ㄷ. 아직은 “맘마”라는 말밖에 몰라.



3) 하고

‘하고’는 ‘와/과’로 바꿀 수 있는 ‘하고’와 인용문 뒤에 오는 ‘하고’로 나뉜다. ‘와/과’로 바꿀 수 있는 ‘하고’는 ‘와/과’와 마찬가지로 조사로 다루며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인용문 뒤에 오는 ‘하고’는 조사가 아닌 동사 ‘하다’의 어간에 어미 ‘-고’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인용문 뒤에 오는 ‘라고’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16) ㄱ. 친구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ㄴ.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ㄷ. 할아버지께서는 “알았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 의존 명사

명사 중에는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가 있는데, 이를 의존 명사라고 한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인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단어로 다루어진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

(17) ㄱ. 할∨수∨없이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ㄴ. 일을 제시간에 끝내야 할∨텐데.

ㄷ. 부재∨신 관리실에 맡겨 주세요.

ㄹ. 회의∨중이오니 조용히 해 주십시오.

ㅁ. 기간∨내에 제출할 것

‘수, 터, 시, 중, 내’ 등은 모두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이 외에도 ‘것, 나름, 나위, 노릇, 놈, 등, 등등, 따름, 때문, 무렵, 바, 뻔, 뻔, 적, 줄, 즈음, 지, 터, 겸, 김, 대로, 듯이, 만, 만큼, 바람, 채, 체, 통’ 등도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다른 말과 형태는 동일한데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는 예들이 있다. 의존 명사는 앞서 살펴본 조사와 형태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어미의 일부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접미사와 비슷한 경우도 있다.

1) 대로

‘대로’가 ‘법대로, 약속대로’처럼 명사 뒤에 붙어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조사이며, ‘좋으실 대로, 아는 대로’처럼 용언의 관형형¹⁾ 뒤에서 ‘그와 같이’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대로’는 명사 뒤에 올 때는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올 때는 띄어 쓴다.

(18) ㄱ.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마음대로 해라. (조사)

ㄴ. 당신 좋으실 대로 하세요./아는 대로 말해라./지칠 대로 지친 몸 (의존 명사)

2) 뿐

‘뿐’ 역시 ‘당신뿐, 공부뿐’처럼 명사 뒤에 붙을 때는 조사이고 ‘말할 뿐, 먹을 뿐’처럼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올 때는 의존 명사이다. 간혹 ‘너뿐만 아니라’는 ‘너뿐만아니라’로 모두 붙여 쓰거나 ‘너 뿐만 아니라’로 잘못 띄어 쓰는 일이 있으나, ‘뿐’과 ‘만’이 모두 조사이므로 ‘너뿐만 아니라’로 쓰는 것이 옳다.²⁾

(19) ㄱ.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온 사람은 철수뿐이다. (조사)

ㄴ. 조용히 들을 뿐 뭐라고 하지 않는다./열심히 노력할 뿐이다. (의존 명사)

1) 용언의 관형형이란 용언(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어미 ‘-ㄴ, -는, -르’ 등이 결합한 것으로, 이들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한다. 예를 들어 ‘먹은 음식, 먹는 음식, 먹을 음식’의 ‘먹은, 먹는, 먹을’을 용언의 관형형이라고 한다.

2) 요즘 ‘뿐만아니라’를 접속어로 쓰는 일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과자를 먹었다. 뿐만 아니라 빵도 먹었다.”에서 ‘뿐만 아니라’는 ‘그뿐만 아니라’를 잘못 쓴 것이다.



3) 만

‘만’은 명사 뒤에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가 있다. “혼자만 여행을 떠났다.”에서 ‘혼자만’의 ‘만’은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의 ‘만’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돌아왔다.”에서 쓰인 ‘만’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데, 이때의 ‘만’은 의존 명사이다. ‘만’이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주로 ‘만에’, ‘만의’, ‘만이다’의 꼴로 쓰이며, 앞에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다.

- (20) ㄱ. 혼자만 여행을 떠났다./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밥만 먹는다. (조사)
 ㄴ.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십 년 만의 귀향/이게 얼마 만이야.
 (의존 명사)

다만 “정말 오랜만이군.”이라고 할 때는 ‘오랜 ∨ 만’으로 띄어 쓰지 않는데, 이것은 ‘오래간만’의 준말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용언의 관형형 뒤에 오는 ‘만’이 있다. 이때의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 (21) 지낼 ∨ 만하다./먹을 ∨ 만은 한테 좀 비싸다. (의존 명사)

참고로 ‘만’과 ‘하다’가 연결되어 나타나는 구성이 있는데, 이때의 ‘만’도 앞에 오는 말에 따라 띄어쓰기가 다르다.

- (22) ㄱ. 강아지가 좋아지만 ∨ 하다.
 ㄴ. 음악이 {들을 ∨ 만하다/들을만하다}.

(22ㄱ)의 ‘좋아지만 ∨ 하다’의 ‘만’과 ‘하다’는 조사 ‘만’과 ‘하다’가 연결된 구성이다.³⁾ 이때의 ‘만’은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3) ‘만하다’를 접미사로 보기도 하지만 ‘좋아지만 하다’의 ‘만 하다’가 접미사가 아니라는 것은 ‘좋아지만 만은 하다’처럼 보조사가 끼어들어 가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달함을 나타낸다. 이와 달리 (22ㄴ)의 ‘들을∨만하다’와 같이 용언의 관형형 다음에 오는 ‘만’은 의존 명사이며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그러므로 ‘만’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일 수도 있다.⁴⁾

4) 데

‘데’는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인 ‘-ㄴ데’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ㄴ데’의 띄어쓰기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에’를 비롯한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지 따져 보는 것이다. ‘에’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띄어 쓰지 않는다.⁵⁾ (23ㄱ)의 ‘하는 데’ 뒤에는 ‘하는 데에’처럼 조사 ‘에’가 결합할 수 있으나 (23ㄴ)의 ‘가는데’ 뒤에는 조사가 결합하면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진다. 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렇지 못한 ‘-는데’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23) ㄱ. 이 일을 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ㄴ.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24) ㄱ. 이 일을 하는∨데에…… (결합 가능)

ㄴ. *학교에 가는데에 …… (결합 불가능)

다음도 조사 ‘에’를 상정할 수 있으므로 ‘데’를 앞말과 띄어 쓴다.

(25) 얼굴이 예쁜∨데(에)다가 마음씨도 곱다.

5) 바

‘바’도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인 ‘-ㄴ바’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이 역시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결합할 수 없으면 붙여 쓴다는 기준을 적용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4) 의존 명사 ‘만, 양, 법’ 등 뒤에 ‘하다’나 ‘싶다’가 붙은 보조 용언 구성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다. ‘3.5. 보조 용언’ 참조.

5)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명사류의 특징 중 하나다.



(26) ㄱ. 금강산에 가 본바 과연 절경이더군.

ㄴ. 그 일은 고려해 본 바(가) 없다.

(26ㄱ)의 ‘본바’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26ㄴ)은 ‘그 일은 고려해 본 바가 없다’와 같이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므로 (26ㄴ)의 ‘본 바’는 띄어 쓴다.

6) 지

‘지’ 역시 의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어미 ‘-는지, -는지’의 일부로 쓰일 때가 있다. ‘지’가 어미의 일부로 쓰였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다른 어미로 바꾸어 보는 것이다. ‘-는지’가 ‘-니까’와 띄어쓰기가 같고 ‘-는지’가 ‘-는가’와 띄어쓰기가 같다.

(27) ㄱ. 제시간에 도착할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할까 모르겠다.

‘도착할까’를 ‘도착할 까’로 띄어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착할까’와 ‘도착할지’가 서로 같으므로 ‘도착할지’로 붙여 쓴다고 이해하는 것이 ‘-는지’가 어미이므로 앞말과 붙인다는 문법적인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다음의 ‘도착했는지 모르겠다’의 띄어쓰기 또한 ‘도착했는가 모르겠다’와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8) ㄱ. 제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ㄴ. 제시간에 도착했는가 모르겠다.

이와는 달리 다음의 예들은 다른 어미와 바꾸기 어렵다.

(29) ㄱ. 고향을 떠난 지 십 년 만에 돌아왔다.

ㄴ. 친구를 만난 지 한참 되었다.



(29ㄱ)의 ‘떠난^ㅅ지’는 ‘떠난가’로 바꿀 수 없으며 (29ㄴ)의 ‘만난^ㅅ지’ 역시 ‘만난가’로 바꿀 수 없다. 이때의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에 오는 용언의 관형형과 띄어 쓴다. ‘지’가 의존 명사로 쓰일 때에는 뒤에 기간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

7) 것(거)

‘ㄹ것’의 띄어쓰기는 ‘ㄹ것을’로 풀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30) ㄱ. 나중에 후회할것.
 ㄴ. 후회할^ㅅ것 왜 그랬어?

(30ㄱ)의 ‘후회할것’은 ‘-ㄹ것’이 어미로 쓰이는 경우로 ‘할 것을’로 풀 수가 없다. 그렇지만 (30ㄴ)은 의존 명사 ‘것’이 들어 있는 ‘후회할 것을’로 풀 수 있으므로 ‘후회할^ㅅ것’로 띄어 쓴다.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는 ‘-ㄹ게’도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그러나 ‘-ㄹ^ㅅ게(것이)’로 바꿀 수 있으면 띄어 쓴다.

- (31) ㄱ. 나 먼저 할게.(←갈 것이야)
 ㄴ. 집에 가서 할^ㅅ게(할^ㅅ것이) 아주 많아.

8) 간

‘간’은 앞에 오는 명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간’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오면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 이때의 ‘간’은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나 ‘거리’나 ‘사이, 관계’를 나타낼 때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32) ㄱ. 삼 분간 기다려 주십시오.
 ㄴ. 서울 부산^ㅅ간 급행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ㄷ.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가든지^ㅅ간에 좀 움직여라.



나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한미간, *한일간’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가 많으나 이때의 ‘간’ 역시 ‘사이, 관계’를 나타내므로 ‘한미 ∨ 간, 한일 ∨ 간’으로 써야 한다. 다만 (33ㄴ)과 같이 한 단어로 굳어진 것은 붙여 쓴다.

- (33) ㄱ. 국가 ∨ 간, 가족 ∨ 간, 친구 ∨ 간, 동료 ∨ 간
 ㄴ. 부자간, 모자간, 부녀간, 모녀간, 형제간, 자매간……
 다자간

[기타] 열거하는 말과 이어 주는 말

열거할 때에 쓰이는 ‘등’은 의존 명사이므로 ‘귤, 사과 등’과 같이 앞말과 띄어 쓴다. 그리고 두 말을 이어 줄 때 쓰이는 ‘겸’ 역시 ‘시인 겸 소설가’와 같이 띄어 쓴다.

- (34) ㄱ. 귤, 사과 ∨ 등이 있다.
 ㄴ. 시인 ∨ 겸 ∨ 소설가

열거할 때 쓰이는 말에는 ‘등’ 이외에 ‘등등, 등속, 등지’가 있으며, 두 말을 이어 주는 말에는 ‘겸’ 이외에 ‘내지, 대, 및’ 등이 있다.

- (35) ㄱ. 교실에는 책상, 결상 ∨ 들이 있다.
 ㄴ. 사진, 그림, 영화 ∨ 등등 볼 것이 많다.
 ㄷ. 사과, 배, 복숭아, 감 ∨ 등속을 샀다.
 ㄹ. 충주, 청주, 대전 ∨ 등지로 돌아다녔다.

- (36) ㄱ. 국장 ∨ 결 ∨ 과장
 ㄴ. 열 ∨ 내지 ∨ 스물
 ㄷ. 청군 ∨ 대 ∨ 백군, 삼 ∨ 대 ∨ 일
 ㄹ. 기간 ∨ 및 ∨ 경비



3.3. 수 표현

1) 숫자

‘스물여섯’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스물여섯’으로 붙여 쓴다. 그런데 국어사전에는 ‘스물여섯’이 올라 있지 않다. 이는 ‘스물여섯’이 합성어가 아니며 ‘스물V여섯’으로 띄어 쓴다는 말이다. 구성 요소인 ‘스물’과 ‘여섯’에서 ‘스물여섯’의 의미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물여섯’은 분명히 합성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스물여섯’으로 붙여 쓸까? ‘스물여섯’으로 붙여 쓰는 근거는 “한글 맞춤법” 제44항에서 찾을 수 있다.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이 규정은 ‘십이억V삼천사백오십육만V칠천팔백구십팔’과 같은 띄어쓰기에 적용되지만 ‘스물여섯’에도 적용된다.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것은 ‘만, 억, 조, 경’ 등을 단위로 띄어 쓴다는 뜻이지만, ‘만’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는 언제나 붙여 쓴다는 뜻도 포함한다.

(37) ㄱ. 스물여섯

ㄴ. 십이억V삼천사백오십육만V칠천팔백구십팔

2) 숫자와 단위 명사

숫자 뒤에 쓰인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그러나 ‘그 수를 조금 넘음’을 나타내는 ‘-여’는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38) ㄱ. 금 서V돈, 바둑 한V판, 버선 한V줄, 신 두V켤레, 북어 한V꺅

ㄴ. 십여만V명, 십만여V명, 십V년여, 십여V년, 삼십여V년간,
두V시간여, 삼백오십여V명



3.5. 보조 용언

다른 용언 뒤에서 앞에 오는 용언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고 싶다’의 ‘싶다’, ‘-지 않다’의 ‘않다’, ‘-지 말다’의 ‘말다’ 등은 보조 용언이다.

- (41) ㄱ. 하고 ∨ 싶은 얘기가 있다.
 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 않았다.
 ㄷ. 에스컬레이터에서 뛰지 ∨ 마세요.
 ㄹ. 물건이 좋기는 ∨ 한데 좀 비싸다.

이런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나 모든 보조 용언을 붙여 쓰는 것은 아니다. 보조 용언 중에서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만 붙여 쓸 수 있다.

- (42) ㄱ. 말도 없이 {서 ∨ 있었다/서있었다}.
 ㄴ. 하늘을 보니 비가 {올 ∨ 듯싶다/올듯싶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도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일 때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존 명사와 ‘-하다’나 ‘-싶다’ 사이에 조사가 붙을 때도 붙여 쓰지 않는다.

- (43) ㄱ. {울어도 ∨ 보고/*울어도보고} 매달려도 보았으나 모두 헛일이었다.
 ㄴ. 너무 바쁘다 보니 약속을 {잊어먹어 ∨ 버렸다/*잊어먹어버렸다}.
 ㄷ. 비가 {올 ∨ 듯도 하다/*올듯도하다}.

참고로 ‘-어 지다’와 ‘-어 하다’는 보조 용언이기는 하지만, 용언의 종류를 바꾼다는 점에서 붙여 쓰는 것만 허용한다.



(44) ㄱ. 의자는 나무로 {만들어졌다/*만들어√졌다}.

ㄴ. 그는 아이를 {예뻐한다/*예뻐√한다}.

간혹 어떤 말은 보조 용언으로 쓰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장이 화가 나서 서류를 찢어버렸어.”라고 할 때 ‘찢어 버리다’의 띄어쓰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찢어 버리다’의 ‘버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다. ‘밥을 먹어 버렸다’, ‘국이 식어 버렸다’의 ‘버리다’와 같은 경우인데 이럴 때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다.

(45) 서류를 {찢어√버렸다/찢어버렸다}.

그런데 겉모습은 같지만 ‘버리다’가 보조 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서류를 찢어 버렸다’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46) 서류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

‘버리다’가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라면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 가능하고 ‘*서류를 찢어버렸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3.6. 전문 용어

전문어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붙여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50항).

(47) ㄱ.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47ㄱ)과 (47ㄴ)을 비교해 보면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뜻을 짐작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영역에서는 붙여 쓰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어에 속하는 말은 모두 단어별로 띄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8) 염화-나트륨, 강장-동물, 사과-나무, 두시-언해

화합물이나 동식물의 분류상의 명칭, 책명처럼 이미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경우에는 전문어라 하더라도 띄어 쓸 수 없다.

3.7. 고유 명사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쓰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한글 맞춤법” 제49 항).

(50) ㄱ. 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단어별 띄어쓰기)

ㄴ. 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단위별 띄어쓰기)

(50ㄱ)보다 (50ㄴ)의 띄어쓰기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서울대학교’가 한 단위이고, ‘의과대학’이 한 단위이고, ‘부속병원’이 한 단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관을 보여 주기 위해 ‘단위별로 띄어 쓴다’는 단서를 단 것이다.⁶⁾

다만 기관명에 ‘직속, 산하, 부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직속, 산하, 부설’은 앞뒤에 오는 말과 띄어 쓴다. 이것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지 한 단위로 묶일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49) ㄱ.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ㄴ.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6) 이때의 ‘단위’는 직관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띄어 쓸 수 있지만 ‘국립현대∨미술관’으로 띄어 쓸 가능성은 낮다.



3.8. 성과 이름, 호칭어

성과 이름, 성과 호, 성과 자는 붙여 쓴다. 다만 호나 자가 성명 앞에 놓일 때는 띄어 쓴다.

- (51) ㄱ. 김철수, 정송강, 이충무공
 ㄴ. 송강 정철, 충무공 이순신

그리고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은 띄어 쓴다.

- (52) ㄱ. 홍 씨, 홍길동 씨, 길동 씨(군, 웅, 양, 님)
 ㄴ. 홍 과장, 홍길동 과장(차장, 부장, 이사, 회장)

호칭어로 쓰이는 ‘씨’는 앞에 오는 성이나 이름과 띄어 쓴다. 그러나 (53ㄴ)처럼 성씨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붙여 쓴다.

- (53) ㄱ. 그 일은 김 씨가 맡기로 했네.
 ㄴ. 우리나라에서 김씨가 제일 큰 성이다.

3.9. 단음절어의 연속

한 음절로 된 단어가 여럿 이어지는 경우, 일일이 띄어 쓰면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읽기에도 불편하므로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허용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된다.

- (54) ㄱ. 한 잎 두 잎/한잎 두잎
 ㄴ. 이 집 저 집/이집 저집



그러므로 한 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 (55) ㄱ. 더 큰 이 새집/*더큰 이새집
 ㄴ. 좀 더 큰 집/*좀더 큰집

3.10. 외래어

외래어의 띄어쓰기는 원어의 띄어쓰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렇지만 국어에서 한 단어로 굳어진 경우라면 띄어 쓰지 않는다. 그리고 준말로 굳어져 쓰이는 말은 붙여 쓴다.

- (56) ㄱ. 덩크 슈트, 퍼스널 컴퓨터, 아이스 댄스, 로드 쇼, 백 스텝, 팝 아트, 그래픽 디자이너, 아트 페이퍼
 ㄴ. 앵커맨, 백미러, 백네트, 콜론, 콜머니, 콜택시, 카페리, 슈크림, 커피숍, 콘칩, 코너킥, 쿠데타, 아이스크림, 골인, 골킥, 홀인원, 홈인, 홈런, 핫케이크, 핫도그, 핫라인, 립크림, 팝송, 리어카, 티오프, 워밍업, 와이셔츠, 월드컵
 ㄷ. 에어컨, 리모콘, 오토바이, 아이큐, 오피스텔

외래어 인명 역시 원어의 띄어쓰기를 따른다. 우리나라의 인명과 달리 원어의 띄어쓰기대로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일본인 역시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그러나 중국인의 경우 성과 이름을 붙여 쓴다.

- (57) ㄱ. 헤르만 V 헤세, 마이클 V 잭슨
 ㄴ. 도요토미 V 히데요시
 ㄷ. 마오쩌둥/모택동



그리고 외래어 지명 뒤에 ‘산, 강, 호, 해’ 등이 올 때에는 앞에 오는 말과 띄어 쓰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외국 지명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었을 때는 띄어 쓰지 않는다.

- (58) ㄱ. 알프스 산, 양쯔 강, 미시간 호, 오호츠크 해
 ㄴ. 계족산, 양자강, 송화호, 지중해



[연습 문제]

※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세요.

- 1) 이곳은 {국립국어원입니다/국립국어원 ∨ 입니다}.
- 2) {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 ∨ 만이라도/집에서만 ∨ 이라도} 좀 쉬세요.
- 3) {친구같이/친구 ∨ 같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 4) 열심히 할 {수밖에/수 ∨ 밖에} 없어요.
- 5) {"할게."하고/"할게." ∨ 하고} 하지 않는다.
- 6) 비가 더 와야 {할텐데/할 ∨ 텐데}.
- 7) 행사 {참여시/참여 ∨ 시} 준비할 물건
- 8) {맘대로/맘 ∨ 대로} 하세요.
- 9) {지칠대로/지칠 ∨ 대로} 지쳐서 말을 할 수가 없다.
- 10) 몸에 {좋은뿐만/좋은 ∨ 뿐만} 아니라 값도 싸다.
- 11) {사흘만/사흘 ∨ 만} 시간을 주세요.
- 12) {사흘만/사흘 ∨ 만}에 전화가 왔다.
- 13) 이곳 음식은 {먹을만하다/먹을 ∨ 만하다/먹을 ∨ 만 ∨ 하다}.
- 14) 다음은 {신청하는데/신청하는 ∨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 15)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하는 ∨ 데} 성적은 별로다.
- 16) {검토한바/검토한 ∨ 바} 문제가 있어서 알려 드립니다.
- 17) {조사한바/조사한 ∨ 바}를 상사에게 알렸다.
- 18) 열심히 {하는지/하는 ∨ 지}는 잘 모르겠다.
- 19) 집을 {떠난지/떠난 ∨ 지} 세 시간 만에 회사에 도착했다.
- 20) {버릴걸/버릴 ∨ 걸} 왜 샀니?
- 21) 미안한데 먼저 {먹을게/먹을 ∨ 게}.
- 22) 공사 때문에 {이틀간/이틀 ∨ 간} 휴업합니다.
- 23) {한일간/한일 ∨ 간} 축구 경기
- 24) 서울, 부산, {인천등/인천 ∨ 등} 대도시
- 25) 행사 {장소및시간/장소및 ∨ 시간/장소 ∨ 및 ∨ 시간}
- 26) 일억삼천사백만원/일억 ∨ 삼천사백만 ∨ 원/일억 ∨ 삼천 ∨ 사백만 ∨ 원
- 27) {각지방/각 ∨ 지방}에서 올라온 지원자
- 28) {각처/각 ∨ 처}에서 올라온 지원자
- 29) {하고싶은대로/하고싶은 ∨ 대로/하고 ∨ 싶은 ∨ 대로} 하세요.
- 30) 우리 한번 {해보자/해 ∨ 보자}.



- 31) 종이배가 {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
- 32) 일이 많아 요새 좀 {힘들어한다/힘들어▽한다}.
- 33) 원각사지▽십층▽석탑/원각사지십층석탑
- 34) 한국▽대학교▽문과▽대학▽국어▽국문학과
한국대학교▽문과대학▽국어국문학과
한국대학교문과대학국어국문학과
- 35) 보건▽복지부▽산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산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산하▽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산하한국보건산업진흥원
- 36) 최우/최▽우
- 37) 박선생님/박▽선생님
- 38) {김씨/김▽씨}, 이쪽으로 와 보세요.
- 39) {김씨/김▽씨} 성을 가진 사람
- 40) 미시시피강/미시시피▽강



[연습 문제 답]

- | | | |
|--|--------------------|----------------|
| 1) 국립국어원입니다 | 2) 집에서만이라도 | 3) 친구같이 |
| 4) 수밖에 | 5) “할게.” ∨ 하고 | 6) 할 ∨ 텐데 |
| 7) 참여 ∨ 시 | 8) 맘대로 | 9) 지칠 ∨ 대로 |
| 10) 좋을 ∨ 뿐만 | 11) 사흘만 | 12) 사흘 ∨ 만 |
| 13) 먹을만하다/먹을 ∨ 만하다 | 14) 신청하는 ∨ 데 | 15) 하는데 |
| 16) 검토한바 | 17) 조사한 ∨ 바 | 18) 하는지 |
| 19) 떠난 ∨ 지 | 20) 버릴 ∨ 걸 | 21) 먹을게 |
| 22) 이틀간 | 23) 한일 ∨ 간 | 24) 인천 ∨ 등 |
| 25) 장소 ∨ 및 ∨ 시간 | 26) 일억 ∨ 삼천사백만 ∨ 원 | 27) 각 ∨ 지방 |
| 28) 각처 | 29) 하고 ∨ 싶은 ∨ 대로 | 30) 해보자/해 ∨ 보자 |
| 31) 떠나려가 ∨ 버렸다 | 32) 힘들어한다 | |
| 33) 원각사지 ∨ 십층 ∨ 석탑/원각사지십층석탑 | | |
| 34) 한국 ∨ 대학교 ∨ 문과 ∨ 대학 ∨ 국어 ∨ 국문학과
한국대학교 ∨ 문과대학 ∨ 국어국문학과 | | |
| 35) 보건 ∨ 복지부 ∨ 산하 ∨ 한국 ∨ 보건 ∨ 산업 ∨ 진흥원
보건복지부 ∨ 산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 36) 최우 | 37) 박 ∨ 선생님 | 38) 김 ∨ 씨 |
| 39) 김씨 | 40) 미시시피 ∨ 강 | |



띄어쓰기 연습

1. 띄어쓰기의 필요성

흔히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와 같은 표현을 예로 들어, ‘띄어쓰기’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함을 역설한다. 하지만 실제로 국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띄어쓰기’와는 상관없이, 위 문장의 의미를 보통 전자 쪽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대학교 의과대학’처럼 띄어쓰기를 한 경우가, ‘한국대학교의과대학’처럼 붙여 쓴 경우보다 의미를 훨씬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띄어쓰기’는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띄어 쓸 것인가’인데, 다음 장에서 그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

2. 띄어쓰기의 원리

현행 맞춤법에서 채택한 띄어쓰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어떻게 띄어 쓸 수 있는지 가능한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보자.

- (가)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 (나)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 (다)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 (라) 문장에서(√)두단어를√붙여쓸수는(√)없다

(가)의 경우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어 잘게 띄어 써 봤다. 그러다 보니 조사 ‘에서, 를, 는’, 어미 ‘-다’, 관형사 ‘두’, 의존 명사 ‘수’를 모두 띄어 썼는데 언뜻 보아도 비실용적이다. 반면 (나)에서는 조사와 어미, 관형사와 의존



명사를 모두 앞말에 붙여 써 봤는데, 흔히 이렇게 띄어쓰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에서는 의존 형식인 조사와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쓰고, 자립 형식인 관형사와 의존 명사는 띄어 써 보았다. 끝으로 (라)에서는 통사적인 구절 단위로 끊어 보았는데, 대체로 우리가 읽을 때 끊어지는 단위와 비슷하다. 이들 네 가지 방법 중에서 현행 맞춤법은 (다)처럼 띄어 쓰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칙은 아래와 같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1장 제2항)

<참고>

1. 단어의 정의

단어란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예] 김, 좋다, 꼭, 그 등

(☺ 단어의 개념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사전을 이용할 수 있다. 의문이 나는 표현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면 일단 단어일 확률이 높다.

2. 단어의 구성별 종류

① 단일어(어근)

[예] 김, 밥, 돌다, 가다 등

② 합성어(어근 + 어근)

[예] 김밥, 나뭇잎, 돌아가다, 뛰어놀다 등

③ 파생어(접두사 + 어근)

[예] 중환자, 총감독, 휘돌다, 치단다 등

(어근 + 접미사)

[예] 선생님, 김씨(김가), 생각하다, 체하다 등

3. 단어의 품사별 종류

① 명사(의존 명사), 대명사, 수사

② 조사

③ 동사, 형용사 (용언, 어간과 어미, 본용언과 보조 용언)

④ 관형사, 부사

⑤ 감탄사



<질문 1> 단어는 모두 띄어 쓰나요?

답: 그렇다. 원칙적으로 단어는 모두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인지(합성어, 파생어), 구(句)로 남아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이라면 두 단어를 붙여 쓰지만, ‘우리 집’처럼 구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띄어 써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조사(㉠ 이, 가, 을, 를, 에, 에서 등)’는 단어로 분류되지만, 의존적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질문 2> 붙여 써야 하는 의존적 형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앞에서 밝힌 ‘조사’ 외에 ‘접두사’, ‘접미사’, ‘어미’가 있다. 이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중(重)-’, ‘-별(別)’, ‘-었-’처럼 ‘붙임표(-)’로 의존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사전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붙여 써야 한다는 띄어쓰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 단어 여부 판별 방법

앞에서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이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인지(합성어, 파생어), 아니면 구(句)로 남아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 두 단어가 연속되는 경우에 단어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기준 1.

- 식구가 늘어서 {큰집/큰√집}으로 이사를 갔다.
- 할아버지 제사라서 {큰집/큰√집}에 가야 한다.

두 단어가 연속되었는데, 그 두 단어의 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다면, 새 단어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도 올리게 된다. 예를 들어 ‘큰 집’이 크기가 큰 집을 의미한다면, 이때는 띄어 써야 한다. ‘큰’과 ‘집’의 합으로 이 의미가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종가(宗家)’를 의미한다면, 분명히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이므로 이때는 한 단어로 보고 붙여 써야 한다.



연습 문제

- (1) 저녁에 술 {한잔/한√잔}합니다.
- (2)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딱 {한잔/한√잔}만 할게요.
- (3) 가구가 비를 맞아 {못쓰게/못√쓰게} 되어 버렸다.
- (4) 아프다더니 얼굴이 영 {못쓰게/못√쓰게} 되었구나.
- (5) 우리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로 정하자.
- (6) 우리는 끝까지 의견을 {같이할/같이√할} 것이다.
- (7) {큰형/큰√형}만 도착하지 않고 있다.
- (8) {우리학교/우리√학교}는 시설이 매우 좋다.

기준 2.

- 선배가 보고서를 {봐주어/봐√주어} 잘못된 내용을 고칠 수 있었다.
- 이번 한 번만 {봐주면/봐√주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답: 두 단어가 연속될 때 단어인지 관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중간에 다른 말을 삽입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연속되는 두 단어 사이에 긴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김밥’처럼 이것이 하나의 단어라면 긴밀성이 강해서, ‘김에밥*’처럼 다른 말이 삽입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앞의 예는 ‘봐서 주다’와 같이 다른 말을 삽입할 수 있는 반면 뒤의 예는 다른 말을 삽입할 수 없다. 이처럼 긴밀성이 약하면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쓰고, 다른 말을 삽입할 수 없다면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연습 문제

- (9) 방 안을 {돌러보았다/돌러√보았다}.
- (10) 설날에 선생님 댁에 {찾아가서/찾아√가서} 세배를 드렸다.
- (11) 이대로 {주저앉을/주저√앉을} 수는 없다.
- (12) 손을 {모아잡고/모아√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 (13) 할인 매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주워담기에/주워√담기에} 바빴다.



4. 조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질문 1> 조사가 여러 개 연결된 경우에도 붙여 쓰나요?

- {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만이라도/집에서만√/이라도} 편히 쉬고 싶다.

답: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흔히 나타나는 잘못은 여러 개의 조사가 겹칠 경우에 띄어 쓰려고 하는 것인데, 조사는 두 개 이상이 결합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집’ 뒤에 있는 ‘에서-만-이라도’는 모두 조사이므로 전부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또한 어미 뒤에 조사를 쓸 경우에도 붙여 쓴다.

연습 문제

- (1) {나가면서까지도/나가면서√/까지도} 책을 보았다.
- (2) {여기에서부터입니다/여기에서√/부터입니다/여기에서부터√입니다}.
- (3) 아직은 {좋아한다기보다/좋아한다기√/보다} 호감이 있는 정도이다.
- (4) 역사에 {대해서만이/대해서√/만이}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질문 2> 다음 예도 조사인가요?

- 역시 {친구밖에/친구√/밖에} 없어.
- {이밖에/이√/밖에} 다른 요인도 많이 있었다.

답: 조사의 띄어쓰기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조사를 판별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것이다. ‘은, 는, 이, 가, 을, 를, 에서’ 등이 조사라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밖에, 같이, 는커녕, 라고, 그러’ 등이 조사라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또한 똑같은 형태이지만 품사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는데, 앞 예의 ‘밖에’에서 ‘밖’은 명사로 조사 ‘에’와 결합할 수도 있지만, ‘밖에’ 그 자체가 조사이기도 하다. 첫 번째 문장에서처럼 뒤에 부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가 올 경우, ‘그것 외에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조사’로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반면 두 번째 문장에서처럼 이런 쓰임이 아닐 경우에는



명사 ‘밖’에 조사 ‘에’가 결합한 것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아래에 혼동하기 쉬운 조사 몇몇을 정리하였다.

<참고> 혼동하기 쉬운 조사

같이, 그러, 깨나, ㄴ즉슨, ㄴ커녕, 나마, 더러, 마는, 마따나, 마저, 만큼, 말고, 밖에, 보고, 부터, 뿐, 서부터, 라고, 야말로, 에게다, 에다가, 에서부터, 으로부터, 이시여, 이야말로, 조차, 치고, 하고, 하며, 한테 등

연습 문제

- (5) {“그래.”라고/“그래.”√라고} 그가 말했다.
- (6) {“그래.”하고/“그래.”√하고} 그가 말했다.
- (7) 철수는 {너하고/너√하고} 닮았다.
- (8) {소같이/소√같이} 일만 했다.
- (9) {친구와같이/친구와√같이} 사업을 했다.
- (10) {너같이 바보같은/너같이 바보√같은/너√같이 바보√같은} 사람은 없어.
- (11) 그 계획 {좋습니다그러/좋습니다√그러}.
- (12) {이야긴즉슨/이야긴√즉슨} 이렇다.
- (13) {빨리는커녕/빨리는√커녕} 천천히도 못 걸겠다.

답: ‘같이’는 ‘같다’라는 형용사에서 나온 말로 부사로도 조사로도 사용된다. 먼저 부사인 경우에는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모두와 같이 했다.)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올랐다.)’의 뜻이 있다. 다음으로 조사인 경우에는 ‘① ‘처럼’의 뜻(눈같이 흰 꽃),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매일같이 지각하다.)’하는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같이’가 부사인 경우에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하고, 조사인 경우에는 붙여 써야 하는데, 이는 대체로 앞말에 ‘와’ 같은 조사를 붙여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은 ‘같다’라는 형용사의 관형형이므로 당연히 띄어 써야 한다.



5.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질문 1> 의존 명사가 무엇인가요?

- 진상을 {들은바/들은√바}, 그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바가/공헌하는√바가} 없다.

답: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한다. 의존 명사는 의미적 독립성은 없으나, 다른 단어 뒤에 의존하여 명사적 기능을 담당하므로 하나의 단어로 다루어진다. 하지만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 단어에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따라 띄어 쓴다.

그런데 어떤 형식이 의존 명사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여 붙여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래에 주요 의존 명사의 목록과 의존 명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참고> 주요 의존 명사

것, 나름, 나위, 노릇, 놈, 등, 등등, 따름, 때문, 무렵, 바, 뻔, 뻔, 적, 줄, 즈음, 지, 터, 겹, 김, 대로, 듯이, 만, 만큼, 바람, 채, 체, 통

<참고> 의존 명사 구별 방법

- ① 그 자리에 다른 명사를 대치할 수 있나?
(예) 아는 것이 힘이다. → 지식)
- ②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나? (예) 나도 할 수 있다. → 수가)
- ③ 앞에 기댈 수 있는 다른 말이 있나?(예) 먹을 만큼 먹어라 → 먹을)

연습 문제

- (1) 나는 {내나름대로/내√나름대로/내√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 (2) {너때문에/너√ 때문에} 힘들었다.
- (3) 동생은 내 말에 {들은척도/들은√척도} 않는다.
- (4) {말하는이가/말하는√이가} 누구지?



(5) 내일 뭐 {할거니/할√거니}?

(6) 비가 와야 {할텐데/할√텐데}.

㉮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나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와 같은 표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나름’이나 ‘때문’이 의존 명사이므로, 앞에 ‘제 나름대로’ 혹은 ‘그 때문에’처럼 기댈 수 있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문 2> 다음 예는 의존 명사인가요, 조사인가요?

- 이름이 나지 {않았을뿐이지/않았을√뿐이지} 참 성실한 사람이다.
- 우리 민족의 염원은 {통일뿐이다/통일√뿐이다}.

답: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조사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보통 앞에 기대는 말이 용언류라면 의존 명사이고, 명사류라면 조사이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않았다’는 보조 동사이므로 그 뒤에 나온 ‘뿐’을 띄어 쓰고, ‘통일’은 명사이므로 그 뒤에 나온 ‘뿐’은 붙여 써야 한다.

연습 문제

(7) {툼나는대로/툼나는√대로} 자료를 찾았다.

(8) 처벌은 {법대로/법√대로} 해야 한다.

(9) {주는만큼/주는√만큼} 받는다.

(10) 나도 {당신만큼/당신√만큼} 할 수 있다.

(11) 그가 화를 {낼만도/낼√만도} 하다.

(12) 청군이 {백군만/백군√만} 못하다.

(13) 그때 이후 {삼년만/삼√년만/삼√년√만}이다.

㉮ ‘만’은 의존 명사로 ‘타당한 이유가 있음, 가능함’이나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조사로는 ‘한정, 비교’를 의미한다.

<질문 3> 다음 예는 의존 명사인가요, 어미인가요?

- 그 책을 다 {읽는데/읽는√데} 삼 일이 걸렸다.
- 내가 텔레비전을 {보는데/보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답: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어미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앞의 예를 살펴 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 ‘데’는 ‘곳, 일,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 ‘-는데’는 ‘상황’을 설명하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이렇게 의존 명사인지 어미인지 혼동이 될 때는, 그 혼동되는 형식 뒤에 조사를 붙여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조사는 명사류에 결합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조사가 자연스럽게 결합된다면 의존 명사일 가능성이 더 높다.

연습 문제

- (14) 서류를 {검토한바/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15)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바/공헌하는√/바} 크다.
- (16) 그를 {만난지/만난√/지} 꽤 오래되었다.
- (17) 무엇이 {틀렸는지/틀렸는√/지} 답을 맞춰 보자.
- (18) 차는 이미 {떠난걸/떠난√/걸}.
- (19) 그렇게 {좋아하는걸/좋아하는√/걸} 어떻게 안 해?

<질문 4> 다음 예는 의존 명사인가요, 접미사인가요?

- {수일내/수일√/내}로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그는 {저녁내/저녁√/내} 안 보였다.

답: 형태는 같은데 의존 명사이기도 접미사이기도 한 경우가 있다. 의존 명사이지만 흔히 접미사로 오해하여 잘 띄어 쓰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앞의 예에서 ‘내’는 ‘여름내, 마침내, 끝내’처럼 일부 기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접미사이므로 붙여 쓰지만, ‘기간√/내, 단지√/내, 안전선√/내’처럼 ‘일정한 범위의 안’이라는 뜻으로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연습 문제

- (20) {부모자식간/부모√/자식간/부모√/자식√/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 (21)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간에/하든지√/간에} 열심히만 해.
- (22) 내일부터 {한달간/한√/달간/한√/달√/간} 휴가입니다.
- (23) 과일에는 사과, 배, {감들/감√/들}이 있다.
- (24) 백화점에는 {사람들/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6. 단위성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연습 문제

- (1) {15회/15√회} 수료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 (2) 오늘 {제3차/제√3차/제3√차/제√3√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 (3) 학생은 모두 {40여명/40√여명/40여√명/40√여√명} 정도입니다.
- (4) 연령은 대개 {30세가량/30√세가량/30세√가량/30√세√가량}입니다.

7. 수 표현의 띄어쓰기

[규정] 제44항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연습 문제

- (1) {스물여섯/스물√여섯}
- (2) {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
- (3) {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

8. 열거하는 말의 띄어쓰기

[규정]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연습 문제

- (1) {국장겸과장/국장겸√과장/국장√겸/과장}
- (2) {열내지스물/열내지√스물/열√내지√스물}
- (3) {청군대백군/청군대√백군/청군√대√백군}
- (4) {기간맞경비/기간맞√경비/기간√맞√경비}를 명시 바람.
- (5) 교실에는 책상, {결상등/결상√등}이 있다.



- (6) 사진, 그림, {영화등등/영화√/등등} 볼 것이 많다.
- (7) 사과, 배, 복숭아, {감등속/감√/등속}을 샀다.
- (8) 충주, 청주, {대전등지/대전√/등지}로 돌아다녔다.

9. 단음절어 연속 시의 띄어쓰기

[규정] 제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질문> 단음절로 된 모든 단어는 붙여 쓸 수 있나요?

- 훨씬 {더큰새집/더큰√/새집/더√/큰√/새집/더√/큰√/새√/집}이야.
- {더큰이새/더큰√/이새/더√/큰√/이새/더√/큰√/이√/새} 책상

답: 글을 띄어 쓰는 것은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좀 더 큰 이 새 집’처럼 한 음절로 이루어진 단어가 여럿 이어지는 경우, 기록하기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시각적 부담을 가중시켜 독서 능률이 감퇴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좀더 큰 이 새집’처럼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단음절어인 관형사와 명사, 부사와 부사가 연결되는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의미적으로 한 덩이를 이룰 수 있는 구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한 음절로 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음절어이면서 관형어나 부사인 경우라도, 관형어와 관형어, 부사와 관형어는 원칙적으로 띄어 쓴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더√/큰√/새집’으로 붙여 쓸 수는 있지만 ‘더큰√/새집’처럼 붙여 쓸 수는 없고, ‘더√/큰√/이√/새’의 경우에는 모두 띄어 써야 한다.

연습 문제

- (1) {좀더큰집/좀더√/큰집/좀√/더√/큰집/좀√/더√/큰√/집}이 낫겠다.
- (2) {내것네것/내것√/네것/내√/것√/네√/것}이 어디 있냐?
- (3) {이곳/이√/곳}은 국립국어원입니다.
- (4) {그때/그√/때} 우리는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 (5) {전날/전√/날} 말씀드린 것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답: ‘이곳, 그때, 전날’과 같은 단어를 붙여 쓰는 것은 1음절 단어가 두 개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이미 한 단어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단어를 ‘이√곳, 그√때, 전√날’처럼 띄어 쓰면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0.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규정]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질문 1> 보조 용언이 무엇인가요?

- 선물을 미리 {뜯어버렸다/뜯어√버렸다}.
- 화가 나서 선물을 {뜯어(서)버렸다/뜯어(서)√버렸다}

답: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한다. 이런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이 원칙이지만, 붙여 씀도 허용한다. 그래서 앞의 첫 문장에서 ‘뜯어√버렸다’가 원칙이지만 ‘뜯어버렸다’처럼 써도 된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의 ‘뜯어서√(휴지통에)√버렸다’처럼 두 개의 용언이 모두 의미 전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연습 문제

- (1) 준비가 다 끝났으니 고기를 {잡아보자/잡아√보자}.
- (2) 고기를 {잡아(서)봐도/잡아(서)√봐도}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다.
- (3) 천 원만 {깎아주세요/깎아√주세요}.
- (4) 사과를 {깎아(서)주지/깎아(서)√주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질문 2> 보조 용언은 모두 붙여 쓸 수 있나요?

- 어머니를 {도와드린다/도와√드린다}.



- 우리는 집에 {가고싶다/가고√/싶다}.

답: 여기서의 보조 용언은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 -아/어 주다, -아/어 가다, -아/어 있다 등)과 의존 명사에 ‘-하다’나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 듯하다, 듯싶다, 만하다, 법하다 등)만을 가리킨다. 이러한 보조 용언에 한해서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보조 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의 예에서, 첫 문장의 경우에는 ‘도와드리다’처럼 붙여 써도 되겠지만,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가고/싶다’처럼 띄어 써야겠다.

연습 문제

- (5) 나무가 {늘어간다/늘어√/간다}.
- (6)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이겨√/냈다}.
- (7) 좋은 내용을 {알아가지고간다/알아가지고√/간다/알아√/가지고√/간다}.
- (8) 오늘 꼭 {하고싶은/하고√/싶은} 것이 있다.
- (9) 공부는 {하지않고/하지√/않고} 잠만 자면 안 된다.
- (10) 그 사람은 {학자인양한다/학자인양√/한다/학자인√/양한다}.
- (11) 나를 {모르는체하고/모르는체√/하고/모르는√/체하고} 갔다.
- (12) 하늘을 보니 비가 {울듯싶다/울듯√/싶다/울√/듯싶다}.
- (13) 값을 {물어만보았다/물어만√/보았다}.
- (14) 홍수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
- (15) 하늘을 보니 비가 {울듯도싶다/울듯도√/싶다/울√/듯도√/싶다}.

㉠ 붙여 써도 되는 보조 용언이라 하더라도,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동사인 경우(예: 덩벼들어√/보아라, 놓아두어√/보았다)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띄어 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다.

<질문 3> 이것은 보조 용언이 아닌가요? 왜 띄어 쓰면 틀렸다고 하나요?

- 오늘 유난히 글이 잘 {써진다/써√/진다}.
- 우리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 모두를 {예뻐하신다/예뻐√/하신다}.



답: ‘-아/어’로 연결된 ‘지다’와 ‘하다’는 대체로 붙여 쓰는 경향이 있다. ‘-아/어’로 연결된 ‘지다’는 동사와 두루 결합하여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특별한 제약 없이 대부분의 용언과 두루 결합하는 특성 때문에 이는 마치 하나의 문법 요소처럼 인식된다. 따라서 본용언과 붙여 쓰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으며, 학교 문법에서도 이를 수용하고 있다.

‘-아/어’로 연결되는 ‘하다’ 또한 본용언과 붙여 쓰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전에서도 이를 모두 붙여 쓰고 있다. 이는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두루 결합하여 형용사를 동사로 바꾼다. 이러한 부류의 말을 모두 ‘-아/어하다’와 같이 붙여 쓴다.

11. 성명의 띄어쓰기

[규정]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연습 문제

- (1) {김소월/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
- (2) {채영신씨/채영신√씨}가 여기에 계십니까?
- (3) {김씨/김√씨}가 이 일을 했다.
- (4) {김씨/김√씨}들은 다 그래?
- (5) {황보영/황보√영}이 발표를 했다.

12. 성명 이외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규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쓸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연습 문제

- (1) {대한중학교/대한√중학교}



- (2) {한국대학교사범대학/한국대학교√/사범대학/한국√/대학교√/사범√/대학}
- (3)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답: ‘한국 교육 연구원’처럼 단어별로 띄어 쓰면, 각 단어가 지니고 있는 뜻은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고유 명사를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단위’란 그 고유 명사로 일컬어지는 대상물의 구성단위를 뜻한다.

13.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규정]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연습 문제

- (1) {만국음성기호/만국√/음성기호/만국√/음성√/기호}
- (2) {관상동맥경화증/관상√/동맥경화증/관상√/동맥√/경화증}
- (3) {두팔들어가슴벌리기/두팔들어√/가슴벌리기/두팔√/들어√/가슴√/벌리기/두√/팔√/들어√/가슴√/벌리기}

14. 관형사의 띄어쓰기

연습 문제

- (1) 요즘 {각(各)가정/각√/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 (2) {각(各)인/각√/인}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 (3) {고(故)홍길동/고√/홍길동} 씨를 추모하는 모임입니다.
- (4) {고(故)인/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 (5) {본(本)국어원/본√/국어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 (6) {본(本)원/본√/원}에서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모십니다.
- (7) {순(純)한국식/순√/한국식}으로 음식을 차렸다.



- (8) 이번에 {순(純)이익/순√이익}이 크게 났다.
- (9) {총(總)32면/총√32면}의 신문
- (10) 우리 부서 금년 예산은 {총(總)5억원/총√5억√원}
- (11) {총인구/총√인구}의 80%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 (12) 참여 인원은 {총40명이다/총√40명이다}.

답: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는 하나의 단어이므로 당연히 띄어 써야 한다. 그런데 1음절로 된 관형사의 경우 종종 붙여 쓰는 것을 보게 된다. 대개 이것을 접두사로 생각하여 붙여 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형태가 관형사로도 접두사(때로는 합성 명사의 구성 성분인 명사 <예> 순수익, 순이익)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때때로 혼동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체로 이들은, 관형사의 경우에는 뒤에 다양한 명사가 올 수 있고, 접두사의 경우에는 그 뒤에 몇몇 명사밖에 올 수 없다는 것으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글을 쓸 때는 사전에 걸에 두고 항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15. 외래어의 띄어쓰기

<질문 1> 외래어를 띄어 쓰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 {매스미디어/매스√미디어}가 국민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 그는 {톱클래스/톱√클래스} 가수이다.

답: 외래어는 원어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원어에서 띄어 쓴 말이 라고 해도 관용적으로 굳어진 말이나 준말, 원어에 없는 외래어는 붙여 쓴다.

연습 문제

- (1)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이 생각난다.
- (2) 우리 집에는 {에어컨/에어√컨}이 없다.
- (3)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에 {도핑테스트/도핑√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 (4) 요즘 {뉴스쇼/뉴스√쇼}가 인기가 있다.
- (5) 명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고스톱/고√스톱}을 쳤다.



<질문 2> 외래어와 한자어가 함께 쓰인 경우에는 모두 붙여 쓰나요?

- 최근에 {아마존강(江)/아마존√강}을 여행했다.
- 요즘 {프랑스어(語)/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다.
- 모든 {알코올류(類)/알코올√류}는 중독성이 있다.

답: 외래어와 고유어, 혹은 외래어와 한자어 간의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칙이 없다. 단지 ‘외래어 표기법’에 ‘카리브√해, 몽블랑√산’ 등이 예시되어 있을 뿐이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대체로 지명은 ‘아칸소√주, 에베레스트√산’처럼 띄어 쓰는 것으로, 언어명이나 종족명은 ‘러시아√어/러시아어, 게르만√족/게르만족’처럼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는 것으로, 기타 ‘이슬람력’이나 ‘디자인류’처럼 띄어 쓸 경우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아 ‘이슬람 역’, ‘디자인 유’와 같이 써야 하는 말은 붙여 쓰는 것으로, 그 원칙을 삼고 있다.



【 띄어쓰기 연습 답안 】

3. 단어 여부 판별 방법

- (1) 저녁에 술 {한잔/한√잔}합시다.
- (2)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딱 {한잔/한√잔}만 할게요.
- (3) 가구가 비를 맞아 {못쓰게/못√쓰게} 되어 버렸다.
- (4) 아프다더니 얼굴이 영 {못쓰게/못√쓰게} 되었구나.
- (5) 우리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로 정하자.
- (6) 우리는 끝까지 의견을 {같이할/같이√할} 것이다.
- (7) {큰형/큰√형}만 도착하지 않고 있다.
- (8) {우리학교/우리√학교}는 시설이 매우 좋다.
- (9) 방 안을 {둘러보았다/둘러√보았다}.
- (10) 설날에 선생님 댁에 {찾아가서/찾아√가서} 세배를 드렸다.
- (11) 이대로 {주저앉을/주저√앉을} 수는 없다.
- (12) 손을 {모아잡고/모아√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 (13) 할인 매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주워담기에/주워√담기에} 바빴다.

4. 조사의 띄어쓰기

- (1) {나가면서까지도/나가면서√까지도} 책을 보았다.
- (2) {여기에서부터입니다/여기에서√부터입니다/여기에서부터√입니다}.
- (3) 아직은 {좋아한다기보다/좋아한다기√보다} 호감이 있는 정도이다.
- (4) 역사에 {대해서만이/대해서√만이}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 (5) {“그래.”라고/“그래.”√라고} 그가 말했다.
- (6) {“그래.”하고/“그래.”√하고} 그가 말했다.
- (7) 철수는 {너하고/너√하고} 닮았다.
- (8) {소같이/소√같이} 일만 했다.
- (9) {친구와같이/친구와√같이} 사업을 했다.
- (10) {너같이 바보같은/너같이 바보√같은/너√같이 바보√같은} 사람은 없어.
- (11) 그 계획 {좋습니다그러/좋습니다√그러}.
- (12) {이야긴즉슨/이야긴√즉슨} 이렇다.
- (13) {빨리는커녕/빨리는√커녕} 천천히도 못 걷겠다.



5.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 (1) 나는 {내나름대로/내√나름대로/내√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 (2) {너때문에/너√때문에} 힘들었다.
- (3) 동생은 내 말에 {들은척도/들은√척도} 않는다.
- (4) {말하는이가/말하는√이가} 누구지?
- (5) 내일 뭐 {할거니/할√거니}?
- (6) 비가 와야 {할텐데/할√텐데}.
- (7) {툼나는대로/툼나는√대로} 자료를 찾았다.
- (8) 처벌은 {법대로/법√대로} 해야 한다.
- (9) {주는만큼/주는√만큼} 받는다.
- (10) 나도 {당신만큼/당신√만큼} 할 수 있다.
- (11) 그가 화를 {낼만도/낼√만도} 하다.
- (12) 청군이 {백군만/백군√만} 못하다.
- (13) 그때 이후 {삼년만/삼√년만/삼√년√만}이다.
- (14) 서류를 {검토한바/검토한√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15) 나라의 발전에 {공헌하는바/공헌하는√바} 크다.
- (16) 그를 {만난지/만난√지} 꽤 오래되었다.
- (17) 무엇이 {틀렸는지/틀렸는√지} 답을 맞춰 보자.
- (18) 차는 이미 {떠난걸/떠난√걸}.
- (19) 그렇게 {좋아하는걸/좋아하는√걸} 어떻게 안 해?
- (20) {부모자식간/부모√자식간/부모√자식√간}에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
- (21)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간에/하든지√간에} 열심히만 해.
- (22) 내일부터 {한달간/한√달간/한√달√간} 휴가입니다.
- (23) 과일에는 사과, 배, {감들/감√들}이 있다.
- (24) 백화점에는 {사람들/사람√들}이 아주 많았다.

6. 단위성 의존 명사의 띄어쓰기

- (1) {15회/15√회} 수료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 (2) 오늘 {제3차/제√3차/제3√차/제√3√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 (3) 학생은 모두 {40여명/40√여명/40여√명/40√여√명} 정도입니다.
- (4) 연령은 대개 {30세가량/30√세가량/30세√가량/30√세√가량}입니다.

7. 수 표현의 띄어쓰기

- (1) {스물여섯/스물√여섯}
- (2) {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삼천오백이십일억√삼천오백}



- (3) {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육조/팔억/칠천}

8. 열거하는 말의 띄어쓰기

- (1) {국장점과장/국장점/과장/국장/점/과장}
- (2) {열내지스물/열내지/스물/열/내지/스물}
- (3) {청군대백군/청군대/백군/청군/대/백군}
- (4) {기간및경비/기간및/경비/기간/및/경비}를 명시 바람.
- (5) 교실에는 책상, {결상등/결상/등}이 있다.
- (6) 사진, 그림, {영화등등/영화/등등} 볼 것이 많다.
- (7) 사과, 배, 복숭아, {감등숙/감/등숙}을 샀다.
- (8) 충주, 청주, {대전등지/대전/등지}로 돌아다녔다.

9. 단음절어 연속 시의 띄어쓰기

- (1) {좀더큰집/좀더/큰집/좀/더/큰집/좀/더/큰/집}이 낫겠다.
- (2) {내젓네젓/내젓/네젓/내/젓/네/젓}이 어디 있나?
- (3) {이곳/이/곳}은 국립국어원입니다.
- (4) {그때/그/때} 우리는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 (5) {전날/전/날} 말씀드린 것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10.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 (1) 준비가 다 끝났으니 고기를 {잡아보자/잡아/보자}.
- (2) 고기를 {잡아(서)봐도/잡아(서)/봐도}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다.
- (3) 천 원만 {짜아주세요/짜아/주세요}.
- (4) 사과를 {짜아(서)주지/짜아(서)/주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 (5) 나무가 {늘어간다/늘어/간다}.
- (6)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이겨/냈다}.
- (7) 좋은 내용을 {알아가지고간다/알아가지고/간다/알아/가지고/간다}.
- (8) 오늘 꼭 {하고싶은/하고/싶은} 것이 있다.
- (9) 공부는 {하지않고/하지/않고} 잠만 자면 안 된다.
- (10) 그 사람은 {학자인양한다/학자인양/한다/학자인/양한다}.
- (11) 나를 {모르는체하고/모르는체/하고/모르는/체하고} 갔다.
- (12) 하늘을 보니 비가 {울듯싶다/울듯/싶다/울/듯싶다}.
- (13) 값을 {물어만보았다/물어만/보았다}.
- (14) 홍수에 모든 것이 {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
- (15) 하늘을 보니 비가 {울듯도싶다/울듯도/싶다/울/듯도/싶다}.



11. 성명의 띄어쓰기

- (1) {김소월/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좋아합니다.
- (2) {채영신씨/채영신√씨}가 계십니까?
- (3) {김씨/김√씨}가 이 일을 했다.
- (4) {김씨/김√씨}들은 다 그래?
- (5) {황보영/황보√영}이 발표를 했다.

12. 성명 이외 고유 명사의 띄어쓰기

- (1) {대한중학교/대한√중학교}
- (2) {한국대학교사범대학/한국대학교√사범대학/한국√대학교/사범√대학}
- (3) {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
전보장회의/대통령√직속√국가√안전√보장√회의}

13. 전문 용어의 띄어쓰기

- (1) {만국음성기호/만국√음성기호/만국√음성√기호}
- (2) {관상동맥경화증/관상√동맥경화증/관상√동맥√경화증}
- (3) {두팔들어가슴벌리기/두팔들어√가슴벌리기/두팔√들어√가슴√벌리기/두√팔√들어
√가슴√벌리기}

14. 관형사의 띄어쓰기

- (1) 요즘 {각(各)가정/각√가정}에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 (2) {각(各)인/각√인}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 (3) {고(故)홍길동/고√홍길동} 씨를 추모하는 모임입니다.
- (4) {고(故)인/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 (5) {본(本)국어원/본√국어원}에서 교육을 합니다.
- (6) {본(本)원/본√원}에서는 역량 있는 지도자를 모십니다.
- (7) {순(純)한국식/순√한국식}으로 음식을 차렸다.
- (8) 이번에 {순(純)이익/순√이익}이 크게 났다.
- (9) {총(總)32면/총√32면}의 신문
- (10) 우리 부서 금년 예산은 {총(總)5억원/총√5억√원}
- (11) {총인구/총√인구}의 80%가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 (12) 참여 인원은 {총40명이다/총√40명이다}.

15. 외래어의 띄어쓰기

- (1)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아이스√크림}이 생각난다.
- (2) 우리 집에는 {에어컨/에어√컨}이 없다.



- (3) 운동선수들은 경기 전에 {도핑테스트/도핑√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 (4) 요즘 {뉴스쇼/뉴스√쇼}가 인기가 있다.
- (5) 명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고스톱/고√스톱}을 쳤다



표준어 규정

1. 표준어 규정의 필요성

모든 언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한 언어 안에서 특정 지역의 말이 다른 지역의 말과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것을 방언이라고 한다. 방언과 방언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언 상호 간에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된다.

우리나라는 영토는 좁지만 많은 방언들이 발달해 있다. 제주도 방언 같은 경우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거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비교적 널리 알려진 ‘감수가(가고 있습니까?)’도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고, ‘바릇(해산물), 돛꿩이(회오리바람), 황고지(무지개), 아지방(서방님)’ 등도 일반인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표준어를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대체로 국가가 표준어를 제정하는 까닭은 대립되는 말을 하나로 정하여 국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표준어가 국가 공통어이므로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한 시대 한 나라 말이라도 지역에 따라 계층에 따라 발음, 어형, 의미 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면 우리의 언어생활은 혼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말을 방언, 위상어, 특수어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말을 내버려 둔다면 한 가지 말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방언은 방언대로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위상어나 특수어도 계층과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어떤 친밀감과 유대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동료 간에 우정을 짝트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떠나서 국민의 언어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공통된 언어가 있어야만 한다. 즉 한 나라 한 민족의 말은 일정한 원칙 밑에서 일관성 있게 발음하고 적게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준을 ‘표준어 규정’이라 하고,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하고 있다. 이 표준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언어이며, 국민 누구나 사용해야 하는 공용어(公用語)이다.

2. 표준어 규정의 제정 과정

현행 표준어 규정은 지난 1988년 1월 19일 정부가 고시한 후,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표준어를 인정한 것은 「보통학교용 언문 철자법」(1912)에 서부터이다. 여기에 “경성어(京城語)를 표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처음 나온다. 이어서 일제 강점기 때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제정한 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을 발표한 것이 실질적인 표준어가 되었다. 사정한 표준말 단어는 모두 9,547개(표준어 6,231개, 약어(준말) 134개, 비표준어 3,082개, 한자어 100개)이다.

그런데 이 ‘표준말 모음’에는 사정한 단어만 수록되어 있을 뿐 사정의 기준이 되는 규정은 제시하지 않고, 전체적인 표준말 사정의 조건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총론 제2항에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래도 당시 상황이 일제 암흑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 차원에서 ‘표준말 모음’이 마련되었지만, 그 목적과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이 ‘표준말 모음’은 그 자체로도 큰 중요성을 지니지만 조선어학회의 국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작업이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조선어학회의 ‘큰사전’은 광복 뒤에 6권으로 간행되어 오늘날까지 표준어의 준거(準據)가 되어 왔다.



이 ‘표준말 모음’이 광복 이후 50년 동안 국민 언어생활의 표준이 되어 계속 사용되는 동안 당시 문교부는 1970년 2월에 국어심의회의 건의에 따라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 모음’의 개정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학술원 산하의 어문 연구 위원회, 국어 연구소를 차례로 만들어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말 모음’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무려 18년 만에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명칭도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데 이 ‘표준어 규정’은 ‘한글 맞춤법’과는 달리 개정이라기보다는 제정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내용을 새로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크게 나누어 제1부의 ‘표준어 사정 원칙(제3장 제26항)’과 제2부의 ‘표준 발음법(제7장 제30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항에는 대표적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였지만, 여기에 나타난 사례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나타나지 않는 말 가운데서 어느 것이 표준어인지 판단할 수 없는 말도 많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1990년 9월 14일 문화부는 ‘표준어 규정’에 나타나지 않는 단어 약 1,400여 개를 골라 사정한 후, 이를 ‘표준어 모음’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하였다(문화부 공고 제36호).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언어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듯이 언제나 새로운 말이 생겨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은 사멸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어는 계속해서 사정되어야 하며, 국가의 중요한 어문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까닭으로 최근(2011. 8. 22.)에도 국립국어원에서는 총 39개 항목의 새 표준어를 추가로 확정된 바 있다.¹⁾

1) 국립국어원은 1999년에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한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들을 검토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다. 표준어를 새로 인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어서 어문 규정에서 정한 원칙, 다른 사례와의 관계, 실제 사용 양상 등을 시간을 두고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2010년 2월 국어심의회의(위원장 남기십)에 상정하였고,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어문규범분과 전문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각의 항목에 대해 총 3회에 걸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 표준어로 선정된 39항목이 2011년 8월 22일 국어심의회의 전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3. 표준어 사정의 대원칙

표준어 사정의 대원칙은 ‘표준어 규정’의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중 ‘제1장 총칙’의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1항은 아래와 같다.

제1항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당시 조선어학회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총론 제2항에서 정한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표준말’을 ‘표준어’로 바꾼 것은 비표준어와 대비하여 ‘표준말-비표준말’이 말결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중류 사회’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교양 있는 사람들’로 바꾼 것이다. ‘현재’를 ‘현대’로 한 것은 ‘현재’가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현재, 즉 영원한 현재로서 역사 속에서 한 시대의 표준말을 규정짓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서울말’에 대해서는 어떤 이는 ‘서울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라 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말은 넓은 의미의 ‘서울말’을 가리키므로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4. 표준어 익히기

4.1. 발음 변화에 따라 선정된 표준어

4.1.1. 자음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 비표준어 표시)

나팔꽃/*나발꽃, 칸/*간, 털어먹다/*떨어먹다



발음의 변화가 워낙 커서 도저히 옛 형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새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나발꽃’에서 바뀐 형태인 ‘나팔꽃’이 널리 쓰이므로 ‘나발꽃’을 버리고 ‘나팔꽃’을 표준어로 정하였다.²⁾ ‘칸’은 한자어 ‘間’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칸’이라고 발음하므로 ‘간’을 버리고 ‘칸’을 표준어로 정하였다.³⁾ ‘재물을 다 없애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털어먹다’는 ‘떨어먹다’에서 바뀐 형태이지만, 이것이 일반화되어 쓰이므로, ‘떨어먹다’를 버리고 ‘털어먹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⁴⁾ ♣끄나풀, 녁(동~, 들~, 새벽~, 동틀 ~), 부엌, 살켁이

제4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을갈이/*가을카리, 분침/*푼침

제3항과 같은 취지로 개정한 것들이나 발음 변화의 방향이 반대인 것들이다. 옛 형태인 ‘가을카리’보다 새로운 형태인 ‘가을갈이’가 널리 쓰이므로, ‘가을카리’를 버리고 ‘가을갈이’를 표준어로 정하였다. 또한 ‘分針’에서 비롯된 형태인 ‘푼침’이 ‘분침’의 의미로 쓰이고는 있으나, ‘분침’이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어원도 분명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푼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침’만을 표준어로 정하였다.

제5항 어원에서 떨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남콩/*강남콩, 사글세/*삭월세

어원(語源)이 뚜렷한데도 언중(言衆)들의 어원 의식이 약해져서 어원으로부터 떨어진 형태가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러한 형태를 가진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남콩’은 ‘江南’에서 온 것이나 이미 어원을 인식하지 않고 쓰이고 있는 언어 현실을 인정하여 현실음대로 ‘강남콩’을 표준어로 정하였고, ‘삭월세’는 ‘朔月貰’의 단순한 한자 취음(漢字取音)으로 현실음인 ‘사글세’만을 표준어로 삼았다.⁵⁾ 그렇지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

2) 다만, 고유의 악기인 ‘나발’과 ‘나팔’은 각각 독립적으로 쓰인다.

3) 그러나 ‘초가삼간, 뒷간’의 경우에는 ‘간’을 인정한다.

4) 그러나 ‘먼지떨이, 재떨이’에는 ‘떨다’의 의미가 남아 있으므로 바꾸지 않았다.



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를 표준어로 삼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갈비(갈비구이, 갈비찜)’와 ‘가리(가리구이, 가리찜)’, ‘적이’와 ‘저으기’의 경우, ‘갈비’와 ‘적이’가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깝고 여전히 쓰이고 있으므로 ‘가리’, ‘저으기’를 버리고 이들만을 표준어로 삼은 경우이다. ♣굴젓, 밀뜨리다, 휴지

제6항 다음 단어는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돌/*똥, 둘째/*두째, 셋째/*세째, 빌리다/*빌다

의미를 구별하여 쓸 경우에 오히려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과거에는 ‘돌’은 생일, ‘똥’은 주기의 의미로 구분해 썼던 것을 ‘돌’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두째, 세째’는 ‘첫째’와 함께 차례를 가리킬 때, ‘둘째, 셋째’는 ‘하나째’와 함께 ‘몇 개째’의 뜻으로 수량을 나타낼 때 쓰이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빌다’는 ‘빌어 오다(借)’로, ‘빌리다’는 ‘빌려 주다(貸)’로 구분하여 쓰이던 것을 ‘빌리다’로 통합한 것이다. 다만, ‘둘째’는 십 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에 ‘두째’로 한다.(단, 열두 개째의 뜻은 ‘열둘째’, 스물두 개째의 뜻은 ‘스물둘째’임.) 그리고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다, 잘못을 용서하여 달라고 호소하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다’의 경우나 ‘구걸하다’의 뜻으로는 그대로 ‘빌다’를 인정한다.

제7항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수평/*숫평, 수놈/*숫놈, 수소/*숫소

다만 1. 다음 단어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한다.

수강아지/*숫강아지, 수평아리/*숫병아리

다만 2.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

숫양/*수양, 숫염소/*수염소, 숫쥐/*수쥐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하였다. 역사적으로 ‘암수’의 ‘수’는 명사 ‘수컷’이었다. 오늘날 ‘수캐, 수탉’ 등에 ‘ㅎ’의 자취가 남아 있다. 그러나

5) 다만, ‘월세’는 여전히 표준어이다.



오늘날 ‘수ㅎ’의 명사로 쓰이는 일은 ‘암수’라는 복합어 정도 이외에는 거의 없어지고 접두사로만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표준어 규정에서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 것이다. 따라서 ‘수평, 수놈, 수소’가 표준어로 된 것이다. 그렇지만 ‘수강아지, 수평아리’ 등은 접두사 ‘수-’ 다음에서 나는 거센소리를 인정하였다. 이는 다음 음절 첫소리와 ‘ㅎ’이 결합하여 거센소리를 이룬 형태가 이미 굳어진 채 널리 쓰이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숫양, 숫염소, 숫쥐’ 등의 단어에 한해서는 접두사를 ‘숫-’으로 하였다. 그 까닭은 발음상 사이시옷과 비슷한 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수나사, 수은행나무, 수고양이, 수기린, 수다람쥐, 수벌, 수범, 수여우/수캐, 수컷, 수탉, 수탕나귀, 수톨쩌귀, 수돼지

4.1.2. 모음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깡충깡충/*깡충깡충, -둥이/*-둥이), 오뚝이/*오뚜기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

부조(扶助)/*부주, 사둔(査頓)/*사둔, 삼촌(三寸)/*삼촌

국어는 모음조화가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언어이다. 그러나 모음조화 규칙은 후세에 오면서 많이 무너졌고, 현재에도 더 약해지고 있는 편이다. 종래의 ‘깡충깡충’이 언어 현실에 따라 ‘깡충깡충’으로 바뀌었고, 큰말은 ‘깡충깡충’이다.⁶⁾ ‘-둥이’도 음성 모음화를 인정하여 ‘-둥이’로 하였다. ‘오뚝이’도 명사나 부사에서나 모두 ‘오뚝이’를 표준어로 정하였는데, 이는 ‘오뚝하다’라는 현실 발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의 경우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다만, ‘부조, 사둔, 삼촌’ 등은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여서, 음성 모음 형태인 ‘부주, 사둔, 삼

6) 그렇지만 형용사 ‘깡충하다’는 비표준어이고, ‘깡충하다’(1. 키가 작은 데 비하여 다리가 좀 길다. 2. 치마나 바지 따위의 옷이 좀 짧다.)가 표준어이다(표준어 모음).



춘'을 버리고 양성 모음 형태인 이들을 그대로 표준어로 삼았다. ♣막둥이, 쌍둥이, 검둥이, 바람둥이, 흰둥이/발가숭이, 보통이, 뺨정다리, 주추

제9항 ‘ㅣ’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는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내기/*-나기, 냄비/*남비

[붙임 1] 다음 단어는 ‘ㅣ’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아지랑이/*아지랭이

[붙임 2] 기술자에게는 ‘-장이’, 기타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장이/*미쟁이, 멧쟁이/*멧장이

‘ㅣ’ 역행 동화는 전국적으로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 동화 형태를 모두 표준어로 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손잡이, 먹이다’까지 ‘손꺠이, 꺠이다’로 바꾼다면 매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ㅣ’ 역행 동화 현상을 인정하는 표준어의 개정은 극소화하였다. ‘-나기’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나기’를 그대로 쓰임직하지만, ‘시골나기, 신출나기, 꺠나기’는 어색하므로 일률적으로 ‘-내기’로 통일하였다. ‘남비’는 일본어의 ‘나베(鍋, なべ)’에서 온 말이라 하여 원형을 의식하여 처리했던 것이나, 제5항에서 ‘강남콩’을 ‘강낭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냄비’로 한 것이다. [붙임 1]의 ‘아지랑이’는 그동안 ‘아지랭이’가 표준어로 행세해 왔으나, 현실 언어가 ‘아지랑이’이므로 역행 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 것이다. [붙임 2]의 ‘-장이’는 논란이 많았던 항목으로서 각각 상황에 따라 가려 쓰게 되었는데, 곧 기술자에게는 ‘ㅣ’ 역행 동화가 적용되지 않은 형태인 ‘-장이’가 붙은 것을, 그 외에는 ‘ㅣ’ 역행 동화가 적용된 형태인 ‘-쟁이’가 붙은 것을 표준어로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건축 공사에서 벽이나 천장, 바닥 따위에 흙, 회, 시멘트 따위를 바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는 ‘미장이’가 표준어이다. ♣동맹이치다, 아기, 아비, 지팡이/유기장이/요술쟁이, 마술쟁이, 무식쟁이, 개구쟁이, 욱심쟁이, 소금쟁이, 담쟁이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루나무/*미류나무, 으레/*으레, 괴팍하다/*괴팍하다

현실적으로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로 굳어져서 쓰이는 것은,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미루나무’는 어원적으로 ‘미류-(美柳-)’인데, 이제는 ‘미류-’라는 발음은 듣지 못하게 되었다. ‘으레’ 역시 원래 ‘의례(依例)’에서 ‘으레’가 되었던 것인데, ‘례’의 발음이 ‘레’로 바뀌었다. ‘괴팍하다’도 그 발음이 분명히 ‘괴팍하다’로 바뀌었다. 따라서 ‘미류나무, 으레, 괴팍하다’를 버리고 ‘미루나무, 으레, 괴팍하다’를 표준어로 정하였다. ♣-구먼, 미륵, 여느, 허우적허우적, 허우대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구려/*- 구료, 깍쟁이/*깍정이, 나무라다/*나무래다
바라다/*바래다, 상추/*상치, 튀기/*트기, 주책/*주착

표준어 규정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한다. 그래서 모음의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구려’와 ‘- 구료’는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는 듯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므로 ‘- 구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깍정이’는 ‘ㅣ’ 역행 동화의 일종이나 ‘깍쟁이’가 아니라 ‘깍쟁이’를 표준어로 삼았다. ‘나무래다, 바래다’는 방언으로 해석하여 ‘나무라다, 바라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근래에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 ‘바람’을 ‘바램’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 동사가 ‘바라다’이므로 파생된 명사가 ‘바램’이 될 수 없다. ‘상치’는 치찰음 다음에서의 ‘ㅣ’ 모음화로 보고 ‘상추’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며, ‘튀기→트기’는 모음의 단순화 현상인데 아직 원형이 쓰이고 있다고 보아 ‘튀기’를 표준어로 삼았다. ‘주착(主着)’은 현실음을 인정하여 한자어 어원을 버리고 변한 형태인 ‘주책’을 표준어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들은 모두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 미수(미숫가루), 시러베아들, 지루하다, 허드레, 호루라기



제12항 ‘웃 -’ 및 ‘윗 -’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 -’으로 통일한다.

윗눈썹/*웃눈썹, 윗니/*웃니, 윗도리/*웃도리, 윗목/*웃목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위짹/*웃짹, 위쪽/*웃쪽, 위층/*웃층, 위턱/*웃턱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 -’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웃돈/*윗돈, 웃어른/*윗어른, 웃웃/*윗웃

표준어 규정에서는 극심하게 혼란을 일으켜 온 ‘웃’과 ‘윗’을 한쪽으로 통일하여,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하였다. ‘다만1’의 경우,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 사이시옷을 쓰지 않기로 한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따라,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다만 2’에서처럼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았다. ♣ 윗배, 윗입술, 윗자리/위채, 위치마, 위팔

제13항 한자 ‘구(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한다.

구절/*귀절, 대구/*대귀, 시구/*시귀

다만, 다음의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글/*구글, 글귀/*글구

그동안 ‘句’는 사람에 따라 ‘구’로도 읽히고 ‘귀’로도 읽혀 혼동이 심하였다. 그래서 한자 ‘句’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구’로 통일하였다. 따라서 ‘구절, 대구, 시구’ 등이 표준어이다. 다만 ‘句’의 훈과 음은 ‘글귀 구’이므로, ‘귀글, 글귀’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가 표준어이다. ♣ 구점(句點), 결구(結句), 경구(警句), 문구(文句), 성구(成句), 어구(語句), 인용구(引用句), 절구(絶句)

4.1.3. 준말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면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파리/*또아리, 무/*무우, 생쥐/*새앙쥐



제15항 본말이 널리 쓰이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이개/*귀개, 부스럼/*부럼, 낄새/*낄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고(제14항),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만을 표준어로 삼으며(제15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제16항). ‘파리, 무, 생쥐’의 본말은 ‘또아리, 무우, 생쥐’인데 본말이 잘 쓰이지 않고 준말이 널리 쓰여서 준말인 ‘파리, 무, 생쥐’가 표준어가 된 것이다. ‘귀이개, 부스럼, 낄새’의 준말은 ‘귀개, 부럼, 낄’인데 준말이 쓰이고 있기는 하나 본말이 더 널리 쓰여서 본말인 ‘귀이개, 부스럼, 낄새’가 표준어가 된 것이다. 준말들이 얼마간이라도 쓰인다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쓰임이 워낙 적을 뿐만 아니라 품위 있는 형태도 아니어서 본말을 표준어로 한 것이다. ‘거짓부리, 노을, 머무르다’의 준말은 ‘거짓불, 놀, 머물다’이다. 이들은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어 준말과 본말 다 표준어가 된 것이다. ♣막대기/막대, 망태기/망태, 서두르다/서둘다, 서투르다/서툴다, 시누이/시누/시누, 오누이/오누/오누, 외우다/외다, 이기죽거리다/이죽거리다, 찌꺼기/찌꺼

4.1.4. 단수 표준어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너[四]/*네, -(으)려고/*(으)르려고, 천장/*천정, -습니다/*-읍니다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너/넉(四)’은 예



로부터 많이 쓰던 말이어서 표준어로 인정하였고, ‘-으려고’는 요즘 ‘먹으려고’처럼 ‘-으려고’를 많이 쓰지만 옳지 않다. ‘천정’과 ‘천장(天障)’ 중 더 널리 쓰이는 ‘천장’을 표준어로 하였다. ‘-습니다’는 종래 ‘-습니다, -읍니다’ 두 가지로 적고 ‘-습니다’가 더 각듯한 표현이라고 해 왔으나, 이 조항에서는 그러한 의미 차이가 확연하지 않고, 일반 구어(口語)에서 ‘-습니다’가 훨씬 널리 쓰인다고 판단하여 ‘-습니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귀고리(*귀엣고리)⁷⁾, 귀뿔(*귀뿔), 꼭두각시(*꼭둑각시), 다다르다(*다달다), 댕싸리(*대싸리), 멸치(*머루지/*메리치), 봉숭아(*봉숭화), 아궁이(*아궁지), 어중간(*어지중간), 잠투정(*잠투세/*잠주정)

4.1.5. 복수 표준어

제18항 다음 단어는 앞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뒷부분도 허용한다.

쇠-/소-, 괴다/고이다, 네/예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꺼림하다/깨름하다, 나부랭이/너부렁이

의미의 차이가 없이 두 형태가 모두 널리 쓰이는 경우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이처럼 복수 표준어를 허용한 것은 국어의 폭을 넓히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소+ㅣ(의)’인 ‘쇠-’만을 표준어로 인정하였으나 ‘소’도 허용하여 둘 다 표준어이다. ‘괴다’와 ‘고이다’는 축약된 형태와 그 이전의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예이다. ‘네’와 ‘예’는 두 형태가 널리 쓰여 둘 다 표준어가 된 것이다. 또한, 표준어 규정에서는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어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별개의 단어라고 할 수 있으나, 워낙 기원을 같이하는 단어이면서 그 어감의 차이가 미미한 것이어서 복수 표준어로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꺼림하다’와 ‘깨

7) ‘귀엣고리’는 비표준어이지만, ‘귀걸이’는 표준어이다. 따라서 ‘귀고리’와 ‘귀걸이’는 사실상 복수 표준어라고 할 수 있다.



름하다’, ‘나무랭이’와 ‘너부렁이’ 모두 표준어이다. ‘나부랭이/너부렁이’에서 ‘너부렁이’를 ‘나부랭이’에 전주어 ‘너부렁이’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언어 현실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피다/꼬이다, 씨다/쏘이다, 죄다/조이다, 찍다/쫓이다, 거슴츠레하다/게슴츠레하다, 고까/꼬까, 고린내/코린내, 구린내/쿠린내

4.2.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라 선정된 표준어

4.2.1. 고어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설거지하다/*설겅다, 애달프다/*애답다, 오동나무/*머귀나무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따라서 ‘설거지하다, 애달프다, 오동나무’가 표준어이다. ‘설겅다’를 버린 것은 이미 고어가 되어 쓰이지 않아 ‘설겅어라, 설겅으니, 설겅더니’와 같은 활용형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애답다’는 노래 등에서 일부 ‘애답다 어이하리’ 식으로 쓰이고 있으나 고어의 잔재일 뿐 이 용어 역시 ‘애답으니, 애답아서, 애답은’ 등의 활용형이 실현되는 일이 없어 고어로 처리하고 ‘애달파서, 애달픈’ 등의 활용형을 가진 ‘애달프다’를 표준어로 삼았다. ‘머귀나무’는 ‘오동나무’의 뜻으로는 쓸 수 없고, ‘운향과에 딸린 갈잎 큰키나무’의 뜻으로는 표준어이다. ♣낭떠러지(*낭), 자두(*오얏)

4.2.2. 한자어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까막눈/*맹눈, 박달나무/*배달나무

제22항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개다리소반/*개다리밥상, 총각무/*알타리무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고(제21항), 반대로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제22항). ‘까막눈/*맹눈, 박달나무/*배달나무’의 경우, 한자어 계열의 단어인 ‘맹눈, 박달나무’는 용도를 잃게 된 반면,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 계열의 단어인 ‘까막눈, 박달나무’는 널리 쓰이고 있어, ‘까막눈, 박달나무’를 표준어가 되었다. ‘개다리소반/*개다리밥상, 총각무/*알타리무’의 경우, 고유어 계열의 단어인 ‘개다리밥상, 알타리무’가 생명력을 잃고 이에 대응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인 ‘개다리소반, 총각무’가 널리 쓰여, ‘개다리소반, 총각무’가 표준어가 되었다. ♣밥소라(*식소라), 외지다(*벽지다), 잔돈(*잔전), 흰말(*백말/*부루말)/검상(*맞상), 방고래(*구들고래), 양파(*둥근파), 칫솔(*잇솔)

4.2.3. 방언

제23항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남겨 두는 원칙으로 한다.

멍게/우렁챙이,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순

제24항 방언이던 단어가 더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빈대떡/*빈자떡, 코주부/*코보

표준어 규정에서는 방언이던 단어가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된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 경우, 원래의 표준어는 그대로 표준어로 남겨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3항) 반면,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표준어이던 단어가 안 쓰이게 된 것은, 방언이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제24항) ‘멍게/우렁챙이’의 경우, 원래 ‘우렁챙이’가 표준어였으나, 지금은 방언인 ‘멍게’가 더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 이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이때 애초의 표준어인 ‘우렁챙이’도 학술 용어 등에 쓰이는 점을 감안하여 표준어로 남겨 두었다. ‘물방개/선두리, 애순/어린순’도 이러한 까닭으로 복수 표준어가 된 것이다. 표준어였던 ‘빈자떡’은 방언인 ‘빈대떡’에 완전히 밀



려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방언이던 ‘빈대떡’만 표준어로 남긴 것이다. ‘코주부’는 만화 주인공의 이름에서 세력을 얻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코보’를 밀어내고 표준어가 되었다. ♣귀밑머리(*귓머리), 까뭇개다(*까무느다), 막상(*마기), 생인손(*생안손), 역겹다(*역스럽다)

4.2.4. 단수 표준어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고치다/*낫우다, 붉으락푸르락/*푸르락붉으락,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하다, 주책없다/*주책이다

‘낫우다’는 일부 방언에서만 쓰이고 서울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아 ‘고치다’만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푸르락붉으락’은 두 개가 다 인정될 법도 하나 ‘오락가락’이나 ‘들낙날락’이 ‘가락오락’이나 ‘날락들락’이 되지 못하듯이, 이 종류의 합성어에는 일정한 어순이 있는 까닭에 널리 쓰이는 ‘붉으락푸르락’만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안절부절하다, 주책이다’는 부정사를 빼고 써도 부정사가 있는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특이한 말이다. 그렇지만 부정사를 붙인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광우리(*광우리), 까다롭다(*까탈스럽다), 담배꽁초(*담배꽁치, *담배꽁추) 등때기(*등떠리), 반나절(*나절가웃), 부끄러워하다(*부끄리다), 부스러기(*부스러지), 새벽(*새벽별), 손목시계(*팔목시계, *팔뚝시계), 쌍둥밤(*쪽밤), 쏜살같이(*쏜살로), 아주(*영판),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하다), 주책없다(*주책이다)

4.2.5. 복수 표준어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뭇/가물, 가없다/가엿다, -이에요/-이어요, 우레/천둥



‘가뭇/가뭇’ 중에서는 ‘가뭇’이 더 큰 세력을 얻고 있으나, ‘가뭇’도 아직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가엸다/가엸다’는 활용형에서 ‘가엸어라’와 ‘가여워’가 다 쓰이므로 복수 표준어가 인정된 것이다. ‘-이에요/-이어요’의 경우도 ‘책이에요/책이어요’처럼 보편화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ㅣ’ 모음 동화를 반영한 표기 ‘책이에요, 책이어요’는 옳지 않고, 명사가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이’와 ‘에, 어’가 축약된 ‘저예요, 저여요’가 맞다. ‘우레/천둥’의 ‘우레’는 본래가 ‘울다’의 어간 ‘울-’에 접미사 ‘-에’가 붙어서 된 말이었는데, 한자의 영향으로 ‘우뢰(雨雷)’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고어에도 ‘우레’가 나타나므로 다시 ‘우레/천둥’을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감감무소식/감감소식, -거리다/-대다, 게을러빠지다/게을러터지다, 고깃간/푸줏간, 곰곰/곰곰이, 관계없다/상관없다, 깃저고리/배내옷/배넛저고리, 꼬까/때때/고까, 나귀/당나귀, 넝쿨/덩굴, 녘/쪽, 눈대중/눈어림/눈짐작, 느리광이/느림보/늘보, 다달이/매달, 닭의장/닭장, 돼지감자/똥만지, 뒷말/뒷소리, 들락거리다/들랑거리다, 들락날락/들랑날랑, 탄전/탄청, -뜨리다/-트리다, 만큼/만치, 멀찌감치/멀찌가니/멀찍이, 모쪼록/아무쪼록, 물봉숭아/물봉선화, 발모가지/발목쟁이, 버들강아지/버들개지, 벌레/버러지, 보통내기/여간내기/예사내기, 부침개질/부침질/지짐질, 뽕두라지/뽕루지, 살갱이/샅, 삽살개/삽사리, 서럽다/썩다, 수수깡/수숫대, 시늉말/흉내말, 심술꾸러기/심술쟁이, 아무튼/어떻든/어쨌든/하여튼/여하튼, 앓음새/앓음앓음, 알은척/알은체, 어이없다/어처구니없다, 어저께/어제, 언덕바지/언덕배기, 여쭙다/여쭙다, 여태/입때/여태껏/이제껏/입때껏, 옥수수/강냉이, 욕심꾸러기/욕심쟁이, 의심스럽다/의심쩍다, 자물쇠/자물통, 중신/중매, 척/체, 철따구니/철딱서니/철딱지, 혼자되다/홀로되다



<부록> 새로 추가된 표준어 목록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표준어 인정되지 않았던 '짜장면, 먹거리' 등 39개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go.kr)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범과 실제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해 생겼던 언어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항목은 크게 세 부류이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이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간지럽히다'도 '간질이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된다.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간지럽히다', '토란대', '복숭아뼈' 등 모두 11개 항목이다.⁸⁾

○ 현재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추가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11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간지럽히다	간질이다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
등물	목물
맨날	만날
뭇자리	뿔자리
복숭아뼈	복사뼈
세간살이	세간
쌈싸름하다	쌈싸래하다
토란대	고운대
허접쓰레기	허섭스레기
흙담	토담

8)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은 1988년에 제정된 『표준어 규정』에서 이미 허용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오던 것('간질이다')과 추가로 인정된 것('간지럽히다')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새로운 표준어를 익히는 불편을 겪을 필요 없이 이전에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하여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이다. 그동안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지만 ‘눈꼬리’와 ‘눈초리’는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눈꼬리’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된 말은 ‘눈꼬리’, ‘나래’, ‘내음’ 등 모두 25항목이다.

○ 현재 표준어와 별도의 표준어로 추가로 인정한 것(25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길래	~기에	~길래: ‘~기에’의 구어적 표현.
개발새발	괴발개발	‘괴발개발’은 ‘고양이의 발과 개의 발’이라는 뜻이고, ‘개발새발’은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임.
나래	날개	‘나래’는 ‘날개’의 문학적 표현.
내음	냄새	‘내음’은 향기롭거나 나쁘지 않은 냄새로 제한됨.
눈꼬리	눈초리	· 눈초리: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표정. 예) ‘매서운 눈초리’ · 눈꼬리: 눈의 귀 쪽으로 찌진 부분.
떨구다	떨어뜨리다	‘떨구다’에 ‘시선을 아래로 향하다’라는 뜻이 있음.
뜨락	뜰	‘뜨락’에는 추상적 공간을 비유하는 뜻이 있음.
먹거리	먹을거리	먹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하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름.
메꾸다	메우다	‘메꾸다’에 ‘무료한 시간을 적당히 또는 그럭저럭 흘러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음
손주	손자(孫子)	· 손자: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 손주: 손자와 손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어리숙하다	어수룩하다	‘어수룩하다’는 ‘순박함/순진함’의 뜻이 강한 반면에, ‘어리숙하다’는 ‘어리석음’의 뜻이 강함.
연신	연방	‘연신’이 반복성을 강조한다면, ‘연방’은 연속성을 강조
횡하니	횡허케	횡허케: ‘횡하니’의 예스러운 표현.
걸리적거리다	거치적거리다	자음 또는 모음의 차이로 인한 어감 및 뜻 차이 존재
꼬적거리다	끼적거리다	〃
두리몽실하다	두루몽술하다	〃
맨송맨송/맹송맹송	맨송맨송	〃
바둥바둥	바동바동	〃
새초롬하다	새치름하다	〃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뜻 차이
아웅다웅	아웅다웅	〃
야멸차다	야멸치다	〃
오손도손	오순도순	〃
찌뿌둥하다	찌뿌듯하다	〃
추근거리다	치근거리다	〃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자장면', '태견', '품세'만을 표준어로 인정해 왔으나 이와 달리 널리 쓰이고 있던 '짜장면', '택견', '품새'도 이번에 인정하였다. 이들도 두 표기 형태를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으로 그 정신은 첫째의 경우와 같다.

○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것(3개)

추가된 표준어	현재 표준어
택견	태견
품새	품세
짜장면	자장면



5. 연습 문제

※ 다음에서 표준어를 고르시오.

- [01] 나팔꽃/나발꽃, 칸/간, 털어먹다/떨어먹다
- [02] 가을갈이/가을카리, 분침/푼침
- [03] 강낭콩/강남콩, 사글세/삭월세
- [04] 돌/돋, 둘째/두째, 빌리다/빌다
- [05] 수평/숫평, 수놈/숫놈, 수소/숫소
- [06] 수강아지/숫강아지, 수평아리/수병아리
- [07] 숫양/수양, 숫염소/수염소, 숫쥐/수쥐
- [08] 깡충깡충/깡충깡충, -둥이/-동이, 오뚝이/오뚜기
- [09] 부조/부주, 사돈/사둔, 삼촌/삼춘
- [10] -내기/-나기, 냄비/남비, 아지랑이/아지랭이
- [11] 미장이/미쟁이, 멧쟁이/멧장이
- [12] 미루나무/미류나무, 으레/으레, 괴팍하다/괴팍하다
- [13] 각쟁이/각정이, 나무라다/나무래다
- [14] 바라다/바래다, 상추/상치, 튀기/트기, 주책/주착
- [15] 윗눈썹/웃눈썹, 윗니/웃니, 윗도리/웃도리, 윗목/웃목
- [16] 위작/웃작, 위쪽/웃쪽, 위층/웃층, 위턱/웃턱
- [17] 웃돈/윗돈, 웃어른/윗어른, 웃웃/윗웃
- [18] 구절/귀절, 대구/대귀, 시구/시귀
- [19] 귀글/구글, 글귀/글구
- [20] 파리/또아리, 무/무우, 생쥐/새앙쥐
- [21] 귀이개/귀개, 부스럼/부럼, 낚새/깎
- [22]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 [23] 너[四]/네, -(으)려고/(으)르려고, 천장/천정
- [24] 설거지하다/설겅다, 애달프다/애답다, 오동나무/머귀나무
- [25] 까막눈/맹눈, 박달나무/배달나무
- [26] 개다리소반/개다리밥상, 총각무/알타리무
- [27] 빈대떡/빈자떡, 코주부/코보
- [28] 고치다/낫우다, 안절부절못하다/안절부절하다, 주책없다/주책이다
- [29] 가뭇/가물, 가엾다/가엹다, -이에요/-이어요, 우레/천둥
- [30] 녁쿨/덩굴, 벌레/버러지, 옥수수/강냉이, 자물쇠/자물통



♠ 정 답 ♠

- [01] 나팔꽃, 칸, 털어먹다
- [02] 가을갈이, 분침
- [03] 강낭콩, 사글세
- [04] 돌, 둘째, 빌리다
- [05] 수평, 수놈, 수소
- [06] 수강아지, 수평아리
- [07] 솥양, 솥염소, 솥쥐
- [08] 깡충깡충, -등이, 오뚝이
- [09] 부조, 사돈, 삼촌
- [10] -내기, 냄비, 아지랑이
- [11] 미장이, 멧쟁이
- [12] 미루나무, 으레, 괴팍하다
- [13] 깣쟁이, 나무라다
- [14] 바라다, 상추, 튀기, 주책
- [15] 윗눈썹, 윗니, 윗도리, 윗목
- [16] 위작, 위쪽, 위층, 위턱
- [17] 옷돈, 옷어른, 옷웃
- [18] 구절, 대구, 시구
- [19] 귀글, 글귀
- [20] 파리, 무, 생쥐
- [21] 귀이개, 부스럼, 낄새
- [22]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머무르다/머물다
- [23] 너[四], -(으)려고, 천장
- [24] 설거지하다, 애달프다, 오동나무
- [25] 까막눈, 박달나무
- [26] 개다리소반, 총각무
- [27] 빈대떡, 코주부
- [28] 고치다, 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
- [29] 가뭇/가물, 가엾다/가엾다, -이에요/-이어요, 우레/천둥
- [30] 넝쿨/덩굴, 벌레/버리지, 옥수수/강냉이, 자물쇠/자물통



표준 발음법

1. 표준 발음법의 필요성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표준어를 써야 하며 그것도 ‘한글 맞춤법’에 맞아야 하는 것처럼, 말을 할 때에는 표준어를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표준 발음법’이 무엇이나에 대한 지식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발음은 동일 언어 공동체 내에서도 개인의 발음 습관에 따라 달라지고, 지역적, 계층적, 집단적 차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일이 흔하다. 예컨대 ‘밟고’를 어떤 사람들은 [밥:꼬]로 발음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발:꼬]로 발음하기도 한다. 이런 임의적 발음은 ‘踏([밥:꼬])/明([발:꼬])’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표준 발음법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동일하게 발음함으로써 통일된 언어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이은정, ‘표준어 해설’, 1988: 239, 대체작)

2. 표준 발음법의 제정 과정

‘표준 발음법’은 ‘한글 맞춤법’이 공포된(1933년) 뒤 55년이 지나서야 고시되었다. 그동안 일반인이 참고할 만한 소리 표준어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 발음의 부재 속에서, 사람들은 맞춤법에 어긋난 글을 쓰면 부끄럽게 생각하였지만 발음의 표준에는 무신경하거나 소홀히 생각해 온 것이 사실이다. 표준어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인데도 이러한 경향은 만연하여 우리나라 표준 발음의 정립에 큰 저해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1988년 1월 19일 고시한 후,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지금에 이르고 있는 ‘표준어 규정’의 ‘제2부’에 표준 발음법을 담아 둔 것이다.



3. 표준 발음법의 대원칙

표준 발음법의 대원칙은 ‘표준 발음법’의 ‘제1장 총칙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에서 보듯이, 표준 발음법에서는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라는 근본 원칙에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표준어의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법을 정한다는 것은 표준어의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제1항에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 발음법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표준어의 실제 발음으로 여기고서 일단 이를 따르도록 원칙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값[價]’에 대하여 ‘값, 값만, 값이, 값을, 값에’ 등은 [갑, 갑만, 갑씨, 갑쓸, 갑쎄] 등으로 서울말에서 발음되는데, 바로 이러한 실제 발음에 따라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서울말에서조차 실제의 발음에서는 여러 형태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한다는 조건을 이어서 제시하였다. 예컨대 서울의 어떤 젊은이나 어린이는 소리의 길이를 구별하지 않고서 ‘밤[夜]과 ‘밤[票]’을 모두 짧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장년층 이상에서는 소리의 길이를 인식하면서 구별하여 발음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소리의 높이나 길이를 구별해 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표준 발음법에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게 하였다. 국어의 전통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 이외에 다시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것은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서 어법에 맞춘다는 것과 맞먹는 조건이다. 말하자면, 국어의 규칙 내지는 법칙에 따라서 표준 발음을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긴소리를 가진 단음절(單音節) 용언 어간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 짧게 발음한다. 이는 지극히 규칙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짧게 발음하는 어법을 규정화하여 표준 발음법을 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알고[알 : 고], 알아[아라]’와 같이 ‘곱다[곱 : 따], 고와[고와]’가 표준 발음이 되



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다만’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실제 발음을 따르면서 어법상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법을 정함에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도 있다. 예컨대 ‘맛있다’는 실제 발음에서는 [마싣따]가 자주 쓰이나 두 단어 사이에서 받침 ‘ㅅ’을 [ㄷ]으로 발음하는 [마딛따]가 오히려 합리성을 지닌 발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마딛따]를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정하되, [마싣따]도 표준 발음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4. 표준 발음 익히기

4.1. 자음과 모음

4.1.1. 이중 모음을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

- ㄱ. 가져[가저], 찌[찌], 다쳐[다쳐]
- ㄴ. 계집[계 : 집/게 : 집], 시계[시계/시계], 지혜[지혜/지혜]
- ㄷ. 널리리[널리리], 닝큼[닝큼], 무늬[무늬], 희망[희망]
- ㄹ. 주의[주의/주이], 우리의[우리의/우리에], 허의[허비/허비]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저, 찌, 처’는 [저, 찌, 처]로 발음한다(ㄱ). 그리고 ‘예, 레’ 이외의 ‘ㅔ’는 [ㅔ]로도 발음하며(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ㅡ’는 [ㅏ]로 발음한다(ㄷ). 다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ㄹ). ➡ **표준 발음법 제5항**



4.2. 소리의 장단

4.2.1. 긴소리로 발음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 ㄱ. 눈보라[눈 : 보라], 말씨[말 : 씨], 밤나무[밤 : 나무]
 많다[만 : 타], 멀리[멀 : 리], 벌리다[벌 : 리다]
- ㄴ. 첫눈[첫눈], 참말[참말], 쌍동밤[쌍동밤], 수많이[수 : 마니]
 눈멀다[눈멀다], 떠벌리다[떠벌리다]
- ㄷ. 반신반의[반 : 신바 : ㄴ/반 : 신바 : 니], 재삼재사[재 : 삼재 : 사]
- ㄹ. 봐[봐 :], 겨[겨 :], 돼[돼 :], 뒤[뒤 :], 해[해 :]
- ㅁ. 와[와], 저[저], 쩌[찌], 처[처]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ㄱ~ㄴ).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ㄷ). 그리고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ㄹ). 그렇지만 ‘오아→와, 지어→저, 찌어→찌, 치어→쳐’ 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ㅁ). ➡ 표준 발음법 제6항

4.2.2. 긴소리를 가진 음절을 짧게 발음하는 경우

- ㄱ. 감다[감 : 따]-감으니[가쁘니], 밟다[밥 : 따]-밟으면[발쁘면]
 신다[신 : 따]-신어[시너], 알다[알 : 다]-알아[아라]
- ㄴ. 끝다[끝 : 다]-끝어[꼬 : 러], 뚫다[뚫 : 따]-뚫은[뚫 : 븐]
 벌다[벌 : 다]-벌어[버 : 러], 썰다[썰 : 다]-썰어[써 : 러]
- ㄷ. 감기다[감기다], 꼬이다[꼬이다], 밟히다[발피다]
- ㄹ. 끌리다[끌 : 리다], 벌리다[벌 : 리다], 없애다[엮 : 썰다]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단음절인 용언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ㄱ),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ㄷ) 등



은 짧게 발음한다. 그렇지만, 단음절인 용언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라고 해도 짧게 발음하지 않거나(ㄴ),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어도 짧게 발음하지 않는 경우(ㄷ) 등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표준 발음법 제7항**

4.3. 받침의 발음

4.3.1. 받침 ‘ㄱ, ㅋ’, ‘ㄷ, ㅌ, ㄷ, ㅌ’, ‘ㅍ’의 발음

- ㄱ. 닦다[닥따], 키웁니다[키웁따], 키웁시다[키웁따]
- ㄴ. 웃[온], 웃다[운 : 따], 있다[읷따], 젓[전], 밋다[빔따]
꽃[꼇], 쫓다[쫓따], 술[숯], 뺄다[뺨따]
- ㄷ. 앞[압], 덮다[덥따]

국어에서 받침으로 실현될 수 있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뿐이다. 이 7개 이외의 자음이 받침으로 쓰이게 되면 그것들은 이 7개 자음 중의 하나로 변화되어 발음된다. 받침 ‘ㄱ, ㅋ’, ‘ㄷ, ㅌ,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9항**

4.3.2. 받침 ‘ㄲ, ㅋ’, ‘ㄴ, ㄷ, ㄷ, ㅌ’, ‘ㅍ’의 발음

- ㄱ. 뉘[넉], 뉘과[넉파]
- ㄴ. 앓다[안따]
- ㄷ. 여덟[여덜], 넓다[넉따], 외곶[외곶], 훑다[할따]
- ㄹ. 값[갑], 없다[업 : 따]
- ㅁ. 뵈다[뵈 : 따], 뵈게[뵈 : 께]
- ㅂ. 넓죽하다[넉쭈카다], 넓둥글다[넉똥글다]

국어에는 ㄲ, ㅋ, ㄴ, ㄷ, ㄷ, ㅌ, ㄷ, ㅌ, ㅍ 등과 같이 11개의 겹받침이 있다. 이와 같은 겹받침은 두 자음을 다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자음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발음한다. 국어에는 어두나 어말에서는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으며, 두 모음 사이에서는 두 개까지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제약 때문에 겹받침을 갖는 어간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와 결합하게 되면 겹받침 중의 하나는 반드시 탈락하고 하나의 자음만 발음된다. 겹받침 중 어떤 것이 탈락하고 어떤 것이 남느냐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받침이 탈락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 번째 받침이 탈락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겹받침 ‘ㄲ’은 [ㄱ]으로 발음하고(ㄱ), ‘ㄴ’은 [ㄴ]으로 발음하며(ㄴ), ‘ㄷ, ㄷ, ㄷ’은 [ㄷ]로 발음하고(ㄷ), ‘ㅂ’은 [ㅂ]으로 발음한다(ㄷ). 다만, ‘ㅃ-’은 자음 앞에서는 [ㅃ]으로 발음하고(ㅃ), ‘ㄴ-’은 ‘ㄴ죽하다, ㄴ둥글다’의 경우에 한해 [ㄴ]으로 발음한다(ㄴ). **표준 발음법 제10항**

4.3.3. 받침 ‘ㄷ, ㄷ, ㄷ’의 발음

- ㄱ. 닭[닥], 흙과[흑파], 맑다[막따], 늑지[늑지]
- ㄴ. 삶[삼:], 젊다[점:따]
- ㄷ. 읊고[읍꼬], 읊다[읍따]
- ㄹ. 맡게[말께], 물고[물꼬], 얼거나[얼꺼나]

겹받침 ‘ㄷ, ㄷ,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ㄱ~ㄷ). 그렇지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ㄷ’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ㄷ). **표준 발음법 제11항.**

4.3.4. 받침 ‘ㅎ(ㅈ, ㅊ)’의 발음

- ㄱ. 농고[노코], 종던[조턴], 쌓지[싸치], 많고[만:코], 앓던[안턴], 닳지[달치]
- ㄴ. 각하[가카], 먹히다[머키다], 밝히다[발키다], 만형[마형], 좁히다[조피다]
- 넓히다[널피다], 꽃히다[꼬치다], 앉히다[안치다]
- ㄷ. 옷 한 벌[오탄벌], 낮 한 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술하다[수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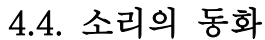
- ㄹ. 당소[다쏘], 많소[만쏘], 싫소[실쏘]
- ㄱ. 놓는[논는], 쌓네[싼네]
- ㄴ. 앓네[안네], 앓는[안는], 똥네[똥네→똥레], 똥는[똥는→똥른]
- ㄷ.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많아[마 : 나], 앓은[아는], 닳아[다라]

‘ㅎ(ㄴㅎ, ㄹㅎ)’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로 발음한다(ㄱ). 받침 ‘ㄱ(ㄱ), ㄷ, ㄴ(ㄴ), ㅈ(ㅈ)’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소리를 합쳐서 [ㅋ, ㅌ, ㅊ]로 발음한다(ㄴ). 그리고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ㅊ,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ㄷ). ‘ㅎ(ㄴㅎ, ㄹㅎ)’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하고(ㄷ), ‘ㅎ(ㄴㅎ, ㄹ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ㄴ]으로 발음한다(ㄱ). 그렇지만, ‘ㄴㅎ, ㄹ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ㄴ). ‘ㅎ(ㄴㅎ, ㄹ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ㄷ). ➡ 표준 발음법 제12항.

4.3.5. 받침 뒤에 ‘ㅏ, ㅑ, ㅓ, ㅕ, ㅗ, ㅛ’의 실질 형태소가 올 때의 발음

- ㄱ. 발 아래[바다래], 늪 앞[느뱃], 젓어미[저더미], 맛없다[마뎡따]
겉웃[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 ㄴ. 맛있다[마싣따]/[마딘따], 멋있다[머싣따]/[머딘따]
- ㄷ. 뉘 없다[너겍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ㄱ).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딘따], [머딘따]를 표준 발음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마싣따], [머싣따]도 실제 발음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ㄷ). ➡ 표준 발음법 제15항.



4.4.1. 받침 ‘ㄷ, ㅌ(ㅍ)’이 조사나 접미사의 ‘ㅣ’와 결합될 때의 발음

- ㄱ. 곧이듣다[고지듣따], 굳이[구지], 미닫이[미다지]
 땀받이[땀바지], 밭이[바치], 벼훅이[벼훅치]
 ㄴ. 굳히다[구치다], 닫히다[다치다], 묻히다[무치다]
 ㄷ. 돈을[도들], 굳어[구더], 닫아[다다], 밭을[바들]

받침 ‘ㄷ, ㅌ(ㅌ)’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뀌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ㄱ). ‘ㄷ’ 뒤에 접미사 ‘ㅎ’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ㄴ). 그러나 ‘ㅣ’ 이외의 모음과 연결될 때는 ‘ㄷ, ㅌ’ 소리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난다(ㄷ).

☞ 표준 발음법 제17항.

4.4.2. ‘ㄴ, ㄹ’ 앞의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ㄸ, ㅌ, ㄴ, ㄹ, ㅍ, ㅊ, ㅍ, ㅊ, ㅍ, ㅊ), ㅂ(ㅃ, ㅍ, ㅍ, ㅍ)’의 발음

- ㄱ. 밥물[밤물], 잡는[잠는], 앞마당[암마당], 읊는[음는]
 ㄴ. 옷맵시[온맵씨], 첫명울[전명울], 꽃망울[꼴망울], 있는[인는]
 ㄷ. 부엌만[부엡만], 국물[궁물], 짝는[깡는], 흙만[흥만]
 ㄹ. 책 넣는다[챙넌는다], 흙 말리다[흥말리다], 옷 맞추다[온마추다]
 밥 먹는다[밤멍는다], 값 매기다[감매기다]

장애음 ‘ㄷ, ㅌ, ㄱ’은 비음 앞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비음 앞에서 ‘ㄹ, ㄴ, ㅇ’으로 바뀐다. 따라서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ㅌ, ㅎ), ㅌ(ㅍ, ㅈ, ㅉ, ㅂ)’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ㄱ~ㄷ). 두 단어가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ㄷ). **표준 발음법 제18항.**



4.4.3.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의 발음

- ㄱ. 담력[담 : 녀], 침력[침냐], 강릉[강능], 향로[향 : 노], 대통령[대 : 통녕]
 ㄴ. 막론[막논→망논], 백리[백니→뱅니], 협력[협녁→협녁], 십리[십니→심니]

받침 ‘ㄱ,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ㄱ). 그리고 받침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ㄴ). ➡ **표준 발음법 제19항.**

4.4.4. ‘ㄹ’의 앞이나 뒤에 있는 ‘ㄴ’의 발음

- ㄱ. 난뢰[날 : 로], 신래[실래], 천뢰[철리], 광한루[광 : 할루], 대관령[대 : 괄령]
 ㄴ. 칼날[칼날], 물난리[물랄리], 줄넘기[줄림끼], 할는지[할른지]
 ㄷ. 달는[달른], 뚫는[뚫른], 할네[할래]
 ㄹ. 의견란[의 : 건란], 임진란[임 : 진란],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만녁]
 공권력[공편녁], 동원령[동 : 원녕], 상견례[상견네],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 : 원논], 임원료[이뵤노], 구근류[구근뉴]

국어에서 ‘ㄴ’과 ‘ㄹ’은 연이어 나올 수 없어서,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 [ㄹ]로 발음된다(ㄱ~ㄴ). 이는 비음 ‘ㄴ’이 유음 ‘ㄹ’에 동화되어 소리가 [ㄹ]로 바뀌기 때문이다. 첫소리 ‘ㄴ’이 ‘ㄹ, ㅍ’ 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ㄷ). 다만, ‘의견란, 임진란, 생산량, 결단력, 공권력, 동원령, 상견례, 횡단로, 이원론, 임원료, 구근류’ 등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ㄹ). ➡ **표준 발음법 제20항.**

4.5. 된소리되기

4.5.1.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ㄱ, ㅌ, ㅍ, ㅊ, ㅍ, ㅌ), ㅂ(ㅍ, ㅌ, ㅍ, ㅌ)’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ㅌ, ㅍ’의 발음

- ㄱ. 국밥[국꺼], 깎다[깎따], 낫받이[낙빠지], 샷돈[샷똥], 닭장[닥짱], 칩뽕[칩뽕]



- ㄴ. 뻔대다[뻔때다], 웃고름[은꼬름], 있던[일뎌], 꽃고[꽃꼬], 꽃다발[꽃따발],
낫설다[낫썰다], 밭갈이[밭까리], 술전[술쩐],
- ㄷ. 곱돌[곱똥] 덮개[덥깨], 옆집[엽집], 넓죽하다[넙쭈카다],
옴조리다[옴쪼리다], 값지다[갑찌다]

받침 ‘ㄱ(ㄲ, ㅋ, ㆁ, ㄷ, ㄸ, ㅌ, ㅍ, ㅊ,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ㅍ, ㅊ’은 된소리로 발음한다(ㄱ~ㄷ). **표준 발음법 제23항.**

4.5.2. 어간 받침 ‘ㄴ(ㄴ), ㄹ(ㄹ), ㄷ,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ㅍ’의 발음

- ㄱ. 신고[신 : 꼬], 껴안다[껴안따], 앓고[안꼬], 었다[언따], 삼고[삼 : 꼬]
더듬지[더듬찌], 담고[담 : 꼬], 젊지[점 : 찌]
- ㄴ. 안기다[안기다], 감기다[감기다], 굶기다[굶기다], 옮기다[옴기다]
- ㄷ. 넓게[넙께], 훔다[할따], 훔소[홀쏘], 땀지[땀 : 찌]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ㅍ’도 된소리로 발음한다(ㄱ).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ㄴ). 그리고 어간 받침 ‘ㄷ, ㅌ’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ㅌ, ㅍ’도 된소리로 발음한다(ㄷ). **표준 발음법 제23항, 제25항.**

4.5.3. 한자어에서, ‘ㄷ’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ㅍ’의 발음

- ㄱ. 갈등[갈똥], 발등[발똥], 절도[절뜨], 말살[말쌀], 불소[불쏘], 일시[일씨],
갈증[갈쑹], 물질[물쑹], 발전[발쩐], 몰상식[몰쌍식], 불세출[불쑤출]
- ㄴ. 허허실실[허허실실], 절절하다[절절하다]

한자어에서, ‘ㄷ’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ㄱ).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ㄴ). **표준 발음법 제26항.**



4.5.4.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의 발음

- ㄱ. 할 것을[할꺼슬], 갈 때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수록[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갈 곳[갈꼐], 할 도리[할또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 ㄴ. 할걸[할겔],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쎄라], 할수록[할쑤록]
할진대[할찐대], 할지라도[할쩌라도], 할지언정[할쩌언정]

관형사형 ‘-(으)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ㄱ). ‘-(으)ㄴ’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ㄴ). **표준 발음법 제27항.**

4.5.5.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에서,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의 발음

문고리[문꼬리], 눈동자[눈똥자], 신바람[신빠람], 산새[산쎄], 손재주[손쎄주],
길가[길까], 물동이[물똥이], 발바닥 [발빠닥], 굴속[굴:속], 바람결[바람겔],
그믐달[그믐딸], 잠자리[잠짜리], 강가[강까], 초승달[초승딸], 강줄기[강쑤기]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28항.**

4.6. 소리의 첨가

4.6.1. ‘ㄴ’소리 첨가

- ㄱ. 숨이불[숨 : 니불], 맨입[맨닙], 내복약[내 : 봉낙], 한여름[한녀름]
담요[담 : 뇨], 식용유[시공뉴]
- ㄴ.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먄금]
검열[검 : 념/거 : 멸], 금융[금녕/그똥]



ㄷ. 한 일[한닐], 옷 입다[온닙따], 서른여섯[서른녀섯]

ㄹ. 6·25[유기오], 3·1절[사밀쩔], 송별연[송 : 버런], 등용문[등용문]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ㄱ). 다만, ‘이죽이죽, 야금야금, 올랑올랑, 검열, 금융’과 같은 말들은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ㄴ).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ㄷ). 그렇지만, ‘6·25, 3·1절, 송별연, 등용문’ 등은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ㄹ). ➡ **표준 발음법 제29항.**

4.6.2. ‘ㄹ’소리 첨가

ㄱ. 들일[들 : 릿], 솔잎[솔립], 설익다[설릭따], 물약[물략], 불여우[불려우], 서울역[서울력], 물엿[물련], 휘발유[휘발류]

ㄴ. 할 일[할릴], 잘 입다[잘립따], 스물여섯[스물려섯]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소리는 [ㄹ]로 발음한다(ㄱ).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ㄴ). ➡ **표준 발음법 제29항의 [붙임].**

4.6.3. 사시시옷의 발음

ㄱ. 냇가[내 : 까/넌 : 까], 셋길[새 : 길/쌔 : 길], 빨랫돌[빨래돌/빨랜돌]

콧등[코똥/콘똥], 깃발[기빨/긴빨], 대팻밥[대 : 패뺑/대 : 편뺑]

햇살[해쌀/헐쌀], 배속[배쑥/뺑쑥], 고갯짓[고개짚/고갯짚]


ㄴ. 콧날[콘날→콘날], 아랫니[아래니→아랜니], 뺨머리[뺨머리→뺨머리]

틔마루[틔 : 마루→뵈 : 마루],

ㄷ. 갯잎[갯닙], 나문잎[나문닙], 베갯잇[베갯넌], 뒋웃[뒋 : 눈],

도리갯잎[도리갯넌]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 자음만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을 [ㄷ]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ㄱ). 그리고 사이시옷 뒤에 ‘ㄴ,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ㄴ). 사이시옷 뒤에 ‘이’ 음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ㄴ]으로 발음한다(ㄷ).  **표준 발음법 제30항.**



5. 연습 문제

※ 다음 단어의 표준 발음을 쓰시오.

- [01] 널리리, 닝큼, 무늬, 희망
- [02] 주의, 우리의, 혀의
- [03] 봐, 겨, 돼, 뒤, 해
- [04] 와, 저, 켜, 처
- [05] 감기다, 꼬이다, 밝히다
- [06] 여덟, 넓다, 외곬, 활다
- [07] 밝다, 밝게
- [08] 넓죽하다, 넓둥글다
- [09] 닭, 흉과, 맑다, 늙지
- [10] 읊고, 읊다
- [11] 맑게, 맑고, 엷거나
- [12] 옷 한 벌, 낮 한 때, 꽃 한 송이, 술하다
- [13] 발 아래, 늪 앞, 젓어미, 맛없다
- [14] 겉옷, 헛웃음, 꽃 위
- [15] 맛있다, 멋있다
- [16] 녀 없다, 닭 앞에, 값어치, 값있는
- [17] 옷맵시, 젓명울, 꽃망울, 있는
- [18] 담력, 침략, 강릉, 향로, 대통령
- [19] 광한루, 대관령
- [20] 의견란, 임진란, 생산량, 결단력
- [21] 공권력, 동원령, 상견례, 횡단로
- [22] 이원론, 입원료, 구근류
- [23] 넓게, 활다, 훈소, 뿔지
- [24] 허허실실, 절절하다
- [25] 이죽이죽, 야금야금
- [26] 검열, 금융
- [27] 냇가, 샛길, 빨랫돌
- [28] 콧등, 깃발, 대팻밥
- [29] 콧날, 아랫니, 뱃머리
- [30] 깻잎, 나문잎, 베갯잇, 뒷웃



♠ 정 답 ♠

- [01] [닐리리], [닝큼], [무늬], [히망]
- [02] [주의/주이], [우리의/우리예], [허브/허비]
- [03] [봐 :], [겨 :], [돼 :], [뒤 :], [해 :]
- [04] [와], [저], [찌], [처]
- [05] [감기다], [꼬이다], [발피다]
- [06] [여덜], [널따], [외골], [할따]
- [07] [밥 : 따], [밥 : 께]
- [08] [넙쭈카다], [넙똥글다]
- [09] [닥], [흑짜], [막따], [늑지]
- [10] [읍꼬], [읍따]
- [11] [말께], [물꼬], [얼꺼나]
- [12] [오탄벌], [나탄때], [꼬탄송이], [수타다]
- [13] [바다래], [느밥], [저더미], [마답따]
- [14] [거돋], [허두슴], [꼬뒤]
- [15] [마신타/마덜따], [머신타/머덜따]
- [16] [너겍따], [다가폐], [가버치], [가빈는]
- [17] [온맴씨], [전명울], [꼰망울], [인는]
- [18] [담 : 녀], [침낙], [강능], [항 : 노], [대 : 통녕]
- [19] [광 : 할루], [대 : 팔령]
- [20] [의 : 견난], [임 : 진난], [생산냥], [결판녁]
- [21] [공편녁], [동 : 원녕], [상견네], [횡단노]
- [22] [이 : 원논], [이뵤노], [구근뉴]
- [23] [널께], [할따], [홀쏘], [떨 : 찌]
- [24] [허허실실], [절절하다]
- [25] [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냐금/야그마금]
- [26] [검 : 널/거 : 땔], [금눔/그눔]
- [27] [내 : 까/넌 : 까], [새 : 낄/쌔 : 낄], [빨래똥/빨랜똥]
- [28] [코똥/콘똥], [기빨/깁빨], [대 : 꽤빡/대 : 편빡]
- [29] [콘날→콘날], [아랜니→아랜니], [뻔머리→뻔머리]
- [30] [깰닙], [나문닙], [베깰닙], [똥 : 눈]



외래어 표기법

1. 외래어 표기법의 필요성

외래어는 다른 나라 말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말소리가 우리말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런 말들을 일정한 규칙 없이 제각각 적도록 놓아둔다면 언어생활이 혼란해질 것이다. internet이란 낱말을 예로 들어 보자. 사람에 따라 ‘인터넷, 인터네트, 인터넬’ 등으로 달리 표기하게 될 것이고, 같은 개념을 지시하는 말이 표기가 이렇게 각각이라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외래어 표기법’은 이렇게 다양한 어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외래어에 대해 표준어를 정해 주기 위한 규칙이다.

그런데 간혹 외래어 표기법을 외국어 교육과 연관 지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외국어 발음이 형편없다는 것이다. [p]와 [f] 소리를 똑같이 ‘ㅍ’으로 적거나, [l]과 [r] 소리를 똑같이 ‘ㄹ’로 적도록 하는 외래어 표기법 탓에 한국 사람들이 이 소리들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대개 한글 자모를 변형시켜 사용자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f] 소리는 ‘ㅍㅎ’이나 ‘ㅍㅎ’, [l] 소리는 ‘ㄹㄹ’ 같이 표기하자는 것이다.

외래어를 원음에 가깝게 적기 위해 새로운 부호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외래어 표기법의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다. 외래어 표기의 목적은 국어 생활 속에 사용되는 외래어들을 통일된 방식으로 적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영어에서 [kɔ:fɪ]로 발음되는 단어를 ‘커피’, ‘코피’, ‘코오휘’ 등 제각각으로 적지 말고 ‘커피’라는 한 가지 형태로 고정시켜 적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표준 표기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어를 말할 때에도 그대로 발음하라는 것은 아니다.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방식을 정해 놓은 규칙이다. 우리 말을 적을 때에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듯이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에 따라 항상 일정하게 적어야 한다.

2.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 과정

현행 외래어 표기법은 1986년 1월 7일 문교부 고시 제85-11호로 고시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후, 외래어 표기법은 문화부 고시 제1992-31호, 문화 체육부 고시 제1995-8호,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로 다시 고시되었으며, 2005년 12월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32호 고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래어에 대한 표기 규정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이다. 이는 조선어학회에서 1930년 12월 30일 조선어학회 총회 결의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한편으로 ‘들온말 적기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외래어 표기에 대해 조선어학회에서는 1931년부터 9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치며 계속 연구와 심의를 병행하였으며, 다시 2년의 시험 적용 기간을 거쳐 1940년 6월 총회에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확정하였다.

이후 문교부 학술용어제정위원회 제20분과 언어과학위원회에서 1948년에 ‘들온말 적기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문교부에서는 1956년 국어심위위원회의 외래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로마자 한글화 방안을 연구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1958년 10월 20일에 문교부에서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을 공표하였다. 그 뒤 문교부는 외래어 표기의 세칙을 마련하고 1959년부터 1972년까지 편수 자료를 발간하였다.

그동안 외래어 표기법의 표준이 된 것은 1958년의 ‘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이었다. 이리고 이를 보완하여 1986년 1월 7일 문교부가 고시한 것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의 근간이 된 것이다.



3. 외래어 표기법의 기본 원칙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제시되어 있는 외래어 표기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 자모만으로 적는다.(제1장 제1항)
-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제1장 제1항)
-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제1장 제1항)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장 제1항)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제1장 제1항)

제1항은 외래어를 표기할 때 원음에 충실하게 적기 위하여 국어의 현용 24자 모 외의 글자나 기호를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장모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자모 아닌 기호를 도입하거나, 국어에 없는 음을 표기하기 위하여 ‘퐁, 뵁’을 사용하거나 ‘애, 아’와 같은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제2항은 외래어의 음운과 국어의 자모를 일대일 대응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힌 것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대이 대응, 이대일 대응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p]는 ‘퍼센트, 수프, 솥’과 같이 ‘ㅍ, 프, ㅍ’로 다양하게 적고, [r], [l]은 ‘리본, 레이스’와 같이 모두 ‘ㄹ’로 똑같이 적는다.

제3항은 국어의 표기 방법과 달리 7개의 받침으로만 표기한다는 뜻으로, 이 규정에 따라서 ‘coffee shop’은 ‘커피숍’으로, ‘internet’은 ‘인터넷’으로, ‘stick’은 ‘스틱’으로 적는다.

제4항은 외래어 표기에서 파열음 된소리인 ‘ㅃ, ㅆ, ㅊ’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영어의 무성 파열음은 된소리보다 거센소리에 가깝고 프랑스어나 일본어의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보다 된소리에 가깝지만, 외국어의 정확한 발음 전사는 불가능하므로 일관성과 간결성을 살려서 거센소리로 통일하여 적음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서 영어의 ‘game, dam, bus’는 ‘게임, 댐, 버스’가 아니라 ‘게임, 댄, 버스’로, 프랑스 어의 ‘café, latte, Paris’는 ‘까페, 라떼, 빠리’가 아니라 ‘카페, 라테, 파리’로 적는다.



제5항은 이미 언중들이 오랫동안 사용하여 굳어진 외래어는 표기법에 맞지 않아도 관용을 존중하여 사용한다는 뜻이다. ‘camera[kæməɾə]’를 ‘캐머러’가 아니라 ‘카메라’로, ‘radio[reidiou]’를 ‘레이디오’가 아니라 ‘라디오’로, ‘system[sistəm]’을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적는 것이 그 예이다.

4. 외래어 익히기

4.1. 자음의 표기

- (1) ㄱ. 카페/*까페, 파리/*빠리, 버스/*빠스
 ㄴ. 시스템/*씨스템, 센터/*쎄터, 취리히/*쥘리히
 ㄷ. 마오쩌둥, 쑨원
 ㄹ. 빵, 껌, 히로뽕, 빠라
 ㄴ. 빠파니(타이 지명), 푸깿(타이 지명), 호찌민(베트남 인명, 지명)

우리말의 파열음은 소리 특징에 따라 예사소리(ㄱ, ㄷ, ㅂ), 거센소리(ㅋ, ㅌ, ㅍ), 된소리(ㄲ, ㄸ, ㅃ)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영어나 일본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어에는 유성음(b, d, g)과 무성음(p, t, k) 두 가지 구분만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유성 파열음은 예사소리에,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에 각각 대응시키고, 된소리는 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어의 [k, t, p] 소리는 ‘ㅋ, ㅌ, ㅍ’으로, [g, d, b] 소리는 ‘ㄱ, ㄷ, ㅂ’으로 적는다. 따라서 (ㄱ)에서 ‘*까페, *빠리, *빠스’와 같은 표기는 잘못된 것이고, ‘카페, 파리, 버스’ 등이 바른 표기이다.

파열음뿐만 아니라 마찰음(ㅅ, ㅆ)과 파찰음(ㅈ, ㅉ, ㅊ) 표기를 할 때에도 된소리 글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ㄴ)에서 ‘*씨스템, *쎄터, *쥘리히’ 같은 표기는 잘못된 것이고, ‘시스템, 센터, 취리히’ 등이 바른 표기이다.

그렇지만, (ㄷ)에서 보듯이, 중국어 표기에는 ‘ㅆ’과 ‘ㅉ’을 사용한다. 또 된소리로 굳어진 몇몇 낱말들에는, (ㄹ)에서처럼, 된소리 표기를 허용한다.



그리고 자음에 3분 대립이 존재하는 타이 어와 베트남 어에는, (ㄱ)에서처럼, 파열음과 파찰음에 된소리 표기를 도입한다.

(2) 커피숍/*커피쑤, 디스켓/*디스켈, 코너킥/*코너킵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받침 글자로 ‘ㄱ, ㄴ, ㄷ, ㅁ, ㅂ, ㅅ, ㅇ’의 일곱 가지만 쓸 수 있다. 외래어와 달리 고유어 표기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잎, 꽃, 밭, 값’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어에 대해서는 겹자음을 포함한 모든 자음들이 받침으로 사용된다. 고유어를 표기할 때 ‘ㄷ, ㅈ, ㅊ, ㅋ, ㅌ, ㅍ, ㅎ’ 등을 받침으로 쓰는 이유는, 그것이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대표음으로 소리 나더라도 모음 앞에 올 때에는 그 음가(音價)대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즉 ‘잎’을 ‘입’으로 쓰지 않는 이유는 ‘잎이[이피]’, ‘잎을[이플]’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ㅍ’ 소리가 발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래어의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에도 [커피쇼피], [디스케티], [코너키키]와 같이 발음하지 않고 항상 [커피쇼비], [디스케시], [코너키키]로 발음하므로 ‘커피쑤, 디스켈, 코너킥’으로 표기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커피숍, 디스켓, 코너킥’이 바른 표기이다.

(3) ㄱ. 로봇/*로보트, 카펫/*카페트, 인터넷/*인터넷

ㄴ. 테이프/*테입/*테잎, 케이크/*케익/*케익, 플루트/*플룻/*플룻

ㄷ. 매트리스/*맷리스, 투르크메니스탄/*투룩메니스탄

ㄷ. 넷/*넷, 셋/*셋/*셀, 매트/*맷

ㅁ.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톡, 티베트/*티벳, 아베크/*아벵

무성 파열음 [p, t, k]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ㄱ)에서처럼, 어말이나 자음 앞 무성 파열음 바로 앞의 모음이 짧은 모음일 때에는 받침으로 적고, (ㄴ)에서처럼, 긴 모음이나 이중 모음일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 그리고 (ㄷ)에서처럼, 바로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라도, 무성 파열음 뒤에 비음(m, n)이나 유음(r, l)이 있는 경우에는 ‘ㅡ’를 받쳐 적는다. 그러나 (ㄷ)에서처럼, 1음절어이면서 어말 무성 파열음 [t]로 끝나는 말은 그 앞



모음이 짧은 모음이라도 ‘ㅡ’를 받쳐 한 음절을 늘려 적는 경우가 많다. 한편, (口)에서처럼, 영어 이외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의 경우는 어말 파열음을 무조건 파열시켜 ‘ㅡ’를 받쳐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로봇, 카펫, 인터넷, 테이프, 케이크, 플루트, 매트리스, 투르크메니스탄, 넷, 세트, 매트, 블라디보스토크, 티베트, 아베크’가 맞는 표기이다.

(4) ㄱ. 허브/*헵, 개그/*객

ㄴ. 핸드백/*핸드배그, 웹/*웹브

유성 파열음 [b, d, g]가 자음 앞이나 어말에 올 때에는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지 않고 항상 ‘으’를 붙여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ㄱ)에서는 ‘허브, 개그’가 바른 표기이다. 그러나 ‘백’, ‘웹’ 등 이미 굳어진 말들은 예외를 인정하여 유성 파열음을 받침으로 적는다. 따라서 (ㄴ)에서 맞는 표기는 ‘핸드백, 웹’이다.

(5) 파이팅/*화이팅, 패밀리/*훼미리, 프라이/*후라이

[f] 소리는 항상 ‘ㅍ’으로 적는다.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f]를 ‘후’나 ‘호’로 적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잘못된 것이다. [f]와 [p] 소리는 우리말에서 모두 ‘ㅍ’으로 적으므로 ‘파이팅, 패밀리, 프라이’가 맞는 표기이다.

(6) ㄱ. 슈미트/*시미트/*쉬미트

ㄴ. 대시/*대쉬, 플래시(flash)/*플래쉬/*후래쉬, 잉글리시/*잉글리쉬, 리더십/*리더쉽

ㄷ. 패션/패손, 쇼핑/샤핑, 셰익스피어/섹스피어

ㄹ. 아인슈타인/*아인시타인/*아인쉬타인, 타슈켄트/*타시켄트

[ʃ]는 영어의 경우 자음 앞에서는 ‘슈’로, 어말에서는 ‘시’로 적는다. 따라서 (ㄱ)에서는 ‘슈미트’가 맞는 표기이고, (ㄴ)에서는 ‘대시, 잉글리시, 플래시, 리더십’이 맞는 표기이다.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세, 쇼, 슈, 시'로 적는다. 따라서 (ㄷ)의 'fashion[fæʃən]', 'shopping[ʃɒpɪŋ]', 'Shakespeare[ʃeɪkspiə]' 등의 [ʃ]는 뒤의 모음과 합쳐져 '패션', '쇼핑', '셰익스피어'로 적어야 한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에서 온 말은 [ʃ]를 언제나 '슈'로 적는다. 따라서 (ㄷ)에서 독일 사람인 'Einstein'은 '아인슈타인'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Tashkent'는 '타슈켄트'로 적는 것이 맞다.

(7) 브리지/*브릿지, 스위치/*스윗치, 스케치/*스켓치, 케첩/*켓첩/*케참

[dʒ, tʃ]는 모음 앞에서는 'ㅈ, ㅊ'으로 적고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지, 치'로 적는다. 앞의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고 이 소리들이 올 때에 흔히 앞에 'ㅅ' 받침을 넣어 적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따라서 '브리지, 스위치, 스케치, 케첩'이 바른 표기이다.

(8) 플라자/*프라자, 클리닉/*크리닉, 클럽/*크럽, 살롱/*싸롱

[r]과 [l] 소리는 구분 없이 'ㄹ'로 적는다. 다만 낱말 중간에 [l]이 모음 앞에 오거나 모음이 뒤따르지 않는 비음(m, n, ŋ) 앞에 올 때에는 'ㄹ'을 겹쳐 'ㄹㄹ'로 적는다. 예컨대, cream은 '크림'으로 적지만 clean은 '*크린'이 아니라 '클린'으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플라자, 클리닉, 클럽, 살롱'이 맞는 표기이다.

4.2. 모음의 표기

(1) 센터/*센타/*쎄타, 디지털/*디지털/*디지틀, 터미널/*터미날

[ə]는 우리말의 '어'와 '으'의 중간 소리처럼 들리는데,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이를 '어'로 적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center[sɛntə]는 '센터'로, digital[dɪdʒɪtəl], terminal[tɜːmɪnəl]은 각각 '디지털'과 '터미널'로 적어야 한다. 특히 digital, terminal 표기에서 철자 a에 이끌려 '*디지털, *터미날'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못이다.



- (2) ㄱ. 콘서트/*컨서트, 콘택트/*컨택트, 콘텐츠/*컨텐츠/*칸텐츠
 ㄴ. 컨디션/*콘디션, 에어컨/*에어콘, 컨트롤/*콘트롤
 ㄷ. 톱/*탑, 솥/*삽, 보디/*바디

[ɔ]는 [o]와 구분하지 않고 ‘오’로 적는다. [ɔ] 소리는 우리말의 ‘오’보다는 입을 더 크게 벌려 ‘어’에 가깝게 소리 내는 것이어서 사람에 따라 ‘오’로 적기도 하고 ‘어’로 적기도 하나 ‘오’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ㄱ)의 예들은 [kɔn]으로 소리 나니까 ‘콘서트, 콘택트, 콘텐츠’로 적어야 한다.

(ㄴ)에 있는 예들은 발음이 [kən]으로 나는 것이다. 따라서 ‘컨디션, 에어컨, 컨트롤’로 적어야 한다. 흔히 **concert**, **contact**, **contents**의 con을 ‘콘’으로 적으니까, **condition**, **control** 따위의 con도 역시 ‘콘’으로 적으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발음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ㄷ)은 [ɔ]로 소리가 나는 것들이므로 ‘아’로 적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탑, *삽, *바디’가 아닌, ‘톱, 솥, 보디’로 적어야 한다.

- (3) 켈러/*칼라, 커버/*카바, 허니/*하니

위의 예들은 [ʌ] 소리를 가지는 단어들이다. [ʌ]는 듣기에 따라 ‘아’로 들리기도 하고 ‘어’로 들리기도 하는데, 표기 원칙에 따르면 ‘어’로 적어야 한다. 일본식 표기의 영향을 받아 ‘*칼라, *카바, *하니’ 등의 표기가 더러 눈에 띄는데, ‘켈러, 커버, 허니’로 적어야 맞다.

- (4) ㄱ. 보트/*보우트, 코트/*코우드, 보너스/*보우너스, 옐로/*옐로우
 윈도/*윈도우
 ㄴ. 타워/*타우어, 파워/*파우어, 아이젠하워/*아이젠하우어

음가가 다른 모음이 둘 이상 결합한 중모음은 각각의 단모음의 음가를 살려서 적는다. 따라서 [ai], [ei], [au] 등은 각각 ‘아이, 에이, 아우’ 따위로 적는다. 다만 [ou]는 ‘오’로, [auə]는 ‘아워’로 적는다. 이들은 ‘오우’나 ‘아우어’로 적을 경우에 원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오’, ‘아워’로 적도



록 한 것이다. 따라서 boat[bout], coat[cout], bonus[bóunəs]는 ‘*보우트, *코우트, *보우너스’로 적지 않고, ‘보트, 코트, 보너스’로 적어야 하며, yellow[jé lou]나 window[wíndou] 같은 경우도 ‘엘로, 윈도’로 적어야 한다. (ㄴ)은 [auə]로 소리 나는 것들이므로 ‘타워, 파워, 아이젠하워’로 적어야 맞다.

(5) ㄱ. 오사카/*오오사카/*오오사까, 뉴욕/*뉴우요오크

ㄴ. 알코올/*알쿨, 아밀라아제/*아밀라제, 알마아타/*알마타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장모음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오사카’, ‘*뉴우욕’ 등 모음을 겹쳐 쓴 표기는 틀린 형태이며 각각 ‘오사카’, ‘뉴욕’으로 적어야 옳다. 고유어나 한자어 중에도 ‘밤[栗] 對 밤:[夜]’, ‘눈[眼] 對 눈:[雪]’ 등 모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 쌍들이 있으나 이들을 ‘*바암, *누운’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처럼 외래어에서도 장음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ㄴ)에 있는 예들은 예외적으로 모음을 겹쳐 적는 것을 허용하는 예들이다. ‘알코올’은 ‘메탄올, 에탄올’ 따위 용어들과 관련성을 밝혀 주기 위해 예외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의 명칭도 ‘락타아제, 말타아제’ 등 다른 효소들과의 관련성을 보이기 위해 모음의 겹침을 허용한 것이다. ‘알마아타’의 경우는 원어가 Alma Ata이므로 ‘*알마타’가 아니라, ‘알마아타’로 적게 된다.

(6) 주니어/*쥬니어, 레저/*레저, 찬스/*찬스, 벤처/*벤처

외래어를 적을 때에는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 등 ‘ㅈ’이나 ‘ㅊ’ 뒤에 이중 모음이 결합한 형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저, 조, 주, 차, 처, 초, 추’로 적어야 한다. 우리말에서 ‘ㅈ, ㅊ’ 같은 경구개음은 그 뒤에서 이중 모음과 단모음이 구분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잠자다’를 [잠자다]로 발음하거나 ‘전화’를 [전화]로 말해도 뜻을 혼동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주니어, 레저, 찬스, 벤처’로 쓰는 것이 맞다.



4.3. 그 밖의 표기 세칙

(1) 로그인/*로긴, 아웃렛/*아울렛/*아우틀렛, 메이크업/*메이컵

원어가 따로 설 수 있는 말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말이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대로 적는다. 복합어를 한 단어로 보아 표기하면 이들이 각각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와 아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독으로 쓰일 때의 표기를 살려서 적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log in’이란 말은 ‘로그’와 ‘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이므로 ‘로그인’으로 적는다. 원어의 발음이 ‘*로긴’, ‘*로가웃’에 가깝게 들리더라도 그렇게 적지 않는다. ‘아웃렛, 메이크업’도 마찬가지이다.

(2) ㄱ. Charles: 찰스(영), 샤를(불)

ㄴ. San Jose: 산호세(코스타리카), 새너제이(미국)

외래어 표기는 현지 발음에 가깝게 적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원어 철자가 같은 말들이라도 한글로는 달리 표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Charles는 그것이 영어 이름인지, 프랑스 어 이름인지에 따라 한글 표기가 달라진다. 영어권 사람의 이름이라면 ‘찰스’라고 해야 하지만 프랑스 어 사용 지역의 사람 이름이라면 ‘샤를’이라고 적는다. 지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세계 지도에 보면 San Jose라고 적혀 있는 도시가 두 곳 있다. 하나는 코스타리카의 수도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시이다. 이들은 비록 같은 철자를 쓰지만 두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한글로는 전혀 다르게 적힌다. 코스타리카는 에스파냐어를 사용하는 지역이므로 그 수도는 에스파냐어 표기법에 따라 ‘산호세’라고 적어야 하며, 미국 도시는 영어 발음 [sænəjei]에 따라 ‘새너제이’로 적는다.

(3) ㄱ. 라디오/*레이디오, 시보레/*세브릴레이

ㄴ. 컷/커트, 타입/타이프



우리말에 들어온 지 오래되어 표기와 발음이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대로 적도록 한다. radio는 발음이 [rédiòu]이므로,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르면 ‘레이디오’가 되어야 하지만 이미 ‘라디오’로 굳어진 말이므로 ‘라디오’를 옳은 표기로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이름인 Chevrolet는 프랑스어에서 온 말로 [ʃevrəléi]라는 발음에 따르면 ‘*세브렐레이’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일본어를 통해서 ‘시보레’로 들여와 오랫동안 쓰여 왔던 관용을 인정해 ‘시보레’로 적도록 한다. (ㄴ)의 예들은 관용을 고려해서 두 가지 표기형을 다 맞는 것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표기형에 다른 뜻을 부여한 것들이다. 같은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표기와 쓰임이 우리말에 달리 정착한 상황을 반영한 예들이다. ‘커트’는 머리를 자르거나 탁구 등의 운동에서 공을 짚아 치는 것을 가리킬 때 쓴다. ‘컷’은 영화 따위의 장면이나 작은 삽화를 뜻할 때 쓴다. ‘타입’은 어떤 형태나 유형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타이프’는 ‘타이프라이터’의 줄임말로 타자기를 가리킨다.

(4) ㄱ. 鹿兒島: 가고시마/*녹아도,

伊藤博文: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ㄴ. 杭州: 항저우/*항주

孔子: 공자/*공쯔, 孟子: 맹자/*멍쯔

張國榮: 장귀룽/*장국영, 張藝謀: 장이며우/*장예모

ㄷ. 北京: 북경/베이징, 東京: 동경/도쿄

한자로 적힌 중국이나 일본의 인명, 지명에 대해서는 우리 한자음으로 읽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현행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라 원어의 발음을 따라 적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지명 ‘鹿兒島(かごしま)’의 우리 한자음은 ‘녹아도’이지만 일본어의 발음을 따라 ‘가고시마’로 적는다. 일본 인명도 마찬가지로 ‘이등박문’ 대신에 ‘이토 히로부미’로 적는다.

중국 인명 중에서 고대인의 경우는 현대 중국어 발음대로 표기하지 않고 ‘공자, 맹자’ 등 우리 한자음대로 표기한다. 현대인의 경우는 중국어 발음에 맞추어 ‘주음부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서 표기한다. 따라서 ‘張國榮(Zhāng Guó róng)’은 ‘장국영’이 아니라 ‘장귀룽’으로, ‘張藝謀(Zhāng Yì móu)’는



‘장예모’가 아니라 ‘장이머우’로 표기해야 한다. 중국 인명을 표기할 때 고대인과 현대인의 구분은 신해혁명(1911년)을 기준으로 한다. 중국의 지명은 역사 지명으로서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하고(長安: 장안/*창안), 현재 지명과 동일한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중국과 일본 지명 중에서 우리 한자음대로 읽는 것이 친숙한 몇몇 예들에 대해서는 현지 발음에 따른 표기와 우리 한자음 표기를 둘 다 인정한다. (ㄷ)의 ‘북경’과 ‘베이징’, ‘동경’과 ‘도쿄’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부록> 국제음성기호와 한글 대조표

자 음			반모음		모 음	
국제음성 기호	한 글		국제음성 기호	한 글	국제음성 기호	한 글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p	ㅍ	ㅍ, 프				
b	ㅂ	브				
t	ㅌ	ㅌ, 트				
d	ㄷ	드				
k	ㅋ	ㄱ, 크			i	이
g	ㄱ	그			y	위
f	ㅍ	프			e	에
v	ㅂ	브			ɸ	외
θ	ㅌ	스			ɛ	에
ð	ㄷ	드			ɛ̃	앵
s	ㅌ	스			æ	외
z	ㅌ	즈			œ̃	윙
ʃ	시	슈, 시	j	이*	æ	애
ʒ	ㅌ	지	ɥ	위	a	아
ts	ㅌ	츠	w	오, 우*	ɑ	아
dz	ㅌ	즈			ã	앙
tʃ	ㅌ	치			ʌ	어
ɕ	ㅌ	지			ɔ	오
m	ㅁ	ㅁ			õ	옹
n	ㄴ	ㄴ			o	오
ɲ	니*	뉴			u	우
ŋ	ㅇ	ㅇ			ə**	어
l	ㄹ, ㄹㄹ	ㄹ			ə̃	어
r	ㄹ	르				
h	ㅎ	ㅎ				
ç	ㅎ	히				
x	ㅎ	흐				



<참고> 틀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accessory	액세서리	악세사리
ad lib	애드리브	애드립
barbecue	바비큐	바베큐
battery	배터리	빠떼리, 뺏데리, 밧데리
biscuit	비스킷	비스켓
blind	블라인드	브라인드
body	보디	바디
buffet(프)	뷔페	부페
business	비즈니스	비지니스
cake	케이크	케익, 케익
cardigan	카디건	가디건
catalog	카탈로그	카다로그, 가다록
centimeter	센티미터	센치미터
chocolate	초콜릿	초코렛, 초콜렛, 초컬릿, 초코렛
collection	컬렉션	콜렉션
color	컬러	칼라
cover	커버	카바
cunning	커닝	컨닝
contents	콘텐츠	컨텐츠
curtain	커튼	커텐
data	데이터	데이타
digital	디지털	디지탈, 디지틀
encore(프)	앙코르	앵콜
enquête(프)	앙케트	앙케이트
fighting	파이팅	화이팅
flash	플래시	후레시, 후레쉬
flute	플루트	플룻, 플룻
fresh	프레시	프레쉬, 후레쉬, 후레시
frypan	프라이팬	후라이판, 후라이팬
gas range	가스레인지	가스렌지
giant	자이언트	자이안트, 자이언트
Hollywood	할리우드	할리웃, 헐리우트, 헐리웃
juice	주스	쥬스



원어	맞는 표기	틀린 표기
Las Vegas	라스베이거스	라스베가스
makeup	메이크업	메이컵
mania	마니아	매니아
massage	마사지	맛사지
motor	모터	모타
network	네트워크	네트웍, 네트웬
nonsense	난센스	넌센스
nylon	나일론	나이론
pamphlet	팸플릿	팜플렛
panda	판다	팬더
panel	패널	판넬
placard	플래카드	프레카드, 플랭카드
plaza	플라자	프라자
radar	레이더	레이다
royal	로열	로얄
sash	새시	샤시, 샷슈, 샷시
sausage	소시지	소세지
set	세트	셋, 셋트, 셀
shutter	셔터	샷다, 샷따, 샷타
sofa	소파	쇼파
soup	수프	스프, 슌
special	스페셜	스페샬
staff	스태프	스탱, 스탯
sunglass	선글라스	썬그라스
supermarket	슈퍼마켓	수퍼마켓, 수퍼마켈, 슈퍼마켈
symbol	심벌	심볼
talent	탈런트	탈렌트
tape	테이프	테프, 테입, 테잎
total	토틀	토탈
workshop	워크숍	워크샵



5. 연습 문제

※ 다음에서 외래어 표기에 맞는 단어를 고르시오.

- [01] 카페/까페, 파리/빠리, 버스/빠스
- [02] 시스템/씨스템, 센터/쎄터, 취리히/쥼리히
- [03] 커피숍/커피쑈, 디스켓/디스켈, 코너킥/코너킵
- [04] 로봇/로보트, 카펫/카페트, 인터넷/인터네트
- [05] 테이프/테입/테잎, 케이크/케익/케익, 플루트/플룻/플룻
- [06] 매트리스/맷리스, 투르크메니스탄/투룩메니스탄
- [07] 넷/넛, 세트/셋/셀, 매트/멧
- [08] 블라디보스토크/블라디보스톡, 티베트/티벳, 아베크/아벡
- [09] 허브/헵, 개그/객
- [10] 파이팅/화이팅, 패밀리/훼미리, 프라이/후라이
- [11] 슈미트/시미트/쉬미트
- [12] 대시/대쉬, 플래시/플래쉬/후래쉬, 잉글리시/잉글리쉬, 리더십/리더쉽
- [13] 패션/패손, 쇼핑/샤핑, 셰익스피어/섹스피어
- [14] 브리지/브릿지, 스위치/스윗치, 스케치/스켓치, 케첩/켓첩/케찹
- [15] 플라자/프라자, 클리닉/크리닉, 클럽/크럽, 살롱/싸롱
- [16] 센터/센타/쎄타, 디지털/디지탈/디지틀, 터미널/터미날
- [17] 콘서트/컨서트, 콘택트/컨택트, 콘텐츠/컨텐츠/칸텐츠
- [18] 컨디션/콘디션, 에어컨/에어콘, 컨트롤/콘트롤
- [19] 톱/탑, 솥/샙, 보디/바디
- [20] 컬러/칼라, 커버/카바, 허니/하니
- [21] 보트/보우트, 코트/코우드, 보너스/보우너스, 옐로/옐로우
- [22] 타워/타우어, 파워/파우어, 아이젠하워/아이젠하우어
- [23] 오사카/오오사카/오오사까, 뉴욕/뉴우요오크
- [24] 알코올/알콜, 아밀라아제/아밀라제, 알마아타/알마타
- [25] 주니어/쥬니어, 레저/레져, 찬스/찬스, 벤처/벤처
- [26] 로그인/로긴, 아울렛/아울렛/아우틀렛, 메이크업/메이컵
- [27] 가고시마/녹아도
- [28]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
- [29] 항저우/항주
- [30] 공자/콩쯔, 맹자/멍쯔



♠ 정 답 ♠

- [01] 카페, 파리, 버스
- [02] 시스템, 센터, 취리히
- [03] 커피숍, 디스켓, 코너킥
- [04] 로봇, 카펫, 인터넷
- [05] 테이프, 케이크, 플루트
- [06] 매트리스, 투르크메니스탄
- [07] 네트, 세트, 매트
- [08] 블라디보스토크, 티베트, 아베크
- [09] 허브, 개그
- [10] 파이팅, 패밀리, 프라이
- [11] 슈미트
- [12] 대시, 플래시, 잉글리시, 리더십
- [13] 패션, 쇼핑, 셰익스피어
- [14] 브리지, 스위치, 스케치, 케첩
- [15] 플라자, 클리닉, 클럽, 살롱
- [16] 센터, 디지털, 터미널
- [17] 콘서트, 콘택트, 콘텐츠
- [18] 컨디션, 에어컨, 컨트롤
- [19] 톱, 솥, 보디
- [20] 컬러, 커버, 허니
- [21] 보트, 코트, 보너스, 옐로
- [22] 타워, 파워, 아이젠하워
- [23] 오사카, 뉴욕
- [24] 알코올, 아밀라아제, 알마아타
- [25] 주니어, 레저, 찬스, 벤처
- [26] 로그인, 아웃렛, 메이크업
- [27] 가고시마
- [28] 이토 히로부미
- [29] 항저우
- [30] 공자, 맹자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필요성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란 한글로 표기된 단어를 로마자로 적는 방법을 말한다.¹⁾ 그런데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보면 로마자 표기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외국인이 부산국제영화제를 보러 한국에 왔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한다고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에는 ‘PUSAN’으로 쓰여 있었는데 터미널 사이트에는 아무리 찾아도 ‘PUSAN’이라는 행선지가 없는 것이었다. 친구에게 물어 보니 ‘Busan’으로 가라고 한다. 예매한 표에는 ‘Busan’이라고 찍혀 있다.



1) 흔히 a, b, c, d,를 ‘영문자’라고 부르고 ‘영문 표기’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로마자’로 하는 것이 옳다. a, b, c, d,는 영어의 표기 문자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폴란드어, 체코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알바니아어, 터키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여러 언어가 a, b, c, d,와 같은 문자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a, b, c, d,라는 문자의 이름인 ‘로마자’로 쓴 것이다.



이 외국인은 부산에 가는 내내 자신이 정말 부산국제영화제를 볼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을 것이다.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부산’과 ‘부산시’를 다른 곳이라고 오해하는 외국인도 있다.²⁾ 이와 같은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어를 적는 통일된 로마자 표기법이 필요하다.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제정 경위

현행 표기법 이전의 로마자 표기법은 1939년에 만들어진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을 기본으로 하였다.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해 1939년에 미국인 매쿰과 라이샤워가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방식이다. 그런데 이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의 발음을 영어 사용자의 귀에 들리는 대로 적은 표기법으로서 영어 사용자에게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따르기에는 매우 불편한 표기법이 아닐 수 없었다.

이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한국어의 음운 대립을 로마자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어의 파열음은 ‘예사소리(평음)/거센소리(격음)/된소리(경음)’의 대립을 이루고 있다. 즉 한국어에서 ‘달/탈/딸’은 다른 단어인데, ‘ㄷ/ㅌ/ㄸ’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마자 표기법은 이 세 가지 대립을 로마자 표기에도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다달’은 ‘tadal’로 표기하면서 ‘달’은 ‘tal’, ‘탈’은 ‘t'al’로 표기해야 한다. 즉, ‘ㄷ’은 어두에서는 ‘t’로, 어중에서 유성음으로 소리 날 때는 ‘d’로 구분하면서 ‘ㄷ’과 ‘ㅌ’은 똑같은 ‘t’로 하되 ‘ㅌ’에 어긋점을 넣었을 뿐이었다. 이처럼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은 반드시 구별해야 할 ‘ㄷ’과 ‘ㅌ’의 구별은 확실히 하지 않으면서 구별할 필요가 없는 ‘다달’의 두 ‘ㄷ’(무성음과 유성음)에는 완전히 다른 기호를 부여하였다.

로마자 표기법은 1984년에 한차례 개정되었으나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을 근간으로 한 것이어서 비슷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1984년에 개정된 로마

2) 이와 같은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로마자 표기를 2011년 2월 24일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서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자 표기법은 특히 다음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첫째는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특수 부호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반달표(˘: ö, ü)와 어갯점(: t', p', k', ch') 같은 특수 부호는 컴퓨터에서 입력하거나 검색하기가 불편하여 사람들이 사용을 꺼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특수 부호를 생략하고 나면 우리말의 중요한 대립을 구분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로마자 표기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말에서 구분되지 않는 자음의 유무성을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동’을 ‘Todong’으로 적도록 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무성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므로 같은 ‘ㄷ’을 t와 d로 달리 적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다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지금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자음을 국어의 언어 체계를 반영하여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로 구분하여 적으며, 표기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반달표나 어갯점과 같은 특수 부호를 쓰지 않는다.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

3.1. 기본 원칙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소리와 원래의 형태가 다른 경우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라’는 [신라]로 소리 나지 않고 [실라]로 소리가 난다. 그러므로 ‘Silla’로 적는다. ‘왕십리’ 역시 [왕심네]로 소리 나므로 발음대로 ‘Wangsimni’로 적어야 한다.

로마자 표기를 할 때 발음대로 적는 것은, 외국인이 가능하면 국어 발음과 가깝게 발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도로 표지판에 ‘왕십리’를 ‘Wangsipri’로 표기한다면, 외국인들은 이를 그대로 발음할 것이고, 그 발음은 우리가



알아듣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 기본 원칙 2: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

2000년 7월 개정되기 전 사용되던 ‘맥쿤라이샤워 표기법’에는 반달표(˘)와 어갯점(˙) 등의 특수 부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 반달표(˘)는 ‘ㅜ(ö)’와 ‘ㅡ(ü)’ 등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 부호가 포함된 표기는 전산으로 처리하기가 불편하여 오히려 잘못된 표기를 양산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예를 들어 ‘영’은 맥쿤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yöng’으로 적어야 한다. 그런데 반달표를 입력하기 어려워 반달표를 입력하지 않고 ‘yong’으로 적기도 하였다. ‘yong’이란 표기는 ‘용’으로 읽혀 ‘영’과 ‘용’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을왕’도 마찬가지이다. 맥쿤라이샤워 표기법에 따르면 ‘을왕’은 ‘Ülwang’으로 적어야 하는데 반달점을 표기하지 않은 ‘Ulwang’이 쓰이게 되면서 ‘을왕’과 ‘울왕’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그래서 2000년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쓰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맥쿤라이샤워 표기법에서는 어갯점(˙)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ㅍ’은 ‘p’으로, ‘ㅌ’은 ‘t’으로, ‘ㄱ’은 ‘k’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ㅂ, ㄷ, ㄱ’은 음절의 첫소리로 올 때는 ‘p, t, k’로 모음 사이에서는 ‘b, d, g’로 적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기 방식은 한국인의 언어 의식과 잘 맞지 않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가구’라는 단어는 개정되기 전의 로마자 표기에 따르면 ‘kagu’로 써야 했다. 같은 자음인 ‘ㄱ’을 환경에 따라(무성음인지 유성음인지에 따라) ‘k’와 ‘g’로 구별해서 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ㄱ’과 다른 음소인 ‘ㅋ’은 ‘k’에 어갯점(˙)만 더하여 ‘k’와 같이 표기하였다. 이에 표기법을 개정하면서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ㅍ, ㅌ, ㄱ’에 사용되던 어갯점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ㅍ, ㅌ, ㄱ’은 ‘p, t, k’로, ‘ㅂ, ㄷ, ㄱ’은 ‘b, d, g’로 표기한다.

그런데 위의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에서 ‘되도록’이라고 표현한 것은 붙임표(-)는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부호는 행정 구



역 단위를 표시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그 외에는 이름의 표기, 기타 필요한 곳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표기 일람: 모음과 자음의 표기

4.1. 모음

국어 모음은 다음과 같이 로마자로 표기한다.

단모음	ㅏ	ㅑ	ㅓ	ㅕ	ㅡ	ㅣ	ㅞ	ㅟ	ㅛ	ㅜ
	a	eo	o	u	eu	i	ae	e	oe	wi

이중모음	ㅑ	ㅓ	ㅕ	ㅠ	ㅞ	ㅟ	ㅛ	ㅜ	ㅝ	ㅞ	ㅟ
	ya	yeo	yo	yu	yae	ye	wa	wae	wo	we	ui

이중모음은 단모음 표기에 ‘y’나 ‘w’를 결합하여 만든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ㅜ’를 ‘weo’가 아닌 ‘wo’로 적는다는 것이다. 다른 표기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표기의 간결성을 위해 ‘wo’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돈의 단위인 ‘원’은 ‘weon’으로 적지 않고 ‘won’으로 적는다.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법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ㅟ’는 [이]로 소리가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희망’의 표준 발음은 [히망]이지만, ‘himang’으로 적지 않고 ‘huimang’으로 적는다. 모음 ‘ㅟ’는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데, 그것을 모두 표기에 반영하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ui’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1) ㄱ. 강원 Gangwon, 원주 Wonju, 춘권 chungwon

ㄴ. 의성 Uiseong, 신의주 Sinuiju, 구의 Guui, 동의보감 Donguibogam



4.2. 자음

국어 자음의 로마자 표기는 다음과 같다.

파열음	ㄱ	ㄲ	ㅋ	ㄷ	ㄸ	ㅌ	ㅍ	ㅂ	ㅃ	ㅍ
	g, k	kk	k	d, t	tt	t	b	pp	p	

파찰음	ㅈ	ㅉ	ㅊ
	j	jj	ch

마찰음	ㅅ	ㅆ	ㅎ
	s	ss	h

비음	ㄴ	ㅇ	ㅇ
	n	m	ng

유음	ㄹ
	r, l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모음 앞’과 ‘자음 앞이나 어말’에 관한 규정이 ‘ㄱ, ㄷ, ㅂ’에만 있는 것은 우리말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이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란, 우리말에서 음절의 끝소리가 될 수 있는 자음은 일곱 가지, 즉 ‘ㄱ, ㄴ, ㄷ, ㄹ, ㅁ, ㅂ, ㅇ’뿐이며, 이외의 다른 자음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위의 7자음 가운데 하나인 대표음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보복’은 ‘bobok’으로, ‘도덕’은 ‘dodeok’으로 적는다. 그리고 ‘부엌’의 어말 표기는 ‘ㄱ’이지만 발음이 [부억]이므로 ‘bueok’으로 적는다.

- (2) ㄱ. 보복 bobok, 도덕 dodeok
 부엌 bueok, 동녘 dongnyeok
 밖 bak
 ㄴ. 밥 bap, 법 beop
 잎 ip



‘남, 낫, 낫, 낫’은 모두 [남]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이들을 로마자로 표기하면 ‘nat’이 된다. ‘벚꽃’은 [벌꼇]으로 소리 나므로 ‘boejkkoch’이 아니라 ‘beotkkot’으로 적는다. ‘있다’도 표기대로 적으면 ‘issda’로 적겠지만, ‘있’이 [읏]으로 소리 나므로 ‘itda’로 적는다.

- (3) ㄱ. 남 nat, 걷기 geotgi
 ㄴ. 낫 nat, 못 mot, 송곳산 Songgotsan
 ㄷ. 낫 nat, 벚꽃 beotkkot
 ㄹ. 낫 nat, 좇다 jotda
 ㅁ. 낫 nat, 있다 itda

유음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이 겹쳐서 소리 나는 경우, 즉 앞 음절의 끝소리와 뒤 음절의 첫소리가 모두 ‘ㄹ’이면 ‘ll’로 적는다. 따라서 ‘나라’는 ‘nara’로 적으나, ‘달라’는 ‘dalla’로 적는다. ‘달나라’는 [달라라]로 소리 나므로 ‘dallara’로 적는다.

- (4) ㄱ. 나라 nara
 ㄴ. 달라 dalla
 ㄷ. 달나라 dallara

5.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실제

5.1. 음운 변화

5.1.1. 자음 동화

자음 두 개가 서로 연이어 발음될 때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한 음운이 또는 두 음운 모두가 바뀌는 현상을 ‘자음 동화’라고 한다. 자음 동화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우리말을 발음할 때 반드시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나



는 음운 변화 현상이므로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이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우리말의 자음 동화는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ㄱ, ㄷ, ㅂ’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바뀐다.

국민[궁민]	gungmin/*gukmin
백마[뱅마]	Baengma/*Baekma
닫는다[단는다]	danneunda/*datneunda
감문[감문]	Gammun/*Gapmun

- ② ‘ㄹ’은 ‘ㅁ, ㅇ’ 뒤에서 ‘ㄴ’으로 바뀐다.

종로[종노]	Jongno/*Jongro
삼례[삼네]	Samnye/*Samrye

- ③ ‘ㄱ, ㅂ’ 뒤에 ‘ㄹ’이 오면 ‘ㄱ, ㅂ’은 ‘ㅇ, ㅁ’으로, ‘ㄹ’은 ‘ㄴ’으로 둘 다 바뀐다.

속리산[송니산]	Songnisan/*Sokrisan
곡릉[궁릉]	Gongneung/*Gokreung
왕십리[왕심니]	Wangsimni/*Wangsipri

- ④ ‘ㄴ’ 다음에 ‘ㄹ’이 오면 ‘ㄴ’이 ‘ㄹ’로 바뀔 수도 있고, ‘ㄹ’이 ‘ㄴ’으로 바뀔 수도 있다.³⁾

신라[실라]	Silla/*Sinra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g/*Daegwanryeong
이원론[이원논]	iwonnon/*iwollon

3) 이원론, 임진란, 동원령, 생산량 등과 같이 한자어 뒤에 일음절의 한자어가 결합할 때 ‘ㄹ’이 ‘ㄴ’으로 소리가 바뀐다.



⑤ ‘ㄹ’ 다음에 ‘ㄴ’이 오면 ‘ㄴ’이 ‘ㄹ’로 바뀐다.

선릉[설릉]

Seolleung/*Seonneung

별내[별래]

Byeollae/*Byeolnae

5.1.2. 음의 첨가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이때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 자음이 ‘ㄹ’이면 첨가된 ‘ㄴ’ 소리는 위의 자음 동화 ④에 의하여 ‘ㄹ’로 발음된다. 이렇게 첨가되는 ‘ㄴ’이나 ‘ㄹ’ 음은 표기에 반영한다.

(5) ㄱ. 학여울[항녀울]

Hangnyeoul/*Hagyeoul, *Hakyeoul

색연필[생년필]

saengnyeonpil/*saegyeonpil, *saekyeonpil

ㄴ. 알약[알략]

allyak/*aryak, *alyak

솔잎[솔립]

sollip/*sorip, *solip

5.1.3. 구개음화

‘ㄷ’이나 ‘ㅌ’은 뒤에 ‘ㅣ’ 모음이 오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구개음 ‘ㅈ’이나 ‘ㅊ’으로 바뀐다. 이 구개음화 현상도 우리말의 표준 발음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6) ㄱ. 같이[가치]

gachi/*gati

ㄴ. 해돋이[해도지]

haedoji/*haedodi

5.1.4. 거센소리화

‘ㄱ, ㄷ, ㅂ, ㅈ’가 ‘ㅎ’와 만나면 거센소리 ‘ㅋ, ㅌ, ㅍ, ㅊ’로 소리 나는데, 이 역시 로마자로 표기할 때에 표기에 반영한다. 따라서 ‘좋다’는 ‘jota’로 표



기한다. 다만 명사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목호’는 ‘Muko’가 아닌 ‘Mukho’로 표기한다.

(7) ㄱ. 좋다	jota/*johda
ㄴ. 목호	Mukho/*Muko
집현전	Jiphyeonjeon/*Jipyeonjeon

5.1.5. 된소리화

예외적으로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가령, ‘애국가’는 [애국까]로 소리 나는데, ‘가’가 [까]로 소리 나는 것을 ‘된소리되기’라고 한다. 이러한 ‘된소리되기’는 불규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즉, ‘애국가’는 ‘Aegukka’라고 적지 않고 ‘Aegukga’라고 적어야 한다.

(7) ㄱ. 울산	Ulsan/*Ulssan
ㄴ. 압구정	Apgujeong/*Apkkujeong

5.2. 붙임표

‘세운’을 로마자로 ‘Seun’으로 적으면 ‘세운’뿐만 아니라 ‘슨’으로 읽을 수도 있어 혼동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Se-un’처럼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붙임표(-)는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써야 한다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8) ㄱ. 세운	Seun/Se-un
ㄴ. 중앙	Jungang/Jung-ang

5.3. 소문자와 대문자

고유 명사는 첫 글자만을 대문자로 적는 것(부산 Busan)이 원칙이다. 고



유 명사를 로마자로 표기할 때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쓰거나(BUSAN) 음절의 첫 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쓰거나(BuSan) 혹은 모두 소문자로 쓰는 것(busan)은 잘못이다. 고유 명사 이외의 경우에는 소문자로 적는다.

- | | |
|-----------|-------------------------|
| (9) ㄱ. 부산 | Busan/*BUSAN, *BuSan |
| ㄴ. 전주 | Jeonju/*JEONJU, *JeonJu |

5.4. 인명

인명을 쓸 때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며, 성과 이름을 띄어 쓴다. 한국 사람은 일본, 중국과 더불어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쓴다는 것을 아는 외국인들이 많으므로 굳이 서양의 방식을 따라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쓸 필요가 없다. 또 ‘한글 맞춤법’에서는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로마자로 성명을 적을 때는 반드시 성과 이름을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이름은 붙여 쓰는 것(나리 Nari)이 원칙이지만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나리 Na-ri)도 허용하고 있다.

- | | |
|-------------|---|
| (10) ㄱ. 송나리 | Song Nari(Song Na-ri)/*Nari Song, *SongNari |
| ㄴ. 홍길동 | Hong Gildong(Hong Gil-dong)/*Hong Gil Dong |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사람의 이름을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복남’은 [한봉남]으로 소리 나지만 ‘Han Boknam’으로 적는다. 이름은 음절 각각을 따로 읽었을 때의 소리대로 적는다.

- | | |
|-------------|--------------------------------------|
| (11) ㄱ. 한복남 | Han Boknam(Han Bok-nam)/*Han Bongnam |
| ㄴ. 유빛나 | Yu Bitna(Yu Bit-na)/*Yu Binna |

인명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사람들은 ‘성’의 표기를 혼란스러워한다. ‘이’에 해당하는 로마자 표기가 ‘i’인데도, 성씨 ‘이’를 ‘I’로 표기하지 않고 ‘Lee’로 표기하거나 ‘Yi’로 적는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많은 책에서 ‘이순신’ 장군을



‘Yi Sunsin’으로 쓰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5.5. 행정 구역명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 구역 단위(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와 ‘가’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Chungcheongbuk-do’로 적는다. 이를 ‘Chungcheongbukdo’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Chungcheong-bukdo’, ‘Chungcheongbuk Province’라고 표기하는 것도 잘못이다.

- | | |
|--------------|-------------------------------------|
| (12) ㄱ. 충청북도 | Chungcheongbuk-do/*Chungcheongbukdo |
| ㄴ. 의정부시 | Uijeongbu-si/*Uijeongbusi |
| ㄷ. 도봉구 | Dobong-gu/*Dobonggu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왕리’는 [인왕니]로 발음되지만 ‘Inwangni’ 혹은 ‘Inwang-ni’라고 적지 않고 ‘Inwang-ri’라고 표기한다.

- | | |
|-------------|--|
| (13) ㄱ. 인왕리 | Inwang-ri/*Inwangni, *Inwang-ni |
| ㄴ. 삼죽면 | Sanjuk-myeon/*Sanjukmyeon, *Samjungmyeon |

참고로 행정 구역 단위인 ‘도’와 섬을 의미하는 ‘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울릉도’의 ‘도’는 행정 구역 단위가 아닌 ‘섬’을 뜻하므로, ‘울릉도’를 표기할 때에는 붙임표를 쓰지 않아야 한다. 즉, ‘Ulleung-do’로 표기하지 않고 ‘Ulleungdo’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도’는 행정 구역 단위이므로 ‘Jeu-do’로 적는다.

- | | |
|-------------|-----------------------|
| (14) ㄱ. 울릉도 | Ulleungdo/*Ulleung-do |
| ㄴ. 제주도 | Jeju-do/*Jejudo |



그리고 ‘시, 군, 읍’의 행정 구역 단위는 생략할 수 있다. ‘청주시’는 ‘Cheongju-si’로 표기하지만 ‘Cheongju’라고 써도 된다. ‘함평군’은 ‘Hampyeong’으로, 순창읍 ‘Sunchang’으로 쓸 수 있다.

5.6.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자연 지물명인 ‘남산’, ‘금강’ 등을 ‘Mt. Nam’, ‘Geum River’로 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Namsan’, ‘Geumgang’이라고 쓰면 ‘산’과 ‘강’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Mt.’와 ‘River’ 등을 통해 의미를 밝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유 명사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표기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산’은 ‘남’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남산’ 전체가 고유 명사이고, ‘금강’은 ‘금’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금강’ 전체가 고유 명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산’과 ‘금강’은 각각 ‘Namsan’, ‘Geumgang’으로 표기해야 하며, 붙임표를 넣어 ‘Nam-san’, ‘Geum-gang’으로 표기해서도 안 된다.

- | | |
|------------|----------------------------------|
| (15) ㄱ. 남산 | Namsan/*Mt. Nam, *Nam-san |
| ㄴ. 금강 | Geumgang/*Geum River, *Geum-gang |

이것은 문화재인 ‘경복궁, 안압지, 불국사, 독립문, 다보탑’ 등에도 적용된다. 이들은 ‘경복, 안압, 불국, 독립, 다보’만이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이름 전체가 고유 명사이므로, ‘Gyeongbokgung, Anapji, Bulguksa, Dongnimmun, Dabotap’으로 표기해야 하며, 붙임표를 넣어 ‘Gyeongbok-gung, Anap-ji, Bulguk-sa, Dongnim-mun, Dabo-tap’ 등으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

- | | |
|-------------|-------------------------------|
| (16) ㄱ. 경복궁 | Gyeongbokgung/*Gyeongbok-gung |
| ㄴ. 안압지 | Anapji/*Anap-ji |
| ㄷ. 불국사 | Bulguksa/*Bulguk-sa |
| ㄹ. 독립문 | Dongnimmun/*Dongnim-mun |
| ㅁ. 다보탑 | Dabotap/*Dabo-tap |



5.7. 인명, 회사명, 단체명

현실적으로 여권에 올린 인명이나 세계적으로 이미 잘 알려진 회사명이나 단체명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회사명과 단체명은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에 맞춰 표기를 수정할 경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진 ‘삼성, 현대’ 등의 기업은 회사명을 각각 ‘Samsung, Hyundai’로 표기한다. 이를 규정에 맞게 표기하면 ‘Samseong, Hyeondae’가 될 것이다. 하지만 회사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바꾸면 그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홍보하는 데 막대한 시간과 노력, 경제적 비용이 든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 그동안 써 온 로마자 표기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을 로마자로 표기한다면 당연히 ‘로마자 표기법’을 잘 익혀 올바른 표기로 써야 할 것이다.



[연습 문제 답]

1.

- | | |
|--------------------------|-------------------------|
| 1) 의정부 Uijeongbu | 2) 여의도 Yeouido |
| 3) 백석 Baekseok | 4) 뚝섬 Ttukseom |
| 5) 답십리 Dapsimni | 6) 신림 Sillim |
| 7) 학여울 Hangnyeoul | 8) 선릉 Seolleung |
| 9) 태릉 Taereung | 10) 일원 Irwon |
| 11) 둔촌동 Dunchon-dong | 12) 목동 Mok-dong |
| 13) 종로 3가 Jongno 3-ga | 14) 을지로 Uljiro |
| 15) 몽촌토성 Mongchontoseong | 16) 광흥창 Gwangheungchang |

2.

- | | |
|----------------------------|-----------------------|
| 1) 한글 Hangeul | 2) 한복 hanbok |
| 3) 태권도 taegwondo/taekwondo | 4) 아리랑 arirang |
| 5) 제주도 Jeju-do | 6) 독도 Dokdo |
| 7) 한라산 Hallasan | 8) 속리산 Songnisan |
| 9) 무량수전 Muryangsujeon | 10) 석굴암 Seokguram |
| 11) 동대문 Dongdaemun | 12) 광화문 Gwanghwamun |
| 13) 경복궁 Gyeongbokgung | 14) 창덕궁 Changdeokgung |
| 15) 불국사 Bulguksa | 16) 화엄사 Hwaeomsa |
| 17) 김치 gimchi/kimchi | 18) 비빔밥 bibimbap |
| 19) 불고기 bulgogi | 20) 떡볶이 tteokbokki |

※ ‘태권도’와 ‘김치’는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taegwondo’와 ‘gimchi’로 적는 것이 맞으나, ‘taekwondo’, ‘kimchi’로 많이 쓰이므로 이를 인정한다.



제 2 부

윤택한 국어 생활

1. 우리말 다듬기 | 173
2. 공문서 바로 쓰기 | 215
3. 생활 글쓰기 | 231
4.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 | 247
5. 협력적 의사소통 | 273
6. 국어 정보 활용 방법 | 289





우리말 다듬기

1. 우리말 다듬기의 원칙

- ① 언어의 ‘순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② 언어의 ‘규범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③ 언어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 ④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국어 순화’를 달리 이르는 말로 이제는 ‘우리말 다듬기’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국어 순화’라는 말부터 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말 다듬기’라는 말은, 그 의미를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이라는 점에서, 국어 순화의 기본 정신에 걸맞은 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말 다듬기는 국어 속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과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는 잡스러운 것으로 알려진 들어온 말과 외국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재정리하는 것과 비속한 말이나 틀린 말을 고운 말, 표준말로 바르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진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고치는 일도 포함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말 다듬기란 한마디로 고운 말, 바른 말, 쉬운 말을 가려 쓰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순우리말(토박이말)’이 아니거나 ‘쉬운 우리말’이 아닌 말을 순우리말이나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순우리말 쓰기’나 ‘쉬운 우리말 쓰기’를 두루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말 다듬기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순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뿐만 아니라 ‘바른 우리말 쓰기’, ‘고운 우리말 쓰기’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바른 우리말 쓰기’는 규범이나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나 표현을 바르게 고치는 일을 가리키고, ‘고운 우리말 쓰기’는 비속한 말이나 표현을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고치는 일을 가리킨다.

우리말 다듬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첫째, 언어의 ‘순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다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

둘째, 언어의 ‘규범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바로 잡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말의 전통성이나 어법, 문법 등 갖가지 기준에 어긋나는 요소들을 바로잡아 우리말의 전통성을 회복하고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알맞게’ 바로잡는 데 이바지한다.

셋째, 언어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가꾸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말을 더욱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가꾸어 나가려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가꾸기’는 좀 더 명확한 표현, 좀 더 아름다운 표현 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넷째, 언어의 ‘경제성’을 추구해야 한다. 다듬은 말이 본래의 뜻을 정확히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단어 구성이 복잡해지고 길이가 길어진다면, 이는 언어의 경제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2.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

- ① 민족정신의 확립
- ② 민족 문화의 발전
- ③ 사회의 정화
- ④ 국어의 개량 및 언어생활의 개선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역사적으로 일제의 잔재인 일본어 투 용어의 다듬기에서 시작하여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다듬기까지 이어졌다. 과거 대다수 국민은 일본어 투 용어의 다듬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다듬기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다량으로 널리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서양식 외국어를 저절로 쉽게 익히도록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자주 쓰면 외국어 교육에 더 좋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순우리말이 오히려 생소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동안 우리말의 순수성이나 순정성을 추구한 나머지 웬만하면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쓰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말로 완전히 정착된 외래어까지도 순우리말로 바꾸어 쓰려고 하는 극단적인 우리말 다듬기에 대해 대다수 사람은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우리말 다듬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 민족의 언어는 그 민족의 정서와 정신과 얼을 담고 있다. 그리고 민족마다 그 정신적 특성이 다르므로 각 민족의 언어는 서로 차이가 있다.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므로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자산이다. 이러한 우리말을 다듬는 것은 우리의 민족정신을 확립하는 길이다.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우리말 속에 들어 있는 병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우리말을 아끼는 마음을 지닐 수 있다.

민족 문화의 창조·발전·전승은 언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각 민족은 자국어를 통해 각기 특이한 민족 문화를 빚어내고 있다. 영국의 사상가 칼라일은 “영국이 인도는 내어 줄지언정 셰익스피어는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영어를 갈고 닦아 훌륭한 영문학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말을 다듬는 이유는 민족정신을 확립하고 훌륭한 민족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려는 데 있다.

언어는 특수한 역사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생성되어 그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兩班)’이란 말이 생겨났고, 장인(丈人)의 집에 신랑이 들어가 살았기 때문에 ‘장가(丈家)가다’라는 말이 생겨났다. 욕설이나 은어, 비속어와 같은 말이 횡행하는 것은 역사적·사회적 여건이 그만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언어는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는 소극적인 면만 지닌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사회적 상황을 정화하는 적극적인 면이 강하다. 인간의 언어는 사고와 행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고와 행동을 규제한다. 따라서 국어를 순화함으



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욕설이나 은어, 비속어와 같은 거친 말을 쓰지 않고 곱고 부드러운 말을 쓰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서가 좀 더 부드럽고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

이 밖에 우리말 다듬기는 언중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말은 우리 국민의 자산이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사실이며, 사회적 제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마땅히 갖고 닦아 아름답고 풍부한 보고(寶庫)로 만들고, 바람직한 사회적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3.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

- ① 순우리말이 아닌 일본어 투 용어나 서양식 외래어·외국어
- ② 쉬운 우리말이 아닌 난해한 한자어
- ③ 바른 우리말이 아닌, 규범이나 어법에 맞지 않은 말이나 표현
- ④ 고운 우리말이 아닌, 비속한 말이나 표현 등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영어,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외국어 등은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다. 이 중 일본어와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영어는 역사적인 이유로 그동안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에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특히 정착된 외래어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외래어라고 모두 다듬을 수는 없고 다듬는 것이 오히려 대다수 사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순우리말 쓰기’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완전히 정착된 외래어나 지금까지 불편 없이 써 왔던 외래어를 대상으로 우리말 다듬기가 이루어진다면 극단적인 우리말 다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잘 써 왔던 외래어를 다듬으면, 다듬은 말이 오히려 생소하여 새로 익히는 데 불편해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용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는 불필요한 외래어나 외국어, 즉 아직 정착되지 않은 서양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정착되지 않은 서양 외



래어는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빨리 대처하면 다듬은 말을 쉽게 널리 퍼뜨릴 수 있다.

순수 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의 측면에서는 일본어 투 용어,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 난해한 한자어 등의 어휘를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는다면, 바른 우리말 쓰거나 고운 우리말 쓰기의 측면에서는 표기, 발음, 문장 등과 같은 비어휘적인 것도 다듬어 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즉, ‘어문 규범(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과 관련된 것)에 어긋난 표기 및 발음’, ‘어법에 맞지 않거나 비속한 표현의 문장’ 따위와 같은 비어휘적인 것도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우리말 다듬기의 실제

4.1. 일본어 잔재

그동안 일본어는 대부분 순화의 대상이었다. 역사적으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의 핵심인 일본식 성명 강요, 조선어 사용 금지, 조선어학회 탄압 사건 등으로 국어는 강제적으로 말살되었고, 이에 따라 국어의 자긍심이 크게 손상되었으며, 민족정신마저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1976년 ‘국화 순화 세칙’에서는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를 어원으로 하는 외래어는 아주 바꾸어서 먼저 것을 쓰지 않기로 규정하였다.

광복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꾸준하고도 줄기차게 일본어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일을 해 왔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이제 공식적인 자리의 대화에서는 일본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일본어가 우리말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아직도 많은 일본어와 일본어 투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우리 언어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본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가라(空, 虛) → 가짜
기스(傷) → 흠(집), 생채기



- 단도리(段取り) → 채비, 단속
 텃빔(鐵板) → 우두머리
 땡깡(癲癇) → 생떼
 무땡뽕(無鐵砲) → 막무가내
 잇빠이(一杯) → 가득, 한껏
 하꼬방(箱-) → 판잣집, 쪽방
- (2) 곤조(根性) → 본성, 심지
 신땡(新品) → 신출내기, 새내기
 쇼부(勝負) → 흥정, 결판
 뽕록(襤褸)나다 → 들통나다
- (3) 와사비(山葵) → 고추냉이
 깡깡(金柑) → 금귤, 동귤
 사라(皿) → 접시
 요지(楊枝) → 이쭉시개
 다대기(たたき) → 다진 양념
 다마네기(玉葱) → 양파
- (4) 가꾸목(角木) → 각목, 각재
 구루마(車) → 손수레, 달구지
 고바이(勾配) → 기울기, 오르막
 시마이(仕舞い・終い) → 마감, 마무리
 시타바리, 시다바리(下-) → 보조원, 밑일꾼

(1)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일본어이고, (2)는 특히 속되게 느껴지는 생활 일본어이다. 그리고 (3)은 식생활 분야에서 쓰이는 일본어이고, (4)는 건설 분야에서 쓰이는 일본어이다. 일본어는 어떤 것을 막론하고 대부분 다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4.2. 일본식 한자어

단지 일본식 한자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말로 다듬기에는 이미 국어 속에 자리 잡은 말들이 많다. 예를 들어 개화기에 신문물의 유입과 함께 들어와 이제는 완전히 국어가 되어 버린 ‘경제’, ‘사회’, ‘정당’ 따위와 같은 말은 바꿀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원래 있던 우리말 한자어 대신에 자리 잡은 ‘미인(美人←一色)’, ‘약속(約束←言約)’, ‘화장(化粧←丹粧)’ 등과 같은 말도 우리말 한자어로 되돌려 놓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본식 한자어는 선별적으로 다듬기를 해야 한다.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그 속성상 순수 일본어와 유사한 것은 다듬기의 대상이 될 것이다.

- (5) 나대지(裸地) → 빈 집터
 매점(買占) → 사재기
 사양서(仕樣書) → 설명서
 시건(施鍵) 장치 → 잠금 장치
 취조(取調) → 문초
 택배(宅配) → 집 배달, 문 앞 배달
- (6) 가접수(假接受) → 임시 접수
 가처분(假處分) → 임시 처분
 공수표(空手票) → 부도 수표
 공상자(空箱子) → 빈 상자
- (7) 거래선(去來先) → 거래처
 수입선(輸入先) → 수입국
 제조원(製造元) → 만든 곳
 매표구(賣票口) → 표 사는 곳
 비상구(非常口) → 비상문
 물가고(物價高) → 높은 물가
 수확고(收穫高) → 수확량
 결석계(缺席屆) → 결석 신고서
 숙박계(宿泊屆) → 숙박부

(5)는 지나치게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이고, (6)은 일본식 한자어 접두사인



‘가(假)-, 공(空)-, 생(生)-’ 따위가 붙은 말이며, (7)은 일본식 한자어 접미사인 ‘-선(先), -원(元), -구(口), -고(高), -계(届)’ 따위가 붙은 말이다. 일본식 한자어들을 어느 선까지 허용하고 다듬어야 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자어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어렵다면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4.3.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 (8) 척사(擲柶) 대회 → 윷놀이 대회
 비산(飛散) 먼지 주의 → 날림 먼지 주의
 콘크리트 양생(養生) 중 → 콘크리트 굳히는 중
 사고 다발(多發) 지역 → 사고 잦은 곳
 약을 복용(服用)하다 → 약을 먹다
 난색(難色)을 표명(表明)하다 → 어려운 빛을 나타내다
 가방을 분실(紛失)하다 → 가방을 잃어버리다
 장물을 은닉(隱匿)하다 → 장물을 숨기다
 법에 저촉(抵觸)되다 → 법에 걸리다
 전력(全力)을 경주(傾注)하다 → 온 힘을 기울이다
 식별(識別)이 용이(容易)하다 → 알아보기 쉽다
 적색등(赤色燈)이 점등(點燈)하다 → 빨간불이 켜지다
 화재(火災)를 진압(鎮壓)하다 → 불을 끄다
 촉수(觸手)를 엄금(嚴禁)하시오 → 손대지 마시오

한자어는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해 주고 조어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이 어렵게 느낀다는 점에서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대개 한자 표기를 하지 않고 한글로만 표기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위의 예는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고유어로 바꾼 것으로, 어려운 한자어를 쓰는 것에 비해 의미를 파악하기 쉽다.



4.4. 일본식 외국어와 외래어

- (9) 다스(dozen) → 타(打)/열두 개
 다시(dash) → 줄표/대시
 도랏쿠(truck) → 화물차/트럭
 바케쓰(bucket) → 양동이
 밤바(bumper) → 범퍼/완충기
 밧테리(battery) → 건전지/배터리
- (10) 난닝구(running shirt) → 러닝셔츠
 도란스(transformer) → 변압기
 뽕꾸(puncture) → 구멍/펑크
 스텡(stainless) → 안녹쇠/스테인리스
 오바(overcoat) → 외투/오버코트
 미손(transmission) → 변속기
 뽕뽕(sandpaper) → 사포
- (11) 올드미스(old miss, オールドミス) → 노처녀
 리어카(rear car, リヤカー) → 손수레
 백미리(back mirror, バックミラー) → 뒷거울
- (12) 가라오케[空(から)orchestra] → 녹음 반주/노래방

(9)는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서양 외래어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 가운데에는 일본어로 잘못 알고 쓰는 영어가 참 많다. 일본을 통하여 일본어식 발음으로 들여와서 쓰다 보니 본래 영어에서 유래한 말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쓰는 것이다. 발음이 원래의 영어와는 크게 달라 원래의 영어가 무엇인지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런 일본어식 발음의 영어는 대개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말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속어로 둔갑하여 널리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예가 ‘후로쿠’이다. 이 말은 본래 당구 용어인 영어 ‘플루크(fluke)’에서 유래한 말인데 일본어식 발음이 원래의 영어와 너무 다르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에 따라 ‘후로쿠’, ‘후룻쿠’, ‘후루꾸’, ‘후로꾸’ 등 여러 가지의 다른 형태로 받아들여 쓰고 있다.

(10)은 일본에서 만든 영어 약어이며, (11)은 일본에서 직접 만든 영어이다. 그리고 (12)는 일본어와 서양 외래어가 뒤섞인 말이다. 이들 역시 우리의 언어



환경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4.5. 서양의 외래어와 외국어

최근 들어 세계화, 국제화 추세로 일상 언어생활에 외래어나 외국어가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세계화, 국제화의 추세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즉,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말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말로 바꿔 쓰지 않는 한 외국어에서 그대로 빌려다 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래서 현재 차용되어 우리말처럼 쓰이는 서양 외국어의 대부분은 ‘웰빙(well-being)’,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올인(all-in)’ 따위처럼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이다.¹⁾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영어의 형용사까지도 그대로 가져다 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유행어로 떠도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이런 말이 다량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우리말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로 동사와 더불어 어느 언어에서나 기본 어휘 부류에 속한다. 그래서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와 달리 외국어에서 형용사를 빌려다 쓰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럼에도, 오래전부터 ‘컬러풀하다’, ‘스마트하다’, ‘와일드하다’, ‘로맨틱하다’, ‘타이트하다’ 따위의 영어 형용사를 빌려다 썼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이 영어 형용사를 다량으로 빌려다 쓰고 있고, 영어 형용사가 우리말의 여느 형용사처럼 합성어나 구를 구성하는 데 빈번하게 쓰이기도 한다.

(13) 영어 형용사에 ‘-하다’가 붙은 말

글래머러스하다, 글로벌하다, 보이시하다, 센세이셔널하다, 원더풀하다, 프로페셔널하다, 드라마틱하다, 트렌디하다, 쿨하다, 터프하다, 빈티지하다, 앤틱하다, 미니멀하다

(14) 영어 형용사가 합성어나 구를 구성하는 경우

스마트 폭탄, 슬립형, 글로벌 예산, 클린 산업

1) 국립국어원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http://malteo.net>)에서는 ‘웰빙(well-being)’을 ‘참살이’로, ‘스크린 도어(screen door)’를 ‘안전문’으로, ‘올인(all-in)’을 ‘다걸기’로 다듬은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 기관의 이름에서부터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영어 약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15) 영어 약자

국가 기관의 영어 약자: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언론 기관의 영어 약자: DJ, MB, EBS

경제계의 영어 약자: KT&G, LG, LH

연예계의 영어 약자: SS501, SG워너비

일상생활의 영어 약자: 셀카, 디카, UCC(User Created Contents)

최근에 새로 생기는 직업의 이름, 기업이나 지역의 홍보 문구는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졌다. 이는 국어를 홀대하고 외국어를 중시하는 언어 사대주의나 국어는 촌스럽고 영어는 세련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언어 권위주의 때문이다. 언어 사대주의나 언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우리말을 경시하는 태도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크게 잘못된 태도이다.

4.6. 변형된 우리말

(16) 안냐세요 → 안녕하세요

방가 → 반가워요

어좌요 → 어서 오세요

설 → 서울

고딩 → 고등학생

조아 → 좋아

부니기 → 분위기

(17) 포그니 → 포근히

누네티네 → 눈에 띄네

모드니에 → 모든 이에

함사세 → 함께 사는 세상

(16)은 컴퓨터 통신어이다. 이들 언어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들을 사용하게 된다. 그 결과, 언어의 굴절이 자유롭게 허



용된다는 의식이 무의식중에 우리에게 심어진다. 이것이 바로 통신어를 부려 쓰지 말아야 할 근본 이유이다. 한편, (17)은 상표명과 상호명을 변형하여 사용한 예이다. 이러한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도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인터넷 언어 초기에는 ‘머시따(멋있다)’, ‘절머(젊어)’, ‘마니(많이)’, ‘열시미(열심히)’처럼 우리말의 복잡한 받침을 없애고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쌤(선생님)’, ‘방가(반가워요)’, ‘어좌요(어서 오세요)’처럼 단어나 구의 일부분을 줄인 말이 자주 쓰였다. 그래야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자판을 칠 수 있어서 사용 시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이상하고 새로운 형태의 우리말 어법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말들이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예컨대 ‘친구’나 ‘아니지’로 쓰지 않고, ‘튀구’, ‘아니쥬’로 쓰는 것이다. 아마도 새로워 보이기 때문에 신세대는 이런 형태의 말을 선호하는 듯하다. ‘아헿헿’, ‘뽀’와 같은 이상한 신조어와 ‘KIN(즐)’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도 모두 이러한 경향 때문인 듯하다. 게다가 요즘은 ‘너無’, ‘빠2’, ‘밥5’처럼 우리말을 한글이 아닌 외래 문자나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어서 한글과 섞어 쓰거나, ‘ㄱㅅ(감사)’, ‘ㅈㅅ(죄송)’, ‘ㄷㄱ(추카 ← 축하)’, ‘ㄱㄷㄱㄷ(키득키득)’처럼 한글 자체를 해체하여 우리말을 적은 것들이 있다.²⁾

이렇듯 인터넷 언어가 점차 우리말 파괴적인 성격을 띠어 가는 현상에 대하여 몇몇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들은 언어 변화란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의 하나이며, 인터넷 언어도 언어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본다. 게다가 인터넷 언어는 극히 제한된 은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인터넷 언어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 한정해서 신세대가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네들끼리 쓰는 말이라서 일상 언어생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신세대의 인터넷 언어는 대부분 말장난의 하나로서 언어유희에 가깝다. 우리말을 한글이 아닌 외래 문자로 바꾸어서 한글과 섞어 쓰거나, 한글 자

2) 영어에서 두문자(頭文字)를 활용한 NASA와 같은 말이 발달해 있듯이, 우리말에서도 단어의 자음을 활용한 표기를 활용해 봄 직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표기가 다른 말과 변별이 되지 않아 언어 생활에 혼란을 주거나, 실제 말을 할 때 “죄송합니다.”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서 “지읏 시읏!”으로 말하는 일도 있어 문제가 된다.



체를 해체하여 우리말을 적는 일은 다분히 우리말 파괴적 행태이다.

게다가 요즘의 인터넷 언어는 신세대의 일상 언어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세대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나 글에서도 우리말 어법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말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도 신세대는 그러한 사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터넷 언어는 방송과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서 일반 국민의 언어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느덧 인터넷 언어는 신세대만의 문제가 아닌, 언중들의 언어생활 전반에 관련된 문제가 되어 버렸다. 지금의 인터넷 언어는 이제 우리가 모두 함께 돌봐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4.7. 욕설, 비속어, 은어

최근 들어 욕설, 비속어가 신세대 사이에서 지나칠 정도로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따지지 않는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엇나간 남자들 사이에서, 그것도 지극히 사적인 자리에서나 쓸 수 있던 말이 욕설과 비속어였다. 그런데 이젠 버스나 지하철에서 거리낌 없이 욕설과 비속어를 내뱉는 여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신세대 사이에서 ‘존나 쪽팔린다’라는 말은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닌 일상어처럼 되어 버렸다.

2005년에 국립국어원이 조사하여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언어생활’에서도 고등학생들 대부분(76.4%)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욕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정작 신세대는 욕설이나 비속어를 쓰는 것에 대해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네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미국의 언어학자인 사피어(Sapir)와 워프(Whorf)는 ‘언어 상대 가설’을 세워 언어가 인간의 사고나 사유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 즉 인격 형성이나 정서 함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이론을 따르면 욕설이나 비속어 또한 인격 형성이나 정서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욕설이나 비속어가,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 가는 시기에 있는 신세대의 인격·정서



형성에 주는 폐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아주 크다.

우리나라 신세대, 즉 청소년은 인터넷 세대에 속한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통신 공간의 익명성은 비어, 속어, 은어, 욕설 따위를 확대하고 재생산한다. 요즘 신세대가 일상 언어생활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다음은 인터넷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욕설, 비속어, 은어들의 예이다.

(18) 욕설

붕신(←병신), 덜아이(←또라이, 돌아이), 존나(매우)

(19) 비속어

웨이(새끼), 뽕세다(고되다), 뽕까다(거짓말하다), 뽕까다(모른 척하다), 뽕지다(죽다), 뽕다(대꾸하지 않다)

(20) 은어

깔(여자 친구), 깔따구(남자 친구), 까대기(이성 친구를 유혹하는 일), 담탱이(담임선생), 썰끈하다(멋지다), 뽕(기념식)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 또한 언어폭력의 하나이다. 언어폭력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우리의 전통 언어 예절과 크게 어긋난다. 게다가 언어폭력은 그 피해가 궁극에 가서는 가해자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부메랑과 같다. 따라서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은 삼가야 한다.

4.8. 신조어

신조어를 살펴다 보면 때론 신선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나 신조어와 관련된 우리의 언어 현실을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다. ‘무녀독남(無女獨男)’은 ‘무남독녀(無男獨女)’에서 유추하여 만들어 낸 말로 자식을 하나만 낳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새로 생겨난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어제오늘 생겨난 말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 왔던 말이었으나, 아직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말이다. 한편 ‘딸이 없는 집안의 외아들’을 뜻하는 ‘무매독자(無妹獨子)’라는 말은 이미 사전에 올라 있다. 이렇게 엄연히 사전에 올라 있는 말인데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여 쓰지 않는 단어들은 신조어에 밀려 사전 속에서 사장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방송과 언론을 통해 소개된 ‘귀차니스트/귀차니즘’, ‘얼짱/얼짱’, ‘당근이다’, ‘꽃미남’ 등과 같은 신조어는 일반인도 이를 널리 쓰고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우리말 어법에 어긋난 말이 적지 않아 많은 사람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방송과 언론을 통한 신조어의 남발이 우리말 파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³⁾

‘귀차니스트’, ‘귀차니즘’은 ‘귀찮다’라는 우리말에 영어 접사인 ‘-ist’, ‘-ism’을 결합하여 만들어 낸 신조어로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국적 불명의 말이다. ‘얼짱, 얼짱’은 ‘얼굴 짱, 얼굴 짱’이라는 어구에서 각 어절의 첫 음절을 따서 만든 준말인데 이 또한 우리말 어법상 자연스럽지 않다. 이들은 신세대가 단지 남의 관심이나 이목을 끌려고 우리말 어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다. 또한, 우리말의 조어 방식과 어긋나 이상한 느낌이 드는 신조어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몰래카메라’, ‘홀로노인’, ‘깜짝쇼’, ‘깜짝세일’ 등이 있다. 이렇게 부사에 명사를 결합하여 신조어를 만드는 방식은 우리말의 일반적인 조어 방식과 어긋나서 부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드물지만 오래전부터 써 오던 우리말에 ‘따로국밥’과 같은 말이 있기 때문이다.⁴⁾ 우리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를 반영하듯 ‘얼짱, 몸짱, 에스(S)라인’과 같은 말이 나오더니 이제는 더 나아가 신체의 특정 부분을 관능적이고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꿀벅지, 착한 가슴, 초콜릿 복근’과 같은 신조어들이 생겨나 성차별적인 인상을 준다.⁵⁾

3) 주부들의 ‘귀차니즘’이 생활 가전 기술을 진화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안정환보다 더 멋진 ‘얼짱’ 축구선수가 됐을 것이다. -세계일보

4) 한편, ‘먹자골목’, ‘막가파’, ‘묻지마투매’ 등은 동사의 활용형 뒤에 명사나 접미사를 결합하여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이는 우리말의 조어 방식과 크게 어긋난다. 그렇지만 우리말의 조어력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1) 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장항동 ‘먹자골목’ 주변 바(Bar) 형태의 일반음식점의 유흥접객부 고용 등 잘못된 영업 행위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자유로포럼

(2) 1996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막가파’ 사건의 주범 최○○도 사형수 신분으로 13년째 복역 중이다. -일요신문

(3) 지금 금융시장에선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견디다 못해 ‘묻지마투매’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경제신문

5) 우리 주변에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거나 잘못된 가치를 주입시키는 표현, 특히 성차별적 표현이나 빈부 차별, 지역 차별, 인종 차별 등과 관련한 표현이 흔하다. 이러한 것도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보기: 가정부(家政婦) → 가사 도우미, 살색 → 살구색, 핫팬츠 → 한뼘바지, 티프가이 → 꽤남아, 섹시미 → 관능미/요염함/매력적



사실 신조어의 생성은 자연스러운 언어 현상이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나게 마련인데, 거기에 새 이름을 붙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성된 신조어 가운데 몇몇은 긴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말의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새내기’, ‘도우미’, ‘빨래방’ 등은 생성된 지 십여 년이 넘어 일상 언어생활에서 널리 쓰이면서 완전한 우리말로 정착하였다.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표현 욕구를 지니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은 그 욕구가 더 강하고 기성세대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면이 있다. 그래서 신세대의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사고방식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단순화된 언어로써 신조어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렇듯 신조어의 사용이 신세대의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고, 우리말의 표현 영역을 풍부하게 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말을 우리말답지 않게 사용하거나 심지어 우리말을 파괴하면서까지 마구잡이로 신조어를 양산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언어 파괴 현상은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세대 간의 단절을 가져와서 다른 많은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9. 외국어 번역 투 문장

우리말 다듬기의 핵심은 잘못된 어휘를 고쳐 쓰는 것이지만 우리말 다듬기는 어휘만이 대상인 것은 아니고 문장도 대상이 된다. 우리말을 소리 없이 갇아먹고 있는 외국어 번역 투 문장 역시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이 된다.

[1] 영어 번역 투의 문장

- ① 글 쓰는 이의 평소 생활 자세의 진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It is not too much to……’의 영향).
→ 글 쓰는 이는 평소에 진지한 생활 자세를 지녀야 한다.
- ②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bout’의 영향)
→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 ③ 우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be located in’의 영향)



-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 ④ 진지하고도 솔직한 설명이 있었다. ('There is……'로 시작하는 문장)
→ 진지하고 솔직하게 설명했다.
- 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have'의 영향. [참고]: We have much rain.) → 모든 국민에게는 신체의 자유가 있다.
- ⑥ 공격 찬스가 주어지면 기민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be given'의 영향)
→ 공격할 기회가 생기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 ⑦ 새로운 경제팀에는 유연한 정책 대응 자세가 요구된다. ('be required of'의 영향)
→ 새로운 경제 부처들은 유연한 정책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 ⑧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from'의 영향)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 ⑨ 지금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be ~ing'의 영향)
→ 지금 열차가 도착합니다.
- ⑩ 좋은 아침 (되십시오)! ('Good morning!'의 직역)
→ '안녕하십니까?', 또는 '활기찬(멋진) 아침 맞이하십시오.'

[2] 일본어 번역 투의 문장

- ① 그런 행위는 범죄에 다름 아닙니다.
→ 그런 행위는 범죄와 다름이 없습니다.
- ② 정보의 관리, 문서 처리, 회계 처리 등에 있어서 컴퓨터가 활용된다.
→ 정보의 관리, 문서 처리, 회계 처리 등의 일을 할 때 컴퓨터가 활용된다.
- ③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군의 변화의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의' 남용)
→ 우리는 큰 기대를 하고 군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 ④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풍토)이다.
- ⑤ 이번 선거는 부정 선거임에 틀림없다.
→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임이 틀림없다.



그 밖에 ‘-에 의하여’는 낡은 한문 투이고 ‘-을 가지다’는 영어 ‘have’의 번역 투이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과 법률이{에서}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우리말 다듬기의 방향

우리말 다듬기는 언어의 ‘순수성’, ‘순결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는 외국어나 외래어를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우리말 다듬기 정책은 지나칠 정도로 우리말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 즉 ‘순우리말 쓰기’에 치우쳐 있었다. 광복 직후 ‘국어 정화(國語淨化)’라 하여 대대적으로 일제 잔재 용어(일본어 투 용어)를 순우리말로 바꾼 일이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일제 잔재 용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정상적인 언어 접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입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의해 일방적·강제적으로 유입된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다듬기는 언어의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 2003년부터 일본은 서양식 외래어·외국어를 순수 일본어나 한자어로 바꾸는 일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순우리말 쓰기’와는 다르다. 일본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외래어를 선별하여 순수 일본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는 언어의 공공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쉬운 말 쓰기’에 해당한다.

우리의 우리말 다듬기에서 ‘순우리말 쓰기’와 ‘쉬운 우리말 쓰기’는 모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본어 투 용어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다듬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된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순우리말 쓰기’에 치우치기보다 ‘쉬운 우리말 쓰기’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말 다듬기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의 남용이다. 다량으로 무분별하게 빌려 쓰는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는 우리말의 자리까지 빼앗고 있다. 게다가 서양식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



으로 친구 세대 간에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영국에서처럼 ‘쉬운 말 쓰기’ 차원에서 서양식 외래어나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쓰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말 다듬기는 시기적절성과 쌍방향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널리 쓰여 굳어져 버리고 나서 우리말 다듬기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용성은 떨어지고 언중의 혼란을 초래하거나 언중의 반감을 사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말 다듬기를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 말이 일상 언어생활에 정착되기 전에 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는 최근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외래어나 신조어를 이른 시일 안에 우리말 다듬기의 대상으로 제시하면서 우리말 다듬기의 시기적절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또한 ‘말터’는 상향식, 쌍방향식, 자율성을 지향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한 결과여서 일반 국민의 참여와 지지를 얻고 있다. 일반 국민을 직접 참여시켜서 마련한 다듬은 말은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국민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게 대중주의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기도 한다. 언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국민에게 우리말 다듬기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은 앞으로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우리의 언어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말을 다듬어 쓰는 일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 결정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⁶⁾

우리말 다듬기란 궁극적으로 언어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우리말을 경시하고 외래어·외국어를 중시하는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려면 타율적인 방식보다는 일반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 2004년부터 시작한 우리말 다듬기의 예들이다.⁷⁾

6)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9년 6월부터는 누리꾼이 제안한 말 가운데 투표에 올릴 순화 후보어를 선정할 때 순화위원의 추천을 받고, 국립국어원의 국어 전문가가 후보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7)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말터 / www.malteo.net)’ 게시판 ‘이렇게 바꿨어요!’에서 그동안 다듬은 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미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korean.go.kr>) → 정보마당 → 어휘 검색 → 순화어(http://korean.go.kr/08_new/index.jsp)’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 말터에서 다듬은 말

웰빙 → 참살이
이모티콘 → 그림말
올인 → 다걸기
콘텐츠 → 꾸림정보
네티즌 → 누리꾼
포스트잇 → 붙임쪽지
스티커 → 붙임딱지
언론플레이 → 여론몰이
투잡 → 겹벌이
형그리정신 → 맨주먹정신
메신저 → 쪽지창
타임서비스 → 반짝할인
랜드마크 → 마루지
웹서핑 → 누리검색
뷰파인더 → 보기창
리플 → 댓글
스팸메일 → 쓰레기편지
유비쿼터스 → 두루누리
팝업창 → 알림창
커플룩 → 짝꿍차림
유에스비(USB) 메모리 → 정보막대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아무리 좋은 단어와 표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언중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하듯이 다듬은 말에 대한 전 국민의 실제적인 사용 절차가 있어야 우리말 다듬기의 의미가 완성된다. 그러려면 정규 교육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 우리말 다듬기의 결과나 관련 자료들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하거나 교육해야 할 것이다.



6. 공공기관 언어 다듬은 사례

6.1. 다듬은 사례(1)—중앙 부처

부처명	다듬을 말	다듬은 말
국토해양부	절토법면(切土法面)	흙 깎기 비탈면
국토해양부	톨게이트(Toll Gate)	영업소, 요금소
국토해양부	크러셔(C/R) Crusher	골재 생산장
국토해양부	로드킬(Road kill)	동물 교통 사고
국토해양부	웻 리스(Wet lease)	포괄 임차
국토해양부	ITS 아키텍처(ITS architecture)	지능형 도로 교통 체계 구성도
국토해양부	다루키(垂木)	서까래
국토해양부	컨센서스(Consensus)	의견 일치
국토해양부	마인드맵(Mnd map)	연상법
국토해양부	CCTV(closed circuit TV)	폐쇄 회로 텔레비전/ 상황 관찰기
국토해양부	롤모델(Role model)	본보기
국토해양부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시청각 설명(회)
국토해양부	케이터링(catering)	출장 요리
국토해양부	마일리지 서비스(mileage service)	이용 실적 서비스
국토해양부	수로도서지(水路圖書紙)	해도 및 항해 서지
국토해양부	VTS(vessel traffic system)	해상 교통 관제 시스템
국토해양부	틸팅열차(tilting-)	준고속 열차
국토해양부	사이버 인프라 구축(cyber infra-)	전자 정보 공유 기반 시설 구축
국토해양부	잔여지(殘餘地)	자투리 땅
국토해양부	F.O.D.(Foreign Object Damage)	항행 위험물
국토해양부	PQ입찰(Pre-Qualification)	사전 심사 입찰
국토해양부	건설Cals(Construction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건설 정보 공유 시스템
국토해양부	제내지(堤内地)	제방 밖
국토해양부	BSC(BSC)	균형 성과표
국토해양부	보링(boring)	시추
국토해양부	코드 웨어(Code share)	공동 편명



부처명	다듬을 말	다듬은 말
국토해양부	편경사(扁傾斜)	횡단 기울기
국토해양부	도류화	곡선화
국토해양부	IC(Interchange)	나들목
국토해양부	페이스매핑(Face mapping)	사면 전개도
국토해양부	드라이 리스(Dry lease)	단순 임차
국토해양부	C.O.P.(Community of Practice)	학습 연구 동아리
국토해양부	브릿지(Bridge)	탐승교
국토해양부	R & D 사업(Research& Development)	연구 개발 사업
국토해양부	차터(Charter)	전세편 항공기
국토해양부	오픈스카이(Open skies)	항공 자유화
국토해양부	로드 팩터(Load factor)	탑승률
국토해양부	VMS(Variable Message Sign)	도로 전광 표지
국토해양부	VE(value engineering)	가치 제고 기술
국토해양부	나라시(均し)	고르기
국토해양부	다이크(Dike)	배수 턱
국토해양부	성토법면	흙 쌓기 비탈면
국토해양부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지능형 교통 체계
국토해양부	매뉴얼(Manual)	지침서
국토해양부	사인보드(Sign Board)	안전 유도판
국토해양부	위빙(Weaving)	엇갈림
국토해양부	배칭플랜트(B/P) Batching plant	콘크리트 생산장
국토해양부	SOC사업(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기반 시설 사업
국토해양부	TCS(Toll Collecting Systems)	통행료 수납 장치
국토해양부	브레이크(Breaker)	파쇄기
국토해양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 인식 기술
국토해양부	유도펜스(유도 Fence)	유도 울타리
국토해양부	구배(勾配)	기울기
국토해양부	딜리니에이터(Delineator)	시선 유도 표지
국토해양부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	신차 안전도 평가
국토해양부	단도리(段取り)	준비
국토해양부	루베(立方米(るべ))	세제곱미터
국토해양부	헤베(平方米)	제곱미터



부처명	다듬을 말	다듬은 말
국토해양부	반센/반생(盤線)	콘 철사, 연철사
국토해양부	HID(High Intensity Discharge)	고광도 가스 방전식 램프
국토해양부	리콜(Recall)	제작 결함 시정
국토해양부	바리케이드(barricade)	차단 시설물
국토해양부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 무역 협정
국토해양부	ABS(Anti-lock Brake System)	바퀴 잠김 방지 제동 장치
국토해양부	가드레일(guardrail)	방호 울타리
국토해양부	명예연안관리인제도	연안 지킴이 제도
국토해양부	R&D(Reaserch & Development)	연구 개발
공정거래위원회	CP(Compliance Program)	공정 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위원회	에스크로제(Escrow)	결제 대금 예치제
공정거래위원회	CCMS(Consumer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소비자 불만 자율 관리 프로그램
국가보훈처	현충선양 프로그램	나라 사랑 참여 프로그램
국가보훈처	케어 플랜	간호 복지 계획/복지 계획
농림수산식품부	거버넌스 (Governance)	정책, 행정, 관리, 통치 (※ 문맥에 따라 선택)
문화체육관광부	U-세종학당	누리-세종학당
문화체육관광부	뮤지엄 콤플렉스	국립박물관 복합 단지
방송통신위원회	그린 ICT	녹색 방송 통신
방송통신위원회	그리드 컴퓨팅	컴퓨터 연계 활용
방송통신위원회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 기반 정보 통신(IT) 자원 통합·공유 서비스
환경부	어독성	어류 독성
환경부	그린인프라	녹색 기반 시설
환경부	포기(조)	공기 공급(조)
환경부	비산먼지	날림 먼지



6.2. 다듬은 사례(2)—충청북도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1	랜드마크	마루지	25	오프닝	개막 (공연)
2	러브투어	~ 사랑 방문	26	워크숍	수련회, 연수회
3	로드맵	밋그림, 청사진, 길잡이, 단계별 이행안	27	원스톱	바로, 한번에, 한자리
4	리모델링	구조 변경, 새 단장	28	웰빙	참살이
5	매칭펀드	대응 자금, 대응 기금	29	이벤트	행사, 사건
6	메세나	문예 후원	30	인랜드포트	내륙항
7	모니터	정보 검색, 감시, 관찰, 점검	31	인센티브	유인책, 특전
8	바우처	복지 교환권, 복지 상품권	32	인프라	기반 (시설), 바탕
9	바이오메디컬 허브	생명 의약 중심(지)	33	제로베이스	원점
10	뱅크	은행	34	콘텐츠	내용(물), 꾸림 정보
11	벤치마킹	견주기, 따라잡기	35	큐시트	진행표
12	벨트	지대, 구역, 띠	36	클러스터	연합 (지구)
13	브랜드	상표, 명품	37	클로징	마무리, 맺음
14	비전	이상, 전망	38	타깃마케팅	주요 판촉, 중점 판촉
15	서비스	봉사, 접대, 도움	39	태스크포스	전략팀, 기획팀, 특별팀
16	서포터스	후원자, 지지자, 응원단, 뒷바라지꾼	40	테마	주제
17	세미나	발표회, 연구회, 토론회	41	테크노폴리스	첨단 산업 연구 도시
18	센터	본부, 중앙, 중심 (지)	42	템플스테이	사찰 체험
19	슬로건	표어, 강령, 구호	43	패러다임	틀, 체계
20	시그널	신호	44	패밀리	가족
21	시니어클럽	어르신 모임, 어르신 동아리	45	펠릿	(연료, 비료, 먹이) 덩이
22	아이디어 챌린지	아이디어 겨루기, 아이디어 공모전, 창신한 생각 공모전	46	포럼	토론회, 연구회
23	어젠다	의제	47	프로그램	계획표, 차례
24	어메니티	쾌적함	48	프로젝트	연구(과제), 일감, 사업



6.3. 다듬은 사례(3)—특허심판원 심결문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1	개시된	드러내 보인	12	적의	알맞게/적절히
2	당업자	해당 사업자	13	정정개소	고친 곳
3	상당하다	알맞다	14	시건	잠금
4	형해화(形骸化)될	유명무실해질	15	실효적으로	실효 있게
5	가사	설령/설사	16	안치대	보관대
6	설시	자세한 설명	17	유부	유사 여부/ 비슷한지 아닌지
7	견련성	관련성/연관성	18	일의적	뜻이 같은
8	화체된	내재된/ 들어 있는	19	성막된, 성막하는	막이 형성된, 막을 형성하는
9	일응	일단	20	교호로	변갈아/교대로/ 어긋나게
10	요부	중요한 부분	21	대향하도록	마주보도록
11	상이한	(서로) 다른	22	배소	가열

6.4. 다듬은 사례(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 용어

연번	다듬을 말	다듬은 말
1	추락	떨어짐
2	전도·전복	넘어짐
3	붕괴·도괴	무너짐
4	충돌·접촉	부딪침
5	낙하·비래	날아옴
6	협착·감김	끼임
7	전류 접촉	감전



[참고] 우리말 다듬기(말터 사이트의 다듬은 말 목록)

(기간: 2004. 7. 12. ~ 2011. 8. 31.)

다듬기 전의 말	원어	다듬은 말	비고
가십거리	gossip거리	입방아거리	
갈라쇼	gala show	뒤풀이 공연	
게이트	gate	의혹 사건	
골드미스	Gold Miss	황금 독신 여성	
교례회	交禮會	어울 모임	
그래피티	graffiti	길거리 그림	
그룹홈	group home	자활 꿈터	
그린 프리미엄	green premium	환경 덧두리	
글램핑	glamping	귀족 야영	
내비게이션	navigation	길도우미	
네이미스트	Namist	이름설계사	
네티즌	Netizen	누리꾼	
넷북	Net-book	손누리틀	
노미네이트	nominate	후보 지명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지도충 의무	
노이즈 마케팅	noise marketing	구설(수) 홍보	
뉴타운	new town	새누리촌	
다이{다이와이}	DIY←Do It Yourself	손수짜기	
다크서클	dark circle	눈그늘	
다크 투어리즘	dark tourism	역사 교훈 여행	
더치페이	Dutch pay	각자 내기	
데카르트 마케팅	techart marketing	예술 감각 상품	기술(tech)과 예술(art)을 합친 말
드라이브	drive	몰아가기	
드레스 코드	dress code	표준 옷차림	
드레싱	dresssing	맛깔장	
드로어즈	drawers	맵시 속바지	



다듬기 전의 말	원어	다듬은 말	비고
디그	Dig	받아막기	배구에서, 상대방의 스파이크(spike), 스매시(smash), 킬(kill) 등을 받아내는 일'을 가리킴.
디엠	DM, Direct Mail	우편 광고(물)	상품을 효과적으로 선전하기 위하여 편지나 광고전단 따위의 인쇄물을 특정인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일, 또는 그런 인쇄물을 가리킴.
디오라마	diorama	실사 모형	
디펜딩 챔피언	defending champion	우승 지킴이	
딩펫족	Dinkpet族	맛별이 애완족	
랜드마크	landmark	마루지	산마루처럼 우뚝한 지형지물이나 도시 경관.
러브라인	love line	사랑 구도	
러브샷	love shot	사랑 건배	
러브콜	love call	부름 공세	
레시피	recipe	조리법	
레이싱 걸	racing girl	행사 빛냄이	
레퍼런스	reference	고품질	디브이디(DVD)나 시디(CD) 가운데 뛰어난 음질과 화질을 갖춘 최고의 것을 가리킴.
로고송	logo song	상징 노래	
로드 무비	road movie	여정 영화	
로드킬	roadkill	차길 동물 사고	
로밍	roaming	어울통신	
로하스	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친환경살이	
론칭쇼	launching show	신제품 발표회	
롤모델	Role model	본보기상	
루미나리아	luminaria, luminarie	불빛 축제	
루비족	RUBY族	새봄 여성	



다듬기 전의 말	원어	다듬은 말	비고
리메이크	remake	원작 재구성	
리콜	recall	결함 보상(제)	
리퍼브	refurbished	손질상품	불량 제품, 매장에서 전시되었던 제품, 소비자의 변심으로 반품된 제품 등을 다시 손질하여 소비자에게 정품보다 싸게 파는 것을 가리킴.
리플	Reply의 준말	댓글	
립싱크	lip sync	입술 연기	
마리나	marina	해안 유원지	
마블링	marbling	결지방	
마스터 클래스	master class	명인 강좌	명인, 대가, 거장이 직접하는 수업.
마우스 포테이토	mouse potato	골방 누리꾼	
마이크로 블로그	microblog(Twitter)	댓글 나눔터	
마일리지	mileage	이용 실적 점수	
매스티지	masstige	대중 명품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명품
매치업	match-up	맞대결	주로 농구에서 ‘둘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이 짝을 이루거나 짝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나 ‘한 선수가 상대 팀의 다른 한 선수와 맞대결하는 일’
머스트 해브	must have	필수품	
멀티탭	multi-tap	모뎀꽂이	
메세나	mécénat	문예 후원	
메신저	messenger	쪽지창	
멘토	Mentor	인생 길잡이	
모티켓	motiquette	통신 예절	
무빙 워크	moving walk	자동길	
미션	mission	중요 임무	
바리스타	Barista	커피 전문가	



다듬기 전의 말	원어	다듬은 말	비고
바우처 제도	voucher 制度	복지 상품권 제도 {복지 이용권 제도}	
박스 오피스	box office	홍행 수익	
발레파킹	valet parking	대리 주차	
방카쉬랑스	Bancassurance	은행 연계 보험	
백댄서	back dancer	보조 춤꾼	
보드마커	board marker	칠판펜	
보이스 피싱	voice phishing	음성 사기 전화	
보케베케	vocation-vacation	꿈나래 휴가	
뷰파인더	viewfinder	보기창	
브랜드 파워	brand power	상표 경쟁력	
브런치	brunch	어울참	
브로마이드	bromide	벽불이 사진	
브이오디 서비스	VOD servise, video on demand service	다시보기	
블라인드	blind	(정보) 가림	
블랙 컨슈머	black consumer	악덕 소비자	
블로그	blog	누리 사랑방	
블루 오션	blue ocean	대안 시장	
블루 투스	blue tooth	쌈지 무선망	
블룩	blook	누리글 보따리	‘블로그(blog)와 북(book) 의 합성어로 개인이 블로 그(누리사랑방)에 연재한 글을 모아 출판한 책’
비트 박스	beat box	입소리 손장단	
빅리그	big league	최상위 연맹	
빙고	bingo	맞았어	
사이버 대학	cyber 大學	두루누리 대학	
샐러던트	saladent	계발형 직장인	



다듬기 전의 말	원어	다듬은 말	비고
샘플러	sampler	맛보기 묶음	음식과 관련해서 특정한 기준으로 선정한 일종의 표본, 음악과 관련해서 여러 음반에서 한 곡씩 선별하여 만든 작품집.
생식 건강	生食健康	생명샘 건강	
샹그릴라	Shangri-la	꿈의 낙원	
선루프	sunroof	지붕창	
선팅	sunting	빛가림	
성큰 가든	sunken garden	뜨락 정원	
세트 피스	set piece	맞춤 전술	
셀슈머	sellsumer	누리장터꾼	‘판매자(seller)와 소비자(consumer)가 합쳐진 말로, 인터넷상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
셀프카메라	self-camera	자가 촬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Social Network Service	누리 소통망 (서비스)	
소셜 커머스	social commerce	공동 할인 구매	
소호	SOHO, Small Office Home Office	무점포 사업	
솔메이트	soul mate	교감지기	
쇠파라치	쇠 parazzi	쇠고기 신고바치	
쇼케이스	showcase	선보임 공연	
쇼플러	Shopper	원정 구매족	
숍인숍	shop in shop	어울 가게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
슈터링	shooting	골문 어림차기	
스도쿠	すどく, 數獨	숫자 넣기	
스마트 워크	smart work	원격 근무	
스마트폰	smart phone	똑똑(손)전화	
스카이 라운지	sky lounge	하늘 쉼터	
스크린 도어	screen door	안전문	



다듬기 전의 말	원어	다듬은 말	비고
스키니진	skinny jean	맵시 청바지	
스킨십	skinship	피부 교감	
스타일리스트	stylist	맵시 가꾼이	
스탠더드 넘버	standard number	대중 명곡	
스테디 셀러	steady seller	늘사랑 상품	
스토리보드	storyboard	그림 줄거리	
스파이웨어	spyware	정보 빼내기 프로그램	
스팸 메일	spam mail	쓰레기 편지	
스펙업	spec-up	감냥 쌓기	
스포일러	spoiler	영화 해설꾼	
스포테인먼트	spotainment	홍몰이 운동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합성한 말로, 운동 효과와 오락성을 아울러 갖춘 것’을 가리킴.
스팟 광고	spot 廣告	반짝 광고	
슬로시티	slow city	참살이 지역	
슬로푸드	slow food	여유식	
슬롯머신	slot machine	성인 오락기	
시스루	see-through	비침옷	
시시티브이	CCTV, closed circuit TV	상황 관찰기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전 방식으로, 보통 범죄 예방용이나 도로 교통상황 관찰 등을 위해 쓰임.
시즌 ~	season	~번째 이야기	
실버시터	silver sitter	경로 도우미	
싱글맘	single mom	홀보듬 엄마	
아우라	Aura	기품	
아우터	outer	겉차림옷	
아이쇼핑	eye shopping	눈길장 보기	
아이젠	Eisen	눈길 덧신	
아이콘	icon	상징(물)	



다듬기 전의 말	원어	다듬은 말	비고
아이피티브이	IPTV,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맞춤형 누리 방송	
아카이브	archive	자료 전산화	
아킬레스건	Achilles腱	치명(적) 약점	
아티젠	Artygen	감각 세대	
알파걸	alpha girl	으뜸녀	
언더패스	underpass	아래 차로	
언론 플레이	言論play	여론 물이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	놀이 학습	
에스라인	S-line	호리병 몸매	
에스오에스	SOS	구원 요청	
에코드라이브(에코 드라이빙)	eco-drive, eco-driving	친환경 운전	
에코맘	EcoMom	환경 친화 주부	
엑스파일	X file	안개 문서	
엔딩크레딧	ending credit	끝맺음 자막	
엔지족	NG族, No Graduation	늑장 졸업족	
엠니스	M-ness	주부남	
영건	young gun	기대주	
예티족	Yettie	자기 가치 개발족	
오마주	hommage	감동 되살이	주로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일을 가리킴.
오버페이스(하다)	over pace	무리(하다)	
오일볼	oil ball	기름 뭉치	바다 위에 유출된 원유나 폐유가 표류하다 겹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가리킴.
오프라인	off-line	현실 공간	
오픈마켓	Open Market	열린장터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여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곳.



다듬기 전의 말	원어	다듬은 말	비고
오픈 하우스	open house	열린집, 집열기	
올인	All in	다걸기	도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돈을 모두 거는 행위' 또는 '선거나 정책 따위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조직의 모든 힘을 쏟아 붓는 것'
올킬	all kill	씩쓸이	
옴부즈맨	ombudsman	민원 도우미	
와이브로	WiBro	휴대 누리망	
와이파이	Wi-Fi	근거리 무선망	
워킹맘	working mom	직장인 엄마	
워킹 홀리데이	working holiday	관광 취업	
워터파크	water park	물놀이 공원	
원샷	one shot	한입털이	
원톱	one top	홀로주연	
월풀	whirlpool	공깃방울 목욕	터빈을 이용해 욕조의 벽면이나 바닥 등에서 물이 분사되는 기능 또는 그런 기능을 이용한 목욕
웨딩 플래너	wedding planner	결혼 도우미	
웰본	well-born	배넛바라지	
웰빙	well-being	참살이	
웹버	Webver族	은빛 누리꾼	
웹서핑	web surfing	누리 검색	'웹(web)'과 노인 세대를 지칭하는 '실버(silver)족'을 합친 말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즐기는 '노년층'
웹툰	Webtoon	누리터 쪽그림	
유비쿼터스	Ubiquitous	두루누리	
유시시	UCC←User Created Contents	손수 제작물	
유에스비 메모리	USB memory	정보 막대	
이모티콘	emoticon	그림말	



다듬기 전의 말	원어	다듬은 말	비고
정크푸드	junk food	부실 음식{부실 식품}	
제로 베이스	zero base	백지 상태	무엇인가 해당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 또는 그런 상태를 가정하는 것
조리	ぞうり[草履]	가락신	
쭈마테이너	쭈마tainer	재치부인	
체리피커	cherry picker	금융 압채족	
치어리더	cheerleader	홍돋움이	
치킨 게임	chicken game	끝장 승부	
칙릿	chick-lit	꽃띠 문학	
카시트	car seat	아이 안전 의자	
캐리어	carrier	아이업개	
캐릭터	character	특징물	소설, 만화, 극 따위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한 물건이나 상품
캐포츠	caports	활동복	운동하기에 편하면서도 평상시 격식에 매이지 아니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복장
캠프 파이어	campfire	모닥불 놀이	
캡처	capture	장면 갈무리	
커튼콜	curtain call	부름 갈채	
커플룩	couple look	짝꿍 차림	
커플 매니저	couple manager	새들이	새들이: 새들다(사이에 들어서 혼인을 중매하다)+ -이(사람 표시 접사)'
컨트롤 타워	control tower	가온머리	
컬러링	colouring	멋올림	
컬트	cult	소수 취향	'소수의 조직화된 신앙 집단'이라는 뜻을 가지며 문화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보기엔 낯설고, 괴이쩍은 면이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찬사를 보내거나 좋아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리킴.



다듬기 전의 말	원어	다듬은 말	비고
케이터링	catering	맞춤 밥상	
코드	code	성향	
코드프리	code free	빋장 풀기	디브이디(DVD) 플레이어에 설정해 놓은 코드를 해제하여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진 디브이디라도 모두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코르사주	corsage	맵시꽃	
코스프레{코스튬플레이}	コスプレ, costume play	분장 놀이	
콘텐츠	contents	꾸림 정보	
퀄리티 스타트	quality start	선발 쾌투	프로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6회 이상 공을 던지면서 자책점을 3점 이하로 막아 내는 일, 또는 그런 경기'
퀵서비스	Quick Service	늘찬 배달	'늘차다'는 '능란하고 재빠르다'라는 뜻의 형용사.
큐아르 코드	QR Code, Quick Response Code	정보 무늬	
크레이들	cradle	다목적 꽃이	
크로스백	cross bag	엇걸이 가방	
크리에이터	creator	광고 창작자	
클러스터	cluster	산학 협력 지구	
클린 센터	clean center	청백리 마당	
키덜트	kidult	어른 왕자	
키맨	key man	중추 인물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주가 되는 인물, 즉 핵심 인물, 중요 인물, 중심 인물.
키치	kitsch	눈길 끌기	히피 패션의 변형으로 속악한 것이나 행위를 가리키며 주로 패션, 광고, 드라마, 스타일과 어울려 쓰임. 비전문적이고 대체로 저속하며, 대중적인 것이나 행위를 두루 가리킴.
킬힐	kill heel	까치발 구두	



다듬기 전의 말	원어	다듬은 말	비고
타운 하우스	town house	공동 전원 주택	
타임 서비스	time service	반짝 할인	‘정해진 시간에 한하여 값을 많이 깎아 주거나 값을 많이 없어 주는 판매 활동.’
타임 캡슐	time capsule	기억 상자	
터프가이	tough guy	쾌남아	
테스터	tester	체험 평가자	
테스트 베드	test bed	가늌터	
투잡	two job	겹벌이	
트랜스 지방	trans 脂肪	변이 지방	
트레이드 마크	trademark	으뜸 상징	
트리트먼트	treatment	머릿결 영양제	
티처보이	teacher boy	교사 의존 학생	
팁	tip	도움말	
파이팅	fighting	아자	
파일럿 프로그램	pilot program	맛보기 프로그램	
파트너십	partnership	동반 관계	
파파라치	paparazzi	몰래제보꾼	
팝업창	pop-up 窓	알림창	
패딩	padding	누비옷	
패셔니스타	fashionista	맵시꾼	
패키지 상품	package 商品	꾸러미 상품	
팩	pack	피부 가꿈제	
팩션	faction	각색 실화	
팬미팅	fan meeting	다솜 모임	
퍼블리시티권	publicity權	초상 사용권	
퍼스나콘	personacon	개성 표현꼴	블로그(누리사랑방)나 인터넷 카페에서 글을 올리면 글쓴이 이름 옆에 붙는 것인데, 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음.
핼킨족	핼(←퍼옴)KIN族	핼누리꾼	



다듬기 전의 말	원어	다듬은 말	비고
펜트하우스	penthouse	하늘채	
포스트잇	Post-it	붙임 쪽지	
포커페이스	poker face	무표정	
폴리페서	polifessor	정치 철새 교수	
풀 세트	full set	다모음	
풀 옵션	full option	모두 갖추	
튀레 (‘퓨레’는 오포기)	purée	과립즙	
프라브족	PRAV族(←Proud Realisers of Added Value族)	알뜰 개성족	합리적인 소비와 자신만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는 실속파. 부가가치를 자랑스럽게 실현하는 사람들.
프레젠테이션	presentation	시청각 설명(회)	
프로슈머	prosumer	참여형 소비자	
프리 사이즈	free size	열린 치수	
프리터족	freeter族	자유벌이족	
프티 성형	petit 成形	여우비 성형	일반적인 수술과는 달리 칼을 사용하지 않고 주사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성형수술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시술법.
플라모델	plamodel	조립 모형	플라스틱 부품을 조립하여 만드는 모형 또는 그 세트.
플래그십 스토어	flagship store	체험 판매장	
플래시몹	flash mob	번개 모임	
플리 바기닝	plea bargaining	자백 감형 제(도)	
피싱	phishing	정보 도둑	
피엘 상품	PL 商品, Private Label 商品	자체 기획 상품	유통업체가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협력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해 자체 개발한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 제품.
피처링	featuring	돈음 연주	
하드보일드	hard-boiled	냉혹 기법	
하이브리드	hybrid	어우름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음. 또는 그런 물건.
하이파이브	high five	손뼉 맞장구	



다듬기 전의 말	원어	다듬은 말	비고
할리우드 액션	Hollywood action	눈속임짓	
핫이슈	hot issue	주요 쟁점	
핫팬츠	hot pants	한뼘 바지	
해피 엔딩	happy ending	행복 결말	
핸드프린팅	hand printing	기념 손찍기	
핸즈프리	handsfree	맨손 통화기	
허브족	hub族	마당발족	
헝그리 정신	hungry 精神	맨주먹 정신	
헤드셋	headset	통신 머리띠	마이크가 달린 헤드폰을 가리킴.
헤비 업로더	heavy uploader	누리물 난전꾼	
헬리콥터 부모	helicopter 父母	치마폭 부모	
호스피스	hospice	임종 봉사자	
홀드	hold	중간 구원	야구에서, 직접적으로 승리를 따내거나 승리를 지켜낸 것은 아니지만 중간 계투 요원으로서 마무리 투수에게 공을 넘겨줄 때까지 선발 투수의 뒤를 이어 공을 잘 던지는 일.
홈베이킹	home baking	손수 굽기	
후룩쿠	フロック	어중치기	
후카시	ふかし[吹かし]	폼재기	폼재기: ‘폼’(행동이나 말씨에서 드러나는 태도나 됃됨이)과 ‘재기’[‘재다’(잘난 척하며 으스대거나 뽐내다)의 명사형]의 합성어
후크송	Hook Song	맴돌이곡	
휘핑	whipping	거품 크림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위에 올려놓는 크림.
휴테크	休tech	여가 활용 기술	
히키코모리	引き籠もり	폐쇄 은둔족	



※ 다듬은 말 익히기

▣ 다음을 다듬은 말(순화어)로 써 보자.

- | | |
|-------------------------------|------------------------|
| [1] 빠꾸(back) | [31] 다이(臺, だい) |
| [2] 샷시(sash) | [32] 에리(襟, えり) |
| [3] 조끼(jug) | [33] 시다바리(←下--, した--) |
| [4] 화이버(fiber) | [34] 분배이(分配) |
| [5] 레미콘(ready-mixed concrete) | [35] 노가다(←土方, どかた) |
| [6] 리모컨(remote control) | [36] 닭도리탕[-鳥(とり)湯] |
| [7] 쇼바(shock absorber) | [37] 비까번쩍하다(びか—) |
| [8] 고참(古參) | [38] 뽕록나대[檻褸(ぼろ)—] |
| [9] 구보(驅歩) | [39] 왔다리 갔다리(-たり - たり) |
| [10] 기라성(綺羅星) | [40] 곤색[紺(こん)色] |
| [11] 노견(路肩) | [41] 만땅(滿tank) |
| [12] 대절(貸切) | [42] 소라색[空(そら)色] |
| [13] 망년회(忘年會) | [43] 후룩쿠(フロック) |
| [14] 사라(皿, さら) | [44] 조리[草履, ぞうり] |
| [15] 쇼부(勝負, しょうぶ) | [45] 금번(今番) |
| [16] 수순(手順) | [46] 금회(今回) |
| [17] 수출고(輸出高) | [47] 멸실(滅失) |
| [18] 십팔번(十八番) | [48] 삭도(索道) |
| [19] 용달(用達) | [49] 해태(懈怠) |
| [20] 익일(翌日) | [50] 당해(當該) |
| [21] 제전(祭典) | [51] 교례회(交禮會) |
| [22] 하구언(河口堰) | [52] 월빙 |
| [23] 소테나시(袖無し, そでなし) | [53] 이모티콘 |
| [24] 엔코(えんこ) | [54] 올인 |
| [25] 와쿠(枹, わく) | [55] 콘텐츠 |
| [26] 우와기(上衣, うわぎ) | [56] 네티즌 |
| [27] 유도리(←ゆとり) | [57] 슬로푸드 |
| [28] 지라시(散らし, ちらし) | [58] 퀵서비스 |
| [29] 후카시(吹かし, ふかし) | [59] 컬러링 |
| [30] 겐세이(牽制, けんせい) | [60] 포스트잇 |



- [61] 클린 센터
- [62] 블로그
- [63] 무빙 워크
- [64] 헝그리 정신
- [65] 투잡
- [66] 메신저
- [67] 터프가이
- [68] 드레싱
- [69] 그룹 홈
- [70] 다크서클
- [71] 매치업
- [72] 뉴타운
- [73] 테스트 베드(test bed)
- [74] 스카이라운지
- [75] 언론 플레이
- [76] 유시시(UCC)
- [77] 핫팬츠
- [78] 스테디셀러
- [79] 웹서핑
- [80] 타임캡슐
- [81] 핸드프리
- [82] 워터파크
- [83] 뷰파인더
- [84] 캐릭터
- [85] 패키지 상품
- [86] 가십(gossip) 거리
- [87] 스크린도어
- [88] 옴부즈맨(ombudsman)
- [89] 러브콜
- [90] 바우처제도(voucher制度)
- [91] 브랜드파워
- [92] 싱글맘
- [93] 시시티브이(CCTV)
- [94] 랜드마크(landmark)
- [95]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 [96] 아이피티브이(IPTV)
- [97] 유비쿼터스(ubiquitous)
- [98] 블루오션
- [99] 마일리지(mileage)
- [100] 아카이브(archive)



♠ 정 답 ♠

- | | | |
|--------------------|-------------------|---------------|
| [1] 후진/뒤로, 퇴짜 | [32] 깃 | [66] 쪽지창/전달자 |
| [2] 새시(sash)/문틀/창틀 | [33] 보조원/밑일꾼 | [67] 캐남아 |
| ※ 자동차 따위의 차대(車臺) | [34] 노느매기/분배 | [68] 맛갈장 |
| 를 뜻하는 말은 새시 | [35] 막노동/(공사판)노동자 | [69] 자활꿈터 |
| (chassis)임. | [36] 닭볶음탕 | [70] 눈그늘 |
| [3] 잔 | [37] 번쩍번쩍하다 | [71] 맛대결 |
| [4] 안전모 | [38] 들통 나다 | [72] 새누리촌 |
| [5] 회반죽 차 | [39] 잤다 | [73] 가늌터 |
| [6] 원격 조정기 | [40] 진남색/감색(紺色) | [74] 하늘쉽터 |
| [7] 완충기 | [41] 가득/가득 채움 | [75] 여론몰이 |
| [8] 선임(자) | [42] 하늘색 | [76] 손수제작물 |
| [9] 달리기 | [43] 어중치기 | [77] 한뼘바지 |
| [10] 빛나는 별 | [44] 가락신 | [78] 늘사랑상품 |
| [11] 잣길 | [45] 이번 | [79] 누리검색 |
| [12] 전세 | [46] 이번 회 | [80] 기억상자 |
| [13] 송년회 | [47] 없어짐 | [81] 맨손통화기 |
| [14] 접시 | [48] 밧줄/하늘 찾길 | [82] 물놀이공원 |
| [15] 결판 | [49] 제때에 하지 않음/ | [83] 보기창 |
| [16] 순서/차례 | 게을리 함/게으름 | [84] 특징물 |
| [17] 수출량 | [50] 해당(該當)/그 | [85] 꾸러미 상품 |
| [18] 애창곡/단골 노래 | [51] 어울모임 | [86] 입방아 거리 |
| [19] 심부름 | [52] 참살이 | [87] 안전문 |
| [20] 이튿날/다음날 | [53] 그림말 | [88] 민원도우미 |
| [21] 잔치 | [54] 다걸기 | [89] 부름공세 |
| [22] 강어귀 독/하굿둑 | [55] 꾸림정보 | [90] 복지상품권제도 |
| [23] 민소매 | [56] 누리꾼 | [91] 상표경쟁력 |
| [24] 떨어짐, 바닥 | [57] 여유식 | [92] 홍보듬엄마 |
| [25] 틀 | [58] 늘찬배달 | [93] 상황관찰기 |
| [26] 윗도리/상의 | [59] 멋올림/발신 대기음 | [94] 마루지 |
| [27] 유연/융통 | [60] 붙임쪽지 | [95] 음성 사기 전화 |
| [28] 선전지 | [61] 청백리마당 | [96] 맞춤형 누리방송 |
| [29] 품재기/부풀이 | [62] 누리사랑방 | [97] 두루누리 |
| [30] 견제 | [63] 자동차길 | [98] 대안시장 |
| [31] 대/받침(대) | [64] 맨주먹정신 | [99] 이용 실적 점수 |
| | [65] 겹벌이 | [100] 자료 전산화 |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2003),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
- 김길동(2009), 우리말 다듬기, 바른국어생활, 국립국어원.
- 김형배(2004/2009), 한국어능력시험, 신지원.
- 최용기(2005), 국어 순화의 이론과 실제, 바른국어생활, 국립국어원.
- 최용기 · 민현식 · 이정복(2003), 국어 순화 정책 연구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김형배의 한말글사랑*생활국어 연구소 <http://cafe.naver.com/hanmal>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말터) <http://www.malteo.net>



공문서 바로 쓰기

1. 공문서의 개념과 범위

「사무관리규정」에서 밝힌 공문서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공문서”라 함은 행정 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 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3조 제1호)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이 공문서의 범위에 든다.

- 행정 기관 내부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행정 기관 내부에서 공무상 시행되는 문서
- 행정 기관 간 공무상 작성한 문서
- 행정 기관 간 공무상 시행되는 문서
- 행정 기관에서 공무상 대외적으로 작성한 문서
- 행정 기관에 의해 대외적으로 공무상 시행되는 문서
- 행정 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¹⁾

2. 공문서 작성상의 법률적 근거

공문서 작성 시 지켜야 하는 원칙과 규정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 「국어기본법」

1) 민간인이나 공사(公社)에서 작성한 문서라도 행정 기관이 접수하게 되면 공문서가 됨.



- 「사무관리규정」
-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공문서 작성 시 지켜야 원칙과 규정을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것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사무관리실무편람」과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가 있다.

3. 공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사무관리규정」에서 밝힌 공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은 아래와 같다.

제10조(문서 작성의 일반 원칙)

-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어문 규범²⁾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 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 밀리미터, 세로 297 밀리미터로 한다.

2)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규범을 일컫는다.



4. 공문서 작성 시 유의 사항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사무관리실무편람」에서 제시한, 공문서 작성 시의 유의 사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4.1. 정확성(바른 글)

- (1) 일반적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 (2) 오자나 탈자가 없어야 한다.
- (3) 필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잘못된 표현이 없도록 작성한다.
- (4) 의미 전달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문법에 맞게 문장을 구성한다.
- (5) 애매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에 의하여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4.2. 용이성(쉬운 글)

- (1)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 (2) 문장은 가급적 짧게 끊어서 항목별로 표현한다.
- (3) 복잡한 내용일 때는 먼저 결론을 내린 후 이유를 설명한다.
- (4)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용어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용어를 쓴다.
- (5)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한자나 어려운 전문 용어는 피한다. 한자 또는 전문 용어를 쓸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괄호 안에 쓴다.

4.3. 성실성(호감 가는 글)

- (1) 성의 있고 진실하게 작성한다.
- (2)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고 적절한 경어를 사용한다.
- (3) 감정적이고 위압적인 표현을 쓰지 않는다. 예컨대,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보내는 문서에 “~할 것”, “~하기 바람” 등과 같이 위압



감을 주는 문구를 쓰게 되면 조직 상하간의 관계가 경직되어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조직 구조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상호간에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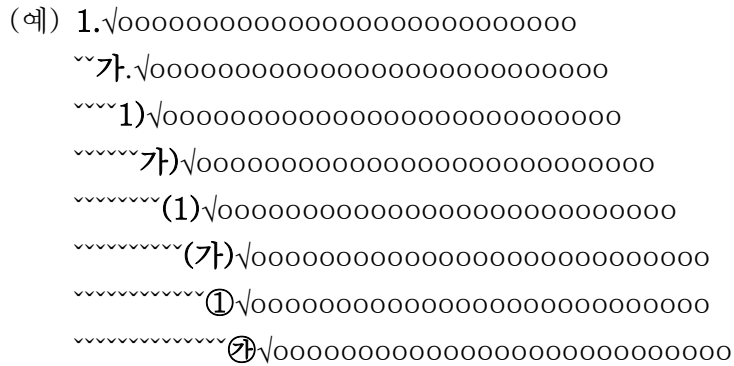
4.4. 경제성(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글)

- (1) 일상 반복적인 업무는 표준 기안문을 활용한다.
- (2) 용지의 규격·지질을 표준화한다. 규격이나 지질이 다르면 표준화된 경우에 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
- (3) 서식을 통일한다.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 (4)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문자는 부호화하여 활용한다. <한글>의 경우 상용구 등록·활용(**Alt**+**I** 글쇠)도 한 방법이 된다.
- (5)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다루기 쉽게 1건 1매 주의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 공문서의 표기와 표시

5.1. 항목의 구분

- (1)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 가., 1), 가), (1), (가), ①, ㉠의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 (2) 첫째 항목은 용지의 왼쪽 기본선에서 시작하며, 다음 항목부터는 바로 앞 항목의 위치로부터 2타(한글은 1자, 영문·숫자는 2자)씩 오른쪽에서 시작한다.
- (3) 항목 부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 다음 글을 쓴다.
- (4) 소제목과 소제목, 소제목과 그 내용은 1줄씩 띄어 쓴다.



공문서 바로 쓰기 219



(예) 2011.√10.√9. (○) / 2011.√10.√9 (×) / 2011.10.9. (×)
 2011.√10. (○) / 2011.√10 (×)
 2011년√1/4분기 (○) / 2011. 1/4분기 (×)
 2011.√10.√9.√ ~ √2011.√12.√5. (○)
 2011.√10.√9.부터√2011.√12.√5.까지 (○)
 2011.√10.√9.√부터√ ~ √2011.√12.√5.√까지 (×)

5.4. 성명의 표시

- (1) 성과 이름은 붙여 쓴다. 다만,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 (2) 성명의 각 글자를 한 칸씩 띄지 않는다.
 (예) 홍길동 (○) / 홍√길동 (×) / 홍√길√동 (×)

5.5.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의 명칭의 표시

- (1) 정식 명칭을 쓴다.
- (2) 글 가운데에서 명칭을 그대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이하 ‘……’라 한다.)로 축약 표시하고 이후 줄여서 사용한다.

(예) 국립국어원장 (○) / 국어원장 (×)
 서울특별시장 (○) / 서울시장 (×)
 국립국어원장(이하 ‘국어원장’이라 한다.) (○)

5.6. 인용 부호의 표시

- (1) ‘큰따옴표’(“ ”)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 ① 대화를 표시할 때
 - ② 남의 말을 인용할 때
 - ③ 판례나 법령을 그대로 인용할 때
 - ④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제3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할 때



(2) ‘작은따옴표’(‘ ’)는 다음의 경우에 사용한다.

- ① 인용한 내부에 다시 인용할 것이 있을 때
- ② 문장에서 중요 부분을 강조할 때

5.7. 법령 등의 인용

- (1) 법령을 인용하는 때에는 법령명은 띄어 쓰되, 법령명 앞뒤에 ‘**「**’ (낫표)를 붙이고, 조·항·호는 “띄어쓰기”를 통일한다.
- (2) 법령 중 아직 띄어쓰기가 시행되지 않은 법령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띄어쓰기를 한다.
- (3)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과 같이 축약한 경우에는 이후 ‘토지보상법’에 ‘**」**’를 붙일 필요가 없다.
- (4) 법령을 인용할 때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 우선 순위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구 법령을 인용할 때는 어느 법인지 특정해야 한다.
- (6) 조례, 예규, 훈령, 규칙, 고시 등을 인용할 경우, 제목을 쓰고 괄호 안에 일자 및 예규번호 순으로 적는다. 이들의 경우도 제목은 ‘**」**’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 (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1항 제3호 단서, 제3조의 2 제1항 가목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2002. 11. 1. 등기예규 제106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2009. 1. 6. 조례 제787호)
 - 「간척지 가경작 운영에 관한 지침」(2008. 12. 29. 농림수산식품부훈령 제71호)



6. 공문서의 오류 유형

6.1. 잘못된 호응 관계

- ①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 교부는 참가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②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건설처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④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 물질 중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⑤ 사업의 목적: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⑥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 ① 주어부와 서술어만 바로 연결해 보면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지시서 교부는 ~ 교부한다.’가 된다. 앞의 ‘교부’를 삭제하면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도 맞고 의미상의 중복도 해결된다.

[수정] 제안서, 안내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만 교부한다.

- ② 이 문장의 ‘열람한다’는 타동사이므로 ‘누가 무엇을 열람하다’로 표현하거나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열람하도록 하다’와 같이 표현해야 한다.

[수정] 관계 도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건설처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또는 관계자가} 이를 열람하도록 한다.

- ③ 주어인 ‘상대방이’와 호응하려면 서술어는 ‘확정한’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확정된’이 되어야 한다. ‘확정한’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지만 이 문장에는 목적어가 불필요하다.

[수정]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④ 목적어가 놓여야 할 자리에 부사어가 놓임으로써 비문이 된 경우이다. 다른 곳에서 목적어를 찾을 필요 없이 부사어인 ‘화학 물질 중’을 ‘화학 물질을’이라고 바꾸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수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 물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⑤ 이 문장은 주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비논리적,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급증하는’ 것이 ‘생활용수’가 아니므로 ‘수요가’ 또는 ‘사용량’과 같은 주어를 넣어야 한다.

[수정] 사업의 목적: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에서 사용량(수요)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임.

- ⑥ 이 문장은 목적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었다. 서술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다음 사항을’이라는 목적어를 넣어야 한다.

[수정]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중 다음 사항을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6.2. 바르지 않은 접속 구조

- ①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② 입찰자는 사전에 제한 사항 확인 및 입찰 등록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 유의 사항, 계약서 등을 열람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③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천 공항 계기착륙시설(LLZ/DME, GP)을 신설하여 사용 개시를 고시합니다.
- ④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 ① 이 문장 ‘과’의 앞부분은 명사구이고 ‘과’의 뒷부분은 절인데 이들이 ‘과’로 접속되어 있다. ‘구와 구’로 바꾸기에는 뒷부분의 서술 내용이 많아 구로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절과 절’을 접속어미 ‘-고’로 연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수정]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



- ② 이 문장에서 ‘제한 사항 확인 및’이라는 부분은 절로 표현할 것을 무리하게 구로 표현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제한 사항 확인’이라는 명사구가 ‘계약서 등을 열람하다’와 대등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로 바꾸어야 한다. ‘구와 절’이 ‘및’으로 접속되어 있는데, ‘절과 절’을 접속어미 ‘-고’로 연결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수정] 입찰자는 사전에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 등록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입찰 유의 사항, 계약서 등을 열람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③ 이 문장에서는 ‘~ 다음과 같이 □를 고시합니다’라는 문장 구조 속의 □ 부분에 ‘착륙시설을 신설하여 사용 개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접속 어미 ‘-어’를 경계로 앞부분은 목적어와 서술어를 가진 ‘절’의 형태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사용 개시’라는 명사구로 되어 있어서 접속의 형평성이 깨어졌다. 두 구문을 ‘절+절’의 형태로 ‘-을 고시합니다’라는 서술어에 잇는다면 ‘시설을 신설하여 사용을 개시하게 된 것을 고시합니다.’로 되어야 하고, 간결성을 추구하여 ‘구+구’의 형태로 ‘-을 고시합니다’라는 서술어에 잇는다면 ‘시설의 신설과 사용 개시를 고시합니다’로 되어야 한다.

[수정] 항공법 제7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천 공항 계기 착륙 시설(LLZ/DME, GP)을 신설하여 사용을 개시하게 된 것을 고시합니다.

- ④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는 ‘또는’으로 연결하는 대상이 ‘능력’과 ‘권한’이 되어야 하는데, ‘권한없는’을 붙여 씌으로써 대등 접속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처분의’는 ‘능력’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도 수식하므로 ‘권한없는’을 붙여 쓰면 곤란하고 ‘권한이 없는’이라고 띄어 써야 한다.

[수정]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6.3. 잘못된 피동과 사동

- ① 단, 취도, 향대도, 서근도, 오란도 및 삼도의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됨.
- ②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① 이 문장은 ‘~수역을’을 목적어로 지니고 있으므로 서술어는 타동사로 ‘제외함’이 되어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피동구문을 구성한 예이다.

[수정] 단, 취도, 향대도, 서근도, 오란도 및 삼도의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을 제외함.

② 이 문장은 조건절에서 ‘각종 증빙 서류 등이’가 주어이므로 서술어는 ‘작성될’이 되어야 하는데 서술어가 타동사로 표현됨으로써 비문법적인 문장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수정]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함.

6.4. 조사 또는 어미의 잘못된 사용

- ① 시간적 범위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평가 목표 연도까지로 한다.
- ②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④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① ‘에’라는 조사와 ‘에도’라는 조사는 그 의미가 거의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서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악조건에 불구하고 그들은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 *양가 부모님의 강한 반대에 불구하고 그들은 결혼했다.”라는 표현에서 ‘도’가 빠진 ‘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듯이 위 문장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위 문맥에서는 ‘에도 불구하고’도 좋으나 ‘~에 얽매이지 않고’, ‘~와/과 상관없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수정] 시간적 범위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규정이 있더라도,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 각 목의 평가 목표 연도까지로 한다.

- ② ‘-에 속하다’라는 표현이 감정이 없는 사물의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감정이 있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는 부적합하다. 유정물(有情物)에는 ‘에게’를 써서 ‘-에게 속하다’라고 해야 문법에 맞다. ‘청구에 의하여’는 ‘청구로(써)’로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수정] 저당물의 경매로 (말미암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를 상대로} 지상권(地上權)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

- ③ ‘경우’는 그 어휘적 특성이 과거나 현재 혹은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데 자유롭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를 선택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다. 그러나 ‘때’는 의존 명사 ‘수’나 ‘줄’처럼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와 관련하여 제약이 따른다.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을 예측하여 서술하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는 때’가 부자연스럽고 ‘인정할 때’가 자연스럽다.

[수정]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할 때’)에는 제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④ ‘-은 때’는 과거에 완료된 특정한 사건이나 행위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었을 때’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된 상황을 추정하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1회성의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여 서술하는 위와 같은 문맥에서 ‘접수된 때’는 부적절하며 ‘접수되었을 때’가 적절하다.(유사 예: 자기 몫의 밥을 {먹은 때(×)/먹었을 때(○)}에는 더 먹지 마시오.)

[수정]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또는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6.5. 중의적 표현

- ① 항소 또는 항고사건<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중 개정령안>
 ② 제39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하거나 또는 그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중 개정령안 제42조 제2항 제2호>
 ③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燒毀)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170조 제1항>

뜻이 둘 이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을 중의적인 문장이라 한다. 이런 중의적인 문장은 의미 해석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다. 위 예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문맥상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파악하여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 ① 뜻1: ‘항소’ 또는 ‘항고 사건’(=‘항고 사건’ 또는 ‘항소’)
 뜻2: 항소 사건 또는 항고 사건(←항소 또는 항고 사건)
- ② 뜻1: ~ 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때(=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때)
 뜻2: ~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하였을 때 또는 형 집행 지휘서 접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하였을 때
 ※ 문맥상 뜻2의 형식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제39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제39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이라고 고쳐야 일반인들이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뜻1: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뜻2: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 문맥상 뜻2의 의미가 옳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
 ⇒ 과실로 (말미암아),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



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없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6.6. 수식어의 바르지 않은 위치

- ① 사업 목적: 충남 서·북부의 안정적인 생·용수 공급
- ② 본 사적지 내의 고분은 고고학적으로는 이 지방의 중요한 6세기의 횡혈식 고분임.
- ③ 또한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 1947년부터 유지돼 온 무술경찰관 검찰청 파견 제도 폐지된다.
- ④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및 지원 방안

① ‘안정적인’이라는 관형어가 위치를 잘못 잡아 ‘안정적인’이 마치 ‘생·용수’를 수식하는 것처럼 구성되었다. 일단 ‘충남 서·북부의 생·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같이 고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 ‘의’가 중복되어 약간 부자연스러우므로 앞의 ‘의’를 ‘에서 사용할’로 고치는 것이 더 좋다.
[수정] 사업 목적: 충남 서·북부에서 사용할 생·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② ‘횡혈식 고분’에 대한 수식어가 네 개나 되는데, 이들을 짜임새 있게 잘 배치하지 않으면 명료한 문장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된다. ‘고고학적으로는’과 ‘중요한’은 긴밀한 구성을 이루도록 관형절로 변형할 필요가 있고, ‘이 지방의’는 ‘6세기의’ 뒤로 옮기든지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 한편 ‘본(本) 사적지’는 ‘이 사적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수정] 이 사적지 내의 옛무덤{고분}은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6세기(○○ 지방의) 굴식 무덤{횡혈식 고분}임.

③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라는 부사어가 수식할 말은 상식적으로 볼 때, ‘폐지된다’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문장 구조로는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가 오히려 ‘유지돼 온’을 수식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로 말미암아 ‘무술경찰관 검찰청 파견제’가 마치 ‘강압 수사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제도인 줄 착각하게 할 우려가 있다.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라는 부사어를 ‘폐지된다’ 바로 앞에 두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수정] 또한 1947년부터 유지돼 온 ‘무술경찰관 검찰청 파견제’도 강압



수사 재발 방지를 위해 폐지된다.

- ④ ‘효과적인’이 바로 뒤에 오는 ‘한국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및’으로 연결된 위 문장을 분석하여 도출되는 두 개의 표현 중에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은 자연스럽지만 ‘효과적인 한국어 지원 방안’은 부자연스러우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수정] 한국어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과 이(→한국어 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

6.7. 부자연스러운 표현

- ① 영남고고학회 회원 일동은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구 보존을 위해 사적에서 해체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입장임.
- ② 전파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 ③ 다만, 새로운 제안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총 사업비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① 이 문장은 관형어와 목적어가 무리하게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 이 문장에서는 ‘무엇의’ 영구 보존을 꾀하고자 하는 것인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무엇을’ 사적에서 해체하는 것인지 그 대상 또한 나타나 있지 않다. 모두 보충되어야만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수정] 영남고고학회 회원 일동은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적의 영구 보존을 위해 유적을(‘가’ 고분을) 사적에서 해체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입장임.

- ② 이 문장은 부사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어 부자연스럽다. 부사어는 문장 성분 가운데 필수 성분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에서는 서술어로 ‘고시합니다’가 쓰이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라고 하는 부사어를 넣어 주면 문장이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또한 ‘의거’는 어근인데 용언처럼 사용되고 있다. ‘의거하여’ 또는 ‘따라, 의하여’ 등으로 바꾸어 써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수정] 전파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③ 이 문장은 명사구가 남용되어 부자연스럽다. 길이가 긴 표현을 간결하게 줄이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서술식 표현을 명사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길이를 줄여줄 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내용을 명료하게 압축시켜 주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 치중한 나머지 명사화를 남용하면, 그 문장은 부자연스러워지며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정보의 전달도 힘들어진다.

[수정] 다만, 새로운 제안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되 총 사업비의 산정에는 포함시키지 아니함.

참고 문헌

국민권익위원회(2009), 표준 의결서 작성 매뉴얼.

김문오(2010),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문화학교 교재(국어반), 국립국어연구원.

김형배(2010),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 국립국어원.

김희진(2008), “공문서 바로 쓰기”, 국어문화학교 교재(국어반), 국립국어연구원.

박종덕(2011), “수사문 정서법”, 수사요원양성과정 교재, 경찰수사연수원.

행정안전부(2008), 사무관리실무편람.



생활 글쓰기

— 겪은 일 쓰기를 중심으로 —

1. 글은 왜 쓰나?

사람들은 왜 글을 쓸까? 우선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서’ 쓴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 무언가를 하면서 알게 된 것, 또 느끼게 된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글을 쓴다. 이 표현의 욕구는 인간이 가진 기본 욕구 가운데 하나이다.

둘째,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글을 쓴다.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면 그 상황에 맞는 언어를 나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부’에 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책, 선생님, 교실’ 하는 식으로 그 상황에 마땅한 언어를 떠올리게 된다. 언어로 사고를 한다는 말이다. 언어 능력은 사고 체계와 관계가 있다.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도 우리말로 된 문제를 잘 해석해야 하는 법이다. 이렇듯 말과 글을 잘 써야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글을 생각하면서 쓰고 쓰면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 생각하는 힘이 길러진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확인하고 궁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한마디로 글은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쓴다. 말과 글은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도구다. 우리는 이 도구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자기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다. 작게는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에서부터 크게는 서로의 생각을 널리 알려서 삶과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생각을 가다듬어서 알차게 하고,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한층 더 깊고 참신한 생각을 낳고 가꾸어 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글을 통하여 만나고 부딪치는 과정에서 끝없이 값진 사상으로 꽃피게 되는 것이다.



2.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까닭은 거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감동을 받는 것도 거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진실이 없는 곳에는 어떤 아름다움도 감동도 있을 수 없다. 감동은 진실의 울림이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감동한다. 글의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 형태로 느낄 수 있다. 감동을 주는 가치 있는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서 감동을 주는 글이 그 아름다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 좋은 글이란 가치 있는 글이다.

가치 있는 글이란 우리네 삶과 일상생활에서 어떤 발견을 이룬 것, 그 어떤 발견을 인간다움에서 이루어 낸 것이다. 애깃거리가 되지 않는 미미한 글에서는 어떤 ‘발견’이 없다. 또 상투적으로 내린 결론의 글은 자기 경험을 소중하게 살리지 못하게 된다. 가치가 없는 글은 인간다움을 잃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 글을 읽어 보자.

[보기 글 1]

지하철의 희망, 외판원 아저씨

이 이야기는 지하철에서 본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말 있었던 일이지요.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인천행이어서 자리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데, 신도림 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웬지 기분이 심상치 않더군요.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손잡이를 양손에 잡고 가방을 내려 놓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그 아저씨가 한 말을 그대로 옮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아, 플라스틱 머리에 솔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치잇솔입니다. 이걸 뭐 할라고 가지고 나왔을까여? 팔려고 나왔습니다. 처어넌입니다. 뒗면 돌려 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될까여?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리더군요. 사람들은 너무 황당해서 웃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는 다시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여?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칫솔이 몇 개나 팔렸는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칫솔은 네 개가 팔렸고, 아저씨는 다시 말을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칫솔 네 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팔아서 4천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여, 안 했을까여? 예, 쉬일망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다음 칸 갑니다!”

하면서 아저씨는 가방을 들고 유유히 다음 칸으로 가더군요. 남아 있는 사람들은 거의 뒤집어졌습니다.

희망, 그 희망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월간지 <작은책>에서: -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노보에 실렸던 글)

자기가 겪은 일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적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느낌을 적고 있는 글이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어 재미있게 읽힌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바탕으로 떠올린 자신만의 발견도 들어 있는 글이다.

자기가 겪은 일을 정확하게 쓰고 그 정확하게 쓴 글이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글, 그런 글이 좋은 글이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에 감동을 한다. 그러려면 글에 담긴 내용이 가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치 있는 생활에서 가치 있는 생각도 글도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글쓰기에 앞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3. 어떻게 쓸까?

3.1. 겪은 일 그대로 쓰면 된다.

[보기 글 2]

밥 짓는 남자

아이디: 역마차

‘인간은 늘 삼시 세 끼의 밥을 먹어야 사는가! 알약 하나로 밥 달라고 아우성치는 위장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걸까!’

요즈음 느끼는 사십 대 가장인 나의 똥딴지 같은 의문이다.

신혼 시절에는 하루 한 끼만 먹어도, 불어 터진 라면 한 냄비에 김치 한 접시만 먹어도 고소한 깨가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아내의 얼굴만 쳐다보면 하루 종일 굶어도 물만 마셔도 배가 부른 느낌 이었다.

“ 피곤한데 잠 더 자. 아침밥은 안 먹어도 돼.”

뱃속에서 꼬로록 소리는 났어도 팔베개를 해주고는 두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삼키는 침만으로도 배가 불렀으니…….(여기까지 읽고 신혼 때를 생각하며 수궁하는 부부가 많으리라.)

갓 시집온 옛된 아내가 밥을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소꿉놀이마냥 만들었던 반찬. 장모님의 반찬 솜씨를 어깨 너머로만 배웠는지 짜고, 맵고, 싱거워도 뱃속에 서만 고통의 허기를 달랠 뿐 겉모습은 늘 인자한 미소를 짓는다.

"와아. 자기 솜씨가 최곤데!" 하며 두 눈 질끈 감고 우걱우걱 눈물 섞인 빵이 아닌 밥을 먹어도 마냥 배부른 허상에 행복 했다고나 할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했던가. 신혼 시절에 먹지 않아도 배불렀던 기억은 자식 둘이 생기면서 산산히 부서진 신혼의 단꿈이 돼 버렸다. 내 자리였던 아내의 옆자리를 아이들에게 내몰리다시피 내주고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허전함에 배고픔이 요동을 쳤다. 자식들 먹여 살리려 밤늦게 회사에서 돌아오면 늘 아내는 칭얼대는 아이들 옆에서 어릿광대가 되어 땀 흘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배고파 밥 줘."

상황 판단을 못하는 눈치 빵단의 나의 요구에

"애 보는 거 안 보여? 당신이 좀 차려 먹어"

그렇게 나의 요구는 핀잔이 되어 돌아온다.

‘당신이 원하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자기야~. 내겐 자기 밖에 없는 거 알지~. 내 전부인 거.’

신혼 시절 그런 유치뽕짝스런 공약(?)은 자식들로 인해 이미 망각의 늪에 빠져 버린 것이다. 내가 망언을 했지. 어찌 하늘의 별을 따누. ㅎㅎㅎ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정말 내가 걸신이 들린 게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아이들에게 아내를 빼앗긴 허전함에 한 그릇, 회사 상사의 잔소리와 스트레스를 씹느라 또 한 그릇. 늘어나는 위장에, 처지는 뱃살 속에 그렇게 중년의 아저씨가 되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부부는 맛벌이를 한다. 아내를 안방마님으로만 모셔 둘 그런 능력 있는 남편이 되지못해 총 대신 장갑을 낀 아내가 산업 전선에 뛰어든 것이다. 오늘도 난 밥상을 차린다. 회사일 때문에 나보다 가끔 늦게 퇴근하는 아내를 대신해 어느새 중학생, 초등 6학년이 된 아들 딸을 위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든다.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이미 성분 분석을 마쳤기에 부족한 성분을 더 첨가해서 아내가 만든 음식보다 더 맛있는 반찬으로 아이들에게 쟁! 소리를 듣는다. 아주 어릴 적 웃어른, 부모님에게 들었던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XX 떨어진 다.'는 겁나는 유교사상(금기 사항)을 몸소 체험해 보지만 여전히 건실하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

오늘은 청국장에 새로운 맛을 내 볼 작정이다. 보글보글 끓는 뚝배기의 열기와 한여름 더위가 맞물려 내 이마엔 땀방울이 떨어진다. 한동안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주방에 자주 들락거려야 할 것 같다.

어디 밥 대신 먹는 알약 없나!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1&articleId=24274&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출처: Daum 아고라-이야기-감동-밥짓는 남자)

※ 원문 표현 중 일부 어색한 부분을 편집자가 다듬었음.

[보기 글 3]

택시요금 10만원!!!

아이디: 하늘아래

어제일이 고맙기도 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뿌듯한 마음에 몇 자 적어 봅니다.

개인적으로 나쁜 말은 삼가 주시고요(←삼가해 주시구요(x))(부탁입니다 댓글보면 무섭더라고요. ㅎㅎㅎ)

전 인천에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50대의 평범한 택시 기사입니다 그저께 토요일 근무를 끝내고 아고라에서 글을 보다가 너무 늦잠을 잔 관계로 일요일 느즈막하니 일어나 (오후 7시쯤) 영업을 했는데 휴ㅠㅠ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너무 손님이 없는 겁니다. 한참을 돌고 돌아 시간은 어느덧 11시 10분경 미터기를 보니 총수입은 12,700원.

한숨은 나오고 잠시 쉬어 갈 요량으로 잘 가는 길 커피숍으로 핸들을 돌리는데



전방에 손님 발견, 잽싸게 차를 들이대는데 손님께서 피우던 담배를 끄시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냥 물고 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손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니지요, 손님이라고 담배를 피울 수는 없지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에 타시는데 혁~ 진하게 풍겨오는 술내. 순간 제 몸은 긴장하게 되더군요. 또 어떤 시비나 걸어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요. 그러나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손님 말씀이 자기는 택시 기사분들이 정말 고맙다는 겁니다. 술 취한 자신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택시들이 야속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세워 주는 택시가 있고 그래서 자기는 편히 집으로 갈(←집으로 귀가할(x)) 수 있으니 지금 같은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괜찮지만 한겨울에는 안 태워 주면 길가에서 잠이 들다 혹시 동사라도 하면 어쩌냐고요.

그러면서 너털웃음을 웃으시는 겁니다. 따라 한 번 웃고 제가 걱정했던 마음이 미안해서 아까 피우다만 담배 한 대 하십사 하고 담배를 한 대 권했어요. 손님도 아쉬웠던지 그럴까요 하시면서 함께 담배 한 대 피우고 목적지에 도착하니 요금은 9300원.

그런데 손님께서 주시는 돈 처음 보는 5만원권 두 장 그러면서 잔돈은 커피 한 잔 하시란다. 순간 내 머리 속은 하얘지고 가슴은 쿵쾅거리면서 얼굴은 달아 오르고 찰나지간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모른 채 고맙다고 인사하고 잽싸게 갈까? 이 돈이면 입금하고 남는데 등등 솔직히 별 생각 다 드는데 입에서는 "이건 아닌데요." 하고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손님은 돌아보시면서 뭐가 아니냐고 하신다. 9300원 나왔으니 만 원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럼 맞는데요, 이걸 5만 원짜리인데요." 했더니 보관용으로 몇 장 바꿔 놓은 걸 잘못 꺼내 준 거라면서 웃으신다. 그러면서 제게 5만 원권 있냐고 물어 보신다. 오늘 참 봤다고 했더니 그럼 한 장 가지란다. 잔돈은 35,000원만 달라시는 거다. 팁으로 5,700원. 이걸 제 정신으로 주시는 거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돌아서는데 솔직히 가슴 뿌듯하다. 택시 기사들 좋지 않게 보는 요즘 그래도 택시 기사들에게 호의적인 손님을 만나 감사했는데, 내가 만약 모른 채 했었다면 나중에 저분이 술이 깨었을 때 그나마 가지고 있던 택시기사들에 대한 생각들이 어땠을까 하는 맘으로, 참 잘했구나 하는 맘으로 기분이 좋아지니 일도 잘되었다. 또 남은 시간 동안 장거리 두 번 다녀왔더니 늦게 영업을 했지만 오히려 다른 날보다 수입이 좋았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story/read?bbsId=S101&articleId=24052>(출처: Daum 아고라-이야기-감동-택시요금 10만원!!!)

운전을 하면서 겪은 일을 그대로 적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다. 글이란 이렇게 쓰면 된다. 다만 인터넷 게시판에 적은 글로 종결형 어미로 경어체(“~ 겁니다. ~ 했지요”)와 일상체(“~했다”)가 뒤섞여 나온다. 그런 건 다듬으면 그만이다.



3.2. 관념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

관념에서 벗어나고 자신의 감각으로 느낀 것을 적는 공부를 해야 한다. 자기 삶의 체험에서 벗어난 글쓰기는 모두 관념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글쓴이가 정직하고 솔직한 자기 생각을 귀하게 여기는 건강한 자기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관념은 대체로 밖에서 주입된 것이다. 관념은 실체가 아닐 때가 많다.

“추상 관념이나 낱말을 하나씩 따져보고 자신에게 알맞게 써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배움이 일어나고 삶이 가꾸어진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면 까마귀가 ‘까악 까악’ 운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에서 주어진 관념이지 자신이 들은 실체가 아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까마귀 울음이 ‘아악 아악’이나 다른 것으로 들릴 수 있다. 까악 까악만 생각하고 실제 들리는 소리에 귀를 열어놓지 않는다면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관념에서 벗어나는 일이 관념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까마귀가 까악 까악 운다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모여서 사회 일반에 굳어진 것임은 틀림없다. 까마귀 울음이 여러 소리로 들릴 수 있지만 보편으로는 ‘까악 까악’이라 한다는 사실을 알 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편성을 갖춘다. 까마귀의 울음에 자신만의 감정과 색깔을 씌울 수 있다. 삶을 깨우칠 수 있다.”(왕규식)

[보기 글 4]

가을 풍경

초등학교 4학년 여

기대하던 추석.

용인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아빠 차로 쉿쉿 달리는 가을 길은 볼거리가 참 많았다. 누렇게 익은 벼, 참새를 놀래키는 허수아비, 길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코스모스는 너무나 흥겨웠다.

외할머니 댁에서 놀다가 나와 보니 둥그런 보름달과 빛나는 별들이 하늘 높이 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와 밤을 따러 갔다. 산들을 신고 갔더니 밤송이들이 나 여기 있다고 알리는 듯 내 발을 쿵쿵 찧었다. 귀뚜라미들도 환영 노래를 불러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쉽고 섭섭했다.



이 글은 자기가 겪은 일을 적었는데 보고 들은 것을 그 모습 그대로 적지 못하고 있다. 본 모습을 그대로 적으려면 ‘참새를 놀래키는 허수아비’라고 적으면 안 되고 허수아비가 ‘어떻게 참새를 놀래게 했는지 그 모습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낮은 회색 양복을 걸친 허수아비는 바람이 불자 깡통 흔드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근처에 앉아 있던 참새가 놀라서 푸드덕 날아갔다.” 하는 식으로……. ‘둥그런 보름달과 빛나는 별’이라고 한 부분도 더 실감나게 적으려면 실제로 자기가 본 모습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더욱이 귀뚜라미는 아침에 울지 않고 저녁에 운다. 그런데 이 글에는 아침에 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몸으로 겪은 것을 겪은 대로 적지 않고 머리로만 적다 보니 이렇게 비논리적인 글이 되어 버렸다. 다음 글도 관념으로 적은 글이다.

[보기 글 5]

5월

싱그러운 계절, 5월의 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 준다. 어느덧 노란 개나리꽃이 벌써 파랗게 물들면서 자취를 감추려고 하고 있다. 나뭇가지에는 파랗게 새순이 돋아나고 땅에는 노란 민들레꽃이 활짝 피어났다.

민들레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곳에서 예쁘게 꽃을 피운다. 아- 이런 곳에서도 꽃이 피다니. 강인한 생명력에 다시금 경탄의 찬사를 보낸다. 우리들도 따스한 봄이 함께 오기를 기대하며 서로 양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다음의 ‘제비꽃’은 실제 자기가 본 제비꽃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글쓰기의 기본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한 대로’ 적는 것이다.

[보기 글 6]

제비꽃

주해진(초등학교 3학년)

제비꽃은
보라색이면서
활짝 날개를 편 제비 같다.
제비꽃은
땅에서 날으는 꽃이다.

그 꽃을 보니 나도 날고 싶다.



3.3. 자세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보기 글 7]

아들과 돈

이재윤(주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 시골에서 혼자 농사짓고 계시는 시어머님을 도와 드리려고 시골에 갔다. 모내기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승현이(중학교 3학년 내 아들) 입이 삐뚤어져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놀라

“승현아! 네 입이 왜 그러니?”

“엄마! 엄마 보기에요 내 입이 이상해? 나도 느낌이 이상해. 아무래도 무슨 병에 걸렸나 봐.”

나는 가슴이 쿵쿵쿵.

요즘 아이들에게도 뇌졸중이 간혹 있다더니 혹시……. 그래도 태연한 척,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 찬 바닥에서 자도 그런다드라. 어젯밤 잘 때 추웠니?”

마음속으로는 별의별 상상을 다하면서 다음날 학교에 보내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갔다.

‘내가 스트레스를 줬나?’

마음은 여전히 시끌시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태연하게

“별거 아니에요. 음식을 꼭꼭 씹지 않아서 위에 탈이 난 거예요. 침 맞고 약 먹으면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었다. 내가 스트레스 줄 만큼 강요한 것도 없는데 그럼 그렇지. 하지만, 그 하지만이 언제나 문제다.

“진료비가 얼마예요?”

“오늘 초진이라 침 시술비 8천 원, 약값 보름치가 18만5천 원 합해서 19만3천 원이에요. 내일부터는 3천 원만 내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나는 승현이의 얼굴을 찌려봤다. 승현이는 눈치를 챘는지

“약은 짓지 마세요.”

하면서 병원 문을 쿵 닫으면서 나가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까짓 음식 하나 씹어 먹지 못해서 20만 원을 날리다니……. 그 돈 20만 원이면 책을 사도 여러 권 살 수 있고, 내 옷을 살 수도 있고. 아까워 죽겠네.’

우리는 둘이서 따로따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승현이가 대화 노트에다

“엄마, 그 돈 아까워서 그러는 거죠. 내가 커서 따따블로* 갚을 게요. 죄송해요.”라고 써 놓고는 어디론가 나가 버렸다.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던지. 이제라도 사과를 해야겠다. 그때 엄마가 정말 미안했다고.

※ *따따블로→몇 곱절로



아들의 건강보다 돈을 먼저 걱정했던 엄마의 미안한 마음이 잘 전달돼 온다. 엄마는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 경미한 증상이라고 밝혀지니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동시에 치료비나 약값을 걱정하는데,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한 모양이다.

[보기 글 8]

끈

김유경(주부)

“아따, 죽지 않고들 살아 있었네!”

“아니, 길 다 끊겼는데 어떻게 왔어요?”

우린 화들짝 놀라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강 씨가 커다란 배낭에서 쌀이며 고기며 구호품(?)을 하나씩 꺼내 놓았다.

2003년 여름이었다. 태풍 매미가 휩쓸고 지나간 우리 마을은 차는커녕 사람 다 날 길도, 전화도, 전기도 모두 끊긴 상태였다. 이 같은 고립 상태에서 지낸 지 일주일쯤 지날 무렵, 그해 봄 우리 집 짓는 걸 도와주었던 강 씨는 우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외부와 통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철길을 45km 걸어 들어온 것이다. 우리는 곧 놀라움을 거두고 마치 이산가족이라도 된 양 감격적인 상봉 장면을 연출했다.

“아이고, 어떻게 지냈어? 이 여름에 물도 전기도 아무것도 안 되니 어떻게 살았어?”

“염려 마요, 이렇게 지내 보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허기사, 시멘트 한 삽 안 넣고 흙하고 나무만 갖고 집 짓는다고 덤벼든 무식한 인사들인디 뭐가 걱정이겠어!”

우리 가족이 집을 짓기 시작한 건 2003년 봄부터였다. 나무와 흙이 주재료인 귀틀집을 짓기로 한 것인데 단지 ‘웰빙’ 때문만은 아니었다. 넉넉지 않은 경제 사정 때문에 남편이 목수 노릇, 작업반장 노릇, 잡부 노릇을 다 해야만 했기에 지어본 경험이 있는 귀틀집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귀농 안내지인 <귀농통문>이라는 계간지에 ‘귀틀집 짓기 배우며 일 도와주시길 분을 찾는 글을 냈고 너댓 분이 우리 집을 방문해 주셨다. 모두 귀농을 꿈꾸는 분들이었다. 네 분이 같이 일하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강돌, 길동이, 나무, 동동주 등 재미난 별명을 붙였고 어른들도 서로 그 별명으로 불렀다. ‘나무’는 50대 중반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동동주’는 휴직 중인 공무원, ‘길동이’는 건축 설계사, 그리고 강돌이라는 별명을 얻은 강 씨는 덤프트럭 기사였다.

강돌 외에는 육체노동을 해 본 적이 없었고, 집 짓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며 극구 자원 봉사자임을 강조하셨다. 강 씨하고만 근로 계약(?)을 맺었는데 보수라고 말하기에 민망한 적은 돈을 드렸다. 그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다.



내가 함께 지내는 내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성스레 밥을 짓는 게 고작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엔 막걸리 한 사발로 피로를 풀며 농사 얘기, 사는 얘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분들과 두어 달 지내고 나니 별채 골조가 다 올라가고 지붕까지 없게 되었다.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이다. 우린 서로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고 각자 자기 자리를 찾아 돌아갔다.

태풍 매미 때 강 씨가 우리를 찾은 건 그러니까 3개월쯤 뒤였다. 만약 전생이 있다면 강 씨와 우리는 가족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때부터 강 씨와 우리 가족은 1년에 두세 차례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친정 식구들도 1년에 한번 오기도 힘들어 하는 봉화를, 그것도 인천에서 달려오는 것이다.

인연이라는 길은 여러 모습을 한다. 최악의 인연은 악연으로 표현된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끊어질 듯 가늘고 아슬아슬한 끈으로 이어질지, 밧줄처럼 튼튼한 끈으로 이어질지는 ‘나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우리 가족이 강 씨에게 진심과 고마움으로 인연의 끈을 엮어 나갔고, 그 끈이 도타워져 가족같이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간 것처럼 말이다. (봉화백일장 수상 작품)

‘인연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차분히 풀어냈다. 그래서 읽는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내는 것은 설득력이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글쓰기 방법이다.

[보기 글 9]

큐피드의 화살

신동일

밤늦게 가게에 여고생 둘이 왔어요.

“친구들, 어서 와요. 야자 마치고 오는 길이라요?”

“예.”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 힘들어요.”

“공자님이 배우고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했는데…….”

“…….”

“공부가 힘들고 재미없나 봐요.”

“예.”

“하긴 공부가 재미있다는 사람은 공자님밖에 없을 걸요. 우리 친구들 뭐 줄까요?”

“만두이 두 개 주세요.”

감자 핫도그를 만두이라고 해요. 감자 핫도그 두 개를 튀김 솥에 담갔어요.



“자, 오빠야가 만든 핫도그 따끈따끈 맛있게 해 주세요.”

사십 대 아저씨가 갑자기 오빠야라고 하니 여고생들이 조금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웃어요.

“아저씨 몇 살이에요? 오빠야는 아닌 것 같은데?”

“젊은 오빠야 맞는데……. 맨날 꼬치 튀기고 핫도그 만들다 얼굴이 폭삭 늙어 보이냐 보네.”

여고생 둘이 서로 얼굴을 보더니 다시 웃어요.

“자, 맛있는 핫도그 나갑니다. 설탕, 케첩, 겨자 어떻게 해 줄까요?”

“아저씨, 전부 다 많이, 억수로 많이.”

“어? 아저씨 아니고 오빠한테.”

“오빠야! 억수로 많이.”

“알았어요.”

핫도그를 설탕에 폭 담급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묻혀서 핫도그가 하얗게 되었어요.

“핫도그에 눈 내린 거 같네. 너무 많이 묻었어요.”

“그럼 다시 텅니다.”

핫도그에서 설탕을 다시 조금 텅니다. 이제 케첩을 바를 차례입니다. 빨간 케첩으로 하트 무늬라고 하는 사랑 표시를 핫도그에 합니다.

“애, 저것 봐. 하트다.”

“우리 친구들에게 사랑이 가득하기를!”

여고생 동무들 얼굴에 어두운 표정은 사라지고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제 겨자를 바를 차례입니다. 겨자로 핫도그의 사랑 표시에 화살표를 그립니다.

“큐피드의 화살이 쏘웅!”

웃음 띤 얼굴이 발그레해집니다.

“큐피드가 자기 화살에 자기도 찔려서 사랑의 열병을 앓았데요. 자, 오빠야가 만든 맛있는 핫도그 나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핫도그 하나 더 그렇게 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잘 가요.”

“고맙습니다. 오빠야도 많이 파세요.”

그 동무들 마음속에 정말로 사랑이 가득하기를…….(글쓰기 회보, 2005년 6월호에서)



[보기 글 10]

눈물로 얼룩진 사진

배 숙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청소가 끝나면 옥수수 빵을 주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맛있겠다.”

“그래서 청소를 은근히 기다렸어.”

“공책은 얇고 구멍이 나 있고 나무 가루도 박혀 있어. 연필은 심이 단단하고 흐리게 나와 침을 묻혀 글씨를 쓰다 보면 공책이 찢어지고 구멍이 났어.”

아이들이 웃는다. 요즘 연필과 공책은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하며 아껴 쓰라고 하고 싶은데, 오늘도 교실 바닥에는 주인 없는 연필과 지우개가 굴러다닌다.

우리 반 아이들이 나에게 어릴 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한다. 지금 아이들에게는 와 닿지 않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며 ‘옛날 사람’이 된 것 같다. 내가 의정부에서 태어나 의정부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진다. 별 이야기도 아닌데 아이들이 재미있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나도 신이 나서 공부하다가도 나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된다.

나는 의정부 가평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께서는 가평동에서 전기 기술자로 미군 부대를 다니셨다. 아버지가 가끔 가져온 과자와 초콜릿, 코코아를 맛볼 수 있었다. 동네에는 극장도 있고 꽤 중심가였는데 미군을 상대하는 여자들이 사는 곳도 가까이 있었다. 동네 가운데 우물과 독이 있어서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가 되었다.

셋방을 옮겨 다니며 이사를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 셋이라 주인집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았다. 이사 갈 때마다 동네 아줌마들이 이삿짐을 싸며 내 일기장을 펼쳐 그림과 글을 보고 웃는 게 그렇게 싫었다. 그 가운데 조금 오래 살았던 소영이네는 철마다 꽃이 피어나는 동그랗고 예쁜 꽃밭이 있었다. 주인집 소영이네는 방이 많고 마루가 넓어서 선생님들이 와서 밥도 먹고 춤을 추며 놀다 가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어린 아이들 눈에도 좋지 않아 보였는지 바깥에서 아이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며 “~요요 깍쟁이 담임 선생아! 어찌자고 내 친구를 낙제시켰니?” 이런 노래를 큰소리로 불렀다.

그래도 가평동에 살 때는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미군 부대를 그만두시고 동업하던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마음의 병까지 얻어 누구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계시며 병원 치료까지 받으시면서 갈수록 집안 사정은 힘들어졌다.

이런 저런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호원동 원도봉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버지께서 몸이 좋지 않으셔서 어머니는 안 해 본 일이 없으셨다. 쌀이 떨어져 수제비와 라면만 먹던 때도 있었다. 학교에 육성회비를 제때 내 본 적이 없어 학교가 끝나고 남았던 적도 많았다. 전학 와서 3학년을 마칠 때 우등상 받을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도 있는데 내 이름이 없었다. 이상했지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이 담임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는 아이들이었다. 그날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더니 너는 전학 와서 우등상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이 왜 그 이야기를 나에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나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신 걸 변명하신 거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지금도 갖고 있는 통지표에는 행동 발달에 ‘장난이 심하고 산만합니다.’ 하고 적혀 있다. 평소애 아이들에게도, 촌지 받는 뇌물 선생님이로 알려졌던 그 선생님은 내게 교사 생활을 하는 동안 바른 길을 걷도록 해 주신 고마운(?) 분이기도 하다. 나는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고 넘어갔다.

아버지 건강도 좋아지셔서 작은 가게를 하시고 어머니도 열심히 일하셨지만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점점 말이 더 적어지고 부끄러워하는 수줍음 많은 아이가 되었다. 내 방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때, 좁은 집에서 4남매가 북적이며 지내던 집보다는 동네 마당이나 앞산 뒷산을 뛰어다니며 노는 게 더 좋았다. 지금도 나무나 풀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놀았던 기억 때문일 것이다.

동네 마당에 모였는데 거의 남자아이들과 놀았던 것 같다. 별로 말도 없고 수줍음 많던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잘 놀았는지 신기하다. 구멍에 넣거나 세모 모양에 넣고 치는 구슬치기, 자치기, 딱지 따먹기, 실핀 따먹기, 옷핀 따먹기, 계급장 치기, 사방치기, 비석치기, 소꿉놀이……. 셀 수도 없이 많은 놀이를 철마다 바꾸어 했는데 아무리 추운 겨울이어도 손등이 두꺼비 등짝처럼 갈라지도록 놀았다. 만이라서 집에서 어머니가 일을 나가시면 할 일이 많았던 만큼 야단도 매도 많이 맞았다. 그래도 놀 때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다. 집 앞 개울에서 머리를 감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흐르는 물에 발과 머리를 담그고 한참 있으면 모든 걱정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앞산이었던 수락산에는 밤나무가 많았는데 주인이 있었지만 가을이 되면 주인을 피해 밤을 줍거나 따다가 도망치는 일도 재미 있었다.

일요일이면 동생들과 빨래를 들고 계곡으로 올라가 빨래를 하고 바위에 널어 놓고 말리는 동안 물고기와 가재를 잡으며 놀았다. 놀다가 씻고 나면 따뜻한 넓은 바위에 누워 하늘을 보고 있다 보면 잠이 스르르 왔다.

언젠가는 동무들과 원도봉산에서 서울 쪽으로 가 보았는데 길이 없는 산속에는 먹을 것이 많아 먹으며 놀다 가다 보니 다락원 캠프장이 나타났다. 너무 많이 간 것 같아 겁이 나 되돌아오니 벌써 해는 지고 저녁이 되어 부모님께 야단을 많이 맞았다. 놀다가 야단을 맞아도 숲 속에서 놀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갔다. 자연과 함께 동무들과 신나게 놀았던 일이 아니었으면 힘든 집안일이나 어려움으로 답답한 마음을 풀거나 자유가 주는 즐거움을 맛볼 수 없었을 것이다.

잊으려고 해도 기억나는 아픈 기억 하나, 육성회비를 제때 낸 적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앨범 값을 내지 못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니까 졸업식까지는 꼭 주겠다고 하셨다. 그때 앨범 값이 비싼 편이었지만 그래도 내주실 줄 알았다. 결국 졸업식 날 앨범을 나누어 주는데 내 것은 없었다. 사진관 아저씨에게



부탁해 사진을 찍을 때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눈이 붓도록 울다가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어머니께서 속상하셨던지 어딘가에 치워 버리셨다. 아직도 그 사진이 있는지 궁금하다. 키가 커 버려 짧아진 바지와 어머니 옷을 입고 파란 운동화에 짧은 머리에 가무잡잡한 얼굴을 하고 어색하게 찍었던 눈물로 얼룩진 사진으로 나의 초등학교 시절은 이렇게 아프게 막을 내렸다.

(글쓰기 회보, 2008년 2월호에서)

♣ 보기 글로 배우는 자세히 쓰기 요령

[보기 글 11]

선생님 어학실 우리반

이승재(초등학교 5학년)

오늘은 드디어 어학실을 가게 되었다. 오늘 막 지어 가지고 우리 반이 제일 먼저 최초로 수업을 하는 것이다. 선생님은 기분이 좋으셔서 영어를 하지 않고 영화를 틀어 주셨다. 우리는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보았다.

“딩동댕동 땡동댕동”

종이 울렸다. 우리 반은 평상시처럼 우르르르 하며 뛰쳐 나갔다.

그런데 정재호라는 친구가 신발장 문을 모르고 쳐서 문짝이 떨어졌다. 헉!!! 문을 때 낸 아이 곁에 있던 아이들은 뒤로 슬금슬금 물러났다. 선생님은 이마를 짚어 뜯으시면서

“아이구 아이고...”

그러자 선생님은 우리들 보고 교실에서 손들고 있으라고 하셨다.

우리 반 아이들은 문짝을 때 낸 아이한테 막 뭐라고 했다.

(욕설을 퍼부었다.

“너, 제 정신이 있는 거야?”

“너 이제 디졌다.”

“미친 놈아. 너 땡시 다 디지게 생겼어!”

이런 말을 마구 퍼부었다. 급기야 욕설을 받은 아이는 울었다.)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막 화를 내셨다.

(우리에게 불평을 늘어 놓으셨다.

“야, 이노무 시키들아! 너희들 바보야? 엉? 오늘 막 어학실 지어졌는데 어? 만 든 지 세 시간 돼 가지고 문짝을 뽀개 먹어? 그 전에도 선생님 물건 망가뜨린 사람들, 권오관! 기타줄, 5학년 초에 선생님 기타줄 끊어 먹어 가지고 너 여태 안 가져 오고 있어. 그리고 유준상! 너 선생님 컴퓨터 깨 먹었지? 이상미! 너 내 노트북에 커피 쏟았고, 너! 장구 구멍냈어. 정말 우리 반 뭐야? 이거? 이제 너희들



남은 일이 뭔지 알아? 이제 문짝 깨 먹은 소문 짹 퍼지고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
한테 야단맞고 교장 선생님한테 지적받는 거야. 엉?”)

그러고는 선생님은 나가셨다.

우리가 급식을 먹는데 선생님이 오셨다.

“얘들아, 짐 싸라.”

우리는 가방을 쌌다.

그리고는 우릴 운동장에 나가게 해 주시더니 웃으시면서 우리와 발야구를 해
주셨다.

한때는 무서우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와 놀아 주시는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시다.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

1.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의 첫걸음, 문제 제기로부터.

- 1) 왜 만들었을까?
- 2) 어떻게 만들었을까?
- 3) 누가 만들었을까?
- 4) 과학적(발음기관의 모양, 가획)이고 독창적이라는 이야기의 근거는?

2. 일반적인 그리하여 편안한 이해의 태도

다소 장황하기는 하지만, 훈민정음에 관하여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내용을 비교적 잘 정리하여 구수하게(?) 풀어낸 최근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욱(2007) ‘한글’(루텐스)에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글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하자.

2.1. 세종과 한글

만원 권 지폐에는 세종 대왕의 초상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원편에는 한글로 씌어진 문장들이 세로로 해서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인즉, 요즘 사람들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옛한글이다. ‘불휘 기픈 남곤 브르매 아니 뵈씨 곶 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픈 므른 ㄱㅁ래 아니 그출씨’ 이것은 15세기에 조선 시대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한글이다. 국어 교과서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통용하고 있는 지폐에다가 옛한글을 새긴 까닭이 무엇인가. 더욱이 돈과 한글은 연관성도 없어 보이질 않는가. 지폐에 한글을 새긴 까닭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20세기가 끝날 무렵이었다. 언젠가 한국의 어느 신문사가 지나간 천 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마당에서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한국의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답변한 한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은 ‘세종 대왕이 발명한 한글’이었다.

한글에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다. 한국에는 한글날이라는 국경일이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국경일이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네들이 쓰는 문자를 기념하여 국경일로 정한 일이 없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자랑스러워하는 그 무엇에 ‘세종’이라고 이름붙이길 좋아한다. 서울의 큰 길에 ‘세종로’가 있다. 우리 민족의 큰 문화상 이름도 세종 문화상이다. 유엔의 산하 기구에 유네스코가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적으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인물에게 상을 수여한다. 그 상의 이름도 다름 아닌 ‘세종’이다. 세종의 한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문명비평가로서 ‘총·균·쇠’의 저자로도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는 한국인과 한국 문화를 높이 평가하여 칭송한 적이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고안된 문자가 한글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인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가장 풍부하게 인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체계라고 예찬하였다. 한국을 방문하여 가장 즐거웠던 기억이 무엇인지 말하는 자리에서도 그는 그동안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한글을 가는 곳마다 보면서 세종대왕의 유적지를 둘러보고 그 유명한 문자를 읽을 수 있도록 배웠던 경험이 가장 인상 깊은 기억이라고 했다. 그는 한글의 예찬과 더불어 세종 대왕에 대한 깊은 존경심도 함께 표했던 것이다. 이제 만 원에 새긴 세종의 한글을 현대 국어로 풀이해 보기로 하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니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리라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마르니” 여기에는 후손들이 영원하기를 축원하는 세종대왕의 신념이 담겨져 있다. 조선 왕조가 600 동안 지속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계의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14세기부터 20세기까지 지속된 왕국은 조선을 제외하고는 그리 흔하지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세종 대왕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조선의 정신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세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역대 임금 중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한 분이시다. 세종은 32년간 재위했다. 업적을 기록한 실록이 163권인데, 이것은 52년을 재위한 영조 임금보다도 36권이나 더 많다. 세종 대왕은 사군을 설치하고 육진을 개척했다. 대마도를



정벌하고 왜구들을 소탕했다. 인구 조사, 강수량 측정, 농사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여 국가 생산력을 향상시켰다. 하지만 대왕이 남긴 수많은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역시,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용하게 될 ‘우리의 한글’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한글을 만들었을까? 그것의 애초에 한글과는 무관한 살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세종 10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영남의 강주에서 김화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세종은 주체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다. 세종 실록에는 세종이 김화의 사건을 보고받고는 낮빛이 변하고, 스스로의 부덕함을 여러 번이나 자책하였다고 전한다. 세종은 어전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패륜 사건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나 논의하였다. 신하들을 불러 모은 뒤에 효제(孝悌)를 돈독히 하고 풍속을 후하게 이끌 방책을 거듭 논의하였다. 거듭된 논의 끝에 세종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게 된다. 그는 백성들의 교육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김화가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화가 패륜을 저지르게 된 것은 어리석은 백성으로서 인륜이 무엇이고 도덕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세종은 당시에 집현전 부제학이었던 설순에게 명령을 내리게 된다. 고금의 충신, 효자, 열녀 중에서 뛰어나게 본받을 만한 인물의 이야기들을 뽑도록 하였다. 글을 써서 그들을 칭송하고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글 외에 그들의 행적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서 책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책을 편찬하고도 안심할 수가 없었다. 책을 배포하는 사업만으로는 백성들을 충분히 교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비록 그림으로 보더라도 충신, 효자, 열녀들의 행적을 과연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지가 염려스러웠던 것이다.

그림이 알기 쉽기는 하지만 효자 충신 열녀들의 곡진한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깊이 전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백성들이 효자, 충신들의 이야기에 진실로 감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나라의 풍속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왕의 고민은 살부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후에야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것이 곧 한글의 발명이다. 누구라도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문자를 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어리



석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글귀가 뚫리게 되고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효자, 충신들의 이야기들을 꼭진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아버지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1446년 세종 28년, 10월 9일, 왕은 드디어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백성들에게 반포하게 된다. 훈민정음이란 한글의 옛이름으로 백성(民)을 가르치는(訓) 바른(正) 소리(音)라는 뜻이다. 훈민정음이라는 말 뜻만을 음미해 보더라도 세종이 왜 한글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2.2. 임금과 신하들의 토론

한글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 권102의 12월 30일자에 실려 있다. 때는 세종 25년이였다. 그날의 기록은 다음과 같았다. “이 달에 전하께서 한글 28자를 친히 만드셨다.” 그 이후의 과정은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신하들이 한글 반포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학자는 집현전의 부제학을 맡고 있었던 최만리였다. 신하들이 한글 보급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조선은 예부터 중국의 문자를 존중해 왔는데 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자인 한글을 만든다는 것은 사대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중국에 알려지게 되면 이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사신들을 무슨 낮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중국을 의식한 신하와는 달리, 세종은 백성들을 생각하였다. 조선도 필요하다면 중국처럼 문자를 발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선에는 한글을 만들기 이전부터 발명되었고 사용해 왔던 우리 민족 고유의 문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신라의 설총이 정리하고 완성한 이두(吏讀) 문자이다. 이두는 한자를 변형하여 문자 형태를 우리식으로 바꾸고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표기했던 우리 고유의 문자이다. 세종은 우리가 한문이 아닌 우리 고유의 이두 문자를 사용했다고 해서 중국이 반대한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한글을 만들어 사용하더라도 중국이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최만리는 이러한 세종의 말을 수긍하지 않았다. 이두는 한자에서 변형된 문자이기에 때문에 비록 그것으로 우리말을 표기한다손 치더라도 한문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한자를 알아야만이 이두



도 터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두의 학습은 한자의 학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글은 이두와는 달리, 한자와 완전히 다른 문자라는 것이다. 그러니 중국이 비록 반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한문이 필요하니 한글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한글과 한문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들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들이 어려운 한문은 선택하지 않고 쉬운 한글만을 선택하여 배우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한글만을 쓰다가 보면 수십 년 후에는 한자를 아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록 한글로써 관리들이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는 있겠지만 성현의 말씀은 한자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성현들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여 사물에 대해서 그릇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만리는 세종 임금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린다. “한문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으면 사리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어두워질 것이니 한글에 능숙한들 그것이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나이까?” 최만리는 임금님께 한글을 만들지 말라고 거듭 조아렸다. 그러나 세종은 그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한글은 이두보다도 진화하고 발전된 체계일 뿐이지 하늘 아래에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므로 한글을 공부한다고 해서 한자를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한글은 한자의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은 최만리의 상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게 된다. “너희는 음(音)을 사용하고 글자를 합한 것이 모두 옛 글에 위반된다 하였다. 설총의 이두도 역시 음이 다르지 않느냐? 또 이두를 제작한 본 뜻이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한 데 있지 않았겠느냐? 만일 그것이 백성을 편리하게 한 것이라면 이제의 언문 역시 백성을 편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설총은 옳다 하면서 임금이 하는 일은 그르다 하니 그 까닭이 무엇이나?”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려고 이두가 제작되었다. 한글도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다. 한글과 이두는 위민(爲民)의 정신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다. 세종은 한글이 이두보다 더욱 개량된 것이어서 그 기능이 기존의 이두보다 훨씬 뛰어날 뿐 아니라 배우기도 쉽다고 신하들에게 거듭 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은 세종을 통렬하게 비판하고야 말았다. 이두와 한글은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하였다. 이두는 한자와 맥이 닿아 있지만 한글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심지어 한글을 ‘야비하고 상스러우며 무익한 글자’라고까지 낮추어 말하기도 했다. 신하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세종 역시나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글이 실용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을 들어 최만리의 잘못을 지적했다. 한글은 한문을 익히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운서를 바로잡고 한자음을 정확히 교정하는 데에도 한글이 발음기호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최만리에게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졌다. “네가 운서(韻書)를 아느냐?” 이것은 세종의 언어학자로서의 면모가 한껏 드러난 절정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운서란 한자의 발음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다. 세종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에게 한자 발음의 원리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너희들이 운서에 대해서 나보다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운서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한글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느냐는 논박이다. 왕의 의견에 맞서고 한글 창제에 반대를 하려면 언어학 공부를 좀 더 하고 덤비라는 주문이었다. “사성 칠음(四聲七音)에 자모(字母)가 몇이나 되느냐?” 최만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세종은 학문적 논리만으로도 혹은 제왕의 권위로도 꼬장꼬장한 선비인 최만리의 고집을 꺾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한글에 반대하는 신하들을 은근히 달래보기도 했다. “만일 내가 그 운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누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보수적이고도 신중한 성격의 최만리는 이러한 세종의 뜻을 도무지 받들지를 않았다.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고금에 통한 우환이옵니다. 이번의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예에 지나지 못한 것입니다.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으므로, 아무리 되풀이 생각하여도 그 옳은 것을 볼 수가 없사옵니다.” 왕이 아무리 최만리를 설득하고자 했으나 당신의 한글은 한낱 기예에 지나지 않으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한글의 창제가 학문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이 최만리의 굽힐 줄 모르는 주장이었다.

세종은 거듭하여 말하였다. 한글을 만드는 이유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



기 위한 데 있다고 하였다. 왕과 신하 노릇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왕노릇이고 신하노릇이 아닌가. 감옥에 갇히게 된 백성들에게 그 죄를 묻는 글을 한글보다 어려운 이두 문자로 쓴다면, 그 문리를 알지 못하는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 때문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원통함을 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쉬운 한글로 그 말을 직접 써서 백성들이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백성들의 억울함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최만리는 세종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를 않았다.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말과 글이 같아도 백성들이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옥에 갇혀 있는 백성이 글을 해독할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고발한 문서가 허위인 줄을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형리들의 매를 견디지 못하고, 고문에 굴복하게 되면 그릇 행복하여 없는 죄도 토해내고 마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형옥의 공평하고 공평하지 못함은 그것을 실행하는 관리의 자질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지 글의 내용을 읽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하였다. 사실이 그러하니 비록 쉬운 한글을 배워서 백성들이 글을 깨친다고 할지라도 관리들의 윤리적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다.

2.3. 세종의 처결

세종은 최만리의 고언(苦言)에도 한글 반포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반대 상소가 있는 후에, 세종은 반대 상소에 서명한 신하들을 어전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상소의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들을 신하들에게 확인하여 보았다. 신하들의 답변을 모두 듣고 나서야 세종은 반대 상소문에 대한 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게 된다. 최만리를 비롯하여 반대 상소문에 서명한 선비들을 하루 정도 옥에 가둔 다음, 뒷날 석방하였다.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과 여기에 대한 세종의 답변은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감정 섞인 비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논리와 사실에 근거하여 왕과 신하 간의 열띤 학술 논쟁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신하들을 논죄함에 있어서도 세종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다. 세종을 고집스레 비판한 최만리에 대해서도 마찬



가지였다. 세종은 최만리처럼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여 소신을 지킨 신하에게는 큰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중간에 말을 바꾸거나 생각이 짧았던 신하들에 대해서 크게 나무랐다는 사실을 보아도 세종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무작정 나무라는 전제 군주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집현전 학자 중에는 김문이라는 신하가 있었다. 그는 처음에, “한글을 제작함에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며 한글에 대하여 찬성의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다 나중에는 불가하다 하여 최만리의 반대 상소문에 동참하여 서명하였다. 그래서 세종은 최만리보다도 김문을 더 엄하게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김문이 뜻을 바꾼 이유를 들어보고 그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벌을 주도록 하였다. 정창손의 경우, 왕은 그를 불러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내가 만일 한글로 삼강행실을 번역하여서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정창손은 이러한 세종의 뜻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는 태도를 취했다. “삼강행실을 반포한 후에 충신·효자·열녀의 무리가 나옴을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자질 여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들을 어찌 꼭 한글로 번역해야만 백성들이 모두 본받겠다 하겠습니까?” 정창손은 세종이 창제한 한글의 반포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종의 국가 통치 이념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세종은 통치의 핵심을 ‘훈민(訓民) 정신’에 두었다. 그가 김화의 살부 사건에 대해서 그토록 고민했던 것도, 충신·효자·열녀들의 사례를 자세하게 조사하게 만든 것도 백성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충신·효자·열녀 이야기를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잘 이해한다면 풍속이 아름다워지는 데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세종의 믿음이고 백성의 교화와 풍속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세종은 한글을 발명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교육의 효용성을 부정한 정창손의 주장은 세종의 기본 통치 이념에 반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다. 세종은 강한 어조로 정창손을 꾸짖었다. “이따위 말이 어찌 선비의 이치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용속(庸俗)한 선비다.” 세종은 최만리를 비롯한 신하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처음부터 죄주려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소(疏) 안에 한두 가지 말을 물으려 하였던 것인데, 너희들이 사리를 돌아



보지 않고 말을 변하여 대답하니, 너희들의 죄는 벗기 어렵다.” 이렇게 최만리, 신석조, 김문, 정창손, 하위지, 송처검, 저작랑, 조근은 의금부에 내려졌다가 이튿날 석방되는 몸이 되었다. 오직 정창손만은 파직시키고, 이어서 의금부에 명하기를 김문이 앞뒤의 말을 바꾸어서 한 사유를 국문하여 아뢰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이 있는 이후로는 집현전 학자들과 세종 사이의 한글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사라졌다. 하지만 세종은 신하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반대 상소가 있는 다음에 세종은 한글의 창제와 그 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히 보완하게 되었다. 한글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는 1444년 1월이었지만, 세종은 초기의 한글을 더욱 다듬어서 그로부터 2년9개월 후인 1446년 10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온 백성들에게 한글을 반포하기에 이르렀다. 최만리의 반대상소 사건과 이에 대한 세종의 사건 처리 방식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참으로 ‘빛나는 지성사의 한 마당’이 펼쳐진 대목이라 일컫지 않을 수가 없다.

2.4. 한글 제작의 원리

‘훈민정음’이라는 책에는 새롭게 만든 문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ㄱ는 엄소리니 君ㄷ字 처섬 꺾어나는 소리 ㄴ트니” ‘ㄱ’이라는 문자를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효과적인 설명이 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게다가 ‘ㄱ’이 지니고 있는 수많은 언어학적 정보와 기능 중에 어떤 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지도 선택을 해야만 한다. ‘ㄱ’에 관한 모든 것을 책에서 한꺼번에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세종 대왕은 여러 가지 언어학적 정보 중에서 두 가지만을 골랐다. 첫째, ‘ㄱ’이 음성학적으로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 둘째, ‘ㄱ’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 ‘ㄱ’은 음성학적으로 아음(牙音), 즉 어금니 소리에 속한다. 그래서 ‘ㄱ는 엄소리니’ 하는 설명을 먼저 했다.

그 다음에는 ‘ㄱ’의 발음을 설명해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한자 외에 달리 통용되는 문자가 없었다는 데에 있었다. 다행히도 한자에 소리글자의 기능이 있었으므로 세종은 한자의 음을 이용해서 한글의 음을 설



명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게 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한자가 복잡하고 한글은 간단하므로 한글로서 한자음을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해야 하겠지만 훈민정음을 쓸 당시에는 이것과 반대의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한글을 익힌 다음에 그것으로 한자의 발음을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점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기존의 문자체계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야만 설명이 가능한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조선에서 통용되었던 문자는 한자였다. 세종으로서는 한글을 설명해 낼 문자로 한자 이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창안해 낸 설명 방식이 ‘초발성(初發聲)’이다. ‘君’은 ‘임금 군’자이다. ‘ㄱ’의 발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ㄱ’의 발음이 포함된 君자를 택한 다음, ‘군’이라는 음절의 초발성, 즉 처음으로 발음이 시작되는 소리인 ‘ㄱ’을 확인 시키고, 이것이 바로 새로 만든 문자인 ‘ㄱ’의 발음이라고 설명하였다. ‘ㄱ’ 다음으로 이어지는 글자는 ‘ㄲ, ㅋ, ㅇ’이다. 여기에 대한 ‘훈민정음’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굴바쓰면 虬𧐇字 처섬 꺾어나는 소리 ㄱ트니라 ㅋ는 엄쏘리니 快𧐇字 처섬 꺾어나는 소리 ㄱ트니라 ㅇ는 엄쏘리니 業字 처섬 꺾어나는 소리 ㄱ트니라 ㄱ은 군(君)자의 첫소리이며 ㄲ은 규(虬)자의 첫소리이고, ㅋ는 쾌(快)자, ㅇ은 업(業)자의 첫소리다. 아음이란 ‘어금니 아(牙)’자에 ‘소리음(音)’자이므로 어금니 소리라는 뜻이다. 아음의 범주에 포함되는 한글은 ‘ㄱ, ㅋ, ㄲ, ㅇ’이다. 이것들을 아음이라고 분류한 까닭으로 말하자면, 이들의 소리가 나오는 위치를 따져보니 그것은 어금니 부근이었기 때문이다.

한글을 발명해 낼 당시에, 세종은 ‘상형’의 원리도 응용하였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을 상형했다.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여러분들이 기억을 발음하고 싶다면, ‘ㄱ’ 하고 발음을 해 보라. 혀끝은 아래로 내려오고 혀바닥의 뒷부분이 목구멍에 가까운 입천장 뒷부분을 막았다가 이 뒷부분이 탁 터지면서 ‘ㄱ’ 소리가 나올 것이다. ‘ㄱ’을 어금니 소리라고 하는 이유도, ‘ㄱ’라는 발음이 어금니가 있는 위치인 입안 깊숙한 곳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ㄱ’ 하고 발음을 하게 되면, 혀끝이 아래로 내려오고 혀바닥의 뒷부분은 구부러져서 목구멍을 막는 모습이다. 이것을 측면에서 보면 ‘ㄱ’의 형상과 유사하다. 한글의 기본 자음들은 이렇게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던



한글은 알파벳처럼 자모 글자이기도 하지만, 음성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음성 문자’이기도 하다. ‘ㄱ’과 ‘ㅋ’을 비교해 보면 그 사실이 선명히 드러난다. ‘ㄱ’과 ‘ㅋ’의 입 안에서 발음이 되는 위치는 동일하다. ‘그, 크’를 발음해보면 혀바닥이 입천장에 닿는 위치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ㄱ’에 비해서 ‘ㅋ’은 소리가 강하다. 그래서 ‘ㄱ’을 바탕으로 거기에 가로 획인 ‘一’를 첨가하여 만든 글자가 ‘ㅋ’이다. 이때의 ‘一’는 발음이 강함을 표시한다. 한글에는 이와 같이 ‘발음의 강약’이라는 음성적인 특징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데 ‘ㄷ’과 ‘ㅌ’을 비교해 보아도 그 사실이 확인할 수가 있다. ‘ㅌ’은 ‘ㄷ’에 비해서 소리가 강하다. 그래서 ‘ㄷ’에다가 가로 획인 ‘一’을 더하여 ‘ㅌ’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원리를 훈민정음(訓民正音)에서 가획(加劃)의 원리라 하였다. ㄱ比ㄱ聲出稍厲故加劃一而ㄲ, ㄷ而ㄸ, ㅁ而ㅂ, ㅅ而ㅆ, ㅇ而ㆁ, ㆁ而㆏, 因聲加劃之意皆同” 이처럼 문자를 만들 때에 음성적인 특징에 따라서 획을 더하는 방법을 사용한 문자는 세계적으로도 ‘한글’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글은 알파벳처럼 자모 문자의 성질을 갖추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자모 문자보다도 더욱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음성 문자’의 성질도 갖추고 있는 셈이다.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 257



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을 반치음이라고 부르더라도 다른 글자와 혼동될 염려가 없었다. 그리하여 소리의 한 범주를 가리키는 ‘반치음’이라는 용어가 한 글자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도 쓰이게 되었다. ‘ㅇ’은 오늘날의 ‘ㅇ’과 그 모양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차이가 있다. ‘ㅇ’ 위에 짧은 세로획이 그어져 있어서 꼭 열쇠 구멍 모양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ㅇ’과 옛날의 ‘ㅇ’을 구별하기 쉽게, ‘ㅇ’을 ‘옛이응’이라 부른다.

사라진 옛글자 중에는 ‘ㅎ’이 있다. 이것을 ‘여린 히읇’이라 부른다. ‘옛이응’ 혹은 ‘여린 히읇’이란 명칭은 ‘훈민정음’이라는 책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다. 구별의 편의를 위해서 후세 사람들이 붙였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ㄴ→ㄷ→ㅌ’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한글의 제작 원리가 내재해 있음을 알게 된다. ‘ㄴ’은 혀소리(설음, 舌音)에 속하는 기본 문자이다. 같은 계열에 속하는 것으로 디귤과 티읇이 있다. 디귤은 니은에 비해서 소리가 강하다. 그래서 획을 추가하여 소리 형상을 이루었다. 티읇은 디귤에 비해서 소리가 강하므로 획을 다시 한 번 추가한다. 추가된 획은 소리의 강도를 표시한다. 그래서 한글 자음들은 획의 추가 여부에 따라 체계적 분류가 가능해진다.

획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기본자이다. 기본자들은 각 계열의 음 중에서 가장 약한 소리를 나타낸다. 아·설·순·차·후의 다섯 계열의 기본자들인 ‘ㄱ, ㄴ, ㄷ, ㄹ, ㅇ’은 획이 추가되지 않은 모양이다. 여기에 획을 한 번 추가하면 기본자보다 센소리가 된다. ‘ㅋ, ㄸ, ㅌ, ㅊ, ㅎ’은 기본자에 획이 한 번 추가된 형태이다.

획이 두 번 추가되면 거센소리가 난다. 획이 두 번 추가된 ‘ㅌ, ㅍ, ㅊ, ㅎ’은 기본자보다도 더욱 거세어진 소리다. 이처럼 각 문자들이 지니고 있는 음성적 특징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한글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음성 문자’라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한글 모음도 마찬가지다. 기본 모음은 천(·), 지(ㅡ), 인(ㅣ)이다. 모음의 기본자들도 자음과 마찬가지로 소리의 성질에 따라 나누었다. ·는 양성 모음이다. ㅡ는 음성 모음이다. ㅣ는 중립 모음이다. 이 세 가지 종류의 기본 모음을 바탕으로 나머지 모음자들을 만들었다. 천지인으로 어떻게 나머지 한글 모음들을 만들어 내었는지에 대해서는 훈민정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이곳에다가 그대로 옮겨서 현대국어로 풀이해 보겠다. “ㄱ은



·와 같지만 입을 오픈려서 내는 소리이고(ㄱ與・同而口臆) 그 모습은 ·와 一를 합쳐서 만들었다.(其形則・與一合而成) ㅏ는 ·와 같지만 입을 벌려서 내는 소리이고,(ㅏ與・同而口張) 그 모습은 ·와 一를 합쳐서 만들었다.(其形則ㅏ與・合而成) ㅓ는 一와 같지만 입을 오픈려서 내는 소리이고,(ㅓ與一同而口臆) 그 모습은 一와 ·를 합쳐서 만들었다.(其形則一與・合而成) ㅕ는 一와 같지만 입을 벌려서 내는 소리이고,(ㅕ與一同而口張) 그 모습은 一와 ·를 합쳐서 만들었다.(其形則ㅕ與・合而成)” ‘ㄱ’를 만들어내려면 천(·)과 지(一)를 합쳐야 한다. ‘ㅏ’를 만들려면 인(ㅏ)과 천(·)을 합치고 ㅓ는 지(一)와 천(·), ㅕ는 천(·)과 인(ㅏ)으로써 합성해 낼 수가 있다.

천지인을 이용하여 ‘ㄱ, ㅏ, ㅓ, ㅕ’를 만들고, 이것은 천지인에서 처음 나온 글자라 하여 초출자(初出字)라 부른다. 초출자에 ‘·’를 추가하여, ‘ㄲ, ㅋ, ㆁ, ㆆ’를 만들어 내었으므로 이것들은 재출자(再出字)라고 한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자: ·, 一, ㅏ. 초출자: ㄱ, ㅏ, ㅓ, ㅕ. 재출자: ㄲ, ㅋ, ㆁ, ㆆ.

모음을 한글의 자음 체계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기본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가획자: ㅋ, ㆁ, ㆆ, ㅈ, ㅊ, ㅌ, ㄷ, ㅎ. 이체자: ㄲ, ㄴ. 자음과 모음을 만드는 원리가 모두 체계적이면서도 평행적이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한글 자음의 기본자는 음성학적 사실에 기초하였다. 모음의 기본자인 천(·), 지(一), 인(ㅏ)도 음성학적인 성질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다. 기본자 두 개를 합성하여 초출자를 만들었다. 초출자도 양성(·, ㅏ), 그리고 음성의 ‘ㅓ, ㅕ’로 나누었다. 초출자에 기본자를 추가하여 재출자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글자도 음성적 특징에 따라서 양성(·, ㅏ), 음성의 ‘ㄲ, ㅋ’로 나누었다. 이처럼 한글의 자모들은 어느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없다.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글자마다 상호간의 연관성을 지닌 형태로 한글이 태어난 것이다.

2.5. 대왕의 발견

한글은 기본 자모는 고작해야 24자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을 기록하기 충분하다. 인간의 언어뿐만이 아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물소리, 짐승 소리 등등 사람의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들을 24자로도



넉넉히 적을 수 있다. 한글은 어찌하여 단 24자로도 세상의 소리들을 모두 적을 수가 있단 말인가? 세종은 어찌하여 한글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가?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음절을 바탕으로 이것을 분석하는 전통이 있었다. 한자의 체계에서는 한 음절을 2등분한다. 그것을 반절이라 불렀다. 예를 들어 동(同)이라는 한자음을 중국사람들이 표시할 때에는 ‘ㄷ(德)’과 ‘옹(紅)’으로 양분한다. 한글의 초성에 해당하는 ‘ㄷ’을 중국에서 성모(聲母)라 부르고, 한글의 중성과 종성에 해당하는 ‘옹’과 같은 부류는 운모(韻母)다.

세종은 중국의 양분법에서 나아가 음절을 더욱 정밀하게 관찰하였다. 특히 중국의 운모를 면밀히 관찰하였다. 그리하여 운모에는 모음과 자음이 함께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운모가 분석불가능한 하나의 단위가 아니라 둘로 쪼갤 수 있다는 것임을 뜻한다. 운모를 더욱더 기초적인 단위로 분석해 낸 것은 세종 대왕이시다. 그리하여 세종은 한 음절을 삼등분하게 된다. 음절의 구조를 연구하는 언어학 분야에서 세종은 중국의 2분법을 극복하고 3분법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세종은 쪼개진 세 가지 소리에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첫소리(초성), 가운뎃소리(중성), 나중소리(종성)이다. 음절을 세 가지로 분석해 낸 다음에 세종은 더욱더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세종은 쪼개진 세 가지 종류의 소리들을 관찰해 보고 소리 실험을 해보았더니 나중소리가 첫소리와 언어학적으로 동일한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과학적 발견이었다. 세종 이전에는 그 어떤 언어 과학자도 한 음절이 초성, 중성, 종성과 같은 세 가지 부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성과 종성은 위치만 다를 뿐, 소리의 성질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해 낸 적이 없었다. 중성의 발견이란 세종 이전에 없었다. 중성을 오늘날의 언어학 용어로는 모음이라고 한다. 운모 속에 모음과 자음이 섞여 있었으므로, 운모를 분석해 낼 줄 몰랐던 중국의 언어학자들은 모음이 독립된 하나의 소리 단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모음의 발견도 대단한 것이지만 세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첫소리와 나중소리가 같은 부류의 소리임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말소리가 자음과 모음이라는 기초적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을 뜻한다. 중국의 언어학자들도 ‘성모’를 알고 있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자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모’ 속에 섞여 있는



자음에 대해서는 인식을 할 수가 없었다. 세종이 최초로 밝혀낸 과학적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음절은 초성과 중성, 종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초성과 종성은 동일한 부류의 소리다. 세종은 15세기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언어 과학자였다. 세계 최초로 자음과 모음을 명확히 구분해 내고 그것을 문자 체계로서 구현한 과학자는 세종대왕뿐이다. 세종이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증거는 ‘훈민정음’이라는 책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께서 직접 지으신 ‘훈민정음’의 한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종성은 초성을 다시 사용하니라(終聲復用初聲).” 종성부용초성은 초성과 종성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초성과 종성의 동일성이 확인되자, 음절을 이루는 소리의 종류에는 초성과 중성 두 가지만 남게 되었다. 알파벳을 자모 문자라 부른다. 이것은 자음과 모음을 표현하는 문자이기 때문이다. 한글도 자모 문자이다. 초성은 자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중성은 모음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세종이 소리글자를 처음으로 발명한 것은 아니다. 알파벳은 세종 이전에 존재하였다. 한자도 소리글자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한자의 3요소는 ‘형·음·의’다. 그 중 하나가 음(소리)이다. 한자로도 얼마든지 소리를 표시할 수 있으니 한자도 소리글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자는 뜻글자이면서 소리글자의 역할도 한다. 인간의 목소리를 최초로 분석한 것도 세종이 아니다. 한자에는 반절이 있다. 그것은 소리를 2개로 분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반절로 한자의 음을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의 언어학적 업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소리의 단위인 음절을 3개로 분석한 것이다. 그리하여 모음의 실체를 밝히고, 초성과 종성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 둘을 자음이라는 하나의 범주 속에 묶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언어학적 인식을 문자론적으로 구현한 것이 바로 한글이다. 과학적 발견이 선행되지 않았더라면 24자의 한글 자모는 만들어 낼 수가 없었다.



3. 그럼에도 가지지 않는 의문

- 1) 자음자와 모음자를 구분하여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가?
- 2)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 뜬 자음자들의 설명에 일관성이 있는가?
- 3) 이른바 이체자들에 대한 이해의 태도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가?
- 4) 모음자의 기본자와 초출자 그리고 재출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
- 5) 일반 백성을 위하여 만들 훈민정음이 일반 백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겠는가?
- 6)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문자생활 즉 이두, 구결, 향찰 등의 사용 경험은 무시되어도 좋은 것인가?
- 7) 중국 주변의 나라들에서 이미 만들어 사용하였던 음소문자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인가?

4. 답을 찾아가는 길, 《훈민정음》으로부터.

4.1. ‘해례본’과 그 내용

4.1.1. 『훈민정음해례본』 해제

1443년(세종25) 12월에 중세국어의 음운을 분석하고 이의 문자화, 곧 ‘훈민정음’ 창제에 성공한 세종은 그 필자들로 하여금 이 새로운 문자를 위한 해례서를 편찬케 하였다. 이 해례서는 한문으로 되어 있으며 1446년(세종28) 9월 상한(상순)에 완성되었으며, 그 책 이름은 새로운 문자와 똑같은 『훈민정음』이었다.

내용은 세종어제 서문과 새로운 문자의 음가 및 운용법을 밝힌 ‘예의’편이 본문처럼 되어 있고, 이를 해설한 ‘해례’편이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의 순으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권말에 정인지의 서문이 실려 있다. 정인지의 서문에 “계해 겨울(1443, 세종 25)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히 예의를 들어 보이시고(癸亥冬 我殿下 創



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라는 구절이 있어, 훈민정음 본문을 흔히 ‘예의’편이라고 하고, 새 글자인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친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훈민정음해례본』의 현존본은 1940년 경상북도 안동군 주하리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고 이한걸 씨 소장본이다. (현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 70호이며,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이다.) 아직까지는 국내 유일본으로서 판광은 가로 16.8cm, 세로 23.3cm다. 예의 부분은 매 페이지 7행에 매 행 11자, 해례 부분은 매 페이지 8행에 매 행 13자이며, 정인지의 서문은 한 자씩 낮추어서 매 행 12자가 되었다. 이 책도 원래 완전한 것이 아니고 첫머리 두 장이 낙장되어 있던 것을 나중에 붓글씨로 적어 넣은 것인데, 적을 때 실수하여 세종어제 서문의 끝자를 ‘耳’로 쓸 것을 ‘矣’로 쓰고 말았다.

이 책의 집필자는 정인지·신숙주·성삼문·최항·박팽년·강희안·이개·이선로 등 8인인데 ‘해례’편이 있다고 해서 책 이름을 『훈민정음해례본』 또는 ‘원본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4.1.2. 『훈민정음해례본』의 구성

- ① 세종어제 서문 : 훈민정음 창제의 표면적, 일면적인 이유와 동기가 충분히 나타나 있다.(國之語音, 言語, 낙장의 다섯 오류)
- ② 본문(예의) : 글자의 음가를 우선 한자로써 보인 부분이며, 문자의 서사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종성, 병서, 연서, 부서, 순경음, 방점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 ③ 제자해 : 훈민정음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제자원리, 발음법, 음가 등을 설명하였다. 제자원리 등에 있어서는 음양오행설 등을 근거로 하였으나, 모음 문자의 음가 설명 등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면이 많다.
- ④ 초성해 : 초성의 정의 및 용례를 제자해를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중성해 : 중성의 정의 및 용례를 제자해를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⑥ 종성해 : 종성의 정의 및 용례를 제자해를 보충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⑦ 합자해 : 초, 중, 종성 문자가 실지로 사용될 때의 합자에 대한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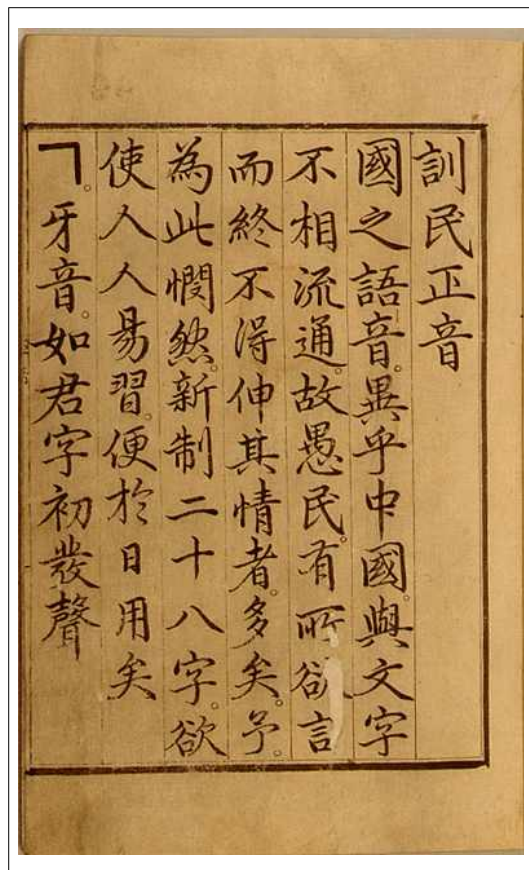


정으로서 25개의 어휘를 예를 보이고 있다. 병서, 연서, 부서, 순경음, 사성 등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 ⑧ 용자례 : 실제 어휘 표기상의 실례를 보인 것으로 여기에 94개의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 ⑨ 정인지의 발문 : 세종의 총명함, 정음의 우수성, 집협전 학자의 이름, 연호(정통11년 -중국 명나라의 연호)에 대해 나와 있다.

4.1.3. 『훈민정음해례본』의 내용 몇 가지

1) 첫 장의 오류





2) 해례(정인지 서)의 다음 구절에 대한 이해

癸亥冬 我 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象形而字倣古篆 因聲而音叶七調 三極之義 二氣之妙 莫不該括(계해년 겨울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보이시고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지으셨다. 이 글자는 상형해서 만들되 중국의 고전을 본떴고, 소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음은 칠조에 맞고, 삼재의 뜻과 이기(음양)의 묘가 다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다.) <훈해61-2>

참고: ‘정인지 서문’ 요약

‘정인지 서문’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맨 끝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맨 앞에 있는 세종대왕의 서문과 구별하기 위하여 ‘정인지 후서’라고도 한다. 이 서문은 세종 28년 9월조(『세종실록』 권113 36장 ab부터 37장 a까지)에 세종어제서문, 훈민정음본문(예의편)과 함께 게재되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1940년에 안동 지방에서 발견되기 전부터 학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다. 특히 이 서문에는 훈민정음의 창제에 관하여 ‘象形而字倣古篆’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있어 서, 훈민정음이 ‘古篆文字’를 모방하여 창제되었다는 학설을 꾸준히 뒷받침 하고 있다.

이 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옛사람이 만든 문자(한자)를 후세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 ② 그러나 지리적 조건이 다르면 사람의 발음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도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고유문자가 없다고 한자를 빌려 쓰고 있으니 제대로 될 이치가 없다.
- ③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이 중국과 견줄 만하나 중국과 언어가 다른데도 한자·한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책을 공부하는 이는 그 뜻을 깨우치기 어려워하고 죄인을 다스리는 이는 한문으로 기록된 내용을 모른다.
- ④ 신라 때부터 써 온 이두가 불편하고 실지 언어생활에서는 만분지일도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
- ⑤ 그래서 1443년(세종 25) 겨울에 세종께서 정음 28자를 만들고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이시었다.



- ⑥ 상형해서 글자를 만들었는데 중국의 고전 문자와 비슷하다.
- ⑦ 불과 28자지만 얼마라도 응용이 가능하다.
- ⑧ 배우기 쉬워서 하루아침, 또는 열흘이면 익힐 수 있다.
- ⑨ 이 글자가 창제되어 한문책의 뜻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죄인(罪人)의 뜻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한자음도 분명해졌고, 음악도 음계가 고르게 되었으며, 바람 소리, 닭 울음 소리도 다 적을 수 있게 되었다.
- ⑩ 이 책을 편찬한 사람은 최항 등 8명이다.
- ⑪ 이 글자는 순전히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창안에 의하여 창제된 것이다.

4.2. ‘언해본’과 그 내용

4.2.1. 『훈민정음언해본』 해제

훈민정음의 언해본(주석본 또는 국역본)은 현재 월인석보의 卷頭に 실려 전한다. 원간본의 본문을 번역한 것이다. 치두정치음의 규정이 추가되고 내제인 「世宗御製訓民正音」이 있는 張1에 약간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두정치음의 추가는 원간본보다 이 책이 늦게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張1의 변경은 이 월인석보보다 앞선 책에 언해본이 실려 있었음을 말한다. 지나친 추론은 금물이지만, 월인석보가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合編이므로 석보상절의 권두에도 이 언해본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예컨대 「글와(文), -귀」등, 언해본의 특징적인 언어사실이 석보상절의 그것과 합치함도 이를 뒷받침 한다.

언해본의 원간본은 서강대도서관과 육당문고(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다. 육당문고본은 단행본으로, 고 박승빈씨 구장본인데 張1이 보사되고 張2 이하도 부분적으로 보사되었다. 補寫 부분을 제외하면 지질은 물론이고 印面의 字樣, 版式의 細部까지 서강대학본에 일치한다. 따라서 월인석보의 권두에서 분리하여 따로 제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밖에 언해본의 중간본은 1572년(선조 5)의 회방사 복각본 월인석보로써 널리 알려져 있다. 훈민정음의 영인은, 해례본이 1946년 한글학회(당시 조선어학회), 언해본의 완전한 원간이 1972년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낙장인 원간본과 그 중간본이 1932년 계명구락부에서 처음 행해진 것을 비롯하여 누차에 걸쳐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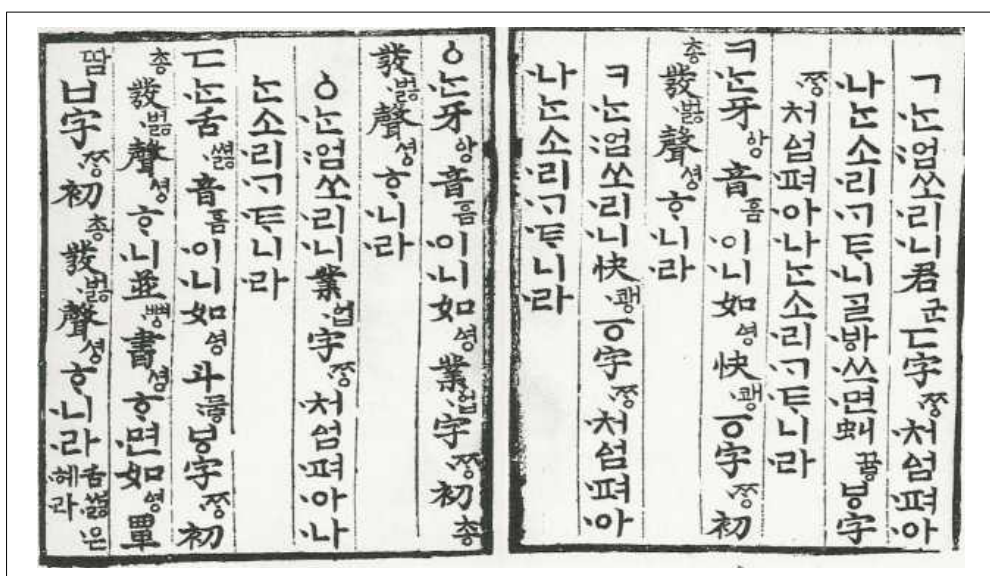


러 곳에서 간행되었다.

4.2.2. ‘언해본’에 대한 관심

- ① 말과 말씀
- ② 글자의 이름
- ③ 치두음과 정치음, 월인석보







참고 1: 남북의 차이(자모 이름, 자모 배열 순서)

1. 한글맞춤법

제 4 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귤)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을)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ㅊㅊ(쌍기역)	ㄸ(쌍디귤)	ㅃ(쌍비읍)	ㅆ(쌍시옷)	ㅊㅊ(쌍지읒)	
ㅞ(애)	ㅟ(애)	ㅠ(예)	ㅡ(예)	ㅤ(와)	ㅥ(왜)
ㅢ(외)	ㅦ(위)	ㅧ(웨)	ㅨ(위)	ㅩ(의)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ㅝ	ㅟ	ㅠ	ㅡ	ㅤ	ㅥ	ㅢ
	ㅦ	ㅧ	ㅨ	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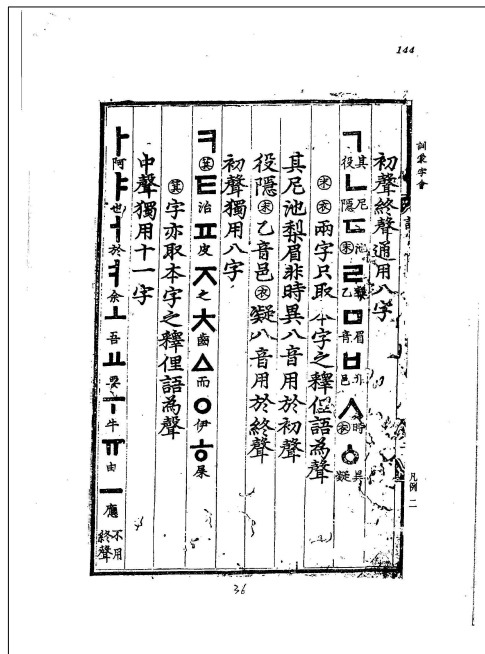
2. 조선말규범집

제1항 조선어자모의 차례와 그 이름은 다음과 같다.

ㄱ(기읍) ㄴ(니은) ㄷ(디은) ㄹ(리을) ㅁ(미읍) ㅂ(비읍) ㅅ(시읏)
 ㅇ(이응) ㅈ(지읏) ㅊ(치읓) ㅋ(키읍) ㅌ(티을) ㅍ(피읖) ㅎ(히읇)
 ㅊ(된기읍) ㅊ(된디은) ㅊ(된비읍) ㅊ(된시읏) ㅊ(된지읏)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ㅞ(에) ㅟ(예) ㅠ(에) ㅡ(예)
 ㅢ(외) ㅣ(위) ㅤ(의) ㅥ(와) ㅦ(워) ㅧ(웨) ㅨ(웨)
 자음글자의 이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부를수도 있다.

(그) (느) (드) (르) (므) (브) (스) (응) (즈) (츠) (크) (트) (프) (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참고 2: 훈몽자회에서의 자모 이름





5. 훈민정음이 훌륭한 문자인 근거

1) 표의문자, 음절문자 그리고 음소문자의 특징

당시 중국의 운학에서의 음절 분석(성모와 운모)과 훈민정음에서의 음절 분석(초성, 중성, 종성)

참고: 한자의 수와 독음의 수

2) 음소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운용 방식

풀어쓰기, 모아쓰기(음소적 원리, 형태음소적 원리)

6. 훈민정음과 한자의 관계

1) 훈민정음과 한자의 관계에 대한 세종의 생각 1: 文與諺雜用則有因字音而補以中終聲者 如孔子 | 魯人 사름之類 <훈해49>

2) 훈민정음과 한자의 관계에 대한 세종의 생각 2: 龍飛御天歌, 月印千江之曲, 釋譜詳節

7. 세종의 의도와 우리의 선택 - 문자의 본질적인 기능

1) 공간적 제약의 극복

2) 시간적 제약의 극복

3) 훈민정음의 효용과 한계에 대한 인식



협력적 의사소통

1.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

1.1. 의사소통의 정의

의사소통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지 말을 한다는 것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통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화자	청자
(개념→말소리) 소리 내기	듣기(말소리→개념)
코드화	메시지 코드 해독

1.2. 화자와 청자

대화의 요소는 화자와 청자 그리고 메시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화자와 청자는 고정적으로 결정된 역할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대화에서 이야기되는 화제가 계속 이어짐과 동시에 상대방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응대어를 구사하여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토대로 하여,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항상 순환되고 있다. 따라서 대화에서는 말하며 듣고, 들으며 말하는 역할이 계속 바뀐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어서 화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와 청자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

말을 조음해서 발화해야 하는 화자는 가능한 한 쉽고, 편하고, 간단한 언어 표현을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경제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거기에 비해서 발화를 지각해야 하는 청자는 뜻을 식별해야 하고, 의



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별성의 원리를 요구한다.

또한 화자는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만 말하려고 하고, 청자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 한다. 심지어는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부분만을 가려듣기도 한다.

이러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립은 대화의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대화는 자기중심적이 되려고 하는 욕구를 어떻게 조절하여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느냐의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된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화자는 청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화자이고, 가장 이상적인 청자는 화자의 관점을 가장 잘 고려하는 청자이다.

1.3. 메시지와 메타-메시지

언어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것을 ‘음성 언어’라고 한다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몸짓, 표정, 목소리 등을 포괄적으로 ‘동작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사용하는 동작 언어들도 있지만 어른들의 언어 행위 안에도 많은 동작 언어들이 사용된다. 사람들은 모두 온몸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음성 언어로 전달하는 정보를 ‘메시지’라고 하고 동작 언어와 환경 요소까지를 포괄하여 전달하는 정보는 ‘메타-메시지’라고 한다.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타-메시지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극단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사소통에서 말의 내용이 전달하는 정보는 7%, 목소리나 억양이 전달하는 정보가 38%, 몸동작을 포함한 비언어적 요소가 전달하는 정보가 55%에 이른다(Mehrabian, 1972).

1.3.1.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는 개별성을 갖는다. 성문(聲紋, voice print)을 가지고 범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음질이 다르다. 목소리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식별할 수 있고, 노인인지 어린이인지



도 구별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 상태나 성격, 정서 상태 등도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의 목소리는 가변적이다. 상황에 따라 목소리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목소리를 바꾸는 요소인 소리의 길이, 세기, 높이 등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 말의 속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따라서 목소리를 단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목소리는 온도도 가지고 있다. 차가운 목소리는 냉담함과 무관심을 나타내고, 따스한 목소리는 관심과 애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대화할 때 들리는 상대의 목소리는 상대의 감정을 나타내는 신호판이다.

1.3.2. 근접 거리

대부분의 동물은 그들 신체 주변의 일정한 공간을 개인적{개별적} 공간으로 주장한다. 아프리카 밀림의 사자는 반경 50km 이상을 개별적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감금되어 사육된 사자는 아주 좁은 공간을 개별적 공간이라고 받아들인다.

고슴도치는 겨울을 나기 위해 추위를 느끼면 서로 접근하여 모여든다. 그러다가 서로의 가시에 찢리면 다시 뒤로 물러가고, 추위를 느끼면 다가오기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에게에도 나타난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남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거리, 즉 최적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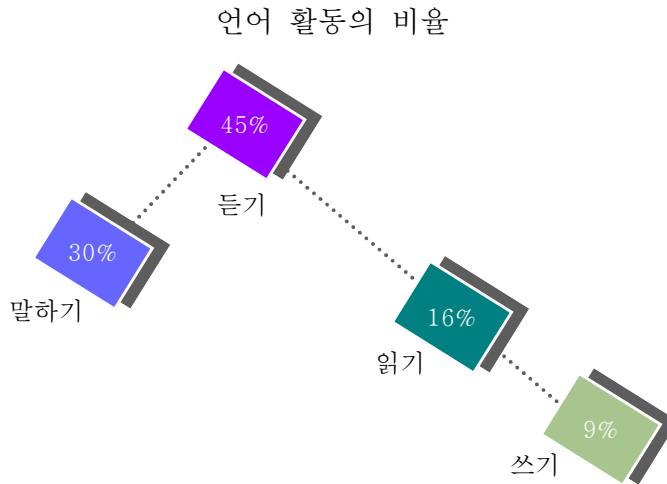
근접 거리는 다음과 같은 4등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Pease, 1987).





2. 효과적으로 듣기

2.1. 듣기의 유형



2.1.1. 듣기 미숙

일상적인 언어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듣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통 장애는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부정하면서 듣기 때문에 일어난다. 스스로 열심히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난 직후에 들은 것의 반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한다. 더구나 들은 지 8시간 내에 자기가 들은 것의 절반 이상을 잊어버리고, 두 달 후에는 들은 것의 25%만 기억한다.

2.1.2. 듣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 ① 듣기가 자연적인 과정이라고 믿는 것이 문제이다.
- ② 소리를 듣는 것과 의미를 듣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 ③ 듣는 사람들이 가진 관심과 욕구와 동기가 다르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2.1.3. 의미 듣기와 의도 듣기

- ① 의미 듣기: 표현된 말의 단어나 문법을 통해 말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다.
예) 국어원이 어딘지 아세요?
예, 알아요. (그냥 지나간다.)
- ② 의도 듣기: 표현된 말을 넘어 숨겨진 메타-메시지를 찾고 말하는 사람의 속마음을 해석하는 것이다.
예) 국어원이 어딘지 아세요?
예, 길 건너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2.2. 공감적 경청

2.2.1. 듣기의 다섯 가지 수준

- 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전혀 듣지 않는다.
- ② 경청의 표지를 사용하면서 듣는 척만 한다.
- ③ 선택적으로 듣는 것으로, 대화에서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듣는다.
- ④ 신중한 경청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충력을 기울여서 듣는다.
- ⑤ 가장 고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인 공감적 경청을 한다.





2.2.2. 공감하며 듣기

- ① 공감적 경청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즉 진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다.
- ②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경우 우리는 귀로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눈과 가슴으로 듣는다.
- ③ 상대방이 생각하는 틀 속으로 들어가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 ④ 상대방의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거나 확인하는 종류의 언어적 반응을 한다.
- ⑤ 상대방의 메시지를 재구성해서 되돌려 준다.

3. 효과적으로 말하기

3.1. 대화의 특징

3.1.1. 순서 교대

대화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인 화자와 듣는 사람인 청자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역할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밝히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술이다.

첫째, 대화에서는 반드시 순서 교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너무 길게 하거나 대화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자신의 대화가 문장 단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을 더 짧게 두어서 이어지는 대화임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라도 너무 길게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자신의 말이 끝나갈 때는 다음 화자를 지목해 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호칭어를 사용하거나 시선, 억양 등을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좋다.



넷째, 자신이 명시적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대화가 단절되고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는 이야기 되고 있던 화제가 더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할 화제라고 판단되면 하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조금 더 부연하다가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신호를 보내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화제이거나 충분히 이야기되었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화제로 바꾸고 다음 화자를 지목하는 신호를 보낸다.

다섯째, 현재 화자가 다른 사람을 다음 화자로 지목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대화에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다음 화자가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서 침묵이 흐르거나 대화 분위기가 경색될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말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현재 화자가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화를 자르거나 가로채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곱째, 현재 화자가 다음 화자를 지목하지 않았을 때는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아 결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화에 참여한다. 어떤 대화에도 정해진 순서는 없지만, 여러 계층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서열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덟째, 다른 모든 참여자들이 대화를 했는데도 적당한 순서를 발견하지 못해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화에 끼어들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화 참여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특정인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열심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시선을 주는 등의 동작 언어를 다소 과장되게 사용할 필요도 있다.

3.1.2. 대화의 중복

현재 화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화자가 말을 시작해서 둘 이상의 화자가 얼마간 동시에 말을 하는 경우가 대화의 중복이다. 대화의 중복이 일어나면 대체로 대화의 흐름이 깨지고 대화자들이 긴장하게 되지만 대화 방식에 따라서는 중복이 나타나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첫째, 대화에서 중복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니므로 중복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고의적으로 남의 말 가운데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둘째, 대화의 중복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대화를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화를 중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한 중복인지, 고의적인 방해인지, 반응 발화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셋째, 우연한 중복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중요한 말이 아니라면 끼어든 사람이 대화를 멈추는 것이 좋다.

넷째, 고의적인 방해의 경우는 방해가 일어난 대화 상황의 원인을 분석해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화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는 화제를 오래 붙잡고 있었거나, 혼자서 대화를 오래 독점한 경우는 끼어든 화자에게 대화를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습관적으로 남의 말은 자르거나 불필요하게 끼어든 경우라면 상대를 무시하고 하던 대화를 계속해 가는 것도 무방하다.

다섯째, 중복이 일어났을 경우 상대방의 대화 습관을 고려해서 적극 관여형의 사람이 끼어든 경우는 반응 발화로 간주하고 하던 대화를 계속해 나가도 되지만, 중복 자체를 방해로 받아들이는 심시숙고형의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가급적 끼어들거나 반응 발화를 피하는 것이 좋다.

3.2. 대화의 원리

대화의 원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학자는 그라이스(Paul Grice)이다. 그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는 데 어떤 묵시적인 지침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을 격률(maxims)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Grice 1975, 1978). 그라이스는 먼저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협동의 원리와 네 가지 기본 대화 격률을 제시하였는데, 이것들은 대화의 결속성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3.2.1. 협동의 원리(The Co-operative principle)

협동의 원리는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상호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는 반드시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향한다고 생각되는 목적이나 방향의 요구에 합치되도록 말을 한다는 것이다. 화자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는 협동의 원리를 준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대화의 방법이 된다.

3.2.2. 양의 격률(The maxim of Quantity)

양의 격률은 필요한 양만큼의 정보성만을 제공하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성을 가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3.2.3. 질의 격률(The maxim of Quality)

질의 격률은 진실성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타당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3.2.4. 관련성의 격률(The maxim of Relevance)

관련성의 격률은 적합성이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다. 적합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는 최소한 주어진 주제와 관련이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이다.

3.2.5. 방법의 격률(The maxim of Manner)

방법의 격률은 한마디로 간단·명료하라는 것이다. 방법의 격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표현의 모호성을 피하라.

둘째, 중의성을 피하라.

셋째, 간결하게 말하라.

넷째, 조리 있게 순서대로 말하라.

3.3. 나-전달법


3.3.1. 나-전달법의 개념

대화에서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화 방법으로는 ‘나-전달법’(I-message)이 있다. 나-전달법이란 주어가 일인칭인 ‘나’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대화 방법을 말한다. 대부분 대화를 가로막는 대화의 걸림돌들은 주어가 ‘너’로 시작하는 ‘너-전달법’이다.

문제 상황에서 상대방의 문제에 관해 상대방을 주어로 이야기하는 너-전달법은 직접적이어서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대화에서 많은 역작용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을 갖게 되고, 도덕적 훈계나 설교, 강의, 지시를 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너-전달법은 강압 때문에 선택 기회가 없어지게 하고, 반발적인 행위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직접성을 간접화하는 방법이 주어를 ‘나’로 바꾸는 나-전달법이다. 상대방인 ‘너’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인 ‘나’의 관점으로 바꾸어 이야기하



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체면이 손상되지도 않고, 화자의 심정이나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전달 효과도 더 확실해져서 효과적인 대화 방법이 된다.

너-전달법과 나-전달법의 전달 과정		
메시지	코드	코드 해독·과장
	과장님, 어쩔 제 사정은 묻지도 않고 화를 내세요?	‘과장은 나쁜 사람이다.’
	저는 과장님이 제 사정을 묻지도 않고 화를 내셔서 서운했습니다.	‘윤계장은 서운하다’

3.3.2. 나-전달법의 세 가지 요소

나-전달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첫째, 문제를 유발하는 상대의 행동은 무엇인가? 둘째,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셋째, 나는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요소는 행동을 서술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이 섞이지 않은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그 행동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명백하고 구체적인 영향을 인식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이다.

두 번째 요소는 그 행동이 주는 구체적인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는 영향을 밝혀야지만, 상대방은 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요소는 그 결과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밝히는 것이다. 상대방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향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예를 들자면 실망, 분노,



슬픔, 당황, 걱정, 두려움 등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3.4. 대화의 내용: 인간관계 지능

3.4.1. 대화의 단계 (Powell, 1969)

1단계: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말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준의 대화이다.

Peak Communication / 필요(Needs)

2단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의 대화이다.

Gut-level Communication / 느낌(Feelings)

3단계: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준의 대화이다.

Evaluative Communication / 견해(Opinions)

4단계: 사실 보고 수준의 대화이다.

Factual Communication / 사실(Facts)

5단계: 틀에 박힌 습관적인 대화이다.

Phatic Communication/ 상투어(Cliche)

3.4.2. 인간관계 지능

감성 지능, 다중 지능 등과 같이 인간관계 지능은 스테판 그로스(Stefan F. Gross, 1997)에서 제시되었다. 인간관계 지능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화를 할 때 감사, 칭찬, 존중의 말을 많이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평, 비난, 무시를 많이 하는가에 따라 관계 지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감사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불평**이다.

칭찬은 상대방에게 힘과 동기를 부여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비난**이다.

존중은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는 대화법이고, 이 반대가 **무시**이다.

3.4.3. 정중어법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을 언어학자들은 ‘정중어법’ 또는 ‘공손법(Politeness Principle)’이라고 하였다. 정중어법이란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Leech 1983). 정중어법이란 한 마디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상대방 중심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이고, 자기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표현하려는 것을 말한다.

(1) 요령의 격률

요령의 격률(Tact maxim)이란 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청자에게 혜택을 베푸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2) 관용의 격률

관용의 격률(Generosity maxim)은 요령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3) 찬동의 격률

찬동의 격률(Approbation maxim)은 청자를 비난하거나 트집을 잡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청자를 칭찬하고 맞장구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4) 겸양의 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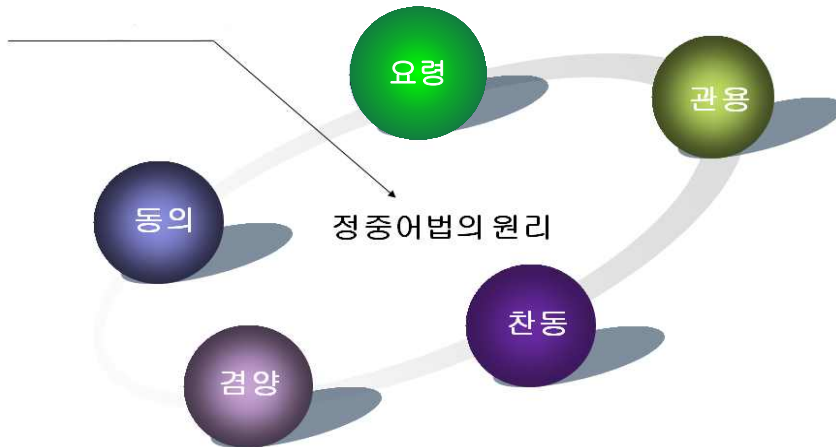
겸양의 격률(Modesty maxim)은 찬동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화자 자신을 칭찬하는 말은 최소화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말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5) 동의의 격률

동의를의 격률(Agreement maxim)이란 상대방과 불일치하는 표현은 최소화 하고, 상대방과 일치하는 표현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Leech(1983) Politeness Principle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나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동의 한 유형이다. 그 행동은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쓰다듬는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야가와’는 말의 이러한 두 측면을 으르렁거리는 말(snarl-words)과 가르랑거리는 말(purr-words)로 나누었다(Hayagawa 1978). 이런 점에서 한 마디의 대화가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공격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청자의 관점에서는 화자가 말을 통하여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말은 그냥 듣고 흘릴 수 없는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대화는 탁구와 같이 빈번한 움직임이 상호 간에 오고 가는 행동이다. 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대화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반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한 고난도 게임인 것이다.



참고 문헌

- 구현정. 2009[1997]. 대화의 기법, 도서출판 경진.
- Grice, H. Paul. 1975. Logic and conversation, Cole, P. and Morgan, J. L. (eds.), *Syntax and Semantics 3 Speech acts*, 41-58,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78. Further Notes on logic and conversation, Cole, P. (ed.), *Syntax and Semantics 9 Pragmatics*, 113 - 128. New York: Academic Press.
- Gross, F. Stefan. 1997. *Beziehungs intelligenz*, 박정미 역, 2000. 인간관계지능, 청년정신.
- Hayakawa, S. 1978. *Language in thought and action*, Fourth edition,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Leech, Geoffrey.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Mehrabian, Albert. 1972. *Nonverbal communication*. Chicago, Illinois: Aldine-Atherton.
- Pease, Allen. 1987[1981]. *Body language: How to read other's thoughts by their gestures*, London: Sheldon Press.
- Powell, John. 1969. *Why am I afraid to tell you who I am?* Niles, IL: Argus Communications.
- Satir, Virginia. 1972. *People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국어 정보 활용 방법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의 국어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제공된 정보를 소개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들어오면 정면에 국어사전 검색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1999년에 표제어·뜻풀이·용례 등 모든 부문에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범을 적용하여 ‘표준국어대사전’을 만들었다. 이 사전은 총 3권의 종이 사전으로 출간되었으며 2001년에는 컴퓨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사전(CD 형태)으로 보급되었다. 그리고 사전의 오류를 수정하고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2008년에 사전을 개정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제공되고 있는 사전이다.

1.1 사전 정보

사전에는 단어의 뜻뿐만 아니라 단어에 대한 여러 정보가 실려 있다. ‘가리키다’를 예로 들어 사전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검색 칸에 ‘가리키다’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뜬다. ‘가리키다’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가리키다’와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가르치다’와 관련이 있는 있다. 이 둘은 소리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 01과 02로 나뉜 것이다.





‘가리키다02’는 뜻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가르치다01.”로 되어 있다. 이는 ‘가리키다02’는 ‘가르치다01’로 가라는 뜻으로, ‘학생을 가리키는 선생님’과 같이 쓰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다음으로 ‘가르치다01’을 통해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살펴보자.

1) **발음** : 단어의 발음을 알려준다. ‘가리키다’ 옆에 ‘발음 듣기’를 누르면 그 단어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이 ‘발음 듣기’ 정보가 모두 제공되는 것은 아니나, 표기와 발음이 다를 경우 단어 옆에 발음을 제시해 두었다.

안다01 [안 : 따] / 찾다[찾따]

2) **활용 정보** : 동사나 형용사에 어미가 연결되면 모습이나 발음이 바뀌는데, 이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사전에서는 ‘가리키다’의 어간에 ‘-어’가 연결되면 ‘가리키어’가 되고 이것이 ‘가리켜’로 된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가리키어’가 [가리키어]나 [가리키여]로 소리가 난다는 것도 알려 준다. 이와 달리 명사 뒤에 조사가 연결될 때도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활용 정보에서 알려 준다.

꽃01 [꽃이[꼬치], 꽃만[꼰-]]

3) **품사** : 단어의 품사(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등)가 무엇인지 알려 준다. ‘가리키다’의 품사는 ‘동사’임을 알 수 있다.

4) **문형** : 단어가 동사나 형용사일 때 어떤 문장 성분과 함께 쓰이는지 알려 준다. ‘가리키다’의 경우 ‘북쪽을 가리키다, 네 시를 가리키다, 사람을 가리키다’ 등과 같이 반드시 ‘~을’과 함께 쓰이므로, 문형 정보에



서 【…을】 을 제시하고 있다.

- 5) 뜻풀이와 용례 : 사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단어의 뜻과 그 용례를 알려 준다. 실례 뒤에는 그 출전을 밝혔다.
- 6) 어원 : 단어가 15~17세기 문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알려 준다. 최초로 나타난 형태를 제시하며 그 형태가 바뀌면 함께 제시한다. ‘가리키다’는 “석보상절”에서 ‘ᄭᆞ치다’로 처음 나타났으며, ‘ᄭᆞ치다’가 ‘ᄭ치다’를 거쳐 ‘가르키다’로 형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2. 사전 검색 방법

누리집에서는 ‘?(물음표)’와 ‘*(별표)’를 이용하면 단어를 찾을 때 좀 더 쉽게 단어를 찾을 수 있다. ‘?(물음표)’는 해당 글자를 모를 때 사용할 수 있다. 글자 한 개를 모르면 ‘?’, 글자 두 개를 모르면 ‘??’, 글자 세 개를 모르면 ‘???’처럼 글자 수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와 달리 ‘*(별표)’는 글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단어들을 찾아준다. 만약 ‘인사말’인지 ‘인삿말’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인?말’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만약 ‘인*말’로 검색하면 ‘인’으로 시작하고 ‘말’로 끝나는 모든 단어를 검색한다. 참고로 ‘?’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으나 ‘*’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인?말’ 검색 결과	‘인*말’ 검색 결과
<div data-bbox="230 1251 495 1275" style="border: 1px solid #00a0e3; padding: 2px;">‘인?말’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2건)</div> <div data-bbox="219 1290 326 1309" style="background-color: #e6f2ff; padding: 2px;">인사-말(人事-)</div> <div data-bbox="219 1311 273 1329" style="padding: 2px;">「명사」</div> <div data-bbox="219 1331 498 1350" style="padding: 2px;">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div> <div data-bbox="219 1362 326 1381" style="background-color: #e6f2ff; padding: 2px;">인삿-말(人事-)</div> <div data-bbox="219 1383 273 1402" style="padding: 2px;">「명사」</div> <div data-bbox="219 1404 288 1421" style="padding: 2px;">→ 인사말.</div>	<div data-bbox="646 1193 841 1213" style="background-color: #e6f2ff; padding: 2px;">‘인*말’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6건)</div> <div data-bbox="642 1219 707 1234" style="padding: 2px;">인말이(人米)</div> <div data-bbox="642 1236 686 1253" style="padding: 2px;">「대명사」</div> <div data-bbox="642 1238 1142 1257" style="padding: 2px;">주로 편지글에서, 말하는 이가 이질(異族)이나 처조카에게 자기를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즉인하(卽下)하다.</div> <div data-bbox="642 1259 707 1277" style="padding: 2px;">인말(人末)</div> <div data-bbox="642 1278 707 1296" style="padding: 2px;">「명사」 「인숙」</div> <div data-bbox="642 1298 746 1315" style="padding: 2px;">인사(人事)의 끝 무렵.</div> <div data-bbox="642 1317 707 1335" style="padding: 2px;">인사-말(人事-)</div> <div data-bbox="642 1336 686 1354" style="padding: 2px;">「명사」</div> <div data-bbox="642 1356 843 1373" style="padding: 2px;">인사로 하는 말, 또는 인사를 차려 하는 말.</div> <div data-bbox="642 1375 707 1392" style="padding: 2px;">인삿-말(人事-)</div> <div data-bbox="642 1394 686 1412" style="padding: 2px;">「명사」</div> <div data-bbox="642 1414 686 1431" style="padding: 2px;">→ 인사말.</div> <div data-bbox="642 1433 707 1450" style="padding: 2px;">인종지말(人種之末)</div> <div data-bbox="642 1452 686 1470" style="padding: 2px;">「명사」</div> <div data-bbox="642 1472 1149 1489" style="padding: 2px;">사람의 씨 가운데 가장 늦은 것이라는 뜻으로, 태도나 형질이 사람답지 않고 막힌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div> <div data-bbox="642 1491 707 1508" style="padding: 2px;">인종지말(人中之末)</div> <div data-bbox="642 1510 686 1528" style="padding: 2px;">「명사」</div> <div data-bbox="642 1530 858 1547" style="padding: 2px;">사람 가운데 형질이나 인품이 제일 못한 사람.</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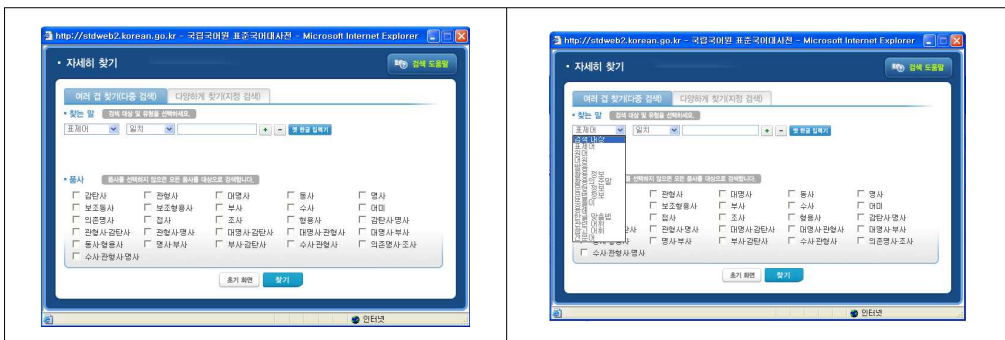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용구와 속담, 방언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속담은 일반적으로 그 속담의 첫 단어를 알아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속담의 일부분만 알아도 찾을 수 있도록 속담 검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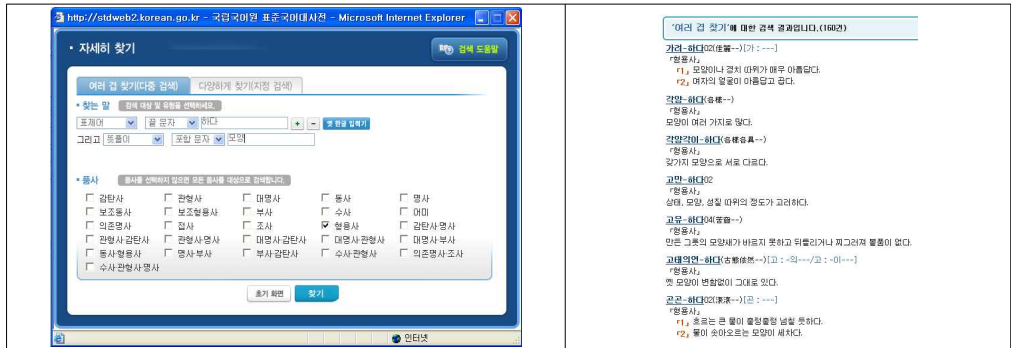
사전 화면 왼쪽에 ‘따로 보기’ 아래에 ‘관용구, 속담, 방언, 북한어, 고유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속담’을 누르면 속담을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온다. ‘표제어’에 ‘포함 문자’를 선택하고 찾고자 하는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가 포함된 모든 속담을 찾아 준다. 다음은 ‘말’이 들어간 속담을 검색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관용구’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화면으로 들어오면 검색 칸 옆에 ‘찾기’ 단추 외에 ‘자세히 찾기’ 단추가 있다. ‘자세히 찾기’란 검색 대상을 달리하거나 검색 조건을 세분하여 검색하는 기능으로, 이것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히 찾기’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원어, 발음, 뜻풀이, 용례 등도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 조건도 하나 이상 줄 수 있다. 가령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 중에서 뜻풀이에 ‘모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을 검색할 수 있다.



검색 대상을 우선 ‘표제어’로 설정하고 다음 조건은 ‘끝 문자’를 선택한 후 검색 칸에 ‘하다’를 입력한다. 이것은 ‘하다’로 끝나는 표제어를 찾으라는 뜻이다. 다음으로 ‘+’를 누르면 검색 조건식이 하나 더 나온다. 두 번째 조건식의 검색 대상을 ‘뜻풀이’로 두고 다음 조건을 ‘포함 문자’로 둔 후 검색 칸에 ‘모양’을 넣는다. 이것은 뜻풀이에 ‘모양’이 들어간 단어를 찾으라는 뜻이다. 그리고 품사 중 ‘형용사’를 선택한 후 ‘찾기’를 누르면, ‘하다’로 끝나는 형용사 중 뜻풀이에 ‘모양’이 들어간 단어들이 모두 검색된다.

2. 어문 규정

국민의 국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어문 규정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 있다. 이 네 가지 어문 규정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찾기 마당’의 ‘어문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① 한글 맞춤법		첫 화면 > 외가(대방) > 맞춤 규준 > 한글 맞춤법	② 표준어 규정		첫 화면 > 외가(대방) > 맞춤 규준 > 표준어 규정
<div>제1장 총칙</div> <div>제2장 지모</div> <div>제3장 소리에 관한 것</div> <div>제4장 형태에 관한 것</div> <div>제5장 띄어쓰기</div> <div>제6장 그 밖의 것</div> <div>부록</div>		<div>총칙</div> <div>지모</div> <div> <div>제1절 된소리</div> <div>제2절 구개음화</div> <div>제3절 'ㄷ' 받침 소리</div> </div> <div> <div>제1절 색인과 조사</div> <div>제2절 어간과 어미</div> <div>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div> </div> <div> <div>제1절 조사</div> <div>제2절 의존 명사, 단원형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div> <div>제3절 보조 용언</div> <div>제4절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div> </div> <div>그 밖의 것</div> <div>문장 부호</div>	<div>제1부 표준어 사용 원칙</div> <div>제1장 총칙</div> <div>제2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div> <div>제3장 어휘 산정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div> <div>제2부 표준어 발음법</div> <div>제1장 총칙</div> <div>제2장 자음과 모음</div> <div>제3장 음의 길이</div> <div>제4장 받침의 발음</div> <div>제5장 음의 통화</div> <div>제6장 경음화</div> <div>제7장 음의 참가</div>		<div>총칙</div> <div>제1절 자음</div> <div>제2절 모음</div> <div>제3절 준말</div> <div>제4절 외어</div> <div>제5절 접미</div> <div>제6절 접두</div> <div>제7절 단수 표준어</div> <div>제8절 복수 표준어</div> <div>총칙</div> <div>자음과 모음</div> <div>음의 길이</div> <div>받침의 발음</div> <div>음의 통화</div> <div>경음화</div> <div>음의 참가</div>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이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규정을 찾아 직접 표기해 볼 수도 있지만 ‘용례 찾기’를 통해 그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찾기’를 누르고 검색 칸에 원어나 한글 표기를 넣고 ‘찾기’를 누르면 원어의 바른 한글 표기를 알려 준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역시 ‘용례 찾기’를 누르고 검색 칸에 로마자로 표기하고 싶은 말을 넣으면 그 말을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알려 준다.

2 외래어 표기법

최화면 > 찾기마당 > 어휘, 용어정보 > 외래어 표기법

번호	원어 표기	한글 표기
49551	Torres (Casanova), Sandra	토레스 (카사노바), 산드라
49550	Kirch, Leo	키르히, 레오
49549	Chavez (Frias), Adán	차베스 (프리아스), 아단
49548	朱民(Zhu Min)	주민
49547	Swayze, Patrick (Wayne)	스웨이즈, 패트릭 (웨인)
49546	Sandberg, Sheryl	샌드버그, 셰릴
49545	Mujawar, rAli Muhammad (통용 로마자: Mujawar, Ali Muhammad) 아랍 어형: مكي محمد	무자와르, 알리 무함마드
49544	Murray, Douglas	머리, 다글러스
49543	Murdoch, James (Rupert Jacob)	머독, 제임스 (루퍼트 <제이컵>)
49542	Niemi, Lisa	니에미, 리사

2 로마자 표기법

최화면 > 찾기마당 > 어휘, 용어정보 > 로마자 표기법

번호	무관말	로마자 표기
12003	가경동	Gagyeong-dong(O) Kagyeong-dong(O) Gakyyeong-dong(O) Kagyŏng-dong(O)
12002	가게 해수욕장	Gagye beach(O) Kagye beach(O)
12001	가게	Gagye(O) Kakyŏ(O) Kagye(O)
12000	가곡	gagok(O) Gagok(O) kagok(O) kakok(O) kakok(O)
12799	가곡동	Gagok-dong(O) Kagok-dong(O) Gakok-dong(O) Kakok-dong(O)
12798	가곡면	Gagok-myeon(O) Kagok-myeon(O) Gakok-myeon(O) Kakok-myeon(O)
12797	가곡비	Gagyobi(O) Gakyobi(O) Kagyobi(O) Kakyobi(O)
12796	가금면	Gageum-myeon(O) Kageum-myeon(O) Gakeum-myeon(O) Kagŭm-myeon(O)
12795	가나안	Ganaan(O), Kanaan(O)
12794	가남면	Ganam-myeon(O) Kanam-myeon(O) Kanim-myeon(O)

3.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이란 어문 규범이나 어법, 국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곳이다. 가령 ‘가십시오’가 맞는지 ‘가십시요’가 맞는지 궁금할 때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에 질문을 남기면 다음날까지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다. 화면 윗부분에 있는 검색 칸에서 ‘질문 제목’이나 ‘질문 내용’을 설정한 후에 ‘가십시오’나 ‘가십시요’를 넣고 검색하면 ‘가십시오/가십시요’와 관련이 있는 질문들이 검색된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 답인지 알 수 있다.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첫화면 > 질문응답 >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온라인 가나다)

이곳은 주로 규범이나 어법,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 등에 대하여 문의하는 곳입니다.
간단한 사항은 가나다 전화 1599-9979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 두 단어 조합 검색 방법 : 단어와 단어 사이에 AND 를 삽입(예 : 가 AND 나),

2008년 12월 31일 이전 자료 보기 질문내용 가십시오 찾기 전체 옛 한글 사용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	바른표기	박가영	2010.02.08.	17
	※댓글 가십시오, 오십시오	온라인가나다	2010.02.09.	17
3	문의드립니다.	박희숙	2008.12.26.	19
	※댓글 -십시오 (맞출법)	이수연	2008.12.29.	19
2	안녕하 가십시오/시요	이강길	2008.02.25.	116
	※댓글 -십시오 (맞출법)	임현열	2008.02.26.	116
1	종결할어미에 ~요' 사용을 허용합니까?	동미균	2007.12.20.	187
	※댓글 안녕하 가십시오. (맞출법)	국립국어원	2007.12.21.	187

<< 처음 < 이전 > 다음 > 끝 >>

글쓰기

답변 제목: 가십시오, 오십시오

작성자 온라인가나다

답변일자 2010.02.09.

안녕하십니까?

정중한 명칭이나 권유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는 ~십시오~이므로, '가다, 오다'의 여간 '가-, 오-' 뒤에 '~십시오'를 붙여 '가십시오./오십시오.'와 같이 적습니다. 종결 어미 '~세요'는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으로, 청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대방에게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질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안 남기고 직접 전화를 해도 된다. 국립국어원은 ‘가나다 전화(1599-9979)’라는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가나다 전화로 전화해서 국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 보면 상담원이 바로 답을 알려 준다.

그리고 ‘온라인 국어생활종합상담’에 들어오는 질문 중 자주 나오는 질문 300여 개를 모아 ‘자주 나오는 질문’에 정리해 놓았다. ‘자주 나오는 질문’에는 ‘로서’와 ‘로써’의 차이, ‘들러서/들러서’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있음/있슴’ 중 어느 것이 맞는지부터 부고하는 요령이나 단자 쓰는 법, 세배 인사법 등 국어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제시되어 있다.

자주 나오는 질문

첫화면 > 질문응답 > 자주 나오는 질문

공공화신 단어를 검색하여 입력하신 단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리집 이용에 관련한 내용은 누리집 이용 안내 를 이용해 주세요

번호	원부	제목	작성일	조회
9		'로서'와 '로써'의 차이	2000.05.31.	14371
8		'연구 집에 불려서/불러서'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31.	10682
7		'고마워요'와 '고마와요'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29.	12840
6		'있음'과 '있슴'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29.	15871
5		'문책'이 잘못된 말입니까?	2000.05.29.	12953
4		'끼어들기'와 '끼어들거' 중 맞는 표기는?	2000.05.29.	14443
3		슈퍼맨은 '날으는' 것입니까, '나는' 것입니까?	2000.05.29.	13658
2		'내'와 '해'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0.05.29.	15889
1		'너대'와 '넌대'는 어떻게 다릅니까?	2000.05.29.	24738

< 처음 < 이전 > 41 > 42 > 43 > 다음 > 끝 >>

자주 나오는 질문

첫화면 > 질문응답 > 자주 나오는 질문

공공화신 단어를 검색하여 입력하신 단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리집 이용에 관련한 내용은 누리집 이용 안내 를 이용해 주세요

번호	원부	제목	작성일	조회
429		부고하는 요령	2008.01.21.	6653
428		편지 봉투 쓰는 법 ④	2008.01.21.	4798
427		삼순 잔치의 속어로 공룡봉투와 단자	2008.01.21.	2542
426		조퇴금 봉투와 단자	2008.01.21.	3073
425		편지 봉투 쓰는 법 ③	2008.01.21.	2480
424		편지 봉투 쓰는 법 ②	2008.01.21.	3361
423		물과 커피를 따 인사할	2008.01.21.	5908
422		장년 퇴임 때 인사할	2008.01.21.	3189
421		병문안 갔을 때 인사할	2008.01.21.	4481
420		묵은세배	2008.01.21.	2604

< 처음 < 이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 끝 >>



4. 공공 언어 지원

4.1. 순화어와 ‘우리말 다듬기’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나 비규범적인 말, 외래어 따위를 알기 쉽고 규범적인 상태로 또는 고유어로 바꾸어 쓰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를 ‘순화어’라고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러한 순화어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첫 화면의 ‘찾기 마당’을 누른 후에 ‘어휘·용어 정보’에 ‘순화어’로 들어오면 된다.

순화어 자료 역시 검색이 가능하다. 가령 순화 대상으로 ‘나시’를 찾으려면 ‘나시, 소데나시, 에리나시’ 등이 검색된다. ‘나시’에 들어가면 ‘×’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순화한 용어만 쓸 것’이라고 되어 있다. 즉 ‘나시’, ‘소데나시’를 쓰지 말고 ‘민소매’를 써야 한다.

3 순화어

첫화면 > 찾기마당 > 어휘·용어정보 > 순화어

1991년 순화자료집(1977~1991 종합)부터 2002년 순화자료집까지 21,000여 개의 순화어를 종합한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2003년)**과 2005년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해 순화한 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순화대상어: 나시

찾기 연제 권장 순화어 보기 규정보기

번호	순화 대상어	원어	순화어	권장
4	나시	← そでなし服..	민소매	
3	소데나시	袖なし, そでなし..	민소매(笑)	
2	에리나시	襟なし	민깃	
1	에리나시	襟なし, えりなし服..	민깃	

<< 이전 < 이전 다음 >>

나시

순 화 어: 민소매

원 어: ← そでなし服

순 화 정 도: × : 순화한 용어만 쓸 것

의 미/용례: 패션 디자인

비 고: 국언1999(고시)

순화어에는 ‘나시’처럼 순화한 용어만 쓰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순화한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는 것과 둘 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다.

가드

순 화 어: 수비수

원 어: guard

순 화 정 도: → :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를 쓸 것

의 미/용례: 운동경기(핸드볼)

비 고: 국언2001

가세

순 화 어: 집안 형편

원 어: 家勢

순 화 정 도: ○ : 순화 대상 용어와 순화한 용어를 모두 쓸 수 있음

의 미/용례: 행정

비 고: 국언1992

최근 인터넷에 오르는 글이나 신문 기사를 보면 외래어가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모럴 해저드, 풀 옵션, 시스루, 플래시몹’ 등등 일일이 언급하기도 어렵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16	별 모델(role model)은 '별모양'으로	우리말	2011.07.05	140	5
315	'포커페이스(poker face)'는 '무표정'으로 (17)	우리말	2011.06.21	346	6
314	'바리스타(barista)'는 '커피전문가'로 (29)	우리말	2011.06.07	557	12
313	'오버페이스(over pace)'(82)는 '무리(82)'로 (28)	우리말	2011.05.24	695	26
312	'출발(all start)'은 '착출'로 (116)	우리말	2011.05.10	1828	93
311	'인보트(slow shot)'은 '사탕건'으로 (42)	우리말	2011.04.26	1418	15
310	'치킨게임(chicken game)'은 '물장승'으로 (3)	우리말	2011.04.12	1407	10
309	'허크드라이브(secu-drive)'는 '천천공공전'으로 (1)	우리말	2011.03.29	996	50
308	'레퍼스(LHAP)'는 '현관공공'로 (4)	우리말	2011.03.15	938	4
307	'인우 코드(Quick Response Code)'는 '정보부'로 (3)	우리말	2011.03.01	1238	5
306	'일용승려대(working holiday)'는 '관광취업'으로 (1)	우리말	2011.02.15	844	2
305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는 '착취소비자'로 (1)	우리말	2011.02.01	942	3
304	'런칭쇼(launching show)'는 '신제품 발표회'로 (1)	우리말	2011.01.18	899	5
303	'스키니진(skinny jeans)'은 '합시합바지'로 (10)	우리말	2011.01.04	1700	7
302	'P(L)Private Label'상품은 '가짜기회상품'으로 (3)	우리말	2010.12.21	924	4
301	'와이파이(Wi-Fi)'는 '무선랜'으로 (5)	우리말	2010.12.08	1819	10
300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는 '공동구매'로 (3)	우리말	2010.11.23	1337	10
299	'타운하우스(town house)'는 '공동주택'으로 (3)	우리말	2010.11.09	1181	9
298	'멀티탭(multi-tap)'은 '모뎀'으로 (7)	우리말	2010.10.27	1719	18
297	'슬로시티(slow city)'는 '합성도시'로 (4)	우리말	2010.10.12	1336	12
296	'선루트(sunroof)'는 '지붕'으로 (9)	우리말	2010.09.28	1624	12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에서는 어려운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일과 바꾼 단어를 알리는 일을 한다. 이곳에서는 다듬고 싶은 말을 건의할 수도 있고, 바꿀 단어를 제안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듬을 말을 정할 때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4.2. 공공 언어 지원 요청

국립국어원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책 용어와 문장을 쓸 수 있도록 ‘공공 언어 지원’이라는 누리집을 만들었다. 이 누리집에서 ‘공공 언어 지원’을 요청하면 각 기관에서 다듬고 싶은 말이나 문장을 다듬어 준다.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www.korean.go.kr/publang)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질의응답’ 아래에 있으며, 첫 화면 오른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공공언어 지원을 받고 싶으면 ‘공공 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에 들어와 요청 신청을 작성하면 된다. 이 공공 언어 지원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지원 요청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지 실명 확인을 한다.

실명 확인을 한 후에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가 ‘날말’인지 ‘문장’인지 선택하면 된다. 행정 용어나 정책 용어 순화를 원하면 화면의 요청 서식을 내려 받아 서식대로 작성하면 되고, 문장의 교열이나 교정을 받고자 하면 작성한 문장을 파일로 올리면 된다.

공공언어 지원

1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

>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

이제 요청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공언어를 다듬고자 할 때 작성합니다.
행정 용어나 정책 용어 순화 등 공공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이제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예시] [포맷팅 요청 서식(내려받기)]을 내려받아서 작성하고, 이제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내용이 단어가 아니고,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아래 파일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 전에 확인해 보아 드리겠습니다.

요청 서식(내려받기)

개인 연동 ☒ 실명확인 ☐ 공공 I-PIN ☐ [확인]

작성자 ※ 개인 연동 확인 후 작성자는 자동 입력 됩니다.

소속

전자우편 [이메일 직접입력]

전화번호

공통업무 ☒ 공개 ☐ 비공개

제목

분류 ☒ 날말 ☐ 문장 ☐ 그 밖

공공언어 지원

2 지원 요청 현황

> 지원 요청 현황

[전체] [날말] [문장]

번호	제목	분류	작성자	신청일	상태	조율
142	조금 시한구에 거꾸로 쓴 글씨 [비공개]	문장	박민정	2011-07-15	완료	0
141	조선왕조실록 발췌문자서 원에서 표기에 대한 질문 요청	날말	조용영	2011-07-15	접수	0
140	조선고서와 관련된 사용 용어 작성대부 검토요청 [비공개]	날말	김숙영	2011-07-15	완료	0
139	한글날부터 한글화위원회 명칭 통일화 변경 및 [비공개]	날말	김수영	2011-07-15	완료	0
138	"정통"을 세도 되는 건지 [비공개]	날말	김민정	2011-07-15	완료	0
137	말뭉치분석을 위한 실용체본 검토요청	문장	대성원	2011-07-11	완료	3
136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요청	그 밖	김준숙	2011-07-07	완료	15
135	간사형 표본 검토 요청 [비공개]	그 밖	김희정	2011-07-06	완료	0
134	조각기를 전시 위한 내용 검토 [비공개]	문장	김희정	2011-07-06	완료	0
133	통계청 표기용어 간에 혼동될 수 있는 용어 정리	그 밖	박광대	2011-07-05	완료	0

11-12-13-14-15-16-17-18-19-20 다음 > 끝 >

5. 온라인 강의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는 어문 규정을 직접 볼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다. ‘배움 마당’의 ‘온라인 강의’로 들어오면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한글 맞춤법’ 과목은 말 그대로 어문 규정 중 ‘한글 맞춤법’ 규정을 알려 주는 강의이다. 어문 규정 조항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궁금했던 예들로 수업을 진행해 한글 맞춤법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온라인 강의

> 배움 마당 > 국어문화 학교 > 온라인 강의

제목검색

번호	제목	작성일
4	공문서 바로 쓰기	2010-06-21
3	외국어·오·남용 방지를 위한 외·내·국·어·순화	2010-06-21
2	새터민 발음 교육	2010-01-31
1	한글 맞춤법	2009-1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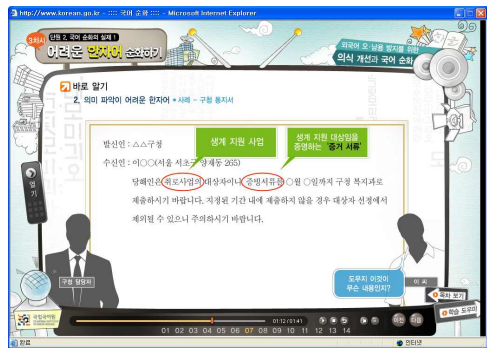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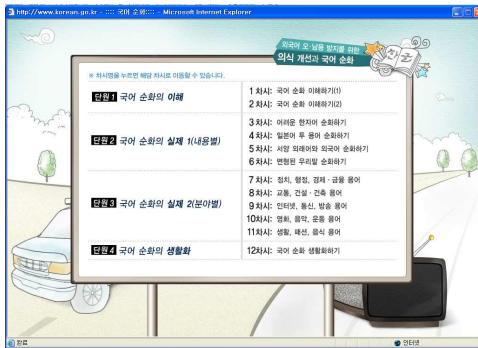
<< 처음 < 이전 > 다음 > 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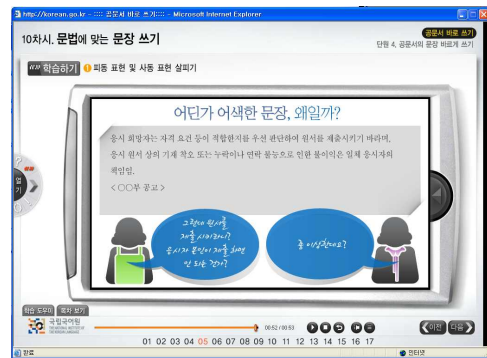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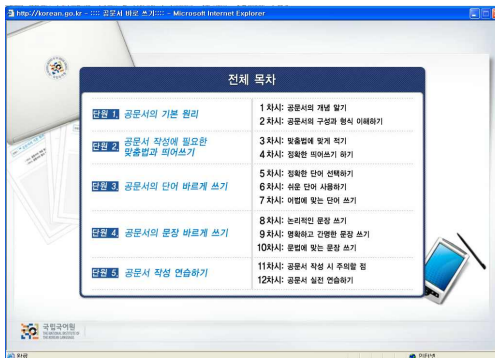
‘새터민 발음 교육’은 새터민을 위한 온라인 강의이다. 새터민의 발음과 억양은 남한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다. 이것을 고치고 싶어 하는 새터민을 위해 다른 발음이나 억양을 중심으로 발음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음을 녹음해서 들어 볼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외국어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의식 개선과 국어 순화’ 강의는 국어 순화와 관련된 강의이다. 국어 순화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 주고,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행정 용어 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도 함께 공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문서 바로 쓰기’는 공문서를 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이다. 공문서를 쓸 때 필요한 어문 규정이나 문장 바르게 쓰는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다. 실제 예를 들어 잘못된 곳을 찾고 고쳐 보기도 한다.



6. 디지털 박물관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 자료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있다. 한글문화의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역사관은 한글(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한글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보여 준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의 문자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 주며, 세계 여러 문자의 역사도 소개한다.

조형 예술관은 글자의 모양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한글의 자형의 변



천 과정과 한글 글꼴 개발의 역사를 설명하고, 다양한 글꼴을 보여 준다. 그리고 글꼴 개발 산업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학술 정보관은 한글 관련 문헌들을 정리한 곳이다. 한글 관련 문헌을 정리하여 원문을 이미지로 제공하고 문헌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았다. 그리고 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한글문헌통합정보’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 문예관은 한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어문 규범과 국어 교육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곳이다. 어문 규정뿐만 아니라 국어 교과서, 국어 관련 교육 자료도 제공된다.

미래관은 한글의 모습과 사용 양상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여 준다. 한글의 세계화와 기계화, 국어 정보화 사업을 소개한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어문 규정을 소개하고 남북한 언어도 비교해 놓았다.

한글 생활관은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을 주제로 한 한글 관련 문헌을 전시한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한글 문헌과 사회상을 반영한 한글 문헌을 소개한다.





7.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를 국외에 보급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자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원 관리에도 힘쓰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 ‘배움 마당’의 ‘한국어 교육’에 들어오면 다양한 한국어 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기본 교재’, ‘이주민을 위한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로 나뉜다. 한국어 교사이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건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이면 모두 교재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주민을 위한 교재
한국어 기본 교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마디

1. 대성공준비단 자료 활용하는 한국어 1-4

▶ 대성공준비단자가 한국어 학습을 통해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 주안점: 주안점, 가족과 세 명의 대성공준비단자, 사회적 주요인물로 등장하며,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와 상황을 사용하며 구성

 한국어 기본 교재 활용하는 한국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교재 전자책 보기 • 원문 자료(99%) 내려받기 (95%)
 한국어 기본 교재 활용하는 한국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교재 전자책 보기 • 원문 자료(99%) 내려받기 (93%)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면 ‘한국어세계화재단(www.glokorean.org)’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세계화재단’은 한국어를 세계에 보급하는 일과 한국어 교육 사업을 운영하며, 한국어 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을 지원하는 일 외에 온라인으로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8. 국립국어원 자료실

국립국어원 자료실에서는 국립국어원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 간행된 연구 보고서뿐만 아니라 심의 결과나 우리말 순화 내용 등을 모두 제공한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에서 발간되는 정기 간행물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계간지인 ‘새국어생활’과 온라인 소식지인 ‘쉽표, 마침표’는 누리집에 공개될 뿐만 아니라 신청하면 전자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편집: 정호성(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장)

김종환(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행정사무관)

집필: <목차 순>

한글 맞춤법: 유하라(국립국어원 전문위원)

한글 맞춤법 연습: 유하라(국립국어원 전문위원)

띄어쓰기: 유하라(국립국어원 전문위원)

띄어쓰기 연습: 권미영(전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의 교수)

표준어 규정: 박종덕(국립국어원 전문위원)

표준 발음법: 최혜원(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박종덕(국립국어원 전문위원)

외래어 표기법: 박종덕(국립국어원 전문위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유하라(국립국어원 전문위원)

우리말 다듬기: 김형배(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공문서 바로 쓰기: 김문오(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박종덕(국립국어원 전문위원)

생활 글쓰기: 이가령(경희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훈민정음에 대한 이해: 한재영(한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협력적 의사소통: 구현정(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국어 정보 활용 방법: 유하라(국립국어원 전문위원)

국립국어원 2011-03-08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 국어전문교육과정 교재 -

2011년 10월 6일 인쇄

2011년 10월 7일 발행

발행인: 권 재 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방화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3
